민족건축의 나날에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민주건국의 나날에

허 정 숙

조선로동당출판사
1 9 8 6

1947년 1월 1일

머 리 말

우리 인민이 민족사적대사변인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고 무한한 감격과 기쁨 속에 새 조선 건설의 힘찬 마치소리를 울리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 어언 40여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해와 달이 아무리 바뀌고 시일이 오래 지났어도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민주건국의 초행길을 걸어오던 그 뜻깊은 력사의 나날을 어제이런듯 돌이켜보게 된다.

이국땅에서 해방의 소식에 접하여 뒤미처 조국에 돌아온 나는 민주와 반민주사이의 첨예한 대결, 어려운 경제형편, 분분한 각종 《주의 주장》에 부딪쳐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당, 전국, 전군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 전반을 이끄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나를 사상전선의 영광스러운 대오에 세워주시고 첫걸음부터 하나하나 손잡아이끌어주시여 자기 사업을 편향없이 밀고나갈수 있게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이 과정에 나는 사회경제적변혁, 민족의 대단합과 공화국의 창건, 전쟁과 복구건설을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서 언제나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시여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헤치고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리론, 탁월한 조직적수완, 비범한 담력과 령도력,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심장으로 깊이 느끼

였다.

나는 이 책에서 사상선전, 문화선전 사업을 몸소 이끄시며 무궁무진한 인민대중의 힘을 남김없이 동원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일하면서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사적자료를 정리하여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썼다.

그러나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새 조선 건설에 대한 위대한 령도에 비해볼 때, 사상사업을 곧바로 이끄시기 위한 그이의 심혈어린 정력적인 활동에 비해볼 때 천분의 1, 만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한것이라고 자책한다.

나는 미숙한 이 글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탁월한 사상리론, 위대한 령도방법을 따라배우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이상 기쁜 일이 없을것으로 생각한다.

1986년 10월

허 정 숙

차 례

제1장 새 조선 건설을 위한 선전사업의 앞길을 밝히시여……………………………(1)

1

영광넘치는 첫 접견석상에서………………(1)

2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받아안고…………(7)
친히 편지를 보내시여……………………………(12)
당내투쟁의 기본을 가르쳐주시며…………(21)

3

신년사를 발표하시여……………………………(27)
집중적인 정치선전공세로……………………(33)

제2장 정치사업을 혁명력량의 단합에로…………(41)

1

혁명전통선전을 바르하도록……………………(41)

저택에서 주신 귀중한 교시……………………(50)

몸소 론문을 집필하시여 ……………………(56)

대중단체를 당의 두리에……………………(63)

2

권위있는 당기와 당마크를 통하여…………(69)

혁명이 요구하는 옳은 투쟁구호를………(79)

단결의 힘을 반영한 선전화………………(84)

3

3.1인민봉기기념행사를 계기로……………(90)

민족《대동단결》의 반동성을
폭로하라시며 ………………………………(98)

려운형에 대한 추모회와 함께………………(109)

제3장 새 제도, 새생활 창조에로 불러
일으키시여 ……………………………………(120)

1

토지개혁에로 이끈 련속선전공세…………(120)

밤새워 만들어주신 해설자료………………(131)

보통강개수공사를 평양시민의 힘으로……(140)
모든 힘을 선거선전에로……………………(149)

2

첫 인민경제계획에 대한 선전을……………(162)
재령, 정주에 띄우신 감사편지……………(174)
표어 《우리 나라 돈이 나왔다!》……………(180)
외국기자와의 사업을 잘하도록……………(189)

제4장 남북련석회의때 있은 이야기………………(204)

4월련석회의전야에……………………………(204)
《우리의 현실이 좋은 교양자료입니다》……(216)
격문의 구절구절마다에………………………(230)
남조선기자들의 매혹, 경탄…………………(237)

제5장 헌법, 국호, 국기, 국장, 국가를
우리 식으로…………………………………(251)

1

헌법초안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이시여……(251)

2

《아흡자타령》을 분쇄하시며……………………(261)

손수 국기도안까지 그려보시고……………(268)

용광로 대신 형상된 수력발전소……………(274)

가사로부터 곡에 이르기까지………………(282)

제6장 선전사업을 급변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292)

1

《해방지구에 나가서 선전사업을
해야 합니다》 ……………………………(292)

별오리에서 내보내신 조국전선호소문……(301)

웅장한 지하극장을 건설하시여……………(310)

2

정전된 그 밤에………………………………(317)

3,000대의 라지오……………………………(325)

외국출판물리용을 혁명의
리익에 맞게…………………………………(332)

제7장 새형의 출판보도물 건설을 위하여…………(338)

1

《당문헌을 내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338)

《정로》는 우리 당 정책의 옹호자, 선전자…(345)

《〈근로자〉는 우리 당의 사상리론을
들고나가야 합니다》…………………………(351)

《민주조선》에 축하문을 보내주시며………(358)

2

보도선전에서 모방주의편향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365)

《이런 영웅담을 많이 내야 합니다》………(371)

대외선전의 방향을 밝히시여………………(377)

3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말로……………(384)

표지장정 하나하나에도……………………(390)

좋은 글을 쓰는 비결………………………(396)

출판물의 발행질서를 세워주시며…………(402)

제8장 참다운 민족문화예술의 터전을
닦으시려고 ……………………………………(412)

1

우리 영화의 첫걸음…………………………(412)
문예창작의 혁명적원리를
일깨워주시며 ………………………………(424)
대영화촬영기지의 첫 력사를 더듬어………(434)
빛을 뿌리게 된 장편서사시 《백두산》………(445)

2

민족가극을 새로운 길로……………………(460)
참된 교예가 태여나던 나날에………………(468)
《조선화가 기본입니다》………………………(476)
현대적인 민족악기로 개량되기까지………(484)

3

중앙무대에 오른 로동자예술
소조공연 ……………………………………(491)
군중문화예술사업의 거점
을 마련하시여………………………………(495)
농민들에게 노래와 춤을 주시려고…………(505)

제1장 새 조선 건설을 위한 선전사업의 앞길을 밝히시여

1

영광넘치는 첫 접견석상에서

1945년 12월초의 어느날이였다. 10년만에 조국에 돌아온 나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을 받게 되였다. 그것은 오매에도 그리던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기쁜 소식이였다.

나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오르고 설레이기만 하였다. 엄연한 현실임에도 꿈같이 생각되였다.

우리는 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청사 2층복도에 올라섰다.

젊은분이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복도와 마주치는 문앞에서 기다리고계시였다. 안내하던 일군이 저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시라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려고 걸음을 재우

쳤다.

《오시기 수고들했습니다.…정말 반갑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주 걸어오시여 우리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험산준령을 넘고 무변광야를 종횡으로 달리시며 100만 일본관동군의 간담을 서늘케 한 천하의 명장, 청년장군의 기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겸허하시고 소탈하신 품성에 나는 감복을 금할수 없었다.

《자, 어서 방에 들어갑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방으로 이끄시였다. 방도 역시 생각과는 달리 소박하게 꾸려져있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권하시는 자리에 앉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나이며 생활경위를 물으시였다.

이윽고 내차례가 되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생활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렸다.

내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알게 된것은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던 아버지의 슬하에서 곱많은 시절을 보내던 1920년대말이였다.

그시기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감금되였다가 출옥한 김책동지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의 진두에 나서시여 그들을 조선독립 위업성취에로 이끌고계시는데 조선의 미래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달려있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독립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조선혁명의 진두에 진정한 령도자가 나서시였다는 소식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크고작은 반일항쟁의 대오에 나서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차례진것은 욕고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비록 녀성의 몸이기는 하나 총을 메고 반일투쟁대오에 참가할것을 결심하고 1936년 11월에 아버지와 리별한후 낯설은 이국땅에 들어섰다.

무장을 들고 근 10년을 원쑤들과 싸우는 보람을 느끼면서도 늘 마음속으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그리였다. 더우기 신문지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희한한 전투성과소식을 접할 때마다 수령님의 품으로 달려가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조국에서 만났으니 그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데 있습니까.》

몇마디 안되는 말씀이였으나 아버지의 슬하에서 세상풍파란 무엇인지 딱히 모르고 자라난 어제날의 녀학생이 중년이 다되도록 낯선 이국땅에서 몸부림치며 보낸 속마음까지 깊이깊이 헤아리시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말씀에 나는 목이 메여 더 다른 말씀을 올릴수가 없었다.

나는 오랜 세월 마음속깊이 소중히 간직한 인사만은 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장군님, 설한풍 휘몰아치는 백두산에서 원쑤들을 족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라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전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수난의 시기였으니 누구인들 편안한 사람이 있었겠는가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산에서 유격투쟁을 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 조종의 산인 백두산에서 조국땅을 넘나들며 싸웠고 조국인민들의 지지성원속에서 싸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고생스러웠어도 힘든줄을 몰랐고 실망을 몰랐습니다.

조국땅은 그처럼 귀중하고 조국인민들은 그처럼 다정하고 힘있는것입니다.

그런데 동무는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었으니 조국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마디마디 가슴을 치는 말씀에 나는 그만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조국으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퍽 기뻐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연약한 녀자의 몸으로 10년 세월이나 이국땅에서 싸운것은 정말 장한 일이라고 치하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나는 과분한 치하를 받은것이 송구스러워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에서는 더 많은 녀성들이 싸웠는데 내가 무슨 장한 일을 하였겠는가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전히 웃으시며 앞으로 일을 잘해보자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동무의 이야기를 들으시였다.

그러다나니 얼마간 시간이 흘렀는데 그사이에도 장군님의 결론을 기다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그때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귀한 손님을 앉혀놓고 제일을 해서 안되였다고 하시며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즉시즉시 결론을 주시였다.

많은 농민들이 달구지에 성출미를 싣고 시주변까지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그것은 그러지않아도 긴장한 식량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하여 량곡성출운동을 방해하려는 반동들의 작간에 의한것이니 보안국

장이 빨리 나가서 대책을 취하라고 지시를 주시는가 하면 민주당 하부조직결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우리 공산당이 민주당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보아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우리와 함께 통일전선을 하여야 할 정당이다, 다른 민주주의정당들을 억제하고 공산당만으로 새 조국건설을 하려는것은 극히 위험한 좌경적경향이다, 우리는 우당들의 활동을 덮어놓고 억제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동분자들에게 롱락되지 않고 건전한 활동을 벌려 새 민주조선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한 일군이 신의주학생사건에 관계한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고 문의한데 대하여서는 관계자들을 엄격히 처리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질반동들의 음모가 숨어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자들은 미국놈들을 구세주처럼 믿으며 그 앞잡이인 남조선반동들과 련계를 가지고 파괴암해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그러니 악질반동부터 쳐야 한다고 단호한 결론을 내리시였다.

나는 제기된 매 문제들을 즉석에서 가장 명철하게 처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단호한 결심과 놀라운 예지에 참으로 감복을 금치 못했다.

사실 량곡성출운동을 반대하는 문제라든지, 민주당의 하부조직결성문제라든지, 신의주학생사건에 관계한 학생들의 처리문제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신의주학생사건만 하여도 대단히 결론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당시 나는 평양으로 오는 도중 신의주에 얼마간 머물러 있었던 관계로 신의주학생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있

였다.

이 학생사건에는 신의주의 적지 않은 학생들이 관계했는데 그들은 공산당 도당부와 도인민위원회를 습격하는 란동을 부렸다. 사태는 엄중했다. 나의 좁은 견해로는 그때 란동을 부린 학생들을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조종한 주동분자들의 죄행을 볼 생각은 더욱 못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즉석에서 이 사건을 조작한 주동분자들의 죄행을 밝히시고 란동에 피동적으로 관계한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공정하면서도 관대하게 처리하심으로써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중을 전취할수 있게 하시는 것이였다.

하기에 나는 여기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야말로 예리한 통찰력과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신분이시라는것을 가슴깊이 느끼였다.

제기된 문제들을 그자리에서 처리하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둘러보시며 한사람한사람의 희망도 물으시고 앞으로 일할 직책도 찍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뜻밖에도 나에게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에 있으면서 형편을 료해도 하고 제기되는 일들도 맡아해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해방이 갓 되고보니 할 일이 많은데 잘 도와달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이것은 실로 너무도 큰 믿음이였다.

사실 투쟁경험으로 보나 단련정도로 보나 준비정도로 보나 나보다도 준비된 일군들이 수없이 많았다. 더우기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에서 15성상 함께 싸워온 준비된 일군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지방이나 어려운 부문에 파견하시고 준비되지 못한 나를 자신이 사업하시는 중앙조직위원회에

서 일하자고 하시니 정말 그 크나큰 도량과 포용력을 무엇이라 표현할수 없었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해보겠다고 굳은 맹세의 말씀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일을 잘해보자고 하시며 문밖에까지 나오시여 바래주시였다.

조국의 품에 안긴 나에게는 그때부터 새생활의 길이 열리였다.

2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받아안고

오매에도 그리던 민족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여 그이의 첫 접견을 받고 숙소로 돌아온 나의 마음은 끝없이 설레이였다.

오래동안 얼마나 애타게 뵙고싶고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던가.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던 꿈이 현실로 되였으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들의 기쁨이 아무리 크다 한들 나의 기쁨, 나의 행복에 비길바가 아니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새 조선 건설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생각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일에 달라붙고싶었다.

그러나 벅찬 감격으로 하여 줄곧 흥분에 휩싸여있던 나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본때있게 일해

보려는 마음만이 앞설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때 정계의 이른바 《이름있는 인물》들을 만나는 기회때마다 주권건설문제며 혁명력량편성문제, 혁명의 단계문제들에 대하여 문의하여보았다. 그런데 그들의 《주의주장》은 제각기 달랐다. 어떤자들은 《쏘베트》요, 《프로레타리아독재》요 하면서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들까지 타도해야 한다고 목에 피대를 세우고 고아댔다. 또 다른자들은 《대동단결》이라는 미명밑에 조선사람이라면 친일친미파이건 민족반역자이건 누구나 다 한데 뭉쳐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식민주주의》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는 더 복잡해지기만 하였다.

그럴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모대기던 끝에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올 때 알게된 한 일군을 찾아가 새 조선이 나아갈 길과 관련하여 론의가 분분한데 학습할수 있는 신문이나 책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나에게 당보를 몇장 찾아주면서 학습할 책을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려 해결해주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런 일까지 어떻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음쓰시게 하겠는가, 내가 자체로 구하겠으니 절대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고는 돌아왔다.

그런데 그 다음다음날 나는 김책동지의 부름을 받았다.

김책동지는 오늘은 기쁜 일이 생겨 동무를 만나자고 했다고 하면서 나에게 책 한권을 내놓았다. 그는 이 책은 우리 당이 창건된후 처음으로 출판한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인데 장군님께서 지난 10월 13일날 각 도당책임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이 수록되여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동무를 찾으시려다가 예견치 않았던 긴급한 일들이 제기되여 만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요새 동무가 나라의 형편과 우리앞에 나선 과업을 연구학습할 자료를 얻지 못해 애로를 느끼고있는것 같은데 이 책을 곧 전해주라고 말씀하시였다고 하는것이였다.

평범한 전사의 안타까운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헤아리시고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마운 은정에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로작을 받아안았다.

로작 겉뚜껑에는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라고 씌여있었다.

기신사에서 인쇄하여 1945년 10월 23일 인민출판사(오늘의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발행한 귀중한 로작이였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 로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창립대회보고를 준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 한편으로 그 집필을 다그치시여 완성하시고 당창립대회가 끝난 날 밤 연설하신것이였는데 참가자들의 일치한 요구를 헤아리시여 그이께서 그것을 단행본으로 출판하도록 허락하시였던것이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이 력사적인 로작을 편찬발행할데 대한 과업을 받은 인민출판사에서는 인쇄문제를 어떻게 풀겠는가 고심하고있었다. 출판사창립을 위한 준비사업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때여서 재정토대도 물질적준비도 없었다.

이때 개인기업으로 기신사를 운영하고있던 사람이 자기도 10월 14일 모란봉의 공설운동장(오늘의 김일성경기장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개선연설을 듣고 우리와 같은 기업가들도 새 조국 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고 커다란 흥분과 감격을 금치 못했다고 하면서 장군님의 로작을 해방후 처음으로 인쇄하는 영광을 자기 인쇄소가 지닐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왔다.

이리하여 그 어렵던 시기에 3,000부의 로작이 짧은 시일안에 인쇄되여 10월 23일에 발행되였던것이였다.

로작을 받아안고 숙소로 돌아온 나는 로작의 첫페지를 펼치였다.

로작의 글줄마다에는 내가 그렇게 애타게 알고싶던 심오한 사상과 내용들이 담겨져있었다. 나는 끝없는 흥분속에 로작의 장들을 번지며 읽어내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먼저 지난날 우리 나라는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이 심히 억제당하였으며 조선사회는 봉건적잔재를 다분히 가진 식민지사회로 남아있었다는것을 밝히시고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앞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할 과업이 나서고있으며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민주건국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서 통일전선형성문제를 제시하시였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과 농민뿐만아니라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이 참가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합니다.》

로작을 읽고있던 나의 눈앞에는 즉시 사회주의길로 나가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던자들, 부르죠아공화국을 세워야 한다고 감언리설을 늘어놓던자들,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들도 타도해야 한다고 하던놈들, 친일파이건 민족자본가이건 모두 단결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던놈들의 흉물스러운 몰골이 떠올랐다. 나는 비록 늦게나마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연구하면서 이 어중이떠중이들의 《주의주장》의 허황성과 본심을 알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다시금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식《민주주의》가 맞지 않으며 그러한《민주주의》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을뿐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것을 채용한다면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시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떨어지고말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는 조선실정에 맞는 진보적인 민주주의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에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되여있었다.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공산당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며 광범한 대중을 공산당의 주위에 집결하는 사업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매 공산당원들은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며 우당들과 성심성의로 합작하며 광범한 군중을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로작의 마지막장을 번지는 나의 눈앞에는 새 조선이 나아갈 길이 환히 안겨왔다.

나는 로작을 한번만이 아니라 읽고 또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로작에 담긴 심오한 사상과 내용에 심취되여 나의 마음은 더더욱 흥분되였다.

《진정 사상리론의 거장이시구나.…이처럼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구나!》

로작을 연구하고난 나의 가슴에는 이 신념이 드놀지 않게 자리잡는것이였다.

친히 편지를 보내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를 몸가까이 데리고계시면서 어엿한 녀성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당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에서 일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갓 입직한 나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에도 참가시켜주시고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결정 관철을 위한 평양시당 대표회의 지도성원의 한사람으로도 파견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평남도당대표자회를 지도하러 나가실 때에도 나를 이 회의에 참가하도록 친히 조치를 취하시였다.

나는 이 과정에서 해를 번져가며 료해해도 못다할 해방직후의 우리 나라 형편이며 당내형편, 종파분자들의 움직임과 반동들의 책동 등 실로 헤아릴수 없이 많은 문제들을 알게 되였으며 어렵고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천리혜안의 예지, 무비의 담력,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조직적수완으로 거침없이 처리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였다.

그러던 1945년 12월하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였다.

나의 인사를 받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하기가 힘들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나는 모르는것이 많아서 힘겹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떻게 첫술에 배부르겠는가고 하시면서 요새 동무의 얼굴색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것이였다.

나는 뜨거운것이 솟구치옵라 고개를 떨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르는것은 배우면 되지만 건강이 나쁘면 일을 못한다고 하시면서 부모도 남녘땅에 있어 따뜻이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각별히 건강에 류의해야 한다고 타일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아버지가 보고싶지 않습니까. 나도 선생을 만나고싶은데 이제는 늙으셨을것입니다. 한 륙십이 되였을터이니까.》

우리 아버지로 말하면 일제의 탄압과 박해속에서도 애국의 뜻과 민족의 절개를 지버릴수가 없어 량심적으로 살아오기는 하였으나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고는 별로 없는 평범한 조선의 인테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김책동지를 통하여 그리고 해방후 련계가 있는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인사들을 통하여 아시게 된 우리 아버지의 민족적량심을 귀중히 여기시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운 정을 금치 못해하시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목이 꽉 메여 아무 말씀도 못드리고 눈물로 볼을 적시였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다도 자신의 속마음까지 헤아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뜨겁고 고마와서였다.

이윽고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는가, 편지는 해보았는가고 하나하나 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지가 그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민족적 절개와 지조를 잘 지켜왔습니다. 선생은 우리 혁명을 위하여 귀중한 사람이며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할분입니다.

아버지에게 빨리 편지를 쓰시오.》라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에 감동되여 목메인

소리로 편지를 쓰겠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편지를 받으면 아버지도 무척 반가와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편지에 담을 내용까지도 일일이 말씀하여주시였다.

《남조선사태가 몹시 복잡하다는것과 미국놈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발광하고있기때문에 우리가 그놈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는것, 리승만역도가 미국놈의 철저한 앞잡이라는것을 잘 알려주는것이 좋겠습니다.

조성된 정세를 잘 분석해주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운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친미분자들과 반동분자들이 미국놈들을 등에 업고 량심적인 인사들을 저들의 편에 돌려세우려고 별의별 음모와 흉계를 다 꾸며내고있는 조건에서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하겠다는것을 써보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남조선에는 친일친미반동분자들이 모여들어 제각기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악랄하게 책동하기때문에 뭐가뭔지 분간하기 어려워도 딸의 말은 잘 믿을것이라고 하시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때로부터 날이 가고 해가 바뀌여 나는 서울역전 한모퉁이에서 눈물을 뿌리며 기약없이 헤여진 아버지와 참으로 뜻깊은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배려로 마침내 생활의 길을 따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아버지와 십여년만에 다시 만난 나의 감회는 참으로 깊었다.

우리는 지나온 나날의 눈물겹던 이야기도 나누고 해방후 행복한 새생활의 벅찬 이야기도 나누었다. 나의 이야기를 듣

고있던 아버지는 《네가 택한 길이 백번 옳았다.》고 하는것이였다. 아버지의 이 짤막한 말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있었다.

반일투쟁의 길에 나선것도 옳았지만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온것이 백번 옳았다는것이였다. 하기에 아버지는 뜨거운 격정에 목이 메여 더 말을 못하고 나의 얼굴만 쳐다보는것이였다.

딸을 앞에 놓고 눈물이 그렁해 앉아있는 아버지의 주름잡힌 얼굴을 쳐다보던 나는 아버지에게 내가 보낸 편지를 받아보았는가고 물어보았다.

잠시후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네 편지뿐아니라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편지까지 받았다.》고 하는것이였다.

《아니 김일성장군님께서요.…》 나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오냐, 글쎄 내가 뭐길래 장군님께서 몸소 편지를 보내주시구 이렇게 부녀지간의 상봉까지 마련해주신단 말이냐!》

시대의 사나운 풍랑속에서 신고를 겪을대로 겪은 아버지의 주름잡힌 얼굴에서는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잠시후 아버지는 나에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내용을 이야기해주는것이였다.

그 편지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5년 12월 20일 《허헌선생에게》라고 쓰시여 우리 아버지에게 보내신 편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에게 보내신 편지에서 민족적절개를 깨끗이 지킨데 대해서와 항일무장투쟁을 진심으로 동정하고 지지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고 해방된 우리 인민앞에는 휘황한 전망이 펼쳐져있으나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오늘 남조선에 조성되고있는 정세는 남조선의 모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로 하여금 정세발전추이를 바로 판단하고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로선을 따라 옳게 행동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남조선에 조성된 정세는 일제식민지통치때와 별반 다름이 없었다. 차이가 있다면 패망한 일제대신 미제가 새로운 강점자로 군림하게 된것이였다.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에 의하여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애국적인민들의 민주주의적활동이 심히 억제당하고있었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제놈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음흉하게 책동해온 미제는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더러운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제2차세계대전 마지막시기 미제는 대일작전에 참가한 조선인민혁명군과 쏘련군대가 빠른 속도로 일제침략군을 격멸하면서 진격하자 몹시 당황한 나머지 남조선만이라도 강점하기 위한 흉책을 고안해내였다.

원래 미제침략군 총사령부가 작성한 대일작전계획에 의하면 미제는 1945년말에 일본의 규슈에 상륙하고 다음해에 가서야 도꾜에 상륙할것을 예견하고있었다. 이렇게 하여 대일전이 종식되면 조선을 저절로 제놈들이 차지하게 되리라고 타산하였던것이다.

제놈들의 이러한 침략적군사행동계획이 파탄되는데 바빠맞은 미제는 쏘련과의 대일작전지역을 다시 확정하고 쏘련군대의 진격을 저지시킴으로써 일본본토에 쏘련군대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할뿐아니라 조선을 분렬시켜 강점하려는 새로운 음모를 꾸미였다.

1945년 8월 11일 당시 미국대통령이던 트루맨은 국무

성, 륙군성, 해군성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일본군대의 《무장해제계선》을 확정하게 한다는 구실밑에 조선의 절반이라도 차지할 음모를 조작하였다.

미제는 쏘련군대가 조선에 대한 상륙작전과 함께 중국동북에서 일제의 관동군을 격멸소탕하고있는것을 좋은 구실로 관동군의 작전관할지역이던 조선의 38도선 이북을 쏘련의 림시작전지역으로 하고 그 이남지역은 미군의 림시작전지역으로 할데 대한 이른바 《련합군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일제침략군을 격멸하는 치렬한 전투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총 한방 쏘지 않은 미제가 점령군으로 남조선에 발을 들이밀것을 목적한 교활한 음모였다.

이리하여 미제침략군은 그해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고 9월 9일에는 서울을, 그후에는 남조선전역을 강점하였으며 일제의 《총독부》간판을 《미군정청》 간판으로 바꾸어달고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그대로 답습하기 시작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남조선정세에 대처하여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면서 미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진보적인 로선을 따라 옳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에게 보내신 편지에서 계속하여 해방된 조선에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남조선인민들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반민주주의적인 온갖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모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은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선두에 서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편지에서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이 나라의 완전독립을 이룩하고 부강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자면 우선 옳은 건국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지 못한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사실 해방직후 남조선의 어떤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미국놈들에게 아부굴종하며 대중속에서 미제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고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편지에서 미국에 대하여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인사들과 인민대중 속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을 없애며 민족자주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옳은 건국립장을 가지는것과 함께 민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파벌싸움때문에 민주력량이 단결하지 못하고 분렬되여있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가슴아프게 지적하시고 파벌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며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인사들이 서로 단결하여나갈것을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편지에서 이와 함께 대중을 전취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이나 몇몇 애국적민주인사들의 힘만으로는 새 조국을 건설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며 민주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상세히 듣고나니 나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기에 꿈같이만 여겨지는 부녀지간의 이 상봉도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와 같은 거족적인 민족의 대회합도 마련될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아버지는 수많은 남조선혁명가들과 량심있는 민주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이 있었기에 구원될수 있었고 재생의 길을 걷게 되였다고 하면서 1947년 여름에 겪은 일을 옛이야기처럼 해주었다.

민주세력에 대한 야수적탄압을 강화하고 온 남조선땅을 테로와 학살의 도가니로 전변시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8.15해방 2주년을 앞두고 또다시 애국적인민들과 혁명가들에 대한 일대 폭압소동을 벌리였다.

놈들은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검거투옥하였다.

리승만괴뢰《단독정부》를 조작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제놈들의 흉악한 목적실현에 방해되는 일체 력량에 대한 반혁명적공세를 개시하였던것이다.

당시 나의 아버지도 체포령이 내리여 부득이 지하에 들어가 사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놈들은 이런 우리 아버지를 체포하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돌아갔으나 허탕을 치고말았다.

이런 때인 그해 8월말 악명높은 웨드마이어란놈이 트루맨의 특사로 서울로 날아들어왔다.

이놈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전문가로서 1944년부터 중국에 기여들어 이미 장개석군대 사령부의 참모장, 고문 등을 력임한바 있으며 20개 사단의 국민당군대를 미국식장비로

무장시켜 인민해방군과의 싸움에로 내몬 일이 있는 광신적인 반공분자이며 흉악한 전쟁방화자였다.

남조선의 민주세력을 말살한 미제우두머리의 특명을 띠고 온 웨드마이어는 하지란놈이 박헌영간첩도당을 낚구던 그 수법대로 지하에 들어간 남조선의 활동가들을 손아귀에 거머쥐려고 책동하였다.

이놈은 우리 아버지에게 신변안전은 담보할것이니 나와서 제놈과 만나 회담하자는 《담화》내용을 공개하였다.

어용출판물이 요란하게 웨드마이어의 《제의》를 선전하였다.

이때 제정신을 가지지 못한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이것이 지하에 들어간 활동가들을 일망타진하려는 놈들의 음흉한 회유기만술책이라는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동요하였다.

이때 아버지는 《검거된 모든 애국자들을 즉시 석방하기전에는 만나지 않겠다.》는 통첩을 웨드마이어에게 보내였다.

그리하여 그놈은 더러운 정치적목적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이런 용단을 내렸겠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김일성장군님께서 행동방향을 가르쳐주시고 힘을 주셨기때문이였지!》

참으로 외세의존사상을 버리고 확고히 자주적립장에서 새 조선을 일떠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편지, 그것은 나의 아버지를 그렇듯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참다운 애국의 길, 민족자주의 길로 곳곳이 걸어나갈수 있게 한 투쟁의 라침판이였으며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광범한 인민들이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미제와 온갖 반동세력의 책동을 물리치면서 구국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설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당내투쟁의 기본을 가르쳐주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가르치심을 받는 과정에 나는 해방된 조국에서 벌어지는 모든것을 새로운 안목으로 보게 되였으며 새 조선 건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나가며 미제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민주인사들의 투쟁을 어떻게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하는가를 리해할수 있었다. 모르던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경험도 하나하나 쌓아나가니 신심도 생기였다. 그리하여 나는 밤이 깊어가도 피곤을 몰랐다. 그러던 1945년도 다 저물어가던 12월말 어느날 나는 각 도당에서 올라온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결정 관철을 위한 도, 시, 군, 면 당대표회 진행정형에 대한 총화자료를 종합하여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정치적안목을 틔워주시고 당내형편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에 참가시켜주시였을뿐아니라 그 관철을 위한 평남도당대표회에 친히 데리고나가 참가시켜주시고도 부족하시여 각 도당에서 보내온 지방당대표회자료를 종합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던것이다.

총화문건을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자리를 권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문건들을 훑어보시였다.

문건을 다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문득 나에게 《동무는 도당들에서 올라온 보고를 종합하면서 생각되는것이 없습니까?》라고 물으시는것이였다.

나는 각 도당들에서 온 문건을 보면서 리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드려 가르치심을 받을 생각이였다는것을 솔직히 말씀올리였다.

그때까지 당내형편을 깊이 알지 못한 나로서는 지방당들의 대표회진행정형에 대한 보고내용에서 잘 납득되지 않는 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것은 일부 지방당조직들이 당대표회를 진행하는데서 당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중요하게 토의된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매우 형식적으로 취급하고있는 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 오늘 제3차확대집행위원회결정 관철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긍정해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는 분파행동을 일삼으며 당의 조직로선관철을 엄중히 방해하고있는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의 책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우리 당을 사상의 유일성과 행동의 통일성을 확고히 보장한 강유력한 당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도 회의에 참가해봐서 알겠지만 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토의되고 강조되기는 했으나 여기에서 핵을 이루는 근본적인 문제는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전당이 하나의 사상, 우리의 사상에 기초하여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이였다고 지적하시였다.

사실 당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는 종파분

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의 책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우리 당의 사상의 유일성과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력사적인 회의였다.

회의에서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의 분파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당의 조직로선이 관철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종파분자들의 반당적책동에 있다고 하면서 이자들을 당대렬에서 내쫓을것을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회의에서는 당중앙의 지시를 어기고 당규률을 위반한 종파분자들에게 엄격한 당적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며 제3차확대집행위원회결정을 전당적으로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당으로부터 시, 군, 면 당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당대표회를 진행할것도 결정하였던것이다.

그런데 파렴치한 종파분자들은 제3차확대집행위원회의 기본정신을 받아물지 않고 여전히 요술을 피우고있었다.

매우 격분할노릇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가 직접 나가보아서 알겠지만 평양시당대표회도 종파주의적책동을 근절하고 당내규률을 강화하며 당의 통일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보다 당내에 잠입한 이색분자, 가짜공산주의자를 숙청하는 투쟁을 벌릴데 대한 문제를 더 강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것은 그 회의에 대한 지도를 책임진 사람이 당적립장을 지키지 못하였고 평양시당과 평남도당에 불건전한자들이 틀고앉아있기때문입니다.》

제3차확대집행위원회결정 관철을 위한 평양시당대표회는 12월 20일에 인민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당시 평양시당은 평남도당산하에 있었는데 도당대표회에 앞서 이 회의를 진

행하였던것이다.

오기섭과 평남도당에서 나온 종파분자는 회의에서 반종파투쟁을 강화할데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뿐아니라 당내에 잠입한 이색분자를 숙청해야 한다고 하면서 토론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대표회가 파녁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진행되게 하였다.

종파분자들의 작간으로 평양시당대표회 진행에 대한 보도기사도 모호하게 나가게 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합된 자료를 보면 적지 않은 지방당대표회들도 평양시당대표회와 별반 차이없이 진행되였다.

나는 당내에 기여든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이 반당적인 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왜 당중앙조직위원회 제3차확대집행위원회가 종파분자들을 반대하고 당의 규률을 강화하며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확고히 이룩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는가를 알수 있겠는가고 하시는것이였다.

나는 얼른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의 반당적인 책동에 대해서는 알수 있었지만 무엇때문에 그자들을 숙청하지 않는지, 앞으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내투쟁이 얼마나 어렵게 벌어지겠는지 전혀 가늠하지 못했다.

하기에 나는 그때 외람되게도 왜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을 제거하지 않으시는가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스스럼없이 말씀드리게까지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

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당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데 그것을 당원들속에 깊이 해설침투시키자면 우선 당일군들이 해방후 우리 당이 어떤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로정을 거쳐 창건되였는가 하는것부터 잘 알고 선전교양활동을 벌려야합니다.

그래야 종파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반대하고 당안에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을 세우며 오직 하나의 사상, 우리의 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확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하도록 당원들을 옳게 교양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눈을 틔워주시고 우리 당 창건의 력사적특수성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적지 않은 시간에 걸쳐 나에게 당창건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시였다.

우리 당의 창립과정은 매우 복잡했고 당대렬의 구성도 우리 혁명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어지간히 복잡했다.

물론 해방직후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자라난 공산주의자들만으로 당을 얼마든지 창건할수 있었다.

하지만 혁명발전의 특수성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였다.

만일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자라난 공산주의자들만으로 당을 조직한다면 이른바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자처하는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당을 조직하려 할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은 다분히 분렬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을 다 망라하여 당을 창건하는 로선을 제시하시고 어려운 조건에서 그를 구현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론 여러 지방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단련되지 못하였을수 있지만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믿음직한 골간부대가 있는 조건에서 그들을 당에 받아들여 얼마든지 조직적으로 결속할수 있다고 보시고 해내외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다 묶어세워 마침내 1945년 10월 10일에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창설하고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던것이다.

그러다나니 당내에는 제나름의 《주의주장》을 고집하는자들, 종파분자들도 기여들었으며 그자들에 의하여 분파적행동이 지속될수밖에 없었다.

당창립과정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은 나의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면서 나는 당창립사업이 얼마나 복잡한 환경에서 진행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로놓인 난국을 우리 나라 공산주의대렬의 내부형편과 정세의 요구에 맞게 얼마나 현명하게 타개하시였는가를 파악하였을뿐아니라 당내 사상의지적단결이 의연히 심중한 문제로 제기된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어느덧 밤은 깊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생명이며 불패의 위력의 담보입니다. 당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투쟁하는것, 이것은 오늘 우리 당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일뿐아니라 앞으로 당을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로 됩니다. 종파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그 사소한 요소도 제때에 뿌리뽑아 없애야 하며 유일한 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

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전체 당원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철저히 교양하여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우리 당이 간고한 로정을 거쳐 창건된데 대하여 특히 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끊임없는 투쟁속에서 우리 당이 창건된데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고 모든 당원들이 종파주의에 각성을 높이며 그의 사소한 요소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나는 몇십몇백시간의 당건설강의로써도 그토록 명백히는 깨달을수 없는 귀중한 진리, 당사업, 당선전활동의 근본적인 원칙을 심장깊이 체득할수 있었다.

3

신년사를 발표하시여

해방된 조국의 첫 설날아침이 밝아왔다.

오랜 세월 식민지명에에 허덕이고 마소와 같이 짓밟히던 우리 인민의 창창한 미래가 약속되는 해방된 조국의 첫 설날아침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희망과 열정,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십년만에 내 조국땅에 돌아와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기쁨과 행복에 겨워 눈물짓는 평양시민들과 함께 첫 설날아침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도 참으로

감개무량하였다.

나는 정결하게 꾸려진 합숙방 한쪽 모퉁이에 놓은 라지오앞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정로》에 실린 새해 설날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가 방송을 통하여 전해지기로 되여있기때문이였다.

이윽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시는 신년사를 방송하겠다는 방송원의 힘있는 목소리가 거듭 울려나왔다.

이윽고 《신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인민에게 고함》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방송하는 방송원의 음성이 정숙에 잠긴 합숙방에 울리기 시작하였다.

나는 다른 동무들과 함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놓칠세라 내가 늘 가지고다니던 노트에 부지런히 받아적으며 신년사에 담긴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해방후 첫 새해를 맞이하면서 건국사업에 헌신분투하고있는 인민들에게 열렬한 인사를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력사에 영원히 기록된 1945년의 승리를 빛나게 총화하시고 새해에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방향과 과업을 명확히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며칠전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이 채택된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가져야 할 자주적립장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제는 우리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튼튼히 결성

하고 단결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일제잔재를 철저히 숙청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며 세계민주진영의 일원으로 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 조선인민자체의 힘에 의하여 해결될 것입니다.》

마디마디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일관된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는 해방직후 변천되는 내외정세에 대처하여 새해 1946년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등대였으며 철두철미 자체의 힘과 노력에 의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보람찬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무한히 고무한 전투적기치였다.

해방된 제 나라, 제땅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경사로운 설명절날,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신년사를 받아안게 된 인민들은 끝없는 감격으로 설레였다.

그런 가운데 나는 선전부일군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자리가 정돈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전부일군들을 부르신 의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해방후 처음 맞는 새해에 남조선인민들을 만나지 못하고 처음으로 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보니 생각이 깊어진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우리를 맞이하겠다고 환영준비위원회까지 내오고 남조선에 나와달라고 편지를 수없이 보내여왔으나 조성된 나라의 복잡한 정세로 하여 그들을 직접 만나서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고, 그래서 신년사를 통해서라도 아직 만나보지 못한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인사를 보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우리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신년사는 미군통치하의 남조선인민들과 직접 만날수 없는 형편에서 신문, 방송을 통하여 우리의 인사를 전하면서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하여 우리 인민이 새해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더구나 모스크바3국외상회의결정이 나온 환경에서 우리 인민이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하는가를 알려준것입니다.》

이시기 모스크바에서는 조선문제를 둘러싸고 3국외상들의 회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면 38계선을 철폐하고 조선에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쏘, 미, 영, 중 4개국이 조선에 대하여 5년동안의 후견제를 실시하기로 되여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속에서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대국들이 우리 나라의 독립을 가져다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어도 절로 조선독립이 된다고 그릇되게 리해하는가 하면 리승만을 두목으로 한 반동들은 《신탁통치》요 뭐요 하면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결정을 반대하는 일대 소동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반동들의 악선전은 그들의 속심을 모르는 대중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조성된 사태는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이 채택된것과 관련하여 하루속히 우리 인민이 나아가야 할 정확한 길을 밝혀줄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신년사에서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이 나온 변천된 환경에 맞게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과업을 밝혀주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정세를 옳게 분석판단하고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모스크바3국외상회의결정을 대하는데 있어서 혁명발전의 리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라와 민족 앞에 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엄중한 죄과를 남기게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는 세계인민들에게 조선문제는 결국 조선사람이 책임지고 해결해나갈것이라는 것, 통일단결된 우리 인민은 능히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모스크바3국외상회의결정을 신축성있게 로숙하게 대하면서 우리가 주인이 되여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누가 무엇을 결정하였든 모든것은 우리 인민에게 달려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우리 민족의 단결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신년사에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우리의 의도를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세계인민들에게 알려주자는것이였습니다.

력사적인 1946년 신년사를 발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것을 깨달은 나는 다시금 그이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현명성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지금 새 조국 건설에서 부닥치고 있는 가장 큰 난관은 모스크바3국외상회의결정을 우리 혁명발전에 어떻게 유리하게 리용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심사숙

고하지 않고 덮어놓고 반대하는자들이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있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인민대중이 다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선 우리 당원들부터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당의 의도와 요구를 파악시키며 당원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당의 진의도를 해설하고 인식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당들과의 사업도 원칙적으로 신축성있게 하면서 우리 당의 깊은 의도를 알도록 하며 각당, 각파들이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에 대하여 다 옳은 태도를 가지도록 선전공세를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지지한다고 하여 외세에 의존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선전과 교양에서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였든 관계없이 우리가 주장하고있는대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전민족이 철통같이 하나로 굳게 뭉치여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통일적인 민주주의림시정부를 세워나가면 된다는것을 설득력있게, 인내성있게 해설선전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년사를 해설침투시키기 위한 선전사업의 과녁을 어데다 두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다음 신년사에서 공개할수 없는 내적의도를 강연제강이나 해설담화자료를 만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해설침투시킬데 대하여, 신년사에 대한 반영을 구체적으로 료해할데 대하여서도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신

년사를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침투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방송으로 반복하여 내보낼뿐아니라 강연, 해설담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선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신년사의 원문과 거기에 담긴 위대한 수령님의 깊으신 의도를 광범히 침투시키였다.

한편 각 정당, 사회단체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우리 당의 자주적립장을 열렬히 지지하는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상무위원회와 전원회의들을 열고 수령님의 신년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마을들마다에서 궐기모임들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해나갈 충성의 결의들을 굳게 다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첫 신년사가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침투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은 비상히 높아졌으며 부강한 새 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깊은 첫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민족자주의 길은 참으로 광범한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양시킨 가장 정확한 길이였으며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하는 곧바른 승리의 길이였다.

집중적인 정치선전공세로

1946년 새해 신년사에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결정과 관련한 우리 당의 태도와 립장을 명백히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서는 새해벽두부터 반동들의 음흉한 기도와 종파분자들의 좌우경적편향들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강력한 선전공세를 벌리시였다.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이 세상에 알려진 때를 전후하여 리승만을 괴수로 하는 남조선반동들의 발악은 극도에 이르렀다.

놈들은 이 결정을 일제가 남양군도를 위임통치한다고 하면서 식민지로 만들던것과 일치시키면서 《신탁통치》라는 구호를 들고 인민들을 우롱하였다. 그리고 결정이 채택된 사흘후인 1945년 12월 31일 서울에서 이 결정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리였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 계층은《민권》이요,《민주》요 하면서 우리 나라에 부르죠아공화국을 세울것을 주장하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당의 정치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종파분자들은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에 미국과 영국이 참가하였다는데로부터 여기에서 제기된 민주주의란 주로 미국식민주주의를 념두에 둔것이라는 허황한 주장을 내돌리면서 당장 《사회주의》정권을 세울데 대한 《구호》를 다시금 들고나왔다.

모스크바3상회의후 조성된 복잡한 정치정세는 인민들속에 우리 식의 민주주의,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문제를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년사를 발표하신후 모스크바3상회의결정과 관련한 선전사업을 적극 벌릴데 대한 명확한 방향을 밝혀주시고도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 나라에서 진보적민주주의를 실시하기 위한 정치선전공세를 년초부터 힘있게 벌릴 구상밑에 1946년 1월 3일 우리들을 또다시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부서에서 계획하고있는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동무들과 함께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한 강연제강을 하나 잘 준비해보라고 하시면서 친히 제강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새해 첫 과업으로 강연제강을 집필할데 대한 분공을 받아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집무실을 나선 우리는 곧 지혜를 모아 제강작성준비에 달라붙었다.

체계를 세우고 제강에 담아야 할 자료들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그이튿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통하여 강연제강집필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그때 우리 편으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새해 첫 분공을 잘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밤새워 이미 초고를 적지 않게 썼다.

하지만 경애하는 수령님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지 못한데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해설만을 위주로 전개하였을뿐 진보적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통일적인 중앙정부의 수립을 촉진할데 대한 문제는 전혀 다치지 못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강연제강은 모스크바3상회의결정후 절박하게 나선 정세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의의없는 제강으로 되고말았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말씀하시였다.

《신년사에서 공개할수 없었던 우리의 의도를 인민들이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연제강을 만들라고 한것입니다.

진보적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적림시정부를 세우자고 하는것이 우리의 의도입니다. 인민들이 진보적민주주의가 다름아닌 조선식민주주의라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게 제강을 만들어 통일적인 림시정부를 세우는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그 일군에게 암만해도 그 동무들을 래일 자신께서 출연하기로 된 강연회에 참가시키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강연을 들어보면 제강작성에 도움이 될것이니 우리들이 꼭 강연회에 참가하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는 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우리들은 커다란 흥분과 기대 속에 1월 5일 강연회장인 인민극장으로 갔다.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큰 건물인 인민극장은 말그대로 립추의 여지없이 초만원을 이루었다. 어데건 발들여놓을 짬이 없이 사람들이 빼곡이 들어찼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강연회에 출연하신다는것을 알고 평양시 각계각층 대표들은 인민극장으로 물밀듯이 모여들었던것이다.

이윽고 시간이 되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강연회참가자들의 열화같은 박수와 환호를 받으시며 연단에 나서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날 강연회에서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이 채택된 이후 국제국내정세의 추이를 심오히 분석하시고 새 조선이 나아갈 길을 다시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얼마전에 있은 모스크바3국외상회의결정과 관련하여 반동들이 미제에 더욱더 매달리며 조선을 반민주주의길로 이끌어가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을 신랄히 폭로규탄하신 다음 일부 우리 사람들속에서도 외세의존사상이 나타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조선인민자체의 힘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민족통일전선을 밑으로부터 우에 이르기까지 튼튼히 결성하고 단결하여 통일적인 민주주의적정부를 하루빨리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세우게 될 통일적인 중앙정부는 진보적민주주의정책을 실천하는 정부로 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진보적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가 하는것을 다른 나라들에서 하고있는 민주주의와 대비하여 사리정연하게 해설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연을 마치시면서 오늘 우리앞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현단계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진보적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통일적중앙정부를 빨리 수립하는것이며 이 과업을 실현함으로써만 다른 모든 문제들도 원만히 풀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애국적인민들은 누구나 다 이 민족적과업을 수행하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참으로 정연한 론리와 선동적인 말씀으로 청중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은 강연이였다.

사람들에게는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둘러싸고 조성된 복잡한 정세에 대처하여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것이 환히 안겨왔다.

감동된 군중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한결같이 터져올랐고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인민극장을 메웠다. 폭풍과 같은 박수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평양시 각계층 군중의 열기띤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한 강연제강을 준비하여 전국적범위에서 군중강연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겠다고 하신 진의도를 깨닫게 되였다.

진보적민주주의를 실시하는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 강연제강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포착할수 있었던것이였다.

나는 이것을 그이튿날에 진행된 12만 평양시민의 대군중시위를 통하여 더욱 통절히 느끼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연을 마치신 다음 평양시내 각계층 대표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서울에서 며칠전에 길가는 사람들을 강제로 긁어모아 통일적인 민주주의중앙정부의 수립을 반대하고 미국에 예속된 반동정부를 세울것을 목적한 시위를 벌렸는데 우리는 이번에 이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통일적인 민주주의중앙정부 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군중시위를 한번 본때있게 조직해보자고 호소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대군중시위를 불의에 조직하려고 하는 의도를 말씀하시였다.

《왜 우리가 대군중시위를 조직하려고 하며 그것을 하루밤사이에 준비하여 진행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대군중시위를 통하여 〈반탁〉의 구호를 들고 나오는 미국놈들과 반동들에게 된타격을 가하며 조선인민은 자기 힘으로 진보적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적림시정부를 세울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있는 존엄있는 인민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자는데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대군중시위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우리 인민의 위력을 확신시키며 신심을 가지고 새 민주조선 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강연회에 참가한 각계층 대표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그이께서 하신 강연의 사상을 깊이 해설침투시키면서 조직사업을 하였다.

그리하여 단 하루동안의 준비로써 40만 평양시민가운데서 무려 12만이나 되는 많은 시민들이 떨쳐나 대중적인 시위를 단행하였다.

군중시위대렬은 《우리 민족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장군

만세!》라고 쓴 프랑카드와 여러가지 표어판과 오색기를 들고 구호를 웨치며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청사(오늘의 당창건기념관)앞도로를 따라 평양시안의 거리를 누비며 나아갔다. 온 시내가 격동의 소용돌이속에 휩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사 2층로대에 나서시여 그이를 우러러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치는 군중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그들을 고무하시기 위하여 힘있는 구호를 부르시였다.

《진보적민주주의를 실시할수 있는 조선림시정부를 조직하자!》

《민족통일전선 결성 만세!》

《일본제국주의잔재요소를 철저히 숙청하자!》

12만 대군중시위대오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에 호응하여 일제히 《진보적민주주의를 실시할수 있는 조선림시정부를 조직하자! 조직하자! 조직하자!》 하고 목청껏 웨치였다.

그칠줄 모르는 시위자들의 환호와 함성은 천지를 진감하였다.

사품치며 흐르는 격류와 같이 거리를 메우며 지나가는 대중의 충천한 기세에 반동들은 넋을 잃고 질겁하였으며 이 시위를 달가와하지 않던 우당의 일부 사람들과 종파분자들도 당황망조하여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우리는 처음보는 이 위대한 현실앞에서 참으로 많은것을 느꼈으며 새로운것을 배우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보적민주주의문제를 가지고 군중강연제강을 준비하라고 과업을 주신 진의도가 어데 있는가를 심장으로 깊이 깨달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방향을 주시고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대로 우리는 군중강연제강초고를 짧은 시간에 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을 지새우시며 우리들이 준비한 제강을 검토하시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주시여 마침내 훌륭한 강연제강으로 완성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완성된 제강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며 제강이 잘되였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진보적민주주의가 조선의 실정에 맞는 진정한 민주주의라는것이 납득되게 씌여졌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리고 진보적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도 명백하게 제기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제강을 가지고 군중강연을 대대적으로 조직진행할것과 이 사업에 당선전일군들뿐아니라 각 정당, 사회단체 일군들도 다 참가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군중강연을 조직진행하는 한편 지식인들을 대상하는 강연제강을 따로 써서 진보적민주주의의 본질과 특징을 좀더 리론적으로 깊이 침투시킬데 대하여서도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간곡한 교시와 세심한 지도밑에 거창한 변혁으로 수놓아질 1946년의 새해벽두에 새 조선 건설과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한 군중강연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이 과정에 민주주의와 관련한 온갖 그릇된 주장과 반동세력의 반민주주의적책동이 분쇄되였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은 새 조선의 건국로선, 참다운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새해의 첫 사업으로 포치하시고 이끌어주신 진공적인 선전사업, 그것은 실로 종파분자들과 반동세력의 책동으로 혼란된 정국을 수습하고 우리 인민을 참다운 민주주의적발전의 길,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길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일대 정치사업이였다.

제2장 정치사업을 혁명 력량의 단합에로

1

혁명전통선전을 바로하도록

해방직후 복잡다단한 어려운 형편에서 새 조선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적인 통일적 중앙정부를 세우며 나아가서 장차 사회주의, 공산주의 강령을 실현할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이때부터 혁명력량을 튼튼히 결속하시기 위한 사업에 깊은 주목을 돌리시였으며 선전사업의 주되는 힘을 여기에 집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이른바 혁명을 했다는 사람들이 저마끔 인민대중을 자기 주위에 끌어당기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실정에 대처하여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의 피어린 투쟁력사를 가지고 인민들을 교양하는것은 자못 큰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시고 벌써 해방직후부터 당선전일군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낯을 돌리도록 손잡아이끌어주시

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이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인 로동당으로 강화발전된 직후인 1946년 10월하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당중앙위원회 선전부 출판과 사무실에 찾아오시였다.

이날도 출판과 일군들은 책상에 마주앉아 항일혁명투쟁과 관련한 반증자료들을 일제시기의 신문들에서 수집정리하고있었다. 그때 나는 글쓸 일이 생겨 그 방에 와서 다른 문건들을 찾고있었다. 그러다가 뜻밖에도 사무실에 들어서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 순간 우리는 크나큰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일제히 일어나 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수하게 만든 보통나무걸상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책상우에 펼쳐놓은 자료들을 살펴보시였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제시기에 출판된 신문들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제통치밑에서 발간된 이러한 어용출판물들에서는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항일유격대를 《공비》라고 비방중상하였으며 지어 우리 유격대를 《전멸》시켰다고 허위선전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실제로 녹아난것은 일본놈들이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금 신문에서 취재한 자료들을 한장한장 번져보시다가 새로운 자료들이 얼마나 나왔는가고 물어도 보시고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보내는가고 다정하게 물어주시였다.

당시 우리들은 신문, 잡지들과 방송들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은 전투들과 일제를 반대하여 국내에서 일어난 쟁의와 파업 등 이러저러한 형태로 진행된 투쟁이야기들을 별다

른 고려없이 자료가 생기는대로 내보내고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자료를 얻기도 힘들고 경험도 없는 형편에서 그만하면 대단하다고 스스로 위안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 대한 인민들의 반향이 어떤가고 알아보신 다음 혁명전통교양을 위한 선전사업을 하면서 생각되는것이 없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 혁명전통선전에 대한 그이의 깊은 의도를 헤아릴수 없었던 우리는 그이의 물으심에 접하여 영문을 몰라 머뭇거리고있었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둘러보시며 《요새 나오는 출판물의 글을 보면 우리 일군들이 아직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똑똑히 모르고있다는것이 알립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방안은 물뿌린듯 조용하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선전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키도록 하는것입니다.》

사실 오늘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명백하고 우리 인민모두에게 신념으로 간직되여있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대한 인식을 해방직후의 그때에는 적지 않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정확하게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그 시기 출판선전물에서는 우리 일군들의 이러한 사상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하여 그밖에도 해내외에서 벌어진 이러저러한 반일투쟁이 다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인것처럼 중앙에서 내는 신문과 잡지, 방송을 통해서 나갔고 시와 희곡,

노래와 그림 등 문예작품을 통해서도 선전되였다.

더구나 지방에서 내는 출판물들에서는 종파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전향문까지 쓴 변절자의 경력을 무분별하게 소개하였는가 하면 사진까지 내는 편향까지 나타나고있었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종파분자들은 저마다 맑스주의에 《충실한 정통파》라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자기들을 내세우기 위하여 쓴 글을 내보내고있었다.

형편은 엄중하였으나 우리는 그 후과가 얼마나 큰것인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은 자책감에 사로잡혀있는 우리들을 둘러보시며 부드러운 어조로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고있는 혁명투쟁은 허공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것도 아니고 또 방금 시작한것도 아니며 선행단계의 혁명투쟁에서 생겨나고 거기서부터 이어져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오늘의 우리 혁명이 언제 어떤 투쟁전통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고 그 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혁명전통은 선행단계의 투쟁속에서 혁명선렬들이 이룩한 가장 값있는 투쟁정신, 투쟁업적, 투쟁경험으로서 대를 이어 전해질 귀중한 밑천으로 되며 그것은 혁명발전의 전행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놀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속에는 혁명전통의 본질, 우리 인민이 계승해야 할 혁명전통의 내용과 그것이 놀게 될 역할이 명시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혁명전통은 어떤 투쟁에서나 다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또 누구나 그것을 마련할수

있는것도 아니라고 하시였다.

《혁명전통은 무한히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속에서 대중의 의식성과 혁명성, 지도자의 예지와 령도력이 집중적으로 발양되는 가장 준엄한 혁명투쟁속에서만 이루어지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서 1930년대의 항일무장투쟁이 바로 그러한 투쟁의 전형이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난생처음으로 체득하게 되는 귀중한 진리였다. 어느 나라 교과서나 참고서에서도 본 일 없고 아직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일이 없는 독창적인 위대한 사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리해를 더 석연하게 해주시려는듯 우리 나라에 있었던 여러가지의 투쟁과 대비하여 설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해내외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벌어진 투쟁이 있기는 하나 항일무장투쟁과 같이 생기있고 결정적인 투쟁은 없었다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숭고한 투쟁정신과 탁월한 령도예술,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을 가장 높이 발양하였으며 가장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참으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투쟁에서 이룩된 혁명전통은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것에도 비길수 없이 우월하며 그것은 우리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튼튼한 밑천으로, 담보로 되는것입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전통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 전통의 대를 세우는 방향에서 모든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을 받아안고서야 비로소 우리 일군들은 항일혁명투쟁속에서 이룩된 혁명전통, 이것이 우리 당의 빛나는 뿌리이며 우리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계승하여야 할 귀중한 재부라는 위대한 진리를 확고히 체득하게 되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의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사업태도가 돌이켜져 얼굴이 달아오름을 어찌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우수한 혁명전통이 마련되였지만 아직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있다고 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우리 당이 해야 할 사업이며 바로 선전일군들에게 맡겨진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혁명전통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는 선전교양사업의 중요성과 원리를 알고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 차근차근 일깨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는 혁명전통에 대한 선전을 강화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혁명전통교양을 위한 선전사업에서 반드시 류의해야 할 문제들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선전교양자료들을 당출판물에서 서둘러 취급하지 말고 사실과 자료들을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점차적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참으로 귀중한 지도적지침이였다.

사실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선봉대로서 우리 당이 대중적당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 당에 들어왔으며 당대렬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런 형편에서 당원들이 로동당에 대한 인식과 당의 혁명전통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은 그 어느때보다 더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그러나 이 시기 당내에 숨어있던 반당종파분자들은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 주류를 이룬 항일무장투쟁을 저들의 이른바 《투쟁》과 대비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음으로양으로 헐뜯었으며 그것을 은근히 말살해버리기 위한 책동을 벌리고있었다.

미제의 사촉밑에 남북조선의 반동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을 비방중상하면서 로동당이 창립된 이후에도 공산당이 모든것을 독판친다고 악선전을 벌렸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지지하는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서 떼여내려고 미쳐날뛰였다.

천리혜안으로 이러한 형편을 명철하게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는 선전교양사업을 로숙하게 할데 대하여 일깨워주시면서 뜻이 깊은 말씀을 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해놓은 일이야 어디에 가겠는가, 누가 알아주건 말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면 그만이다, 정세가 긴장하고 반동들의 준동이 심한 조건에서 놈들에게 언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요한것은 혁명전통자료들에 대한 연구를 실속있게 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여놓는것이다, 때가 되면 인민들이 그것을 보게 될것이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연구하지 못한 자료를 서둘러 출판물에 내여 혁명전통의 풍부한 내용을 외곡하거나 왜소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동무들은 무엇보다도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자료들을 광범히 수집정리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대한 선전을 로숙하게 점차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머리를 돌리시며 사업과 생활에서 애로되는 점들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우리들은 해방전 신문들에서 자료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많지 못하며 나온 자료도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명확히 알지 못해 안타까와하던 일을 말씀올리였다.

우리의 외람된 제기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다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좀 이야기해주자고 하던 문제인데 항일무장투쟁과 관련된 자료를 발굴수집하는데서 기본원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만들어낸 출판물들을 찾아 항일무장투쟁자료를 연구하는것이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출판물들은 일본놈들이 많이 가져갔다고 하시면서 잘 찾아보면 중국의 여러 지방들에도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자료들을 발굴수집하고 연구사업을 심화시키자면 무장투쟁에 참가한 항일투사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일투사들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개별적사람들의 투쟁경력을 연구하라는것이 아니며 투쟁에 참가한 그들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쟁행정에서 이룩된 혁명전통자료들을 찾아내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면서 그 시기의 투쟁을 직접 목격했거나 그 내용을 아는 인민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사적물도 찾아내고 현지조사도 하여야 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취재대상은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을 발굴수집할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원천이며 기본대상이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중요성을 모르고 손쉽게 일제때의 신문에 난 자료들을 찾는데 골몰하고있었던것이다.

우리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부끄럽게 돌이켜져 고개를 들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그러운 미소를 담으신 안색으로 우리들을 둘러보시며 8.15전에 왜놈들이 낸 출판물자료들도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반증자료로서 선전사업에서 그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부여하는데 적절하게 리용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신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정리하고 연구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립장을 밝히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자료들을 연구하자면 무엇보다도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높은 계급적안목을 가지고 모든 자료를 연구하여야 합니다. 모든것을 조선혁명의 견지에서 보고 조선혁명의 구체적실정과 결부시켜 해석해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자료취급에서 당성, 계급성을 지킬뿐아니라 과학성과 력사주의원칙에 기초하여 그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적측 출판물에서 필요한 자료를 취재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당적, 계급적 안목으로 옳게 가려보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날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혁명전통교양을 위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그것을 선전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문제들을 밝혀준 참으로 귀중한 지도적지침이였다.

말씀을 마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자료는 선전부의 몇몇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수집, 연구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당출판사를 비롯한 출판선전기관들, 과학, 교육, 문화 기관들에서도 발굴수집하고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어언 그때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항일혁명투쟁의 혁명전통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며 그것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위대한 사상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꽃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피어린 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마련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한 선전교양자료들은 수많이 출판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키우는 량식으로,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을 승리에로 고무하는 투쟁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저택에서 주신 귀중한 교시

해방후 우리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기 위하여 남을 쳐다보거나 남의것을 그대로 본따는 사대주의사상을 극복하고 우리것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1946년 2월중순 당중앙조직위원회 제4차확대집행위원회가 있은 직후 어느날 저녁무렵이였다.

한 일군이 찾아와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신다는것을 전해주면서 어서 빨리 차에 타라는것이였다. 나는 서둘러 그

와 함께 차에 올랐다.

승용차는 경쾌하게 달려 어느새 경애하는 수령님의 저택앞에 이르렀다. 흥분으로 설레이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내가 저택안에 들어섰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시고 마주나오시여 나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이때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도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방안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정갈하게 꾸려진 소박한 2층 응접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건강은 어떠한가, 병원에서 나온후 다른 증상은 없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달전에 내가 고열에 시달리며 몸져눕게 되자 급히 입원시키도록 하시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김정숙동지와 함께 병원에 오시여 나를 따뜻이 보살펴주시고도 퇴원후 나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마음쓰시는것이였다.

내가 올리는 대답을 다 듣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금 퇴원한 몸이니 일없다고만 하지 말고 건강에 각별히 류의해야겠다고 거듭 은정깊은 말씀을 주시는것이였다.

친어버이사랑이 뜨겁게 넘치는 그이의 말씀에 나는 가슴이 후더워지고 눈앞이 자꾸만 흐려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일신상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것을 묻기도 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그러는 과정에 시간이 퍼그나 흘러 벌써 밤이 깊었다.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새 조국 건설의 거창한 사업을 펼쳐가시기에 분초가 귀중한 나날을 보내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잠시나마 휴식을 보장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나는 곧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은 새로 임무를 맡은 동무를 위해 우정 시간을 냈소.》라고 하시며 밤이 늦었지만 이야기를 좀더 나누자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며칠전에 나는 당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의 중책을 맡았었다.

준비정도에 비해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을 맡아 어떻게 할지 몰라하고있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이렇게 찾으셨다고 생각하니 무엇이라 말할수 없는 크나큰 격정에 가슴이 가득차오르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당사상사업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잘해나가자면 정세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조성된 북과 남의 판이한 형편과 전해 12월말에 있은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계기로 민주와 반민주사이의 계선이 더욱 확연히 갈라진 복잡한 정세발전을 명철하게 분석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정세하에서 하루빨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튼튼히 결성하며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여야 할 우리 혁명의 임무를 다시금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고 나에게 물으시는것이였다.

나는 이무렵에 늘 생각되던바가 있어 그것은 무엇보다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각성을 높이는 문제라고 스스럼없이 말씀올리였다.

당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며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립하는 이 중대사를 방해하고있는것은 종파분자들이였다.

건국로선을 반대하는 반동놈들의 책동은 백일하에 폭로되고 인민들의 일치한 규탄과 배격을 받았다. 놈들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은 이때에도 힘있게 벌어지고있었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혁명적인 언사로 자기들의 정체를 가리우면서 우리 당과 인민의 새 민주조선 건설투쟁을 음으로양으로 방해하고있었다.

이자들은 당중앙조직위원회 제1차, 제2차 확대집행위원회와 제3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강한 타격을 받았으나 종파적야욕을 버리지 않고 우리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의 관철을 저애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었다. 종파분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폭로하고 짓부셔야 할 절박한 요구가 나서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옳게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종파분자들의 책동가운데서도 특히 사대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배격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종파분자들은 례외없이 사대주의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놈들의 종파사대주의적경향을 실례를 들어가시며 하나하나 분석하시였다.

당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현실을 무시하고 남의 경험만을 절대시하면서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있었다. 특히 해외에서 돌아온자들은 자기가 보고들은 그 나라의것만 덮어놓고 내세우면서 그것을 새 조선 건설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떠벌이고있었다.

출판물들에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하며 그것을 옳바르게 해설하는 글들이 많이 실려야 하겠으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에 그대로 받아들일것을 주장하는 글들이 공공연히 발표되고있었다.

《새길》, 《바른말》, 《옳다》, 《평북신보》, 《자유황해》 등 지방신문들에 별의별 《주의주장》들이 다 소개되고있었는데 그것들은 례외없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떠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앵무새처럼 받아외운것들이였다.

방송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얼마전 입원생활을 할 때 병원호실에서 듣던 우리 방송음악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 온종일 방송을 들어야 우리 나라의 음악은 많지 않았고 외국의 음악이 더 많았다.

일제때 나온 레코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작곡한 음악을 위주로 내보내고있었는데 어떤 곡은 한두곡을 소개하는데 30분, 40분씩 걸리였다. 이것은 대중을 새 조선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할 우리 혁명의 요구에 비추어보나 문맹자가 많은 비률을 차지하고있던 주민구성의 실태로 보나 잘 맞지 않는 일이였다.

다른 한편 《가정시간》, 《어린이시간》 등 고정시간에 내보내는 방송에서도 우리의 생활실정과 동떨어진 외국사람들의 음식물을 선전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든 어린이신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있었다. 이것은 바로 사대주의에 물젖은자들에 의하여 빚어진 후과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문, 방송에서 기사를 하나 소개하고 노래를 한곡 내보내여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고 새 조선 건설에 도움을 줄수 있는것을 내보내도록 깊은 고려를 돌려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당면하게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나선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자면 사상선전사업이 바로 이 거창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복종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사업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선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해설침투시키고 그 관철에로 광범한 군중을 불러일으키는것입니다.

이것은 사상선전사업앞에 나서는 제1차적요구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대중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해설침투하여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사상선전사업의 모든 력량과 수단들을 여기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어느덧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보장해드려야 할 전사의 도리마저 잊었다는 생각에 나는 송구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정열에 넘치시여 다시금 말씀을 이으시는것이였다.

《우리의 건국위업은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처음으로 개척해야 하는것만큼 매우 어렵고 복잡한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있고 옳은 로선과 정책이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확신을 표시하시면서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문제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 있습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면 못해낼 일이란 없습니다.

동무는 언제나 사상선전사업에서 이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념에 넘치신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면서 나는 새 조국 건설의 앞날이 환히 내다보이고 당사상선전사업에 몸바쳐 나설 신심과 용기가 솟구쳐오름을 느꼈다.

이날 밤깊도록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교시는 주체적인 건국로선관철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당사상선전사업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불멸의 홰불이였으며 일생을 두고 나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투쟁지침이였다.

몸소 론문을 집필하시여

혁명력량을 묶어세우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갓 창건된 우리 당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튼튼히 결속하는것이였다.

우리 당을 대중적당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에 따라 북반부에서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되고 남조선에서도 바야흐로 공산당과 인민당, 신민당의 합당사업을 추진시키고있던 1946년 하반기에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한것으로 나서고있었다.

따라서 사상선전사업도 응당 이에 상응하게 진행하는것은 이 부문 일군들앞에 나선 매우 중요한 문제들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우리들은 응당한 수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이 한두번만이 아니였다.

그러던 1946년 9월초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를 부르시여 로동당창립후의 선전사업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당창립대회에서 하신 보고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와 결론 《로동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와 당의 강령을 우선 원문대로 침투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는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제 그 로작들에 대한 해설을 준비하여 신문, 방송에 내보내는 한편 강연 및 선동 체계를 통하여 침투시킬 계획이라는것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보고를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로동당의 창립과 관련한 선전사업을 조직진행하는데서는 반드시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는 과정에 나타났던 편향들과 종파분자들의 방해책동, 반동들의 음모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로동당이 창립되였다고 하여 이 모든것이 다 해소된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당사업을 추진시키면서 당원들속에서 표현되였던 좌우경적편향들을 념두에 두고 그것을 철저히 극복하는 방향에서 해설선전사업을 해야 합니다.

신문, 방송들에서는 자기의 특성에 맞게 로숙하게 이러한 문제를 일반화하여 해설선전하며 당학습과 강연, 해설담화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들고 그에 대한 정치적분석을 예리하게 가하면서 당원들을 교양해야 합니다.

당학습, 강연, 해설담화 등을 통하여 당원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로동당창립문제에 대한 그릇된 편향과 종파분자들의 음흉한 책동들을 폭로비판하고 극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로동당을 창립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편향들과 종파분자들의 방해책동이 나타났다. 거기에다 반동들이 요언을 돌리기도 하였다.

어떤자들은 《신민당이 당권을 빼앗긴다》느니, 《공산당은

규률이 세기때문에 신민당원들이 들어가 규률을 지키기 어려울것》이라느니 하면서 합당방침을 헐뜯는가 하면 어떤자들은 《어떻게 신민당과 합치느냐?》, 《공산당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배타주의적경향을 조장시키려고도 하였다. 또 어떤자들은 합당하면 우리 당이 《신민당화》, 《소자산계급화》되는듯이 떠벌이면서 이 기회에 당의 조직규률과 사상통일을 파괴하고 당을 한갖 근로대중의 구락부로, 소자산계급적우의단체로 만들려고 책동하였다. 그리고 합당후 당안에서 대량적인 《숙청》이 있을것이라느니, 두 당의 합당은 일시적이고 일정한 시기에 가서는 도로 분렬될것이라느니 하는 요언을 퍼뜨리는자들도 있었다.

창립된 로동당안에서 이와 같은 편향들과 방해책동들을 완전히 근절하여야 근로대중의 통일적인 당으로 발전한 우리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는 당학습 및 강연, 선동 체계에 따라 선전교양사업을 적극 진행함으로써 모든 당원들이 합당과정에서 나타난 온갖 편향을 근절하고 종파분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던 9월하순 어느날 나는 다시금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내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급히 달려갔을 때 그이의 책상우에는 친필하신 원고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나에게 자리를 권해주시고나서 로동당에 대한 선전사업을 더 강화할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보자고 불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로동당창립과 관련한 선전교

양사업이 일정하게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특히 남조선에서 지연되고있는 공산당과 인민당, 신민당의 합당사업을 촉진시키도록 추동하는 선전사업을 놓치지 말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책상우에 있던 원고를 드시고 나에게 《이 론문은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남조선로동당의 창건문제에 대하여 쓴것입니다.

이 문헌을 당의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로동당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의 길을 밝혀주는 새로운 로작을 받아안은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워오름을 어찌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계속되였다.

《우리는 북조선에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창건하는 사업을 승리적으로 끝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가장 중대한 사변으로 됩니다.

그러나 일부 당원들은 아직도 합당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로동당의 성격, 조선의 현정세와 당의 당면과업들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부 당원들속에서는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을 일시적이며 림시적인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로동당은 로동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이 아니라고 말하는자들도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제나름식의 그릇된 견해를 극복하고 모든 당원들이 통일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론문은 바로 당안에서

로동당의 창립과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한 통일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쓴것입니다.

우리가 이 론문을 쓴 보다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남조선에서 합당사업이 지연되고있는 근본원인과 그에 대한 우리당의 립장과 태도를 명백히 밝히고 남조선로동당의 창건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데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이무렵 남조선에서는 합당사업과 관련하여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고있었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이 당들에 박아넣은 제놈들의 앞잡이를 시켜 이 당들을 안으로부터 분렬와해시키려고 음흉하게 책동하였다.

고질적인 종파분자들은 합당사업을 둘러싸고 파벌싸움을 더욱 격화시키는데로 나가고있었다. 파쟁은 인민당, 신민당에도 번져 분렬과 동요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남조선에서 근로자당들의 합당사업은 순조롭게 이룩될수 없었다.

북조선에서 이미 로동당이 창립된 조건에서 우리는 응당 로동당창립이 가지는 정치적의의, 당창립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창건후 로동당앞에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남조선의 공산당원들과 다른 근로자당성원들에게 인식시키는 한편 합당사업을 지연파탄시키려는 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무자비하게 폭로비판하는 선전사업을 들이댔어야 할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보고 안일하게 형식적으로 일하고있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진행한 로동당에 대한 선전사업에서는 남조선에서의 합당사업을 촉진시키는 문제가 매우 약하게 취급되고있었다.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문헌들을 보도하고 그와 관련한 글을 몇건 신문에 내는데 그치고 남조선에서의 로

동당창립을 지연시키고있는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폭로규탄하고 이 사업을 빨리 다그치도록 하는 진공적인 선전사업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협소한 우리들의 정치적안목을 틔워주시며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의 공산당, 신민당, 인민당 안에서 합당을 방해하는자들은 모두가 당과 혁명의 리익을 배반한 탐위주의자, 리기주의자, 파벌주의자들이며 그들의 분렬행위와 온갖 시비질은 우익 반동분자들의 분열책동에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무자비하게 폭로하고 그들의 궤변을 철저히 분쇄하여야 하며 민주주의적정당들내부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론문을 내는 우리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필원고를 나에게 주시면서 이 로작을 창립된 로동당의 기관지들인 《로동신문》과 《근로자》에도 내게 하라고 이르시였다.

참으로 새길수록 깊은 뜻이 담긴 귀중한 말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 안팎의 형편과 앞으로 당건설도상에서 발생할수 있는 모든 복잡한 사태를 미리 다 예견하시고 절대다수의 진실한 우리 당원들은 물론 파벌행위에 이골이 난 종파주의자들과 다른 근로자당의 당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다 북조선로동당의 창립을 지지하고 남조선에서 로동당의 창립을 다그쳐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력사적로작을 집필하시고 당기관지들에 발표하게 하시였던것이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로작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남조선로동당의 창건 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학습을 모든 당조직들에서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로작발표와 관련하여 취하신 조치를 통하여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탁월한 령도력에 대하여 다시금 새삼스럽게 가슴에 새기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로작에 대한 출판과 해설침투사업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리라 굳게 다짐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9월 26일부 《로동신문》에 위대한 수령님의 이 력사적로작을 정중히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그때 창간된 《근로자》는 그이의 다른 로작들과 함께 이 로작을 싣고 자기의 첫호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로작을 수록한 단행본도 정성을 다하여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남조선로동당의 창건 문제에 대하여》는 창립된 로동당을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한 강유력한 대중적당으로 계속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환히 밝혀준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모든 당원들은 로동당창립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와 결론과 함께 이 로작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당이 근로대중의 통일적인 정치적참모부로서 그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받아안고 각성된 남조선의 공산당원들과 다른 근로자당의 성원들은 파쟁을 일삼으며 공산당과 인민당, 신민당을 합당하는 사업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던 종파분자들에게 강한 타격을 주면서 합당을 하루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갔다.

이리하여 1946년 11월에 남조선로동당을 결성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당 건설에서 획기적사변으로 되는 공산당, 신민당 합당사업이 진행된 력사적시기에 몸소 론문을 집필하시여 조선근로대중의 통일적인 당을 건설하며 공고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의도를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키고 그들모두가 흔연히 이 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대중단체를 당의 두리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력량을 튼튼히 결속하기 위하여 당원들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당선전사업을 이끌어주시면서 광범한 대중단체를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을 우리 당의 운명과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보시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직업별, 계층별 대중단체들을 조직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당창건이후 곧 직업동맹, 농민동맹, 청년동맹, 녀성동맹 등 근로단체들을 결성하시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근로단체들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확대강화하며 그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제반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실시되고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고있던 1947년초에 있은 일이였다.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자면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근로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광범한 근로대중이 우리 당의 로선과 인민정권의 시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해야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 반당종파분자들은 우리 나라의 현실과는 인연이 없는 그릇된 주장을 들고나와 대중속에서 사상적혼란을 일으키려고 책동하였다. 그 대표적인것이 직업동맹사업에 대한 오기섭의 그릇된 견해였다.

원래 이자는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으면서도 자신을 《리론가》로 자처하고 이런저런 허황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 엄중한 해독을 끼쳐왔었다. 이자는 일찌기 우리 당이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하고 광범한 청년대중을 하나의 청년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을 때에도 그것을 《청년운동의 퇴보》니 《우경화》니 하면서 민청은 공청의 《외곽단체로 되여야 한다》는 엉뚱한 소리까지 줴쳤다. 그리고는 졸개들에게 공청을 절대로 해산시키지 말라고까지 추동하였다.

직업동맹문제에서도 이자는 자본주의하에서의 로조와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의 직맹을 동일시하면서 직맹의 사명과 임무에 대한 외곡된 견해를 류포시켰다.

그무렵 당과 정권기관의 책임적인 자리에 앉아있던 이자의 그릇된 견해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줄수 있었다. 더우기 우리 일군들은 아직 이자가 들고나온 주장의 부당성을 리론적으로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결정적타격을 가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자가 내놓은 외곡된 견해를 제때에 간파하시고 그의 부당성을 명철하게 분석비판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47년 1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

회 상무위원회에서 그자가 내놓은 《리론》은 뜨로쯔끼주의적리론이라고 비판하시면서 다시는 이런 외곡된 선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데 대하여 엄격히 지적하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자기의 과오를 뉘우칠 대신 당에 도전해나서면서 직업동맹사업에 대한 자기의 그릇된 견해를 담은 《론문》을 신문에 발표하는 반당적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자의 《론문》이 신문에 나간 1947년 3월중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급히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계시던 신문을 책상앞으로 밀어놓으시면서 《동무는 오늘 신문을 보았습니까.》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론문을 가리키시면서 《신문에 이런 글이 나간것을 알고있었습니까. 어떻게 되여 이런 그릇된 리론을 담은 글이 신문에 나가게 되였습니까.》라고 물으시는것이였다.

나는 그이의 물으심에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였다. 이런 글이 신문에 나갔지만 나자신이 신문을 아직 다 읽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모르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글은 전반적내용이 그릇된 리론으로 가득차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결국 직맹을 인민정권과 대립시켜 투쟁하도록 하자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이것이야말로 황당한 궤변이며 반당적행위라고 엄격히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신문에 반당적인 《론문》이 나간것은 선전부문 사업에 빈틈이 있고 일군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선전일군들속에서 당

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며 출판보도선전에 대한 지도통제를 잘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날 신문을 회수하고 고쳐내보낼데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는 한편 그자의 반당적행위를 엄격히 추궁하시였다. 그리고 그후 인차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직업동맹사업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그의 반동적본질을 날카롭게 분석비판하시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당과 직업동맹에서 각각 직맹사업에 대한 그릇된 리론을 비판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여 내려보내는 한편 당원들과 직맹일군들 속에서 해설선전사업을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6차회의가 있은 이틀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선전일군들을 부르시여 직업동맹사업에 대한 그릇된 리론을 폭로비판하는 강연선전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맹사업에 대한 그자의 반동적리론을 폭로비판하는 강연제강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된 일군들이 지방에 나가 강연사업을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선 이 《론문》에서 나타난 그릇된 견해와 그 반동적본질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까밝혀야 합니다.

그의 《론문》에서 나타난 그릇된 견해는 첫째로 국유화된 기업소의 지배인은 직업동맹에 들수 없다고 한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국유화된 기업소의 지배인은 국가에서 파견한 사람이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일군입니다. 그런만큼 국영기업소 지배인은 직업동맹에 들어야 할뿐

아니라 그 조직내에서 응당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황당하게도 우리 나라의 국영기업소 지배인과 직업동맹사이에 그 어떤 대립관계가 있는듯이 주장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국가에서 파견한 우리 나라 국영기업소 지배인을 자본주의사회의 공장기업주와 동일시하는 반동적견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자의 《론문》에서 나타난 그릇된 견해는 둘째로 우리 나라 국영기업소들에도 자본과 로동간에 계급적리익의 대립이 있기때문에 국영기업소 지배인과 로동자들은 호상 대립되는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그들사이에 투쟁이 있게 된다고 한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국유화된 우리 나라의 기업소들에서 관리일군들과 로동자들사이에 계급적대립이 있다고 떠벌이는것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의 근본적차이를 무시하고 그것을 동일시하는 반동적견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자의 《론문》에서 나타난 그릇된 견해는 셋째로 인민정권과 로동자들사이에 마찰과 분쟁이 일어나면 직업동맹이 로동자들에게 최대한으로 유리하게 사업하여야 한다고 한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것은 인민정권의 본질도 모르고 직업동맹의 임무도 모르고 떠벌이는 궤변이며 로동자들이 진정한 자기의 정권을 상대로 하여 투쟁하도록 부추기는 반동적인 주장이라고 엄격히 지적하시였다.

그때 그자는 공공연히 로동자들이 인민정권기관을 반대하여도 좋다고 하면서 직업동맹이 마치도 로동자들과 인민정권사이의 《모순》을 해결하여주는 조직, 로동관계를 조정해주는 조직인것처럼 떠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것은 인민정권하에서의 직업동맹의 임무를 망각한 그릇된 주장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이런 주장을 내놓게 된것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빠져 자기 나라 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우리 인민정권의 성격을 고의적으로 외곡한데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 북반부에는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투쟁임무는 해방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대중조직의 성격과 임무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 변화된 이러한 현실을 보지 않고 로동계급이 정권을 쥔 조건에서도 직업동맹이 자본주의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권과 맞서 투쟁하여야 한다고 떠벌인것은 로동계급과 인민정권을 대립시키며 로동운동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반동적인 책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그가 주장한 《리론》의 부당성을 사상리론적으로 단죄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그의 그릇된 《리론》에 담긴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사상병집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리론이 미치게 되는 영향과 그 엄중성을 설득력있게 해설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철한 가르치심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자가 내놓은 그릇된 견해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 그의 사상적근원에 대하여 똑바로 깨닫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들이 직맹에 관한 반당종파분자들의 반동적리론을 분쇄하며 인민정권하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한 우리 당의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선전사업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담보로 되였다.

2

권위있는 당기와 당마크를 통하여

해방후 혁명력량을 묶어세우는 사업에 선차적주목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창립할 로동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두리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1946년 여름 공산당을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기발을 제정할것을 발기하시고 당기를 통하여 로동당의 고유한 성격과 사명을 대중에게 깊이 인식시킬수 있도록 그의 창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1946년 7월하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급히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계시던 문건을 밀어놓으시며 나에게 얼마전에 발표된 농업현물세제에 대한 선전사업정형이며 완공된 보통강개수공사에 대한 선전사업정형이며를 물어보신 다음 오늘은 우리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창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동무들이 긴급하게 할 사업이 있어서 불렀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요즘 새로 내올 당의 강령과 규약을 준비하고있습니다. 나는 북조선에서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로동

당을 내올데 대한 문제를 오래 생각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내온 이후 우리 당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대중적정당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신민당과 내적으로 협의를 해오시였다고 하시면서 북조선에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은 근로자당을 내오는것은 우리당 건설과 혁명발전에서 실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으로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새로운 대중적정당을 내오게 되는것만큼 이에 대한 선전을 잘하여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이 명확한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우리가 내오는 로동당이 어떤 당인가 하는것을 우리 남북조선의 공산당원들은 물론 다른 근로자당의 당원들 그리고 우리 인민대중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며 세계인민들도 다 알도록 하기 위하여 로동당기발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당기를 만들면 새로 내올 로동당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줄뿐아니라 로동당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게 하는데도 좋습니다.

또한 당기를 만들면 남조선에서 로동당을 건설하는 사업을 크게 고무할수 있으며 미제와 반동들의 파괴책동을 짓부시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도록 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시급히 당기도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혁명을 하는 우리 당의 사상이 잘 안겨오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정당으로 발전하는 우리 당의 성격이 잘 나타나게 당기발도안을 그려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로동당의 성격과 로동당창립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된 우리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 당기도안작성을 다그쳤다.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토론을 거듭하면서 몇가지 도안을 준비하였다. 그 하나는 붉은 기폭에 북조선로동당이라는 글자를 쓴것인데 그것은 당시 군중대회와 시위가 진행될 때 각 기관, 단체들이 자기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을 쓴 기발을 들고 나가는것이 상례로 되여있던것을 보고 창안한것이였다.

또 다른 도안은 기발의 붉은 바탕에 노란색의 오각별을 그린것과 별 대신 마치와 낫을 그린것 등이였다.

이무렵 선전부문의 책임적인 지위에 틀고앉아있던 한 반당종파분자놈은 당기발도안 창작사업이 추진되고있다는 것을 알고 창작가들에게 다른 선진국가에도 당기가 따로 없는데 무슨 그런것이 필요한가 하고 잡소리를 치면서 방해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자의 압력을 물리치면서 당기도안창작사업을 밀고나감으로써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였다. 당기발도안초안을 올리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작과정에 대한 보고를 다 들으신 다음 우리에게 말씀하시였다.

《당기 제정사업을 시비한자들의 말은 제 정신 없이 떠벌인 잡소리입니다.

다른 나라 당들이 기발이 있고 없고 하는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른 당에는 없어도 우리 나라 혁명을 발전시키고 우리 당 건설에 필요하면 당기발을 만들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당사업을 함에 있어서뿐아니라 일상생활에서나 사업에서 우리 당의 주견을 가지고 일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가 당기를 제정하는것은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

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가 혁명을 시작할 때에도 누가 승인해주는것을 기다렸다가 한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당이 창건된 조건에서야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결해나가지 못할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당에 없어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제 마음대로 못하겠습니까.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건말건 우리 당 기발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올린 세가지의 당기도안초안을 하나하나 세심히 보시고나시여 붉은 바탕에 북조선로동당이라는 글자를 쓴 도안을 가리키시면서 당기를 보면 대중적정당인 우리 당의 성격이 직관적으로 잘 안겨와야 하는데 이 도안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당 기발에는 글자로가 아니라 그림형태로 우리 당이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이라는것이 한눈으로 확 안겨오게 그려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북조선로동당이라고 글로 쓴것은 비단 북조선뿐아니라 남조선까지도 포함한 전조선적인 근로인민대중의 통일적당으로 될 우리 당 발전의 합법칙성에 비추어보아도 적당치 않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별만을 그린 도안은 여러 나라들에서 기발에 자주 리용하고있는 너무나도 흔하고 특색이 없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만든 다른 또하나의 도안도 이와 비슷한 결함을 가지고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그대로 받들지 못하고 그이께 만족을 드리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의견을 내놓겠다고 하시면

서 부드러우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당기는 혁명하는 당을 상징하여 붉은색바탕의 기폭에 당마크를 그려넣는것이 좋겠습니다.

당마크는 로동계급과 근로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단결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당기도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당기도안작성의 방향뿐아니라 방도까지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다시 도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다그쳤다. 그것은 결국 당기발과 당마크의 도안을 동시에 창작하는 일로 되였다.

그리하여 마치를 든 로동자와 함께 밭갈이하는 농민을 그린 도안이 창작되였다. 로동자에 대한 형상에서는 쇠장대를 쥔 용해공으로 하자는 안도 있었다.

한편 다른 나라의 국기를 모방한것 같은 도안도 나왔다.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여 당기에 새길 당마크도안이 어떻게 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우리들은 그때까지 만들었던 몇가지 당마크도안초안을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였다.

그것들을 한장한장 주의깊게 번져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마크는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우리 당의 고유한 성격을 잘 나타낼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 도안들의 가장 큰 결함은 로동자, 농민만을 형상하고 근로인테리를 제쳐놓은것입니다.

당마크도안의 이러한 결함은 동무들자신이 로동당의 대중적성격을 잘 모르는데서 나온것입니다.

우리 당 마크에는 반드시 로동계급과 농민과 근로인테리가 함께 형상되여야 합니다. 그래야 로동당이 로동계급과 농

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한 우리 나라 근로인민대중의 통일적당이라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마크도안에 형상할 로동계급은 마치로 표시하고 농민은 낫으로 표시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근로인테리는 펜으로 표시할수 있으나 우리 식으로 붓을 그리는게 더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잘 연구해보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눈앞이 환해짐을 느꼈다.

마치와 낫과 붓, 그것은 참으로 로동계급, 농민, 근로인테리를 나타내는데 더없이 생동하고 합리적인 표식이였다.

우리는 신심을 안고 당마크도안을 완성하는데 달라붙었다. 그리하여 며칠후 그 도안을 위대한 수령님께 올릴수 있었다.

우리가 만든 도안에서는 마치를 수직으로 세워놓고 낫과 붓을 그 오른쪽에 순서대로 배치하였는데 마치와 낫의 자루끝과 붓대끝을 아래에 붙여놓았기때문에 낫과 붓은 비스듬히 옆으로 눕혀 그려져있었다. 얼핏 보면 마치와 낫과 붓을 부채살마냥 펼쳐놓은것 같은 인상을 주는 도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도안을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를 순서적으로 놓아야겠다는 생각만 앞세우다나니 이렇게 되였습니다. 자루끝을 붙여놓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산만하고 헤쳐놓은감부터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린 마치와 낫은 다른 나라의것이지 우리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이 쓰는 마치를 그리며 낫도 우리 농민들이 쓰는 조선낫을 그려야 하겠습니다.

구도상으로 보아도 그렇고 로동계급,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조선의 근로대중이 튼튼히 통일단결되여있다는것을 상징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마치와 낫과 붓을 자루중간점

에서 서로 교차시켜 세워놓은것으로 그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되 마치는 왼쪽에, 낫은 오른쪽에 놓이게 하고 붓은 가운데 놓이게 해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잠시 생각을 더듬으신끝에 붓을 꼭 가운데 놓되 다른것보다 약간 우로 올라가게 해야 보기 좋을것이라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리고 붓을 좀 높이 올려 그리는것은 앞으로 로동자, 농민들도 누구나 높은 지식과 문화를 소유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힘껏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뜻도 가진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는 순간 우리의 눈앞에는 당마크의 완성된 도안이 뚜렷이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는 당마크도안을 고치였다. 그이께서 도안의 형태를 그처럼 명백하게 가르쳐주시였기에 도안개작사업은 빨리 끝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당기, 당마크를 제정하는 일은 로동당을 창립하는 사업의 중요한 한부분이라고 하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또다시 도안초안을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치와 낫의 자루와 붓대가 서로 교차된것을 유심히 살펴보시며 《왜 서로 사귄 마치자루와 낫자루, 붓대의 계선이 없이 범벅이 되게 그렸습니까?》라고 물으시는것이였다.

이 물으심에 우리는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누구나 거기에는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던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도안에서 마치와 낫의 자루들과 붓대가 사귄곳을 지금처럼 범벅으로 그려놓으면 그것들이 놓인 순서를 알수 없습니

다. 누구나 당마크를 보고 마치, 낫, 붓이 놓인 순서를 똑똑히 알수 있도록 그 자루들과 대가 제각기 구분되게 계선을 그어야 하겠습니다. 마치자루는 제대로 선을 다 그어 그것이 제일 앞에 놓여있다는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낫자루의 선은 마치자루가 놓인 자리만 끊어줌으로써 마치자루 다음에 놓여있다는것을 나타낼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흰종이우에 손수 연필로 마치와 낫의 자루들이 서로 사귄곳을 그려 보여주시였다. 그리시고는 가운데다가 붓대를 세워그리시면서 대의 계선이 마치와 낫자루들이 사귄곳에서는 가리워서 안보이는것으로 그리시였다.

그렇게 그려놓으시니 붓대가 마치와 낫뒤에 세워놓았다는것이 한눈에 똑똑히 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자루들과 붓대가 사귄곳의 계선을 구분이 명확하게 그려놓아야 로동계급이 제일 앞에 서있고 그다음에 농민이 서고 맨 뒤에 근로인테리가 서있다는것을 똑똑히 표시할수 있습니다. 붓대는 중심에 세워놓은것 같지만 마치와 낫 다음에 서있다는것을 나타낼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도안을 기초로 하여 기발과 당마크 그리고 당마크의 마치, 낫, 붓의 호상 비례관계를 세칙으로 만들어두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참으로 받아안고 새길수록 한없이 심오한 사상이 깃든 뜻깊은 말씀이였다.

우리 당의 성격과 숭고한 사명을 뚜렷이 상징하는 우리 당 마크와 당기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세심한 지도밑에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인 로동당의 창립과 더불어 태여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기, 당마크를 제정하는 사업뿐아

니라 그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우리 당의 성격과 사명을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당이 창립된지 며칠이 지난 1946년 9월초 어느날 우리 선전일군들을 부르시여 로동당의 창립과 관련하여 해설선전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후 로동당창립과 관련한 해설선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방침에 의한 로동당창립과 그 정당성을 해설하는 글들을 실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성격과 사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해설침투하기 위한 강연, 담화 사업도 조직하였다. 그런데 선전화를 비롯한 직관물을 만들어 선전하는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우리 선전일군들을 부르시여 실태를 료해하시고 당마크를 형상한 선전화를 빨리 만들어 내보내야겠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계속되였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가 마치와 낫, 붓을 높이 추켜든것을 형상한 선전화를 빨리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기에 새겨넣은 마치와 낫과 붓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잘 알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혁명하는 우리 당의 성격이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게 그림을 그려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말씀을 받아안은 우리는 있는

지혜와 힘을 다하여 당마크를 형상한 선전화의 창작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그이께서 밝혀주신 방향과 내용에 따라 며칠사이에 선전화를 만들어낼수 있었다.

새로 만든 선전화를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당마크는 우리 당을 상징한것입니다.

당마크는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손에 힘있게 떠받들려 있습니다.

이 선전화는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에게 떠받들린 우리 당이 필승불패이라는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추켜든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군상을 형상함으로써 우리 당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잘 반영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마크를 형상한 선전화를 빨리 내보내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고유한 성격과 숭고한 사명, 그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잘 알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도 그자리에서 손수 풀어주시였다.

당마크를 형상한 선전화는 곧 대대적으로 출판되여 널리 보급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의 권위있고 존엄있는 당기와 당마크는 그이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광범한 근로대중을 굳게 묶어세운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불멸의 상징으로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졌으며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길우에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되였다.

혁명이 요구하는 옳은 투쟁구호를

당기와 당마크를 통하여 근로인민의 대중적정당인 우리당의 성격을 뚜렷이 밝혀 광범한 인민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이 요구하는 옳은 구호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우리들을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1947년 새해벽두부터 함경북도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함경북도 청진시에 나가있던 나는 정월 어느날 수령님을 따라 청진시안의 한 공장으로 갔다.

공장입구 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큰 구호가 걸려있었다.

《만국의 로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싸워서 잃을것은 철쇄요, 얻을것은 전세계다!》

정문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구호를 한참동안이나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접나온 공장 책임일군들에게 어떻게되여 저런 구호를 써붙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전혀 뜻밖의 물으심에 그는 잠시 덤덤히 서있다가 도당에서 써붙이라고 했다는것을 말씀올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저 구호는 맑스가 《공산당선언》에서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로동계급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내놓은 구호라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의 현단계는 전세계적인 프로레타리아혁명의 구호보다 애국적민주력량을 민족통일전선에 굳게 묶어세워 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해야 할 단계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신 그이께서는 엄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당의 구호는 맑스주의고전에서 기계적으로 따올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제시해야 합니다.

검열을 해보지 않아도 동무들이 지난 기간 당중앙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어떻게 집행해왔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시기 도당의 책임적지위에 잠입한 반당종파분자들은 박헌영간첩도당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그놈들의 《지시》에 따라 그런짓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가 시작되기 얼마전에도 함경북도당의 이 종파분자들은 청진항에 가라앉은 일제놈들의 함선에서 건져낸 금덩어리를 서울에 이른바 《당자금》으로 쓰라고 보내주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요구, 당의 요구와는 어긋나는 하나의 구호를 통하여 함북도당에 들어앉아 《소왕국》을 차려놓고 당중앙의 의도와는 배치되게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종파분자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내시였다.

나는 한 항일투사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선하시는 길에서 하나의 구호를 보시고 바로잡아주시던 이야기를 들은것이 생각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를 거느리시고 개선하시는 길에서 어느 한 지방도시를 지나시던 때 있었던 일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오가 큰 건물앞을 지나가게 되였는데 그 건물벽에는 붉은 천에다 흰색으로 쓴 이런 구호가 걸려있었다.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민족은 공산주의기치아래 단결하라!》

《조선공산당 만세!》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지휘성원들은 그 구호를 보고서도 별로 이상한 생각을 하지 못한채 그대로 지나쳤다.

공산주의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교양을 받아온 그들로서는 충분히 그럴수 있는 일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두가 다 지나쳐간 그 구호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공산주의기치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혼자말씀처럼 이렇게 외우시고 그자리에 서신채 사색의 실머리를 펼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음을 멈추신것을 알고 지휘성원들이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달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구호들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물으시였다.

《동무들, 저 구호를 보면서 생각되는것이 없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받은 지휘성원들은 모두가 방금전에 본 그 구호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얼른 대답을 올릴수가 없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덤덤히 서있는 지휘성원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공산주의기치아래 단결하라는 저 구호가 현단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저 구호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쓴것이기때문에 아직은 우리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것입니다.

당면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할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로 보나 또 일제놈들의 악선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아직 공산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있지

못한 실정으로 보나 이 구호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중을 공산주의기발아래 뭉치라고 해서는 안되며 각계각층 군중이 다 접수할수 있는 구호를 내걸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단계의 우리 혁명에 맞는 그러한 구호는 바로 조선식민주주의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벽에 걸린 몇구절의 구호를 통하여 정세의 요구와 혁명의 성격도 모르는 어중이떠중이들이 선행고전가들의 책을 몇줄 읽어본것을 가지고 자기를 《공산주의자》, 《혁명가》로 행세하면서 저마다 좌우경적구호를 내걸고 우리 혁명을 망치려들던 해방직후의 복잡한 형편을 한눈에 꿰뚫어보시였던것이다.

그 일군이 들려주던 이런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나는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민주주의기발아래 모든 애국력량을 결속할데 대한 구호가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공장에 들리시여 주신 가르치심은 우리 일군들에게 모든것을 우리 혁명의 구체적인 실정과 요구에 맞게 처리하는 확고한 주체적관점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되였다.

이런 일이 있은후부터 지도검열사업은 더욱 심화되였으며 함북도에 틀고앉은 종파분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데서 양봉음위한 종파적정체가 날날이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7년 1월 17일 북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제19차상무위원회를 여시고 《함경북도당단체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으며 함북도당단체의 사업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 일군들은 오늘 우리 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떤 환경에 처하여있고 당의 정치로선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당중앙의 지시대로 일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의 의도와는 맞지 않게 제멋대로 정치적구호를 내놓고있는 이곳 도당단체 일군들을 엄격히 비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구호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의 구호를 내놓을 때에는 반드시 당의 정치로선은 무엇이며 혁명의 기본과업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고 거기에 맞게 내놓아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만일 주관적욕망에 사로잡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나게 덮어놓고 아무 구호나 내놓는다면 혁명투쟁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함북도당의 책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던 종파분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과학적인 분석과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한 투철한 론리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맞게 당의 기본정치로선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력량관계를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옳은 투쟁과업과 투쟁구호를 내놓고있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기본과업은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로동자, 농민, 지식인, 상인, 기업가,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모든 애

국적민주력량을 하나로 굳게 결속하여야 하며 따라서 당의 구호도 응당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굳게 묶어세워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당면하여 우리 당이 들고나가야 할 구호의 내용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함북도에 대한 현지지도가 있은 이후부터 이곳에도 그이께서 제시하신 대단결의 구호가 나붙게 되고 각계각층 군중이 새 조국 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단결의 힘을 반영한 선전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선전교양사업에서 직관물, 특히 선전화가 노는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 사업을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1946년 2월중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3.1인민봉기기념일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히 일하고있었다.

그러는 우리들에게 걸린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3.1인민봉기기념일에 즈음하여 내보낼 선전화창작이 잘 진척되지 않고있는 사실이였다.

이무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1인민봉기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신문, 방송 보도사업, 강연, 해설담화사업 등과 함께 직관물선전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표어판과 구호판 같은것

은 그래도 눈에 띄우는데 선전화가 없다고 하시면서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하여 하나로 굳게 뭉친 애국력량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선전화를 만들어 내보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과업을 받아안은지 며칠이 되였는데도 신통한 안이 나오지 않아 나는 창작가들과 함께 모대기면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단결의 힘, 인민대중의 힘을 보여주어야 하니 많은 사람들을 그림에 등장시켜야 하는가, 등장시킨다면 군중을 어떻게 그려야 하며 새 민주조선 건설이라는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많은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으시는 전화를 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요즘 선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시면서 이제 3월 1일도 며칠 남지 않았으니 3.1운동기념행사와 관련한 모든 선전사업들을 빈틈없이 잘 해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이런 큰 정치사업을 처음 조직하고 집행해보겠는데 일하는데서 애로되는것이 없는가고 따뜻이 물으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에 넘치는 이 말씀에 나는 이 며칠째 우리들이 골을 앓던 선전화문제를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였다.

나의 보고를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요전에 우리가 말한 경위대원들의 벽보이야기가 생각납니까?

벽보에 있던 그림의 착상이 아주 좋은것이였는데 창작가

들에게 그것을 참고로 해보라고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발전시키면 좋은 선전화가 나올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것이였다.

나에게는 며칠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생생히 떠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자주 경위대원들의 숙소에 들리군하시였다. 어떤 때에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와 함께 들리시여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기도 하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위대원들의 숙소에 들리시였다가 군인들은 무엇보다도 제도와 질서를 잘 지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무생활을 반영한 벽보도 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경위대원들은 지혜를 모아 《봉화》라는 제호를 달고 벽보를 만들었다.

얼마후 또다시 그들의 숙소에 들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위대원들의 군무생활이 담긴 그 벽보를 보아주시였다.

그런데 그 벽보의 한복판에는 《력사의 수레바퀴》라는 제목의 만화가 그려져있었다.

그 만화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등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지구를 지레대로 굴리여 반동놈들을 깔아뭉개는것을 내용으로 한것이였다.

말하자면 단결의 힘이 그렇듯 크고 세다는것을 주제로 한 만화였다.

내가 후에 경위대원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만화는 김정숙동지께서 병실에 오시였을 때 가르쳐주신데서 그들이 착상하여 그린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이윽토록 만화를

들여다보시다가 이 만화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들고나왔다고 하시면서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이 만화가 아주 훌륭하오. 참 마음에 드오. 단결이란 저렇게 힘있는거요.

인민들이 단결하면 능히 지구도 굴릴수 있는거요. 암, 굴릴수 있구말구.》

그러신 그이께서는 《동무들, 우리가 부강한 새 조국을 일떠세우는 과업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렇게 인민대중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기만 한다면 능히 해낼수 있는거요.》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위대원들의 숙소를 떠나시면서 동무들이 오늘 아주 중요한 그림을 보여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얼마전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경위대원들의 벽보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한것이였다.

그러나 나자신이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에 담겨진 높은 뜻을 깊이 새기지 못하다나니 그런 선전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나는 창작가들과 함께 전투를 벌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훌륭한 선전화를 만들어내리라 결심다지고 창작가들과 마주앉았다.

그들에게 경위대원들의 벽보그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니 그들도 이젠 구상이 환히 떠오른다고 좋아하면서 더 열성적으로 그림을 그리였다.

그다음날이였다.

나는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무실에 들어선 나에게 선전화를 만들 좋은 생각이 떠올라 동무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것이

였다.

순간 나는 그토록 바쁘신 그이께서 다름아닌 한 선전화의 창작을 두고 이토록 마음쓰시고 정력을 기울이신다고 생각하니 송구한 마음이 앞서 어쩔바를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경위대원들이 그린것처럼 인민들이 지레대로 지구를 굴리게 할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제기한 구호의 사상을 담아 각계각층을 반영한 네사람의 손이 조선지도가 그려진 지구를 받들고있는것으로 그리는것이 좋겠습니다.

그 지구를 받들고있는 손목마다에는 <힘있는 사람>, <지식있는 사람>, <기술있는 사람>, <돈있는 사람>이라고 써넣으면 각계각층 애국적민주력량의 단결이라는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것입니다.

그밑에는 공장들의 굴뚝마다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피여나는것을 그리면 새 조선 건설이라는 의미가 잘 살아날것입니다.

그림의 맨 우에는 <다같이 총동원하여 자유민주의 새 조선을 세우자!>라는 구호를 써넣으면 선전화의 선동성과 호소성도 잘 보장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는 훌륭한 선전화가 생동한 화폭으로 머리에 떠오르는것을 느끼였다.

나는 신심으로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 이제는 선전화를 잘 그릴수 있을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동무가 마음에 들어하는것을 보니 그림이 잘될것 같다고 하시면서 어서 돌아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사무실에 돌아오자 곧 그 과제를 맡아 수행하던 화가를 불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림의 구상을 이

야기하였다.

그는 흥분을 금치 못해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선전화라고 하며 환성을 올리는것이였다.

그는 밤을 지새워 그림을 그렸다.

나는 완성된 선전화의 초화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에 달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되였는가고 기뻐하시면서 보시던 일들을 다 뒤로 미루고 그림부터 보아주시였다.

그림을 여러모로 검토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네사람의 손에 떠받들려있는 지구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지구중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가르치신대로 조선지도가 그려져있었다.

무엇인가 잠시 생각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구를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지구의 둘레에 해발을 그려넣는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조선에서 비쳐나가는 해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애국적민주력량의 단결된 위력으로 온 세상에 광휘로운 빛을 뿌리는 새 조선을 건설하자는 사상을 더 명백히 나타낼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선전화를 내보낼 구체적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신문에 그 그림을 내보내는것과 함께 다른 편으로는 종이를 마련하여 선전화를 많이 찍어내며 각 도들에서도 그것을 신문에 내고 대형그림으로 그려 내붙이게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종자로부터 그림의 구도까지 잡아주신 단결의 힘을 반영한 이 선전화는 훌륭히 완성되여 대량 출판되였다. 이와 함께 1946년 3월 1일부 《정로》에도

이 그림이 나갔다.

선전화는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실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개선군중대회에서 제시하신 단결의 사상을 집약한 그 명제가 한눈에 안겨오게 그려진 이 선전화는 우리 인민들을 대단결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훌륭한 길잡이의 사명을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선전일군들도 미처 눈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보살피시면서 자신의 빛나는 모범으로 애국적민주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사상선전사업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치신 이렇듯 크나큰 로고의 나날속에 나라를 사랑하며 새 조국 건설에로 지향하는 모든 민주주의력량이 우리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결속되여갔던것이다.

3

3.1인민봉기기념행사를 계기로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민주주의기발아래 묶어세우도록 우리들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능한 모든 기회와 계기를 다 리용하여 애국적민주력량을 결속하기 위한 힘있는 정치선전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첫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1946년 1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급히 부르신다는 련락을 받고 우리들이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갔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긴급히 조직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동무들을 불렀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3.1인민봉기기념일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물으심을 받은 우리들은 아무런 대답도 올리지 못하였다.

한것은 그때까지 3.1인민봉기기념일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도 아직 생각해본것이 없었기때문이였다.

우리들은 우리 당앞에 당면하게 나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전사업을 밀고나가는데 온 정신을 쏟아붓고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들은 3.1인민봉기를 기념할데 대하여서는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다가 우리들 대부분이 3.1인민봉기는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이니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크게 떠들겠는가고 잘못 생각하고있었으므로 3.1인민봉기기념일을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상정시키는 사람도 없었다.

우리 일군들속에서 3.1인민봉기의 의의가 이처럼 홀시되고 지어는 망각되여가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거족적인 반일인민봉기인 이 운동의 참다운 의의를 높이 평가하시고 겹쌓인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분초가 귀중하신 그 바쁘신 속에서도 3.1인민봉기를 기념할데 대하여 구상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포치하시는것이였다.

그 어떤 복잡다단한 형세하에서도 모든 문제들을 예견성

있게 내다보시고 그 준비사업을 미리부터 하나하나 포치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언제나 가슴깊이 느껴온 우리들이였지만 이때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3.1인민봉기기념행사준비에 관심을 돌리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금 경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크나큰 감격속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러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3.1운동 27주년기념행사를 크게 조직해야 하겠습니다.

일제통치시기에는 3.1운동에 대하여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전민족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궐기한 민족항쟁운동입니다. 우리는 응당 3.1운동의 의의와 교훈을 인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3.1운동기념행사를 크게 조직하자고 하는 당의 의도를 동무들이 우선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3.1운동기념행사를 통하여 조선인민은 자기 손으로 통일적인 민주주의림시정부를 세우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한 위대한 인민이라는것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단결된 힘과 완강한 투쟁정신을 가진 자주적인 존엄있는 인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우리들은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3.1인민봉기기념행사를 예견조차 하지 않은 자신들의 협애한 사고방식과 미숙하고 거치른 사업태도에 대하여 부끄럽게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또한 3.1운동기념행사를 통하여 진보적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애국적인 각당, 각파들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굳게 단결시키자는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어린 시선을 한 일군에게 돌리시며 《어떤 동무들은 3.1운동이 부르죠아민주주의운동이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크게 떠들고 기념할것이 못된다고 한다는데 동무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시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물으심에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낯을 붉히고 서있었다. 바로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져서였다.

다른 일군들도 같은 심정이여서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1운동을 단순한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으로 단정하고 그것을 크게 기념할 의의가 없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은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19년 3월 1일은 일제의 식민지적통치와 압박을 반대하여 전민족이 한사람같이 일어나 일제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은 날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이 반일항쟁에서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은 불견실한 립장을 취하고 무저항주의로 나갔으며 추악한 정치적투기행위를 감행하였지만 인민대중은 민족의 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리며 용감히 싸웠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뜻깊게 기념하자는것이며 전체 인민들이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선렬들의 정신을 본받아 나라의 완전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 행복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해나가도록 하자는것이라고 힘주어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우리들은 3.1인민봉기의 력사적의의를 보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한 자신들의 정책적안목이 얼마나 협소한것이였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윽고 말씀을 다시 이으시였다.

《지금 반동들이 3.1운동기념일을 자기들의 음흉한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하여 리용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반동들은 3.1운동의 민족적단결의 구호를 리용하여 종교세력, 민족주의세력과 온갖 친일, 친미 반동세력을 규합하여 시위 같은것을 조작하고 우리가 내놓은 민주주의적인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밀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3.1운동기념행사를 성대히 조직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반동들과의 투쟁에서 우리가 주동을 쥘뿐아니라 놈들을 고립시키고 제때에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1운동기념행사를 이번에 성대히 조직진행하는 우리 당의 의도를 잘 반영하여 당의 지시문도 내려보내고 구호도 발표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외정세와 각당, 각파의 동향을 심중히 고려하여 3.1운동기념행사를 우리 당이 주동이 되여 조직진행하되 어디까지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함께 준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공동준비위원회도 뭇고 공동선언도 발표해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 사업을 일일이 보살펴주시고 편향없이 옳게 수행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1인민봉기기념일을 앞두고 진행

할 사업과 당일의 행사계획에 깊은 주의를 돌리시고 세세히 검토하시였다.

그때 우리들이 작성한 초안에는 당일의 행사보장을 위한 사업을 기본으로 하였고 당일행사도 평양과 각 도소재지들에서 보고대회만 가질것으로 예견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것을 헤아려보시고 기념행사를 이렇게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하시면서 계획을 바로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념행사에서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그 힘을 키우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3.1운동기념일을 앞두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군중정치선전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1운동기념주간을 설정할것과 이 기간에 공장, 기업소, 농촌, 가두들에서 강연, 담화 등 해설선전사업을 진행하고 출판보도선전과 예술선전을 강화하며 궐기모임들을 가지고 생산돌격운동을 전개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당일에도 보고대회만 가질것이 아니라 군중시위를 크게 조직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규모와 방법, 군중시위때 부를 구호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고서야 우리는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가 하는것을 느끼게 되였으며 3.1인민봉기기념행사를 성대히 조직진행하시려는 그이의 깊은 의도와 웅대한 구상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 며칠후인 2월 1일에 3.1인민봉기기념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지시가 내려가게 되였다.

우리 당과 민주당, 청우당 그리고 각 사회단체들을 망라하여 3.1인민봉기기념공동준비위원회도 조직되였으며 공동

선언도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2월중순에 소집된 당중앙조직위원회 제4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3.1인민봉기기념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며 그 기념구호를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선정하여주시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1운동기념행사를 토지문제해결을 위한 대중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높은 뜻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3.1인민봉기기념준비사업은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힘있게 추진되였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군중정치선전사업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각지에서 결기모임들을 가지고 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이 과정에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우리 당의 두리에 광범한 군중이 더욱 튼튼히 결속되였다.

마침내 3월 1일이 되였다.

이날 전국각지에서 경축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이른아침부터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 대렬이 경축대회장인 역전광장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삽시에 광장과 거리들에는 수십만명의 군중이 차고넘쳤다.

그가운데는 수도시민들과 함께 대동, 강동, 강서, 안주를 비롯한 평안남도의 농민들도 많았고 전국각지에서 온 수백명의 농민대표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경축행사에 몸소 참석하시여 군중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며 《3.1운동 27주년을 맞이

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3.1인민봉기의 력사적교훈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새 조국 건설의 과업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열렬한 연설은 인민들에게 불타는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으며 그들의 투쟁기세를 힘있게 고무하였다.

이어 대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군중은 반동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구호를 높이 부르며 힘차게 행진해나아갔다.

대회주석단에서 내려오신 길로 시위군중을 고무격려하시며 모레터까지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시위대렬의 선두에 서시여 로동자들과 함께 걸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모신 시위대오는 험산 준령도 사나운 폭풍도 단숨에 헤쳐나갈듯 대하처럼 세차게 굽이쳤다.

시위대렬의 앞뒤를 오가며 벅찬 가슴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는 나의 눈앞에는 불현듯 27년전의 이날 독립만세를 웨치며 쓰러지던 인민들의 참혹한 모습이 자꾸만 얼른거렸다.

그때도 인민들은 용감히 일어나 싸웠다.

그러나 그날의 투쟁은 가슴아픈 희생과 실패만을 가져다주었다.

인민들은 피흘리며 싸웠으나 그렇듯 갈망하던 자유도 독립도 이룩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한 인민들의 투쟁은 참혹한 실패를 면할수 없는것이였다.

이것이 3.1인민봉기가 력사에 남긴 피의 교훈이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뜻깊은 시위대오에 서서 지난날의 피의 교훈을 되새겨보며 오늘의 영광에 가슴벅차오른 우리의 볼우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우리 인민은 지난날 자기들을 믿어주지도 않고 이끌

어줄수도 없는 그런 《운동자》들에 의해 롱락당해온 그런 인민이 아니였으며 외래침략자들의 총칼아래 피흘리고 쓰러지던 그런 힘없는 인민도 아니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항일의 20성상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신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승리의 한길을 따라 나아가는 불패의 인민으로, 자신의 힘을 믿고 결연히 일떠선 긍지높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된것이였다.

참으로 이날의 군중대회와 시위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힘과 존엄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시위하고 각계각층 군중을 민주주의기발아래 굳게 묶어세우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일대 정치행사였다.

민족《대동단결》의 반동성을 폭로하라시며

해방직후 우리 혁명에서 가장 첨예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던 대중전취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나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이께서 위력한 선전공세로 반동파들이 들고나왔던 《대동단결》론을 짓부셔버리시고 민주건국의 힘찬 전진운동을 다그치게 하신 그 불멸의 업적에 가슴뜨거워옴을 금치 못한다.

해방후 새 민주조선 건설로선을 관철하는 앞길에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로 나섰던것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하나로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이였다.

그런데 당시 우리 나라의 주민구성이 매우 복잡하고 그들의 동향과 준비정도가 각이하였던 실정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세우자면 가장 옳바른 단결의 기치가 있어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해방직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민주를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을 민주주의기발아래 묶어세울데 대한 대단결의 탁월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대단결의 이 방침에는 정견과 신앙, 재산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주건국에 발벗고나서는 사람이면 다 믿고 품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치고있었다.

하기에 해방직후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대단결의 위대한 구호에 끝없이 고무되여 민주주의기치밑에 굳게 뭉쳐 새 민주조선 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섰던것이다.

그런데 이무렵 미제의 주구 리승만매국도당과 그와 결탁한 북반부의 반동분자들은 민주력량을 파괴할 목적밑에 《대동단결》이라는 허울좋은 구호를 들고나와 인민들을 기만하고 저들의 편에 낚아보려고 책동하였다.

더우기 당시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와 민주당의 지도적자리에 틀고앉아있던 조만식과 그 졸개들은 반동으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이른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기만적인 《대동단결》의 구호를 웨쳐대고있었다.

놈들이 떠벌인 《대동단결》의 구호는 친일파, 민족반역자할것없이 조선민족이면 아무 사람이나 덮어놓고 다 뭉치자는 반동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이며 반인민적인 구호였다.

그런데 당시 적지 않은 군중은 각성되지 못하고 의식수준이 낮은데로부터 《대동단결》이라는 이 기만적구호의 반동적본질을 옳게 꿰뚫어보지 못하였으며 이 구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놈들의 악랄하고도 음흉한 속심을 알아차리지 못하

고있었다.

더우기 사상정치적으로 일정하게 준비되고 투쟁경력도 있다는 일군들가운데도 우리 당이 내놓은 대단결의 방침과 놈들의 《대동단결》의 구호를 어슷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많은 군중은 《대동단결》의 구호밑에 감행하고있는 반동세력의 책동에 기만당하여 동요하고있었으며 나아가서 민주력량이 크게 분렬파괴될 위험이 조성되게 되였다.

사태는 매우 엄중하였으나 당시 선전부문의 일군들은 놈들의 《대동단결》의 구호와 그것이 민주력량단합에 미치게 되는 후과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로 보지 못하였으며 반동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아무런 방책도 세우지 못한채 걱정만 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반동분자들의 이 흉악한 속심을 제때에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가장 옳바른 대책을 세우신분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이 《대동단결》의 구호를 들고나왔던 초기에 그 반동적본질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그자들의 음모책동을 전면적으로 폭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군중을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과 대단결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5년 10월 13일 각 도당책임일군들앞에서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연설에서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과 대단결의 방침을 다시금 명확히 천명하시면서 반동세

력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떠벌이는《대동단결》의 반동적본질을 전면적으로 까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민족통일전선은 친일파, 민족반역자 할것없이 조선사람이면 아무 사람이나 다 뭉치는 식의 통일전선으로 되여서는 안되며 또 그러한 통일전선이 이루어질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인민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분자들을 통일전선에 망라시킬것이 아니라 그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의 민족통일전선정책과 대단결의 방침을 밝힌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단행본으로 출판되여 각급 당단체들에 배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로작을 단행본으로 출판배포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선전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주시였다.

1945년 10월 23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출판된 불후의 고전적로작《**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를 보시면서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관한 우리 당의 주장을 밝힌 이 문헌을 가지고 선전공세를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헌을 볼수 있게 하며 문헌의 내용을 소개선전하는 강연사업도 활발히 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헌을 신문, 잡지를 비롯한 여러 출판물에도 실어 다양한 형식으로 대중의 수준에 맞게 해설선전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우리는 우리 당의 민족통일전선정책과 대단결의 방침을 인민들속에 깊이 해설침투시키며 반동파들이 들고나온《대동단결》론의 반동적본질을 폭로하는 선전공세를 힘있게 벌리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당출판기관에서도 더 많이 출판하며 지방당조직들에서도 대대적으로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산당원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이 이 문헌을 빠짐없이 읽을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당보를 비롯한 신문들에도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을 해설하는 글들을 내보내는 한편 군중속에서 문헌의 내용을 해설하기 위한 강연선전공세를 들이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방송강연이라는 새로운 선전선동형식이 나와 활발히 진행된것도 이때부터였다.

우리 당만이 아니라 우당들과 각 사회단체들에서도 지도적인 일군들이 방송으로 15분, 20분씩 강연하여 대중을 민주력량의 단결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호소하였다.

한편 모든 당단체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헌에서 밝히신 통일전선정책과 대단결의 방침대로 우당들과의 관계도 잘 가지고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선전공세를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가르치심은 실생활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여러가지 형식의 위력한 선전사업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내용을 똑똑히 파악하게 된 각계각층 군중은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과 대단결의 방침을 적극 지지옹호하여 민주주의기치밑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였으며 놈들의 반동적인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게 되였다. 더우기 놈들의 기만적인 구호에 넘어가 동요하던 계층들도 공산당의 두리에 뭉쳐 새 민주조선 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선전공세의 성과에 기초하여 놈들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대동단결》론과 그것을 들

고 감행하고있는 반동분자들의 흉악한 책동을 최종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선전공세가 강화되면 반동세력이 더 발악적으로 책동할수 있다는것을 명철하게 예견하시고 반동세력의 괴수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펼치시였다.

그이께서 예측하신대로 북반부에서 반동세력의 괴수였던 조만식일파는 최후발악적인 책동에 매달렸다.

조만식일파는 《대동단결》의 기만적인 구호가 여지없이 폭로되자 반동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우리 당을 반대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돌리였다.

조만식과 그 졸개들은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을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민주력량을 파괴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아보려고 로골적인 음모책동을 감행하였다.

특히 모스크바3국외상회의결정이 나오고 통일적인 민주주의림시정부의 수립이 당면한 과업으로 제기되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조만식도당의 반동적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우리 당을 비롯하여 진보적민주력량이 통일적인 민주주의중앙정부수립을 적극 지지하여나설 때 조만식일당은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책동에 발맞추어 인민정권을 파괴하려고 날뛰면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한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을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조만식일파의 반동적음모책동은 더는 참을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동세력의 우두머리를 분쇄하고 제거하여야 참다운 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민주주의기발아래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다고 인정하시고 우리 일군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이 사업을

능숙하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전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해나서는 조만식일파의 책동을 여러가지 출판보도수단을 통하여 폭로분쇄하기 위한 선전공세를 힘있게 벌리였다.

한편 그이의 가르치심을 지침으로 삼아 민주당안에서도 진보적력량이 조만식일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였다.

민주당안의 진보적력량은 충분한 준비밑에 열성자대회를 열고 대회의 이름으로 조만식과 그 졸개들의 반당적, 반민주주의적 책동들을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였다.

이러한 폭로사업은 지방에서도 광범히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조만식일파는 더 배겨내지 못하고 마침내 민주당과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에서 쫓겨나게 되였다.

조만식일파가 제거된것은 민주와 반동간의 투쟁에서 민주력량이 이룩한 커다란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만식일파가 제거된후에도 투쟁을 멈추지 말고 조만식의 반동적정체와 그 죄행을 폭로단죄하는 대대적인 선전공세를 련속 벌리도록 우리들을 이끌어주시였다.

조만식과 그 졸개들이 제거된 초기에만 하여도 나를 비롯한 선전부문의 일군들은 그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이제 더는 필요없게 되였다고 생각하면서 그와 관련한 사상선전사업을 포치하지 않고있었다.

그러던 1946년 2월하순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선전일군들을 부르시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만식의 정체를 폭로하는것은 그가 무슨 큰 존재가 되여 그러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놈인가 하는것을 인민들이 똑똑히 알게 하여 그의 반동적인 사상영향에서 그

들을 건져내며 건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서부지구의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 조만식을 우상화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놈들의 영향밑에서 떼내여 애국적민주력량의 편에 묶어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우리들은 조만식일파를 반대하는 선전사업을 늦추려 한것이 얼마나 짧은 생각이였는가 하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사실 당시 실정을 놓고보면 극악한 반동의 괴수인 조만식은 제거되였어도 그자가 수많은 군중에게 끼쳐놓은 반동적인 사상영향은 극복되지 못하고있었다. 더우기 조만식이 제거된후 리승만괴뢰도당은 미제의 사촉밑에 온갖 어용보도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가 마치 민족의 단합을 반대하는듯이 헛나발을 불어대게 하면서 우리 인민들을 다시금 기만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만식의 정체와 죄행을 발가놓는 선전공세를 계속 강화하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그 뚜렷한 방향까지도 상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조만식의 반동적인 정체와 죄행을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폭로하는 방향에서 선전공세를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조만식의 정체와 죄행을 자세히 말씀하여주시였다.

조만식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략탈정책을 지지하고 놈들에게 적극 복무한 극악한 친일주구였다.

8.15해방이 되자 조만식은 그때까지 평남도지사를 해먹

던 일본놈과 마주앉아 그자리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꿍꿍이를 벌리였다.

도지사로 있던 《기하라》란 일본놈이 조만식에게 자기 자리를 맡으라고 하면서 그대신 저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을 보장해달라고 제기하였다.

그러자 조만식은 그 대가로서 30만원을 요구하였다. 조만식이 8.15후 평남도의 행정권을 일시나마 손에 넣을수 있은 것은 일제상전과 주구사이에 벌어진 바로 이러한 더러운 흥정의 결과였던 것이다.

이자는 평안남도 지방행정권을 틀어쥔후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우리 나라에 경제적난관을 조성하고 경제생활을 파멸에로 이끌어가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조만식과 그의 졸개들은 당시 긴장되였던 식량문제를 가지고 혼란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조만식일당은 량곡성출운동을 파탄시킬 목적으로 《성출한 쌀은 외국사람을 먹이기 위한것이니 내지 말라.》고 떠벌이는가 하면 농촌에서 성출미를 싣고 평양시내로 들어오는 농민들을 속여 되돌려보내는 등 암해책동을 로골적으로 벌리였다.

놈들은 공금을 탐오랑비하여 평남도인민정치위원회의 재정운영을 곤난하게 만들었으며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하고 생산을 보장하는 사업을 의식적으로 태공하였다.

이렇게 경제를 혼란시키고 인민생활을 파탄시킨놈들은 대중속에서 불평불만을 조성하고 나중에는 인민들이 우리 당을 반대하여나서도록 만들려고 미쳐날뛰였다.

조만식일당은 우리 당이 내놓은 3,7제실시를 반대하여서도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씀하여주신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조만식의 반동적정체와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행을 폭로하는 선전공세를 벌리였다.

우리는 우선 강연선전사업을 일제히 조직진행하였다. 전국적으로 벌어진 군중강연들은 그대로 조만식의 범죄행위를 폭로단죄하는 일대 정치집회로 되였다.

한편 당보를 비롯한 신문들에 많은 글들을 내보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이러한 선전공세에 의하여 극악한 반동분자로서의 조만식의 정체와 죄행은 더욱 날날이 폭로되였으며 이자를 아직도 환상적으로 대하던 군중이 그 사상영향밑에서 떨어져나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만식의 반동적 정체와 죄행을 발가놓는 선전사업을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형식으로 폭넓게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만식일파의 정체를 폭로하는 선전공세를 한창 벌리고있던 어느날 나를 부르시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조만식의 반동적정체를 폭로하고 그자의 반역적범죄행위를 규탄하는 선전사업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폭넓게 조직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당에서만 그자를 때리는 식으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이자의 영향하에 있던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떼내자면 민주정당들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들고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하면 우당산하의 성원들과 종교인들, 소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각성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요즘 출판보도물에서나

당선전선동체계에서 이자의 반동적정체를 폭로하는 사업을 하고있는것을 보면 아직도 일반적인 소리가 많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더 깊이있게 구체적으로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조만식이 나라와 민족을 반역한 나쁜놈이며 우리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해 이런자들을 제거해버려야 한다는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자면 그것을 례증할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들면서 납득이 가게 선전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전사업에서 언제나 필요한것이지만 원쑤들을 폭로단죄하는 사업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나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일제놈들이 조선청년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기 위하여 저들의 어용출판물에 조만식이 쓴 글을 냈는데 그것을 보고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제말기의 신문들을 찾아보면 그자가 써낸 글이 있을것이니 찾아보고 선전자료로 참고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는 공산당밖의 인사들을 동원시켜 조만식을 폭로단죄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우리는 또한 일제시기의 신문에서 이자가 쓴 민족반역적인 글을 찾아내여 널리 폭로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일제의 어용신문이였던 《매일신보》 1943년 11월 10일부에 난 《학도에게 고한다》라는 글이 바로 그것이였다.

침략적인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조선청년들까지 모조리 끌어다가 대포밥을 만들려고 이른바 《지원병》, 《학도병》의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을 강제모집하였으며 이어 《징병

제》를 실시하였다.

이때 조만식은 《일사보국 나아갈길은 하나다》라고 하면서 청년학생들을 전쟁마당에 빨리 나가라고 추동질함으로써 일제의 침략전쟁을 적극 도왔다.

우리는 《정로》에다가 《조만식은 전쟁범죄자, 인민재판을 받음이 당연, 백일하에 폭로된 이 사실을 보라》, 《〈학도병〉모집당시 조만식의 반역적격려문》이라는 표제아래 일제당시의 신문의 사진판을 받쳐 이자의 글을 그대로 공개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말로 호소하고 강조하는것보다 몇갑절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극악한 반동분자 조만식의 반역적 죄행을 인민대중에게 인식시켰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이러한 일대 정치선전공세에 의하여 인민들은 조만식일파의 반동적 정체와 죄행을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이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민주주의기발아래 참다운 애국력량의 단합을 공고히 하는 과정이였으며 반민주주의적이며 반인민적인 《대동단결》의 구호밑에 감행하는 반동세력의 매국배족책동을 짓부시고 민주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가는 거창한 흐름이였다.

려운형에 대한 추모회와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거족적투쟁의 길에서 각당, 각파의 애국적민주력량을 통일전선에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시

였다.

통일전선운동을 강화하고 그것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1946년 7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민전) 각급위원회를 내오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를 통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단합된 힘으로 새 조국 건설을 다그쳐나가도록 애국적민주력량을 한결같이 조직동원하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전선운동에 대한 정력적인 령도를 되새겨볼 때마다 나는 지금도 민전결성 한돐기념행사와 그무렵 남조선반동들에 의하여 피살된 려운형선생에 대한 추모회를 함께 벌리게 하시여 그것을 모든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일대 정치사업으로 되게 하신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가슴깊이 느끼군한다.

1947년 7월 22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된지 한돐이 되는 날이였다.

민전결성기념일을 한달 앞둔 6월하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전결성 한돐기념행사준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선전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적인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오늘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결성 한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기념행사를 크게 해야 하겠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지난 한해동안 커다란 승리와 업적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번 기념보고대회의 의의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결성 한돐기념보고대회를 크게 할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북조선민전이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는 이번 기념보고대회는 북조선민전의 위력을 시위할뿐아니라 남조선민전에 커다란 영향과 고무를 주게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념보고대회의 보고문을 잘 써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특히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이 잘 나타나게 써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보고문의 체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문은 크게 세가지 체계로 쓰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결성과정과 조선혁명발전에서 북조선민전의 투쟁 그리고 북조선민전의 당면과업 등 보고문에 담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보고문을 미리 잘 만들어 중앙과 지방들에서 기념보고대회를 조직진행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전결성 한돐기념보고대회에서는 대회의 명의로 남조선민전에 편지를 보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편지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전결성 한돐기념보고대회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중요한 정치적의의를 가지는 집회라고 하시면서 보고문을 비롯한 대회문건준비를 잘해야 하겠다고 거듭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기념보고대회의 날자와 장소, 그 흐름 등 행사의 구체적계획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민전결성 한돐기념행사는 한달전부터 그 준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기념보고대회의 보고문도 작성하고 남조선민전에 보내는 편지초안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신문과 잡지, 통신과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당선전선동체계를 통하여 민전결성의 의의와 지난 1년간의 그의 업적을 해설하는 선전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민전산하의 다른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에서도 자체의 교양체계에 따라 이와 같은 해설선전사업을 널리 진행하게 하였다.

하여 인민들속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열의가 비상히 높아진 가운데 민전결성한돐기념행사를 맞이하게 되였다.

그런데 이 기념일을 며칠 앞둔 7월 19일이였다.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마수에 의하여 남조선의 민주인사 려운형이 피살되였다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후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미제와 리승만도당은 저들의 하수인인 한 악한을 시켜 서울시 혜화동의 번화한 네거리에서 대낮에 려운형이 탄 자동차를 향해 저격케 함으로써 그를 무참히 살해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범죄적행위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도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있었다.

그러던 그 이튿날 아침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의 집무실로 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한 민주인사가 불의에 희생된 사실을 두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갈리신 음성으로 려운형이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손에 의해 피살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신 그이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온갖 회유와 위협공갈을 물리치며 민족적량심을 저버리지 않고 애국적지조를 굳건히 지켜 싸워온 그를 회고하시는듯 멀리 창너머에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일제시기부터 려운형은 민족적독립의 길을 찾아 헤매이며 파란많고 곡절많은 한생을 보내왔다.

그것은 수많은 애국인사들에게 차례졌던 수난과 울분, 방황과 암중모색의 답답하고 어둡기만 한 인생행로였다.

려운형은 해방후에도 복잡한 정세속에서 옳바른 길을 찾기 위해 안타까이 모대기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던 그가 그 어지러운 사회, 복잡한 정세 속에서 민족적량심을 저버릴수 없어 그것만을 지켜 싸우며 살아온 보람을 느끼며 자기가 나아갈 길을 바로 찾고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설레이게 된것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깊은 사랑의 손길이 몸가까이에 미친 그때부터였다.

특히 그가 1946년 2월에 평양에 들어와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귀중한 교시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닌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그의 활동과 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건국로선과 민족자주의 길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참다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단합된 힘으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이때 려운형은 끝없는 감격을 금치 못하며 위대한 수령님께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니 답답하던 가슴이 후련해지고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이 환히 내다

보인다고 하면서 어떤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오직 장군님만을 믿고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받들어나가겠다고 맹세다졌다.

남조선에 돌아가서도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널리 해설선전하면서 우리 민족은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길로 나가야 한다고 력설하군하였다. 그리고 가는곳마다에서 그는 각계 인사들과 청년들에게 김일성장군님은 백두산에서 강도 일제와 싸워이기신 전설적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하면서 그분의 령도를 받는 우리 민족의 장래는 더욱 휘황하다고 감개무량하게 말하군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녀사의 고결한 인품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자기가 조선은 말할것 없고 외국에서도 한다 하는 녀걸들과 녀성명사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김정숙녀사 같으신분은 어디에서도 본적이 없다고 진심을 토로하군하였다.

그는 이러한 신념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건국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자기를 회유해보려고 간교하게 책동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그때마다 된타격을 가하였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령관이던 하지란놈이 려운형에게 아이들을 미국에 류학보내주겠다느니 뭐니 하고 달콤한 소리를 하면서 그를 끌어당기려 하였을 때 그가 단호한 태도로 이를 배격함으로써 놈들에게 타격을 가한것은 그 단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그때 그는 자기 아이들을 우리 당의 품속에서 배우며 새 조국 건설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북반부에 들여보내였다.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은 이러한 그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제거하려고 발악하던 끝에 백주에 네거리에서 그를 암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던것이다.

이윽하여 시선을 다시금 우리들에게로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반동들이 려운형선생을 학살한 야수적만행을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려운형선생에 대한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학살만행에 치솟는 민족적격분과 증오심을 가지고 놈들을 규탄하며 단죄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에 대한 추도회를 조직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의 추도회를 따로 조직하지 말고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결성 한돐기념보고대회에서 함께 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을 추도하는 모임을 민전결성 한돐기념보고대회와 함께 조직하는것은 려운형에 대한 학살사건을 계기로 미제와 리승만매국도당의 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하는 일대 정치공세를 들이대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광범한 애국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워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려운형에 대한 학살만행과 관련하여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명의로 전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낼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호소문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의 애국적활동과 그에 대한 미제와 리승만매국도당의 탄압, 학살 만행을 준렬히 폭로단죄하는것과 함께 민주주의적인 통일정부의 수립을 반대하

고 괴뢰정부를 조작하려는 반동세력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이 민전산하에 튼튼히 단결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것을 호소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추도회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추도문을 잘 준비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산에서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싸울 때 전투에서 희생된 동지들을 추모하여 밤을 지새워가며 우등불가에서 추도문을 쓰군하였습니다.

그때 추도문에는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혁명동지들을 추모하는 내용도 썼지만 대원들이 동지를 잃은 슬픔을 용기로 바꾸어 새로운 결사전에 떨쳐나서도록 호소하는 내용도 썼습니다.

추도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충성의 한길을 걸어온 혁명동지의 높은 정신세계와 다함없는 충성심을 뜨겁고 절절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을 떠난 혁명동지가 그러하였던것처럼 모두가 혁명의 한길에서 억세게 싸워나가자는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을 추모하는 추도문을 통하여 조국의 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하여 고귀한 애국운동에 헌신하여오다가 남조선반동파들의 마수에 희생된 려운형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절절히 표시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추도문에 해방전 일제의 탄압속에서도 그가 굴함없이 애국적운동을 하여왔으며 해방후 남조선민전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진보적립장을 견지하고 시종일관 조선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여왔다는것과 생의 마지막날

까지 조선민족의 애국지사의 한사람으로 싸우다가 희생되였다는것을 잘 써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오늘 그의 고귀한 희생앞에 애도를 표하면서 그를 살해한 반동파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며 모든 애국력량이 더욱 굳게 뭉쳐 민주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고야말 맹세를 굳게 다지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추도문이 더 절절하게 되도록 하시려고 오랜 시간에 걸쳐 깊은 생각을 더듬으시면서 거기에 담을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여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우리의 눈굽은 어느새 축축히 젖어들었다.

애국운동에 헌신하던 한 민주인사를 위하여 그를 추모하는 추도회를 마련해주시고 추도문의 구절구절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고결한 풍모와 숭고한 뜻이 가슴깊이 새겨져 우리는 실로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에 대한 추도회를 조직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미제와 리승만매국도당의 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하는 사업을 강력히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려운형의 피살사건에 대한 보도를 신문에 한두번 내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인민들에게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야수적만행을 죄다 인식시킬수 없다고 하시면서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인사들에 대한 테로학살만행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제강을 잘 만들어가지고 놈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강연사업을 전국적으로 조직진행해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반동들의 테로와 학살만행을 날카롭게 폭로단죄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가르치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려운형에 대한 암살사건을 계기로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하는 일대 정치공세가 벌어지게 되였다.

마침내 7월 2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참석하신 가운데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결성 한돐기념보고대회가 국립극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된후 한해동안의 사업성과와 업적을 총화하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이어 대회에서는 려운형피살사건에 대한 통신보도가 전달되고 반동들이 감행한 이 학살만행을 규탄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온 대회장은 남조선을 략탈과 파괴, 살인과 테로가 살판치는 암흑천지로 만든 20세기의 해적이며 극악한 살인마, 흡혈귀인 미제와 그 하수인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불타는 증오와 분노로 소용돌이쳤다.

그리하여 민전결성 한돐기념보고대회는 려운형을 학살한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범죄행위를 치솟는 민족적격분으로 폭로규탄하는 대회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반동세력의 발악적책동을 짓부시며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갈 억센 결의를 다지는 대회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우리는 대회진행에 대한 보도와 함께 려운형을 추모하는 추도문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출판물에 발표하였으며 미제와 남조선반동

들의 야수적만행을 폭로하는 사업을 강력히 벌렸다.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인사들에 대한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테로학살만행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만든 제강을 가지고 군중강연을 일제히 조직진행하였으며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놈들의 범죄행위를 백일하에 철저히 폭로하였다.

참으로 조성된 사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뛰여난 지략을 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민전결성 한돐기념보고대회와 려운형에 대한 추모회는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탄압학살하면서 민주주의통일정부수립을 방해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결정적타격으로 되였으며 애국적민주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우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제3장 새 제도, 새생활 창조에로 불러일으키시여

1

토지개혁에로 이끈 련속선전공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제도, 새생활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언제나 정치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매 투쟁의 성격과 대중의 준비정도, 정세의 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옳바른 선전사업방향을 밝혀주시였으며 진공적인 선전공세를 친히 포치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의 하나로 제기되였던 토지개혁도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위력한 정치사업, 련속적인 선전공세에 의하여 그처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었던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구에서 토지혁명의 귀중한 경험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그 전제조건을 충분히 마련하며 특히 광범한 농민대중을 각성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잘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시였다.

1945년 10월중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찾으시여 그들에게 토지문제해결을 위하여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나라가 해방되였으니만큼 우리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내세웠던 토지혁명강령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충분한 준비밑에 실현하여야 합니다.

토지개혁은 농민들을 봉건적인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혁명이며 따라서 그것을 직접 담당수행해야 할 주인은 농민들자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들의 정치적준비정도는 낮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깨닫지 못하고있으며 지주와 싸워 땅을 빼앗아내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고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형편에서 농민대중을 각성시키지 않고서는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사상교양사업과 실천투쟁과정을 통하여 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단련시킨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추수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는 당면하게 3,7제구호를 내걸고 농민들이 지주들과 맞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3,7제투쟁을 철저히 벌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농민들이 각성할뿐아니라 단결된 자기들의 힘을 믿으며 지주들에게 땅을 적극 요구해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을 위한 사업을 3,7제를 실현하는 투쟁부터 시작합시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곧 열리게 되는 당중앙조직위원회 제1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토지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모든 농촌에서 3,7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해설선전사업을 광범히 벌려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1945년 10월 16일에 열린 당중앙조직위원회 제1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일제와 친일지주의 토지를 일체 몰수하며 3,7제를 실시하는것을 비롯한 토지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우리 당은 방송과 신문, 구두선전과 직관선전 등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결정에 대한 해설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였다.

선전공세에 의하여 우리 당의 정책과 의도를 똑똑히 알게 된 농민들은 한결같이 3,7제를 지지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런데 이무렵 반동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3,7제실시를 위한 투쟁앞에는 새로운 정황이 조성되게 되였다.

평남도인민정치위원회의 책임적인 자리에 틀고앉아있던 친일주구이며 민족반역자인 조만식과 그 일파는 3,7제의 실시를 반대하고 우리 당의 새 조국 건설투쟁을 파탄시킬 목적으로 반동적인 소작에 관한 규정세칙이라는것을 조작하여 발표하였던것이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가 내놓은 《소작에 관한 규정세칙》은 우리 당이 내놓은 정책에 완전히 어긋나는것입니다. 이 《규정세칙》은 소작료를 현물로 지주에게 바치며 비료대와 수세를 소작인이 물며 종곡도 소작인이 담당하며 곡초를 지

주와 나누어가지게 한다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는데 여기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지주의 착취를 합리화하려는 놈들의 기도가 그대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3,7제를 반대하고 소작료를 일제때처럼 5할 지어는 7~8할까지 요구하고있는 반동지주들을 부추겨주는 목적도 추구하고있습니다.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의 《소작에 관한 규정세칙》을 쳐야 하겠습니다.

방송과 신문들에서 이 《규정세칙》을 한조항한조항 따져가면서 그 반동성을 낱낱이 폭로하여야 하겠습니다.

10월혁명 28돐에 즈음한 기념표어에도 3,7제를 실시하며 반동적인 소작에 관한 규정세칙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내용을 반드시 넣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은 3,7제투쟁의 장애물로 나선 평남도인민정치위원회의 《소작에 관한 규정세칙》을 분쇄하기 위한 선전공세를 힘있게 벌리였다.

반동적인 이 규정세칙을 치는 강연과 해설담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되였으며 신문,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들고나갔다. 그리하여 《정로》는 창간호에 《봉건적형태유지 농민을 기만착취, 반동적평남도의 소작세칙》이라는 제목밑에 이 《규정세칙》의 반동성을 전면적으로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그리고 직관선전사업을 통해서도 반동적인 규정세칙을 분쇄하는 선전공세를 들이대였다. 《소작료는 3,7제로!》, 《지세와 수세는 지주가 부담하고 비료대는 지주와 소작인이 반분 분담하라!》, 《지대는 금납제로 하고 종자대는 지주가 부담하라!》, 《곡초는 전부 소작인이 소지하라!》는 등 표어를 만들

어 각곳에 내붙이였다.

한편 3,7제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정치사업으로서 군과 면, 리 단위로 군중대회도 열고 시위도 조직하게 하였다.

이러한 선전공세에 의하여 평남도인민정치위원회가 내놓은 소작에 관한 반동적인 규정세칙은 여지없이 분쇄되고 말았다.

3,7제실시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적극화되고 대세는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농민들의 기세는 충천하였다. 평안남도 룡강, 평원,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농민들은 3,7제의 실시를 견결히 요구하며 이를 접수하지 않는 반동지주들을 폭로규탄하는 성토대회를 가지고 시위도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3,7제를 실시하기 위한 선전공세를 련속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주시였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방향대로 3,7제 실시를 위한 각지 농민들의 투쟁소식을 크게 보도하였다.

이와 함께 3,7제를 반대해나서는 악질지주들을 폭로규탄하는 글도 기동적으로 내보냈다.

우리는 이러한 선전공세를 신문, 방송을 통하여 강하게 들이대는 한편 강연, 해설담화 등 구두선전을 통해서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지주의 악랄성과 교활성을 더욱 똑똑히 깨닫게 되였으며 놈들의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지주들을 반대하여 더욱 완강하게 싸워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3,7제실시를 위하여 작전하시고 포

치하신 련속적인 선전공세에 의하여 농민대중은 빨리 각성되게 되였으며 투쟁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토지개혁수행을 위한 정치사업에서 이룩된 첫 성과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7제투쟁과정에서 각성되고 단련된 농민대중을 지주의 땅을 빼앗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그에 맞는 선전공세를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을 정면으로 요구하는 군중대회들을 대대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선전부문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군중대회에서는 조선인민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기반하에서 해방되였으나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봉건적농촌경리제도로 하여 아직도 지주의 착취와 압박 밑에 있다는것, 지주의 착취와 예속으로부터 농민들이 완전히 해방되자면 토지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것, 그렇게 하여야 또한 농촌경리도 급속히 발전시키고 새 민주조선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는것 등을 농민대중에게 철저히 파악시켜야 합니다.

군중대회는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선동사업형식입니다. 그러므로 도, 시, 군 당조직들에서 농촌군중대회의 보고, 토론들을 선동적으로, 호소성있게 잘 준비하게 하며 군중동원, 구호판, 직관물, 회의장의 준비 등도 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군중대회들에서는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진정서, 의견서, 편지 등을 채택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신문, 방

송 등 보도수단들을 통하여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군중대회와 시위에 대한 소식, 거기에서 채택된 진정서, 의견서, 편지들을 련속 보도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하여 모든 농민들과 인민들의 열의와 관심을 토지문제해결에 집중시키고 온 나라가 토지개혁을 실시하려는 앙양된 분위기로 가득차게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은 농민대중을 토지개혁수행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한계단 심화발전시킬수 있게 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안남도 강서군과 중화군을 비롯한 여러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촌실태를 료해하시는 한편 농민들에게 토지개혁의 의의와 그 실시의 절박성을 해설해주시면서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시 각지에서는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군민대회, 면민대회들이 련일 열리였다.

우리는 이러한 군중대회들이 농민대중의 혁명적기세를 더욱 북돋아주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호소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들과 선전화 등으로 회의장을 장식하게 하였으며 대회의 보고와 토론들도 선동성있게 하도록 적극 방조하였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대회들이 높은 정치적열의와 들끓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군중대회들에서는 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분배하여줄것을 요구하는 진정서, 결의문, 편지등이 채택되였으며 그것이 공산당의 각급 기관과 각급 인민정권기관에 련달아 제출되였다.

평북도 룡천군 의하면 농민들은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회의의 결의문에서 《조선민족의 8할을 차지하는 농민은 일제의 잔재요소인 경제제도밑에서 완전한 해방을 하려면 토지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토지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완전한 민주주의국가를 세울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지주의 토지는 몰수하야 국유화시키고 이를 로력에 의하야 농민들에게 적절히 분배키로 할것을 요구함》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우리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절절한 소원과 기어이 그것을 성취하고야말 견결한 각오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였다.

이시기 적지 않은 지방들에서는 직접 대표들을 파견하여 토지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진정서와 결의문 등을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였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군중대회의 실황을 신문과 방송들에서 그 즉시에 보도하게 하는 한편 농민들이 올린 진정서와 결의문, 편지들을 출판보도물에 제때제때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이러한 군중대회들과 대회와 관련하여 벌린 힘있는 정치선전사업은 농민대중의 계급적각오와 신심을 더욱 굳게 다져주고 힘을 단합시켜준 반면에 지주들을 비롯한 반동세력들을 크게 위압하고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놈들의 기를 꺾어놓았다.

이것은 토지개혁을 위한 또하나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한것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준비단계에서 이룩하신 이러한 정치사업의 성과에 기초하여 토지개혁을 목전에 둔 시각에 또다시 새로운 정치사업을 작전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선전공세를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차확대집행위원회가 있은 직후의 어느날이였다.

나는 다가오는 3.1인민봉기기념일과 관련한 사업조직때문에 위대한 수령님의 결론을 받을 문제가 있어 그이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동무를 부르려던참인데 마침 잘 왔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자리를 권해주시였다.

그동안 진행된 3.1인민봉기기념일을 맞이하기 위한 선전사업정형에 대한 나의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이제 남은 기일안에 보다 진공적으로 선전사업을 들이대며 3월 1일 당일의 정치행사를 준비있게 조직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1운동기념행사를 조직진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크게 벌려야 할 사업이 하나 있다고 하시면서 결연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동무도 아다싶이 며칠전에 있은 당중앙조직위원회 제4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그 하나로서 토지개혁을 위한 준비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창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위한 첫 중요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해야 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토지개혁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토지개혁을 위한 사업에 농민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더 진공적으로 벌려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집무실안을 거니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한 3,7제투쟁을 우리는 앞으로 곧 토지개혁으로써 매듭을 짓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만큼 농민대중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을 한결같이 토지개혁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공세를 련속적으로 들이대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3.1운동기념 공동준비위원회가 내는 기념표어에 토지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을 토지개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으로서 또한 2월하순에 인차 북조선농민조합련맹대표대회를 열고 분과회의, 전체 회의에서 토지문제해결과 관련한 농민들의 요구를 토의케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3.1운동기념행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북조선농민조합련맹이 갓 창립된 조건에서 이런 큰일을 맡아하게 되므로 당선전부에서 그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밀어주어야 하겠다고 이르시는것이였다.

모든 일군들이 림박한 3.1인민봉기기념일과 관련한 정치사업에 몰두하고있던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와 병행하여 또다시 토지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치사업을 포치하시고 그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니 그이의 한량없이 넓고 깊은 예지와 누구도 따를수 없는 선견지명, 비범한 령도력에 나는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농민조합련맹대표대회에서 할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하시였다.

《이미 포치하였지만 회의에는 농민조합련맹의 각 도와 군 조직대표들을 참가시켜 먼저 분과회의를 열고 토지문제, 식량문제, 농업증산문제를 토의한 다음 전체 회의를 진행하

여 토지개혁의 시기가 성숙되였다는것을 충분히 납득시키며 봄갈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요구를 농민조합련맹과 전체 농민들의 이름으로 제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대회에서 전조선인민에게 보내는 격문과 함께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할것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할데 대하여서와 모든 대표들을 3.1운동기념행사에 참가시키되 이때 전국의 군들에서 새로이 선출한 농민대표들도 자리를 같이하도록 사업을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포치하신 정치사업방향에 따라 우리들은 3.1인민봉기기념경축 군중대회와 시위에 농민대렬을 잘 준비시켜 참가시키며 행사의 전과정에서 토지개혁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특별히 강하게 나타나도록 구호대와 직관물, 기발 준비도 빈틈없이 해나갔다.

그리고 2월 23일부터 개막된 북조선농민조합련맹대표대회가 농민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도와주었으며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대회의 소식을 련일 보도하였다.

3.1인민봉기기념일에 즈음하여 벌린 이러한 진공적인 선전공세에 의하여 광범한 농민대중과 인민들은 토지개혁이 더 미룰수 없는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는것을 절감하고 그것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되였다.

더우기 농민들을 토지개혁수행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은 3.1인민봉기기념일 당일행사로써 절정을 이루었다.

이날 평양에서 진행된 30만 군중의 력사적인 대시위와 해주와 신의주, 원산과 함흥, 청진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벌어진 군중시위는 결국 낫과 호미를 들고 토지를 요구하여나

선 200여만 농민대중의 일대 정치시위로, 하나의 계급전선에 굳게 단결된 그들의 위력에 대한 전투적시위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기세가 이렇듯 전례없이 고조되고 온 나라 인민이 토지개혁개시를 손꼽아기다리는 가운데 3월 5일 마침내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이시여 작성하신 력사적인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으며 현명한 령도로 이 거창한 사회경제적변혁을 2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밤새워 만들어주신 해설자료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의 성과적수행에로 우리 농민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정치선전사업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우리 선전일군들을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 그날이였다.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지에 지도성원들과 지원대 그리고 수많은 선전원들을 파견하는 사업이 포치되였다.

선전원파견사업을 조직하고있던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신다는 련락을 받고 곧 그이의 집무실로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급히 글을 하나 써야 하겠기에 불렀다고 하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였으니 래일아침에 지도성원들과 선전원들을 각 지방에 내려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토지개혁에 대한 해설담화자료를 주어보내야 하겠습니다. 그

래야 그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당의 의도와 요구대로 사업할 수 있으며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지도성원들과 선전원들이 래일아침에 가지고 나갈수 있도록 해설담화자료를 만들어줄수 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하여도 토지개혁문제에 대한 연구가 깊지 못하였던 나는 어떻게 대답을 올려야 할지 몰라 망설이기만 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심중을 헤아리시고 이 글이라고 신비스럽게 생각할것은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할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였다.

《래일아침에 떠나는 동무들에게 주어서 보내자면 일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오늘밤 긴급집필전투를 한번 해봅시다.

추고할 사이가 없으니 선전자료를 단번치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글을 쓰는족족 한쪽에서 정서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등사원지에 옮기면서 등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흐름식으로 맞물려 일을 제끼면 하루밤사이에 얼마든지 해설자료를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대담하게 달라붙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일일이 방도까지 환히 가르쳐주시고 고무해주시는 그이의 말씀에서 신심과 용기를 얻은 나는 사무실에 돌아와 곧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막상 체계를 세우고 써내려가자니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 토지문제가 력사적으로 어떻게 제기되여왔는가 하는데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 토지개혁전 농촌실태에 대한 파악도 없었다. 그러니 글줄을 바꿀 때마다 모대길수밖에 없었다.

망설이던 끝에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곳으로

찾아갔다. 지금 돌이켜보면 외람되기 그지없는 일이였지만 그때 다음날 아침까지 해설자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초조감과 안타까움만이 앞선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다시 받을 생각으로 그이의 집무실로 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신히 드리는 나의 청을 들으시고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몇가지 이야기를 하여줄터이니 그에 기초하여 글을 써야 하겠습니다.》

나는 앞상에 종이를 내놓고 그이의 말씀을 받아쓸 차비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 선전자료는 세가지 문제를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할수 있도록 만드는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토지개혁법령이 나오게 된 주객관적조건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것이 필요합니다.

이가운데서도 주관적조건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신 그이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대중앞에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실천하는 과정에 당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주었으며 또 이 과정에 당을 조직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정치적력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조선건설의 주도적력량을 마련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이라는 위대한 력사적전변을 가져오게 한 주관적요인이라는것을 잘 해설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였으며 이 정권이 강대함으로 하여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토지개혁을 할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 두번째 체계로서 토지개혁의 의의에 대하여 쓰며 마지막 세번째 체계에서는 토지개혁법령의 기본정신을 명백하게 해설하고 제기되는 과업을 간명하게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러한 문제를 내용으로 하여 해설담화자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어진 조건에 따라 한체계씩 가지고도 해설사업을 할수 있게 론설이나 기사식으로 쓰지 말고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다라는 식으로 내용구분이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그래야 선전원들이 해설하기도 좋고 농민들이 알아듣기도 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글이 되는족족 보아주겠으니 방에 가서 쓴것만큼씩 가지고 오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글을 보아주시고 완성해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온밤을 새우시려는것이였다.

그이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진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초고를 쓰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들어가시였다가 아침에 나오시여 글을 보아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우리 걱정이랑은 하지 말고 어서 빨리 가서 글을 쓰라고 하시였다.

내가 해설자료초고를 끝냈을 때에는 새벽3시가 가까와오고있었다. 나는 초고를 읽어보며 미흡한 점이 없는가 검토해보았다. 토지개혁실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 기본상 담겨진것 같았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어주신 전화였다.

《글을 쓴것만큼씩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가지고 옵

니까? 글을 다 끝냈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글을 보아주겠으니 초고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는것이였다.

나는 급히 원고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달려갔다. 그이께서는 내가 정서하지 못한채 올리는 해설자료초고를 받으시고 보기 시작하시였다.

한장한장 원고를 번지시며 읽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순간 나는 송구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력사적인 토지개혁을 승리에로 이끄시기에 잠시의 휴식도 없이 분초가 귀중한 시간을 보내시는 그이께 그처럼 미숙한 초고를 올렸으니 죄송하기 그지없는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다가 글을 급히 쓰느라고 좀 설친데가 있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다시 원고를 번지시며 주의깊이 읽어보시였다. 나는 감동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억제하며 《장군님! 어서 의견을 주시고 댁에 들어가시여 잠시라도 쉬십시오.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아니 그럴 시간이 없소.》라고 하시고는 고쳐야 할 부분을 색연필로 표시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쳐보자고 하시는것이였다.

뜨거운 격정으로 하여 나는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는 농촌출신도 아니고 농촌에도 많이 나가보지 못하였으니 우리 나라 농촌의 실정을 잘 모를수 있다고 하시면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것도, 농민들속에서 해설선전사업을 하는것도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 농촌의 구체적실정과 농민들의 요구에 맞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나는 해설문초고에서 무

엇을 중요하게 강조하지 못하였는가 하는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 해설문초고에서는 토지개혁법령의 내용과 그 의의를 일반적으로 서술하였을뿐 토지문제해결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리론, 우리 당의 토지개혁방침의 독창적인 성격을 옳게 해설하지 못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토지개혁방침은 철두철미 우리 나라 농촌의 구체적실정, 우리 농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당시 반당종파분자들과 교조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은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토지국유화나 집단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떤자들은 평북도의 어느 벌에 《쏩호즈》를 만든다고 떠들었고 또 어떤자들은 황해도의 어느 벌을 《꼴호즈》로 만든다고 법석 고아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라 혁명의 발전단계와 농촌의 구체적실정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이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본따려는 허황한 주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그릇된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시면서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우리 나라의 실정과 농민들의 요구에 맞게 지주에게서 몰수한 땅을 국가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나누어줄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봉건적토지소유제도가 오래동안 존속되여온 우리 나라에서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떠벌이는 그릇된 주장을 배격하시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주장하는것 역시 우리 나라의 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다른 나라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옮겨놓으려는 그릇된 경향이였다. 오직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

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토지를 농민들의 소유로 만들어야 농민들이 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토지문제를 철저하게 혁명적으로 해결할수 있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해설문초고에 중요하게 강조했어야 할 이러한 내용이 부족한것을 헤아려보시고 손수 하나하나 글을 고쳐주시였다.

활달한 글씨로 써내려가시는 그이의 문장 한줄한줄에는 토지문제해결에 관한 독창적인 심오한 사상이 홰불처럼 뚜렷이 새겨지는것이였다.

필요한 부분을 수정가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다된 원고들을 흐름식으로 등사실에 넘기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몰수대상을 해설한 부분도 자신께서 농촌에 나가시여 농촌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여보신 사실들을 드시면서 명확하게 리해되도록 글을 고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완성해주신 원고를 한장한장 받으며 작업을 하던 등사실에서도 일이 끝났다.

그사이 시간은 흘러 아침해살이 등사잉크냄새 풍기는 방안으로 따뜻이 흘러들었다.

완성된 소책자를 받아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펼쳐보시며 《토지개혁에 대한 해설자료가 잘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선전자료를 등사까지 다 끝냈으니 마음이 놓입니다.》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침에 떠나는 토지개혁 지도성원들과 선전원들이 이 해설자료를 가지고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루밤사이에 만든 선전물이지만 이것이 나가서 어떤 은

을 내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해보시오. 큰 역할을 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토지개혁을 보장하기 위한 선전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중앙에서 나간 선전원들외에 도와 군에서도 준비된 일군들을 선발하여 농촌에 선전원으로 파견하였다. 문화예술인들과 교원, 학생들도 동원되였다.

이렇게 되자 선전자료에 대한 요구가 도처에서 제기되였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도당책임비서들한테서도 전화가 왔는데 토지개혁에 대한 해설담화자료를 더 내려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해설자료를 더 만들어보내줍시다.

빨리 많은 부수를 만들어보내야 하니 먼저처럼 등사를 해서는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인쇄를 해서 보내줍시다.

토지개혁때 쓰자고 종이도 준비해놓은것이 있으니 《정로》의 부록이라고 하고 해설자료를 찍읍시다. 신문지면을 늘이기 위하여 준비한 종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당겨 써도 됩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번에 이 해설자료를 만들 때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 나라 농업과 농민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력사적자료와 통계수자들을 많이 넣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을 글에 보충하여 실감있게 해설할수 있도록 하며 부록을 신문발행부수보다 한 1만부 더 찍어 신문을 받는 대상외에 다른 일군들도 이 부록을 가지고 선전활동을 벌릴수 있게 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리하여 3월중순에 이 해설자료가 《정로》의 부록으로 인쇄되여 각 지방에 배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밤새워 만들어주신 해설자료, 참으로 여기에는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이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시기 위해 바치신 그이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에 우리 농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더 정확히 반영하시고 이 거창한 변혁의 곧바른 지름길을 밝히시려고 질벅한 논밭도 밟아보시고 이슬맺힌 풀섶길도 헤치시며 걷고걸으신 길은 얼마인지 모른다.

그렇게 하시고도 그이께서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토지개혁방침이 철저히 관철되고 우리 농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더 잘 실현되도록 하시려고 토지개혁에 대한 해설자료까지 밤새워 손수 완성해주시였으며 그것이 토지개혁을 추동하는 힘있는 정치선동수단으로서 위력을 발휘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치신 이렇듯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인 토지개혁은 가장 짧은 기간에 철저히 수행되였으며 토지문제해결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게 되였다.

힘있는 정치선전사업을 벌려 광범한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킨 결과 토지개혁을 비롯한 로동법령, 산업국유화법령, 남녀평등권법령 등 제반 민주개혁이 우리 나라에서는 큰 곡절없이 빛나게 수행되였다.

새 제도, 새생활 창조를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에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보통강개수공사를 평양 시민의 힘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제도, 새생활 창조를 위하여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시면서 일제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힌 조국땅을 살기 좋은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전변시킬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벌써 해방직후부터 국토건설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그리고 인민들을 국토건설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다.

1946년 5월 어느날이였다.

보통강개수공사를 몸소 발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선전일군들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로 부르시였다.

우리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집무실에 들어서자 수령님께서는 보시던 문건을 한쪽으로 밀어놓으시면서 우리보고 어서 앉으라고 자리를 권해주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통강개수공사와 관련하여 어떤 선전사업계획들을 세우고있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순간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올리지 못한채 얼굴을 수그리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당 부문 일군에게 보통강개수공사를 곧 시작하도록 준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신 조건에서 선전일군들은 마땅히 그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여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보통강개수공사에 대한 옳은 인식이 부족했던 우리는 이와 관련한 선전사업을 계획하지 못하고있었다.

보통강개수공사로 말하면 조국땅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강을 다스리고 국토를 건설하는 대규모의 자연개조사업이였다.

오랜 세월 보통강은 이고장 사람들에게 커다란 재난과 불행을 들씌워왔다.

이러한 보통강을 잘 다스려야 사람들을 큰물피해로부터 구원할수 있으며 평양시를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킬수 있는것이였다.

그러나 보통강을 다스리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이 공사를 하자면 방대한 건설로력이 동원되여야 하였고 막대한 자재가 있어야 하였다.

또한 그 시기로 말하면 토지개혁의 승리를 공고히 하며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때여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힘이 거기에 쏠리고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제반 민주개혁을 끝낸 다음에야 자연개조사업에 착수할수 있을것이라는것이 당시 일군들의 생각이였다.

그런데 일군들의 생각과는 달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보통강개수공사를 이제 곧 착수하며 장마철전으로 끝낼 목표밑에 전체 평양시민을 동원하여 이 공사를 밀고나갈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장마철전이라면 100날도 못되는 짧은 기간이였다. 일제놈들이 10년간 걸려서도 하지 못한 공사를 단 석달동안에 그것도 전문건설력량이 아닌 지원로력으로 추진시킨다는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헤아리시고 우리 선전일군들을 부르시여 보통강개수공사와 같은 큰 공사를 하자면 우리 일군들부터 옳은 립장을 가지고 군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해야 하며 특히 선전일군들이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

하고 그것을 인민들속에 깊이 침투시켜야 한다고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이 공사는 단순히 자연을 개조하여 사람들을 큰물피해로부터 구원하는데만 의의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공사를 우리의 힘으로 기어이 완공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손으로 창조해야 하며 우리의 건국위업도 우리의 힘으로 완수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이 공사의 중요한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건국위업은 우리의 힘으로!

참으로 불멸의 사상이 빛발치는 위대한 투쟁구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공사를 평양시민들의 애국적인 로력투쟁으로 하자는것도 여기로부터 나온것이라고 하시면서 평양시민들이 모두 떨쳐나서면 이 공사를 건설일군들이 타산한것처럼 3년이 아니라 석달동안에 능히 완수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제때는 조선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되여 마지못해 일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한 새생활을 창조하는 보람찬 사업에 평양시민들은 누구나 주인답게 떨쳐나 무비의 로력적위훈을 세울것이며 그 힘에 의거하면 못해낼 일이 없을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듣고 새길수록 한없이 숭고한 뜻이 가슴깊이 새겨지는 귀중한 말씀이였다.

우리는 그때까지 풀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풀

려 눈앞이 환해지고 신심과 용기가 솟구쳐오름을 느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믿으시는것은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힘이였으며 비등된 건국열의였다.

그러시기에 그이께서는 보통 타산으로써는 엄두도 낼수 없는 보통강개수공사의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수십만 평양시민들을 이 애국적인 로력투쟁에 조직동원하실 대담한 정치사업작전을 펼치시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일제놈들은 이 공사를 못했지만 우리는 기어이 우리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공사를 해낼 비결은 딴데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힘을 믿고 대중을 광범히 조직동원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전수단을 다 리용하여 인민대중을 이 애국적인 로력투쟁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교시에서 신심과 용기를 얻은 우리는 보통강개수공사를 위한 로력투쟁에로 광범한 군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선전사업을 적극 벌렸다.

그러나 우리가 진행하는 선전사업에는 기발한 착상도 없었고 판을 크게 벌린것도 없었다.

신문, 방송과 강연, 해설담화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이무렵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얼마전에 주신 과업에 따라 준비한 군중대회 조직진행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드리려고 그이의 집무실에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조성된 내외정세를 깊이 헤아리신데 기초하시여 조국의 민주주의발전과 완전자주독립국가

건설을 방해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폭로규탄하고 통일적인 민주주의림시정부의 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를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던것이다.

계획서를 일일이 검토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중대회개최시일에 시선을 멈추시고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다.

계획서에는 군중대회를 5월 15일에 가질것으로 예견되여 있었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군중대회날자를 며칠 뒤로 미루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이 조선에서 통일적인 민주주의림시정부의 수립을 반대하고 실지에 있어서 미군정의 연장에 불과한 예속적이며 반인민적인 반동주구정권을 남조선에 세우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놈들의 책동을 폭로규탄하는 문제는 아주 긴급한 일로 나서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중대회를 계기성있게 조직진행해야 하며 그것이 단순히 연설이나 하고 구호나 웨치는것으로써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이미 여러번 말한 사실이지만 군중대회는 단번에 수천수만의 사람들에게 당의 의도를 인식시키고 그들을 당면한 전투적과업의 수행에로 한사람같이 불러일으키는 선동호소적인 정치사업형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국력사에서 처음으로 벌리는 대자연개조사업인 보통강개수공사를 앞두고있으니만큼 이번에 계획한 군중대회를 그와 밀접히 련관시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군중대회의 연설과 토론들에서 보통강개수공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자는것은 아닙니다.

군중대회를 통하여서는 인민대중에게 우리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게 하며 우리 인민의 힘으로 나라의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도, 경제의 복구와 새생활의 창조도 기어이 해내겠다는 자각을 가지게 하면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앙양된 대중의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련달아 보통강개수공사를 위한 돌격전을 한번 본때있게 해보자는것입니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이의 대담한 정치사업구상에 접하여 감격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얼마전에 3.1운동기념행사를 크게 조직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고조된 대중의 혁명적기세와 단합된 힘을 지주들을 반대하는데로 집중시켜 토지개혁을 단숨에 해제낀것과 같은 리치의 정치사업이라고 깨우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당 부문에서는 준비관계로 보통강개수공사의 착공을 5월하순에 들어서자 인차 할것으로 예견하고있는데 그들과 토의하여 군중대회는 그 하루이틀전에 진행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참으로 대담한 건설전투구상이며 치밀한 정치사업작전이였다.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19일 평양에서는 조국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을 방해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폭로규탄하는 군중대회가 있었다. 군중대회에는 평양 시내와 주변에서 온 수십만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이틀후인 5월 21일에는 력사적인 보통강개수공사

착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군중대회를 통하여 혁명적열의가 전례없이 높아진 평양시민들은 그 기세, 그 기백을 안고 보통강개수공사장으로 달려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유구한 우리 인민의 력사에 빛나게 기록될 대자연개조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평양시민들을 뜨겁게 고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격려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민주조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자체의 노력과 열성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결코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 조국을 건설해주지는 않을것입니다. 오직 전체 조선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건국사업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때에만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새 조국 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습니다.》

그리시면서 그이께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자체의 힘으로 보통강개수공사와 같은 공사를 하나하나 완공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난관을 뚫고 보통강개수공사를 우리의 힘으로 완공하기 위해 모두다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격려사는 광범한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전인민적로력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수십만 평양시민들이 그이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애국적인 로력투쟁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사기간에도 군중정치선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세심히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이 있은 다음날 그이께서는 또다시 우리 선전일군들을 부르시여 보통강개수공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선전선동자료를 많이 만들어내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정치선전사업을 적극 벌릴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통강개수공사와 관련하여 신문을 발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예술선전대도 조직하여 평양이 떠들썩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더 많으며 공사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문발간과 예술선전대활동을 통하여 아무리 어려운 자연개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능히 해낼수 있다는 굳은 신심을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왜놈들이 하지 못한것을 해방된 조선인민이 해제낀다는것을 널리 선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선전화를 한장 그려붙여도 나라의 주인된 로동계급의 억센 모습을 보여주며 시와 노래 하나에도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로동생활을 잘 반영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곧 《보통강개수공사특보》가 발간되였으며 신문들도 보통강개수공사에 대한 보도선전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우수한 력량으로 예술선전대가 조직되였다. 수도의 거리와 마을, 기관과 직장 등 이르는곳마다에는 격문, 표어, 선전화, 벽보, 속보들이 나붙고 공사현장에서는 다채로운 예술선전활동이 벌어졌다. 방송에서는 매일과 같

이 보통강개수공사에로 부르는 힘찬 구호와 노래소리가 울려퍼졌다.

사회단체들에서도 산하조직들을 발동하여 해설담화, 좌담회, 호별방문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거리와 공사현장을 장식한 표어와 벽보, 속보, 선전화들 그리고 전투장마다에서 진행되는 선동연설과 예술공연 등은 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나라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손으로 창조하자는 내용으로 일관되여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그리하여 수십만 평양시민들이 이 숭고한 뜻을 받아안고 매일과 같이 공사장으로 달려나왔으며 돌격대원들이 쓴 수많은 맹세문, 결의문, 편지들에도 이 숭고한 뜻이 뜨겁게 맥박쳤다.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돌격대원들의 한 맹세문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모든 곤난을 극복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으로 아름다운 조선민주건설을 완성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계속 용감히 투쟁할것을 장군님앞에 또다시 맹세합니다.》

참으로 대자연개조전투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다양하고도 힘있는 선전선동사업은 우리의 건국위업은 우리의 힘으로라는 숭고한 뜻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불타는 신념으로 심어주고 무비의 힘을 낳게 하였다.

상상할수 없이 어렵고 방대한 공사여서 보통상식으로써는 수십년이 걸려야 한다던 보통강개수공사는 마침내 예정기일보다 15일간이나 앞당겨 55일동안에 완공되였다.

보통강반에는 길이 5,000여메터, 총토량 42만여립방메터의 새로운 애국제방이 높이 솟아오르고 새로운 물줄기가 아득히 뻗어나갔다.

보통강개수공사의 완공을 경축하는 뜻깊은 날 하늘땅을 뒤흔드는 만세의 환호성속에 새로 뻗은 물줄기가 이 거창한 전변, 위대한 승리를 자랑하듯 사품치며 거세차게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보통강개수공사를 대자연개조사업의 첫 봉화로, 전인민적건국운동의 첫출발로 되게 하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수십만 평양시민들을 불러일으키시여 그들의 힘으로 이 방대한 공사를 단시일안에 끝내게 하심으로써 새 조국 건설의 력도사에 또하나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시였다.

모든 힘을 선거선전에로

1946년 가을, 우리 나라에서 첫 민주선거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10월 7일부터 근 한주일동안에 걸쳐 평안북도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력사적인 민주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진행하신 이 현지지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민주건설투쟁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신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일뿐아니라 몸소 선전원이 되시여 대중을 선거승리에로 한사람같이 불러일으키신 뜻깊은 력사의 로정이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의주와 의주, 삭주와 구성, 대관과 정주 등 여러 지방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어느때에는 일군들과 협의회도 하시고 군

중대회와 유권자총회에도 참가하시며 어느때에는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기대옆과 논발머리에서 로동자, 농민과 담화도 하시고 지어는 자신의 숙소와 떠나시는 정거장의 홈에서까지 사람들을 만나시여 그들을 가르쳐주시고 일깨워주시면서 일군들과 근로자들모두를 민주선거의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6년 9월 5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2차확대위원회를 소집하시고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첫 민주선거의 실시는 우리 인민이 력사상 처음으로 주권행사에 참가하는 뜻깊은 사변이였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인민의 리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대표들을 직접 선거하며 인민정권을 튼튼히 다지는 중대한 사업이며 따라서 자신의 손으로 나라의 번영과 행복한 새생활을 창조하는 보람찬 사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채택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에 접한 인민들은 환희에 넘쳐 력사적인 민주선거를 승리적으로 맞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었으며 온 나라는 선거분위기로 들끓었다.

공장과 광산, 농촌과 어촌, 마을과 거리마다에서는 선거자들을 위한 강연, 해설담화들이 진행되였고 아침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각 기관, 단체들에서 나온 선전대, 학생가창대들의 선동연설과 노래, 춤으로 그칠새 없었다.

선거라는 이름조차 모르던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이 시기에 진행된 선거선전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느것이나 다 새로왔으며 처음으로 사람대접을 받는 기쁨과 격동 속에서 인민들은 선거의 날만을 손꼽아기다리고있었다.

이렇듯 고조된 분위기는 우리 일군들에게 선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아무런 장애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있고 이 기세로만 나간다면 선거의 승리는 확고한것으로 느끼게 하였다.

그러던 10월초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을 부르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제 11월 3일까지는 한달도 못됩니다. 평안북도에 나가보면서 모든 힘을 선거선전에로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기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매우 다망하시던 때였다. 그이께서는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으로 새로 나온 로동당의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 미제의 압해책동으로 지연되고있는 남조선로동당의 창립문제, 통일적인 중앙림시정부수립에서 나서는 문제들,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민주기지를 튼튼히 다지는 사업 등 온 나라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난국과 위기를 헤쳐나가시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분초가 새로우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북도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겠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을 받아안는 순간까지만 하여도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겠다는 말씀에 담겨진 그이의 깊은 뜻을 헤아릴수 없었다.

그들은 선거를 20여일 앞둔 그무렵 선거사업준비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들에서 심각하게 나섰던 문제들을 분석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고서야 비로소 그이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였다.

당시 선거선전사업은 고조에 달하고있었으며 전반적지방들에서 선거준비사업이 당의 요구대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지방들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나라의 주인된 자각이 부족하고 첫 민주선거의 의의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있었다.

또한 이 선거를 통하여 우당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더욱 굳건히 다지도록 모든 사업이 진행되여야 하겠으나 일부 지방들에서는 이 사업을 원만히 하지 못하여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있었다.

특히 스쳐지나갈수 없는 사실은 반동들이 선거를 반대하는 암해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는것이였다.

반동분자들은 《선거방법이 달라졌다, 찬성하면 흑함에 넣고 반대하면 백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요언을 퍼뜨리는가하면 문맹자와 녀성들, 그가운데서도 농촌녀성들과 로인들속에 갖가지 반동적인 요언을 퍼뜨림으로써 민주선거를 반대하도록 하였다.

어떤자들은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것을 매수하여 《선거표를 흑함에 넣으면 3년동안 액막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선거를 반대하도록 추동하게 하였다.

놈들은 기독교신자가 많은 지방의 불순분자들을 리용하여 선거반대책동을 벌렸다. 이자들은 악질적인 종교인들을 추동하여 《11월 3일은 일요일이다. 일요일은 안식일이니 신자들은 누구나 하느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을 할수 없다》, 《성경책에는 선거장에 나가라는 구절이 없다》고 하면서 선거를 파탄시키려고 발악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안북도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여 편향들을 바로잡으며 이를 통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선거준비사업이 옳게 진행되도록 이끄시려고 결심하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데리고 신의주에 도착하시였다. 때마침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준비상태를 놓고 토론하고있었다. 거기에는 우당 책임일군들도 있었다.

도인민위원회회의실에서 도내의 형편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립후보자추천사업을 어떻게 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보시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내려보낸 규정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공동립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여있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각 정당, 사회단체들에서 립후보자를 추천하고있었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중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몇몇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선정한것이지 군중의 종합적의사에 의하여 추천된것이 아닙니다. 다시 나가서 전체 인민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선거원칙은 립후보자를 이렇게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추천하는것입니다.

동무들이 이번에 실시하는 선거의 의의를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있기때문에 위원후보자추천사업을 망탕하고있습니다. 선거선전사업을 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은 립후보자추천사업과 관련하여 이곳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과 그 원인에 대하여 가장 명철하게 분석하신것이였다.

각계각층 군중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들속에서 가장 신망있는 사람을 립후보자로 추천하자면 각 정당, 사회단체들이 제각기 할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공동으로 토의하여 후보자를 내세워야 하는것이였다. 바로 그렇기때

문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으로 그런 규정을 채택하고 내려보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의 일군들에게 동무들처럼 립후보자를 추천하는것은 림시인민위원회의 결정에 어긋나며 대중에게 갈피를 잡을수 없게 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사실 그때 반동들은 우리의 첫 선거를 파탄시키려고 립후보자추천문제를 가지고서도 별의별 비방중상과 악랄한 책동을 다 벌리고있었다. 놈들은 민전이 공동립후보자를 추천하는것은 비민주주의이며 각당들에서 저마다 후보자를 내세워야 민주주의라고 지껄이고있었다.

이것은 놈들이 자유경쟁적인 자본주의사회의 선거방식을 고창하는것이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중히 받아안고있던 이 도의 한 우당 책임일군이 일어서서 민전사업에서 느끼고있는 문제를 말씀올리겠다고 하더니 일부 일군들이 우당을 하대하고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드리는것이였다. 그는 일부 지방에서 우당대표들을 선거위원회에 망라시키지 않고있는 사실도 말씀드리였다.

그의 제의를 허물없이 듣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기하였다고 하시면서 그자리에 있던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각 정당, 사회단체의 모든 성원들이 더욱 단결하며 통일단결된 위력으로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의 목적과 의의를 똑바로 알고 립후보자추천사업을 각 정당, 사회단체가 제뿔뿔이로 할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공동으로 추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거선전도 모두가

합심하여 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심중한 결함을 범한것으로 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에게 각 군의 선거위원회 구성을 다시 검토하고 거기에 우당일군들을 적절히 인입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단합된 힘으로 선거의 승리를 보장하자고 하는것만큼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안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과정에서 몸소 로동자, 농민들을 만나시여 그들에게 나라의 주인다운 자각을 안겨주시고 민주선거의 의의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그이께서 의주군 수진면의 어느 한 마을앞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가을걷이를 하고있던 한 농민을 만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농사형편이 어떤가 알고싶어 왔다고 하시며 큰길가의 밤나무아래에 나무잎을 깔고 앉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에게 일하기가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앞에 계시는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신줄 아직은 알길없던 그는 스스럼없이 《일을 암만해도 힘든줄 모르겠습니다.》고 하면서 올해에는 분여받은 땅에서 지은 농사가 잘되여 해방전보다 1.5배나 더 많은 알곡이 나왔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이것이 다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이라고 하면서 장군님을 만나뵈와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는데 그렇지 못한것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시종 미소어린 안색으로 그 농민의 말을 듣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저녁에 선거선전실에 나가군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농민은 저녁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대답올렸다.

그이께서는 그 농민의 말을 긍정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래야 합니다. 이젠 우리 농민이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였으니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고 무엇을 하고있는가를 알아야 농사일도 잘할수 있고 자식들도 잘 키울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거하는것도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위하여 일을 잘하는 좋은 사람을 인민위원회 위원으로 뽑아서 우리의 정권을 튼튼히 다지며 민주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는것입니다.

지난날 조선사람이 왜놈들에게 압박과 착취를 당한것도 다 우리의 인민정권이 없었던탓입니다.

이젠 우리 나라의 주인들인 로동자, 농민들이 우리의 살림을 우리 손으로 꾸릴 때가 되였습니다. 우리 로동자, 농민들이 일을 잘하여야 합니다. 생산을 많이 내는것으로써 선거를 맞이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농민과 담화를 마치신 다음 우리들에게 선거선전사업을 해도 선거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것을 농민들의 실생활과 결부시켜 당면한 영농사업을 잘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선전사업을 통하여 농민들의 건국열의를 높여줄수 있고 그들이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더 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에는 선전을 위한 선전을 할것이 아니라 목전에 놓인 구체적인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도록 그들을 고무추동할데 대한 높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수카바이드공장을 찾으시여서는 로동자들에게 우리가 잘살자면 이 공장을 빨리 복구하며 더 많은 생산을 내도록 해야 한다, 오늘 로동계급의 임무는 나라의 주인이라는 립장을 가지고 파괴된 공장을 빨리 복구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증산하는것이다, 높은 건국열의를 가지고 증산으로 보답하는것이 선거승리를 위하여 떨쳐나선 로동계급의 자세로 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사실 이 시기 선거선전사업은 중단함이 없이 진행되고있었으나 선거에 참가하는 사람들속에서는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부족한 현상들이 적지 않았다.

삭주지방에서는 벚나무를 왜놈들이 《사꾸라》라고 하면서 좋아하던 나무라고 찍어버리고 련못의 고기도 왜놈때 기르던 고기라고 마구 잡아먹고 련꽃도 다 없애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형편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방의 일군들에게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해방전에 건설한 공장, 광산과 시설들도 다 마사버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8.15전에 일본놈들이 식민지통치를 하였지만 우리 조국강토우에 이루어놓은 모든 재부는 다 우리 로동자, 농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것이다, 이것을 파괴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로력의 결실을 파괴하는것이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나라와 인민의 재산으로 된 모든 재부를 자기의것과 같이 애호관리하며 공장의 복구와 생산을 더 힘있게 다그치도록 교양해야 선거의 목적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일군들은 선거의

의의를 많이 선전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한갖 선전을 위한 선전으로 되였으며 선거자들이 나라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자기 맡은 사업의 성과로써 선거를 뜻깊게 맞이하도록 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깊이 느끼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에서 선거를 방해하는 반동들의 음흉한 책동을 폭로하며 일군들과 모든 군중에게 고도의 경각성을 견지하도록 하시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무렵 앙양된 인민들의 정치적열의를 꺾어버리고 선거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은 이 도안에서 우심하게 나타나고있었다.

놈들은 아직도 채 각성되지 못한 사람들을 꾀여 규합하려고 하는가 하면 악의에 찬 중상과 비방, 요언을 퍼뜨리고 있었다. 미처 여물지도 않은 벼를 베여먹거나 늦감자를 미리 캐먹는 현상은 결코 식량이 부족해서 그런것만은 아니였다. 여기에는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선거를 파탄시키려는 반동들의 흉계가 숨어있었다.

당시 도안의 여러 지방가운데서 반동들의 준동이 더 심하게 나타났던곳은 압록강연안에 있는 지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주로 가시는 길에서 우리 일군들에게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나쁜놈들이 퍼뜨리는 요언이나 흉계의 본질을 꿰뚫어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여기에는 우리 인민정권의 시책을 반대하며 우리의 성과를 헐뜯으려고 발악하는 반역자와 반동분자들의 음모와 파괴책동이 있다는것을 알고 경각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놈들의 책동에는 이번 선거를 파탄시키려는 음흉한 기도가 숨어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들의 흉계를 분쇄하는 사업을

선거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해야 합니다.

의주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의 일군들에게 이 고장의 실정에 비추어 특별히 더 각성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의주군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장개석군대와 대치되여 있는것만큼 국경지대의 경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대의 인민들이 높은 경각성을 가지도록 교양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이 경각성을 가지고 자기 초소를 잘 지키도록 하며 매개 단위에서 선거를 파탄시키려는 반동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제때에 적발분쇄할수 있도록 선거사업과 결부시켜 선전해야 합니다.

이고장 반동분자들의 모든 흉계와 책동은 미제와 남조선 반동들과 직접 결탁되여있을뿐아니라 그때 중국의 동북 일부 지방에 밀려들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있던 장개석도당의 책동과도 밀접히 련결되여있었다.

그런데도 일군들은 대중을 각성시키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선전교양사업을 잘하지 못하고있었다.

간첩, 파괴, 암해분자들과의 투쟁은 법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기관에서만 하면 되는것으로 여기면서 선거선전사업을 이와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해서는 거의나 주의를 돌리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경각성이 해이되여있던 일군들과 군중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반동들의 책동에 옳게 대처해나가도록 일깨워준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에 선거선전을 일층 심화시키고 매 선거자들이 납득하도록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문제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그때까지 선거선전에서는 일반적인 호소와 강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었다. 강연과 담화, 선동연설이 그러하였고 신문과 방송에서 내보내는 내용이 또한 선거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누구나 다 아는 소리를 일반적으로 언급한것들이 대부분이였다.

현지지도과정에서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담화하시면서 이러한 실태를 날날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르시는곳마다에서 선거선전을 실속있게 벌릴 방법적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주에 이르시여 군급 일군들에게 이제 남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을 리용하여 선거선전을 강화할것을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협의회를 마치신 다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민전에 망라된 선전일군들을 다 동원시키며 해당 조직들의 특성에 맞게 조직별로 선거선전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유권자들이 찬성투표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교인들속에서의 선거선전사업은 교인들의 생활과 내부실정을 잘 아는 종교단체에서 자기의 특성에 맞게 해야 하며 녀성들속에서의 선거선전사업은 녀맹조직이 해야 효력이 크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인민위원회에서는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조직별 선전사업을 심화시키고 나타난 결함을 하루빨리 고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전에 일제의 소위 협의기관인 《면협의원》만 선거하려고 해도 일정한 액수이상의 세금을 바치는 지주, 자본가, 친일분자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녀자들은 선거권에 대하여 상상도 할수 없었던 사실 등을 실례로 드시면서 낡은 사회에서의 선거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이라는것을 우리의 민주주

의적인 선거제도와 대비하여 잘 알수 있게 선거선전을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에게 평북도에 내려와보니 선천, 룡천 등 일부 군들에서는 이미 보고된 자료보다 반동들의 준동이 더 심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흑함운동》을 결정적으로 분쇄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를 위한 방법적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선거자들에게 선거절차를 일일이 알려주어야 하며 선거장을 잘 꾸려놓고 선거를 하기전에 모든 선거자들이 거기에 와서 한번씩 직접 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반동들이 〈흑함운동〉을 벌리려고 책동하는 조건에서 선거장소와 선거함을 미리 보이면서 선거하는 절차와 방법을 직접 배워주는것이 좋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동들의 책동에 비추어 녀성들속에서 선거선전을 강화하며 선거함의 모형 같은것을 만들어가지고 호별방문을 하면서 나이 많은 늙은이들과 문맹자들에게 알기 쉬운 말로 선전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1946년 10월 7일 신의주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수령님의 평안북도현지지도로정은 여러 군을 거쳐 10월 12일 정주에까지 이어졌으며 여기에서 비로소 결속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궂은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쉬심도 주무심도 다 뒤로 미루시면서 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으며 오직 인민대중을 민주선거에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참으로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인민위원선거를 눈앞에 둔 격동적인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시며 몸소 선전원이 되시여 선거선전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민주선거의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2

첫 인민경제계획에 대한 선전을

새 제도, 새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가운데 1947년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경제계획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첫 인민경제계획이 북조선인민회의결정으로 세상에 공포된것은 1947년 2월이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근로자들을 사상동원하신것은 이해 신년사를 하실 때부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년사에서 계획경제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올해부터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위한 투쟁을 벌리게 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오늘에 와서는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수행한다는것이 범상한 일로 되여있지만 당시로서는 사람들에게 생소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사실 그때 우리 인민들은 인민경제계획이라는 말조차 처음 듣는것이였다. 인민경제계획수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수행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있었다. 중요산업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이때에 와서야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특수성과

경제발전법칙의 본질을 대중이 헤아리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었다.

안팎의 반동들은 우리의 첫 인민경제계획에 대하여 《허황한 꿈》이라고 지껄이였으며 우리를 지지하는 벗들까지도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우리 일군들가운데도 반신반의하는 현상이 적지 않았으며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다른 큰 나라의 원조와 차관에 의존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인민경제를 발전시켜 자립적민족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첫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열의를 더한층 북돋아주기 위하여 새해 벽두부터 몸소 근로자들을 찾으시고 정치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여 실천적모범으로 우리들을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1947년 1월중순 어느날이였다.

첫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북방 함경북도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른아침 청진철도공장을 찾으시였다.

첫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며 나라의 동맥인 철도를 잘 움직여야 하겠는데 그때 나라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철도가 무참히 파괴된데다가 기관차를 움직일 기관사도 없었고 차량과 기관차를 수리할 공장도 잘 돌아가지 않고있었다.

청진철도공장 형편 역시 말이 아니였다.

공장의 일부가 복구되여 움직이기는 하였으나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공장로동자들은 대부분 해방후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여서 기술기능수준이 매우 낮았다. 대부분이 문맹퇴치를 갓 끝내고 난생처음으로 우리 나라 말과 글을 제손으로 쓰게 된 형편이였다. 숙련공들이 적었고 부속품들도 부족하였다. 이 공장 일군들은 차량수리작업을 제대로 밀고나가지 못하는 원인을 여기에서 찾고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도를 추켜세우는것을 첫 인민경제계획 수행의 기본고리의 하나로 인정하시고 먼저 철도공장부터 찾으시여 공장의 실태를 알아보시였다.

공장의 실태를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의 사정이 어려운것은 사실이지만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로동계급들속에 나라의 주인된 자각과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인민경제계획완수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사상사업을 잘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신 그이께서는 우리앞에 가로놓인 난관과 애로에 대하여 털어놓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난관을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할 혁명의 요구와 당의 의도를 명확히 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대옆에서 일하고있던 한 로동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동무는 인민경제계획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으시였다. 그는 신년사에서 나오는것을 들은 일은 있으나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것이 없습니다. 인민경제계획이란 간단히 말하여 우리 나라 살림살이를 깐지게 하고 더 늘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총설계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47년인민경제발전계획은 올해 1년동안 우

리 인민의 경제건설투쟁목표를 제시한것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인민경제계획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다.

그리고 철도부문의 실태와 이 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인민경제계획 수자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해방되던 때 우리의 철도운수는 혼란상태에 빠져있었다. 일제는 청진기관차수리공장을 비롯하여 열두개의 철다리, 3개의 차굴, 다섯개의 정거장을 파괴하였다. 철도공장이 멎어 기관차를 수리할수도 없었으며 철도운수에 필요한 석탄, 자재, 식량, 자금이 모자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철도운수가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있는 사실이며 기관차의 운행속도가 더딘데 대하여, 기관차가 고장이 자주 나서 커다란 지장을 주고있는데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괴된 공장과 철도시설을 복구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며 수송능력을 높여야 할 과업이 철도부문의 인민경제계획의 중요내용으로 되여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보장하자면 기관차수리사업을 개선해야 하는데 140여대의 기관차를 대보수하며 390여대의 기관차를 경상보수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과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륜전기재의 리용률을 높여 수송계획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새 조국 건설에서 철도운수부문에 맡겨진 임무를 다할수 없을뿐아니라 전반적인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관차수리를 맡은 동무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마음을 크게 격동시

켰다.

해방된 다음 열성 하나를 가지고 날마다 시각마다 땀흘려 공장일을 해왔지만 자기들이 하는 일이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그토록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줄 깊이는 모르던 그들이였다.

하기에 자기들의 노력이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를 깨닫게 된 순간 그들은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감으로 하여 흥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귀중한 말씀을 받아안고 감격에 겨워하고있는 그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다른 한 로동자에게 그 직장에서는 기관차수리를 얼마나 할수 있으며 공장적으로는 얼마나 할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때까지 그는 이에 대한 정확한 수자를 모르고있었다.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관리일군들이나 알 일이지 자기들은 매일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하면 되는것으로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대답을 올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있는 그 로동자에게 일없다고, 이제라도 알면 된다고 너그럽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말씀해주시였다.

《우리 로동계급부터 인민경제계획수자를 알아야 합니다. 수자를 알아야 한다는것은 계획수자의 내용과 의의를 알고 그속에 담긴 당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한다는 수자만 알것이 아니라 그 수자에 담겨있는 당의 요구와 의도를 알아야 하며 그것을 수행하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고 인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향상될수 있는가를 환히 알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열성도 창발성도 낼수 있으며 애국적헌신

성과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로동자들은 당의 의도가 그렇다는것을 안 이상에야 주저할것이 무엇이겠는가고 하면서 몇백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꼭 해내고야말겠다고 결의를 다지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결의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지금은 나라의 경제토대가 약하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좀 어렵지만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1947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면 우리 인민의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수원들을 부르시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로동계급이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만 가지면 어려운 난관도 다 극복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조선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애국심과 혁명적열의를 내다보고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세웠습니다. 인민경제계획수자의 내용과 그가 가지는 의의를 대중속에 파악시키는데 선전의 화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기계부속품을 몇개 깎으면 된다고 그저 수자나 알게 하는것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매 로동자들이 그 계획수자를 수행하는것을 통하여 나라의 경제적밑천과 장래 발전을 위한 터전이 닦아진다는것, 이 계획수자를 실행하는것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것으로 되며 그것이 곧 애국심의 표현으로 된다는것을 파악할수 있게 해설선전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계획수자를 인식시키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의 법적성격을 옳게 파악하도록 선전사업을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경제계획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오늘 하다가 못하면 래일 해도 되는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할 국가의 법이라는것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로동자들속에 인민경제계획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수행에로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범을 따라배우면서 나는 경제건설문제에 대한 선전을 단순한 실무적사업으로 생각해온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특히 구체적인 하나의 수자를 놓고서도 그속에 담긴 당의 의도를 파악시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며 실천투쟁에 불러일으키도록 할데 대한 선전사업의 위대한 진리를 체득하였다.

함경북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청진철도공장 로동자들속에 투쟁의 불씨를 심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신 그 걸음으로 강원도를 찾으시여 원산철도공장 로동자들을 만나보시였다.

이 공장은 종업원만 해도 900여명을 가지고있었으며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는데서도 맨 앞장에 서서 한몫을 단단히 맡아해야 할 중요한 공장이였다.

당시 북조선에 있는 5대철도공장의 하나였던 이 공장은 평양철도공장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공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반을 돌리던 한 기대공에게 일하기가 힘들지 않는가고 물으시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란 말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고 물어보시였다.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며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

서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란 인민들의 애국심을 높여 전체 인민들이 새 조국 건설에 총동원되도록 하기 위한 대중적운동입니다. 다시말하여 이 운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로동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나라재산을 애호관리하며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사상을 높이고 맡은바 혁명과업을 량심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국사업을 앞당기자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직도 일부 로동자들속에서는 출퇴근규률도 지키지 않고 자유주의를 하면서 공장의 재산이나 기계부속품 같은것을 팔아먹으며 일하기 싫어하고 건달치는 것은 다 일제때 받은 자본주의사상잔재에서 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악습과 개인향락주의적경향들을 없애고 건국열의를 높이자는것이 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놈들은 망하고 달아나면서 우리의 많은 기업소들을 파괴하였으나 지난해에 벌린 우리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금은 800여개의 기업소가 돌아가고있으며 앞으로 빨리 발전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고 하시였다.

온 나라의 경제형편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된 그들은 이제야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해낼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고 말씀드렸다.

어느 한 직장에 들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기대공에게 공장에서 일하는 재미가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일할수록 재미가 납니다. 왜놈때에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이 자리였는데 오늘은 그자리에서 같은 기계를 돌리는데도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든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말씀에 고무된 그는 어느새 자기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나서고있던 이러저러한 문제까지 스스럼없이 다 말씀드리게 되였다.

그는 지난해말과 금년초에 공장안에서 설비사고, 기계사고들이 련이어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이 서로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니 불안하기 그지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였다.

그의 말을 허물없이 다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것이 나라의 주인된 로동계급의 태도이며 자세이라고 고무해주시면서 반동들이 우리가 처음으로 실행하는 인민경제계획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간첩들을 잠입시켜 파괴암해책동을 감행하고있는데 동무들은 경각성을 높여 놈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철도공장을 찾으시여 이 공장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까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구호에만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부문에서 실지 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개변하도록 이 운동을 추진시키며 인민경제계획의 당면한 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선전사업도 이런 방향에서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을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할데 대한 그이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정치선전과 경제선전을 밀착시켜 실천과정을 통하여 사람의 사상도 개조하고 경제도 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준 선전사업의 귀중한 지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원산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을 접견하신 자리에서 원산시에서 올해 해야 할 인민경제계획수립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면서 이 사업에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산하 정당, 사회단체들을 어떻게 인입시키고있는가를 알아보시였다.

당시 민전산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은 인민경제계획이란 정권기관에서 틀어쥐고 집행할 일인데 자기들이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면서 방관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래서 시인민위원회에서는 인민경제계획문제를 가지고서는 민전과 크게 사업할 잡도리를 안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인민위원회의 이러한 소극적인 사업형편을 알아보시고 그것을 바로잡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1947년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튼튼한 토대우에서 진행되여야 합니다. 민전에 망라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행동강령은 반드시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에 복종되여야 합니다. 민주당이건 청우당이건 누구나 다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는데 떨쳐나서도록 조직별 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시인민위원회에서는 인차 민전산하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선전일군들을 불러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선전사업을 적극 진행할 대책을 토의하고 그 집행에 착수하게 되였다.

다음날부터 시안의 거리들과 중요건물들, 공장, 기업소 정문들에 《부강한 민주조국의 기초인 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자!》, 《전반적인 인민경제계획과 함께 공장, 광산, 철도운수, 체신기관들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증산투쟁을 벌리자!》, 《계획경제의 실시는 자주적민족

경제건설의 담보》 등 여러가지 구호들이 나붙어 근로자들을 새로운 로력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산철도공장 로동자들과 시인민위원회일군들을 찾으신것은 1월 19일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날 원산석유공장을 비롯하여 시내의 교육, 문화기관 등 여러 대상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담화하실 때마다 올해에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게 된다는것과 이 투쟁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강원도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시여서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농촌에서 새해농사차비를 잘하고 농업증산에 떨쳐나서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로정에서 있은 1월 19일 단 하루의 일과를 보면서 나는 대소한의 모진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년초부터 그이께서 어찌하여 북변의 땅 함경북도로 가셨으며 38도선을 낀 강원도를 지도하시게 되였는가를 더욱 깊이 깨달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민주건설의 앞길에 나선 난관들을 깊이 헤아리시고 비상한 전개력으로 계획경제실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시려고 이렇듯 심혈어린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경북도와 강원도의 여러 지방에 대한 현지지도를 끝마치시고 돌아오시는 로상에서 우리 수행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매개 공장, 광산, 철도운수, 체신기관들에서 생산계획실행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대중을 계획완수를 위한 투쟁에 동원하며 그들속에서 경쟁운동을 활발히 전

개하도록 선전사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을 잘하는 공장이 그와 비슷한 공장에 첫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애국적증산경쟁을 호소하게 하고 그에 다른 공장이 호응하게 하며 이 내용들을 신문, 방송 등 선전수단을 통하여 광범히 소개선전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려는 로동계급의 책임성도 높이게 할수 있고 경쟁의욕을 높여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완성하게 할수 있다고 구체적인 선전형식과 방법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는 영광을 지닌 청진과 원산의 철도공장과 다른 지방의 철도공장 로동자들은 서로 경쟁을 호소하고 호응하면서 이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기 위한 불꽃튀는 로력투쟁을 벌리였다.

철도운수부문 로동계급의 창조적로력투쟁은 특히 정주기관구 로동자들의 애국적투쟁이 일반화되면서 더욱 고조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였다.

평양곡산공장 로동자들은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초과달성하기 위한 증산경쟁을 벌릴것을 평양시와 전국의 중요공장, 기업소 로동자들에 호소하였으며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이에 호응하였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이러한 투쟁소식을 신문, 방송들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 강연과 해설담화를 통하여 이 과정에 이룩된 경험들을 광범히 소개선전하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을 새로운 생산의욕으로 불타게 하였으며 전국을 증산투쟁으로 불도가니마냥 들끓게 하였다. 도처에서 새 기적이 이룩되고 공장마다, 기업소마다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1947년인민경제계획은 빛나게 완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해 1월 14일부터 한주일동안에 걸쳐 함경북도와 강원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사상을 계발하며 생산투쟁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도록 선전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10년이 걸려도 조선사람의 힘으로써는 일어날수 없다던 일제놈들의 망발을 짓부시고 1947년 우리 나라에서 첫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그토록 크나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던것이다.

재령, 정주에 띄우신 감사편지

몸소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근로자들을 애국적건국운동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증산운동과 애국미헌납운동에 궐기한 우리 인민들의 앙양된 열의에 상응하게 정치선전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6년 12월 김제원농민과 재령군농민들에게 보내신 편지와 1947년 1월 정주철도종업원들에게 보내신 편지는 대중적애국운동의 불길을 온 나라에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 새 조국 건설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 중요한 정치사업이였다.

정주기관구의 로동자들이 애국적인 증산투쟁에 궐기하였을 때였다.

이들은 없는것은 새로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파괴된 수십대의 기관차를 수리하여 철길우에 올려세웠다.

석탄이 떨어져 기차를 운행할수 없게 되자 채탄돌격대를 뭇고 안주탄광에 가서 자체의 힘으로 석탄을 캐여 기관차를 움직여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주기관구 로동자들의 애국적투쟁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것은 그이께서 강원도를 현지지도하시기 위하여 원산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주 기쁜 일입니다. 정주철도종업원들에게 빨리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편지를 쓰겠습니다.

보시오, 우리의 로동계급이 얼마나 영웅적입니까. 이것은 세계에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위입니다.

정주철도종업원들의 애국적투쟁을 전국에 일반화하는 선전사업을 크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주철도종업원들에게 보내실 감사편지를 쓰시였다.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펜을 드시여 한자한자 편지를 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우리는 끓어넘치는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편지에서 정주기관구 로동자들의 애국적투쟁은 바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것이며 오늘 건국사업에서 주동적역할을 하고있는 우리 로동계급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표현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철도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정주철도종업원들의 모범을 본받아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주철도종업원들의 모범을 전국에 일반화하시기 위하여 지방에 대한 현지지도를 끝내시고 평양에 돌아오시자 잠시의 휴식도 없이 곧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시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시였으며 직업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들에서도 그들의 창발적애국운동에 호응하는 대중적인 증산투쟁에로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모든 선전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정주철도종업원들의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함으로써 애국적인 증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있은 직후인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선전일군들을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그이의 책상우에는 정주철도종업원들의 애국적로력투쟁을 소개한 신문들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신문을 손에 드시고 정주철도종업원들의 애국적로력투쟁을 이렇게 소개하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사실 오늘 우리의 건국사업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건국사업을 해줄수 없으며 오직 우리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는 오직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그러한 가장 강의한 의지력과 혁명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힘과 재간, 온갖 능력과 지혜를 다 발휘한다면 거기에서 기자재도 나올수 있고 기술도 나올수 있으며 그밖의 필요한 모든것이 다 나올수 있습니다.

정주철도종업원들의 애국적인 로력투쟁이 가지는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주철도종업원들의 애국적로력투쟁은 나라의 주인된 긍지와 자각을 안고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그들의 고상한 애국적열의에서 나온것이라고 하시면서 신문, 방송들에서는 로동계급의 이러한 투쟁정신을 널리 소개선전함으로써 애국적인 증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고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얼마전 김제원농민의 애국적소행을 두시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교시에 이어 또다시 정주철도종업원들의 애국적로력투쟁에 대한 귀중한 교시를 받아안게 된 우리는 그이의 한없이 숭고한 뜻이 가슴깊이 새겨져 북받치는 감격을 누를 길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6년 11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3차 확대위원회에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릴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신지 불과 보름만에 황해도 재령군농민들이 농업현물세를 완납하고 경축대회를 가진 끝에 김제원농민이 선참으로 30가마니의 쌀을 애국미로 바쳤을 때였다.

이에 호응하여 대회참가자들은 수천가마니의 쌀을 애국미로 바치면서 대회의 이름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편지를 올리였으며 애국미헌납사업에 떨쳐나설것을 전국의 농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김제원농민과 재령군농민들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시여 그들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뜨겁게 고무하여주시였다.

그러신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시고 김제원농민을 비롯한 재령군농민들속에서 일어난 애국적소행을 불씨로 하여 전국적인 애국운동의 불길을 일으킬 구

체적대책을 세우시였다. 이와 함께 농민조합련맹을 비롯한 근로단체들에서도 이 문제를 토의하고 전체 농민들을 이 애국운동에 불러일으키도록 하시였다.

그런데 당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의도를 옳게 파악하지 못한데로부터 이 애국적소행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제대로 밀고나가지 못하고있었다. 신문,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에서도 어느 지방에서 누가 쌀 몇가마니를 바쳤다는 식으로 실무적인 보도만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여 신문들이 애국미헌납운동을 소개선전하는데서 그저 애국미를 바친 사람의 주소, 성명과 헌납한 량곡의 수량을 기록식으로 보도하고있는것이 큰 결함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시정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농민들의 애국미헌납운동은 그들이 여유있는 쌀을 나라에 바친다는데만 의의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농민들의 애국적열의를 더욱 높여 그들이 새 조국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데 보다 중요한 정치적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국적으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전개하고있는데 이 운동의 목적도 바로 우리 인민들을 김제원농민과 같이 애국심이 불타도록 만들자는것입니다. 때문에 신문들에서는 김제원농민이 발기한 애국미헌납운동을 깊이있게 소개선전하여 모든 인민들을 애국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민주독립국가 건설에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민주개혁의 혜택으로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의 혁명적자각을 깊이 헤아려보시였으며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정권과 행복한 새생활

을 꽃피워가려는 그들의 애국적열의와 각오를 귀중히 여기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애국미헌납운동에 련이어 일어난 정주철도종업원들의 애국적투쟁에 그토록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적극 내세우신것도 기관차 몇대나 석탄 몇톤이 커서가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도로동계급의 그 창발적인 로력투쟁에서 산업을 복구하고 부흥시키는것이 곧 자기 나라의 자기 행복을 위한 보람찬 일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일떠선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의지를 깊이 헤아려보신것이였다.

그리고 우리 로동계급의 그 불굴의 의지에 의거하여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실 확고한 결심밑에 애국적인 증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시려는것이였다.

언제나 나라의 주인된 자각과 확고한 자주의식으로 인민들을 무장시키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시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 하나의 애국적소행에서 나라의 주인된 인민대중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비쳐보시고 온 나라에 대중운동의 거세찬 불길을 지펴가시는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이로 하여 해방후 애국미헌납운동과 증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애국적건국운동의 불길이 전국을 휩쓸었으며 세차게 타오른 그 불길속에서 새 조국 건설을 위한 력사적위업이 힘있게 추진되여갔다.

표어 《우리 나라 돈이 나왔다!》

1947년 12월 1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 제53차회의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할데 대하여》라는 결론을 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 따라 회의에서는 화폐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이 채택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의 새 돈을 가지게 된다는 크나큰 감격으로 하여 흥분된 심정을 금치 못하였으며 화폐개혁실시에 대한 법령채택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화폐개혁의 필요성과 그 의의에 대하여 분석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새 화폐를 발행하는것은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경제토대를 튼튼한 기초우에 올려세우며 앞으로 수립될 통일적인 중앙정부의 재정금융토대를 축성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화폐개혁을 하는것은 이미 실시한 민주개혁과 마찬가지로 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부터 우리 나라의 새 돈을 내올데 대하여 구상하시고 그 준비

사업을 하여오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돈을 내는것을 서두르지 않으시였다. 그보다도 그이께서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정권을 공고히 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시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첫 민주선거의 승리로 인민정권이 더욱 강화되고 실지 사업을 통하여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받게 되였으며 제반 민주개혁의 실시와 첫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으로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이것은 나라에 자주적인 금융체계를 확립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유일적인 화페제도를 세우고 자립적인 재정금융토대를 가져야 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을 촉진할수 있고 나라의 경제를 복구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었다.

이무렵 화페개혁을 실시하는것은 또한 우리의 경제를 혼란시키고 파탄시키려는 적들의 흉책을 짓부시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었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북조선과 남조선 할것없이 우리 나라 전역에 걸쳐 일제때의 낡은 《조선은행권》이 통용되고있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낡은 《조선은행권》을 마구 찍어 졸개들을 시켜 우리 지역에서 수다한 물자들을 사내가고있었다. 여기에다 나쁜놈들이 만든 위조지페까지 나돌고있었다.

이리하여 통화량이 급격히 팽창되여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경제를 바로 운영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커다란 지장을 조성하고있었다.

이런 때 화폐개혁을 하여 새 돈만이 유일적으로 통용되게 한다면 낡은 화폐를 가지고 우리의 경제를 혼란시키려던 적들의 음흉한 책동을 짓부시게 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깊이 헤아리시여 믿음직한 담보를 가진 우리 나라의 새 돈을 내고 이 돈만이 유일하게 통용되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화폐개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변으로 되게 하시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 회의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게 하신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포치하시고 혁명정세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해결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선견지명과 과학적령도에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이의 이러한 령도의 현명성은 어렵고 복잡한 화폐개혁사업을 단시일안에 성과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끌어주신데서도 뚜렷이 실증되였다.

화폐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한 북조선인민위원회 제53차회의가 있은 다음날인 12월 초이튿날이였다.

이날 한낮이 되여올무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전부문의 책임일군들을 불러주시였다.

나는 다른 일군들과 함께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문앞에까지 나오시여 우리들을 반가이 맞아주시고 화폐개혁과 관련한 선전사업때문에 불렀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며칠후에 진행될 화폐개혁과 관련하여 선전선동사업을 급히 준비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무엇보다 화폐개혁의 필요성과 의의를 깊이 해설침투할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페개혁과 관련한 선전사업의 방법과 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페개혁실시에 대한 법령을 12월 5일에 발포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내적으로 준비를 빈틈없이 해두었다가 법령이 보도되면 일제히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전사업에서 실효를 나타내자면 모든 선전선동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화페개혁과 같이 단시일안에 끝내야 하는 사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중을 감동시키고 고무추동하는데서 표어와 선전화가 중요한 역할을 논다고 하시면서 이번과 같은 때에는 직관선전사업에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화페개혁을 실시한다는것은 법령을 발포하는 순간까지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처럼 사전에 학습도 시키고 강연도 하고 해설담화도 하면서 화페개혁의 중요성과 의의, 화페교환방법 등을 대중에게 침투시킬수 없습니다. 신문, 방송으로 보도하지 못하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령이 발포되면 불과 며칠동안에 화페교환사업을 끝내야 합니다. 여기에 이번 화페개혁을 위한 선전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실효를 나타낼수 있는 선전수단은 표어와 선전화 같은 직관선전물들입니다. 적중한 표어와 잘 그려진 선전화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당이 침투시키려는 정책적문제를 단번에 인식시킬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중은 누구의 강의나 해설을 받지 않고 표어와 선전화만 보고도 지금 우리 당이 무엇을 요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알게 된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화폐개혁과 관련한 표어와 선전화를 잘 만들어야 하겠습니다.》라고 힘주어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우리들은 표어와 선전화를 잘 준비하여 화폐개혁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이번 화폐개혁과 관련한 표어를 어떻게 만드는것이 좋겠는가고 하시는것이였다. 우리들은 몇가지 안을 말씀올리게 되였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었던 우리들이였으므로 고작 생각해냈다는것이 화폐개혁은 튼튼한 자립적재정토대를 창설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모두다 화폐교환사업에 적극 참가하자라는 식의 한자투가 섞인 어려운 표어들이였다. 너무 일반적인 말이여서 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화폐개혁사업을 위한 표어를 《우리 나라 돈이 나왔다!》라고 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시는것이였다.

순간 우리들속에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환성이 터져나왔다.

《우리 나라 돈이 나왔다!》, 이 얼마나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는 뜻깊고도 선동성이 강한 표어인가, 바로 이 표어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된 높은 긍지를 한껏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뜻이 담겨있는것이였다. 또한 이 표어는 어린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지식있는 사람은 물론 문맹에서 갓 벗

어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단번에 화페개혁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시킬수 있으며 자부심을 가지게 할수 있는 아주 쉬우면서도 힘있는 표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뜻이 깊고도 알기 쉬우며 힘있는 표어를 손수 만들어주시고는 이 표어를 주제로 하여 선전화도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선전화에 자기 나라 돈을 가지게 된 조선인민의 긍지와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한 민족통일전선의 기상이 잘 나타나게 하며 새 돈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토대를 쌓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는 사상이 한눈에 안겨오도록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을 받아안은 우리들에게는 화페개혁실시와 관련한 선전사업방향이 뚜렷이 안겨오고 선전화에 담을 내용까지 석연하게 떠올랐다.

우리는 곧 강연해설사업과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한 선전사업을 진행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만들어주신 표어도 대대적으로 인쇄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긴 화가들은 밤을 지새우며 불타는 창작적열정을 붓끝에 담아 선전화 《우리 나라 돈이 나왔다!》의 초화를 짧은 시간에 그려냈다.

화페개혁실시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 선전사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관심에는 끝이 없으시였다.

선전화 《우리 나라 돈이 나왔다!》의 초화를 놓고 선전일군들이 심의하고있을 때였다.

합평은 자정이 넘을 때까지 진지하게 진행되였다.

그런데 갑자기 책상우에 놓인 전화기에서 종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얼른 송수화기를 들었던 나는 자세를 바로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걸어주신 전화였다.

그이께서는 선전화가 어떻게 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나는 초화를 놓고 모여앉아 합평을 하고있다고 보고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도 함께 보아주시겠으니 곧 초화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에 들어선 우리는 선전화 《우리나라 돈이 나왔다!》의 초화를 그이께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전화의 초화를 받아드시고 시간이 얼마 없었는데 빨리 그렸다고 하시면서 세심히 살펴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나라 돈이 나왔다!〉 선전화의 표제가 선동성도 높고 호소성과 전투성도 높습니다. 선전화의 제목은 이렇게 간결하고 당의 의도가 집약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다시금 선전화의 초화를 유심히 살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경에 알릴듯말듯 희미하게 나타난 고압전주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다.

《아마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닦는다는 사상을 나타내느라고 이렇게 그린것 같은데 이 사상을 좀더 강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 사상을 흰 연기를 내뿜는 공장굴뚝 같은것을 넣어서 간단히 처리해도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중심에 서있는 로동자 한사람만 새 돈을 든것으로 하니 화페개혁법령을 전체 인민이 지지환영한다는 기본사상이 약화될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다 새 돈을 들도록 고쳐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방향에서 선전화를 완성하여 빨리 인쇄하여 내려보내며 그것을 가지고 각 지방에서도 그려붙이게 하고 화폐개혁에 대한 결정을 보도하는 신문에도 내도록 하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세심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선전화 《우리 나라 돈이 나왔다!》는 완성되였으며 인쇄에 넘어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선전화인쇄는 계획된 시간까지 다 끝나게 되였다.

화폐개혁사업보장을 위한 힘있는 직관선동수단인 표어와 선전화는 이렇게 준비되였던것이다.

그런데 화폐개혁과 관련한 법령이 12월 5일에 발포되는 것만큼 그전으로 표어와 선전화를 지방에까지 날라가자면 이제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다. 하루사이에 그 직관물들을 전국각지에 날라간다는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였다.

철도역들이 있는곳까지 기차로 수송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데 거기에서 몇백리씩 떨어진 면, 리까지 실어가자면 대엿새는 걸리게 될것이였다.

아무리 모색해보아도 다른 방도가 나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할수없이 가까운데는 제 시간에 표어와 선전화를 내붙이게 하고 먼데는 화폐개혁에 관한 법령이 발포된 이후에라도 배포되는 차제로 내다붙이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실태를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폐개혁과 관련한 법령내용을 법령이 발포되는 그날로 인민들이 다 알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신문도 늦어지고 다른 선전사업도 제 시간에 벌릴수 없는 조건에서 표어와 선전화를 모든곳에 일제히 내붙여야 한

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당 일군들에게 전화를 거시여 렬차와 자동차는 물론 비행기도 동원하여 선전화를 비롯한 선전물들도 새 돈과 꼭같이 비밀이 새지 않게 잘 포장하여 경비원들의 호송밑에 각지에 날라다주게 하시였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내무국산하 수송대의 자동차들을 동원하여 새 돈과 함께 표어와 선전화를 화페교환소까지 실어가도록 하여주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신문들에 선전화 《우리 나라 돈이 나왔다!》를 싣고 화페개혁과 관련한 특집을 조직하도록 미리 준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이러한 혁명적조치에 의하여 화페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법령이 발포되자 곧 우리 나라의 모든 거리와 마을, 화페교환소들에 《우리 나라 돈이 나왔다!》라는 표어와 선전화가 나붙게 되였으며 신문특집호들이 나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들이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나라의 돈을 가지게 된 크나큰 감격과 기쁨 속에 화페개혁사업에 한사람같이 참가하게 되였다.

화페개혁은 법령발포후 불과 7~8일이라는 놀라울만큼 짧은 기간에 북조선전역에서 성과적으로 끝났다. 화페개혁후 인차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인민생활이 눈에 띄게 안정향상되여갔으며 나라의 경제가 믿음직하게 발전의 걸음을 걷게 되였다.

우리 나라의 새 돈을 받아든 인민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의 편지, 충성의 편지를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이끌어주신 화페개

혁사업은 이처럼 위력한 선전선동사업과 결부되여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되였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나라의 주인된 자각을 높여주는 의의깊은 사업으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돌이켜보건대 화폐개혁의 이 잊을수 없는 나날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선전일군들이 화폐개혁과 같이 단시일안에 본격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사업, 그러면서도 사업의 특수성으로 하여 미리 공개할수 없는 그런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정치선전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체득한 보람찬 나날이였다.

외국기자와의 사업을 잘하도록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가 새 민주조선 건설로 들끓고있던 1947년 8월에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의 기자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 찾아온 첫 외국기자였다.

그의 경향이 어떠하며 그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는가에 대하여 정확히 료해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를 맞이하게 되였다.

우리는 다만 그가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주로 국가수반급 인물들과의 단독접견을 많이 하는 도도하고 영향력있는 부르죠아기자라는것을 알고있는 정도였다.

당시로 놓고보면 나라가 해방된지 오래지 않아 외교분야

의 의례관계조차 잘 서있지 않고 특히 외국인들과의 사업경험도 전혀 가지고있지 못한 실정이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 나라에 찾아온 그 외국기자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며 그와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들은 누구도 자신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런데로부터 우리들가운데는 부르죠아기자가 우리 나라에 찾아온것을 시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기자가 우리 나라에 도착한 다음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건국사업을 령도하시기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나를 부르시여 외국기자와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상세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외국기자는 우리 나라를 찾아온 손님인데 그를 친절히 대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 우리 인민의 새 조국 건설투쟁을 대외에 널리 소개선전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됩니다.

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직접 제가 보고 느낀것을 돌아가서 말하거나 글을 써낸다면 그것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바로 인식시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놀게 됩니다.

기자, 작가들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가서 발표하는 인상담이나 기행문 같은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수 있는 실감있는 선전자료로 되며 우리가 방송이나 통신, 출판물을 통하여 진행하는 대외선전의 진실성을 립증해주는것으로 될수 있습

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전일군이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할줄 알아야 할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선전도 할줄 알며 원쑤놈들을 때리는 대적선전도 하고 우리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얻기 위한 대외선전도 하는 등 그 목적과 대상, 내용이 각이한 선전사업들을 어느것이나 능숙하게 조직진행할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외국인과의 사업이 곧 우리 당 대외선전사업의 한 고리로 된다는 이 귀중한 말씀에 접하여 나는 그이의 빛나는 예지와 위대성에 다시금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외국기자와의 사업을 잘해볼 결심을 다지면서 경험이 없어 걱정스럽다는것을 위대한 수령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하나도 걱정할것이 없다, 그가 우리 나라에 온 목적을 알아보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 된다, 공장에 가보고싶다면 가보게 하고 농촌이나 어촌, 어디든지 가보고싶은데 다 가보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알고싶은 문제가 있어 물어보면 해방후 우리가 한 사업들을 잘 이야기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위원회의 수립, 민주개혁의 실시, 민주선거,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실행정형, 민족문화건설 등 지난 2년간 우리 당과 인민정권이 해놓은 업적을 직접 보고 느낄수 있게 공장과 농촌, 학교와 휴양소 등에 대한 현지견학도 시키고 출판물자료들도 안내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오늘까지 놈들이 감행하고있는 반인민적책동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료를 들어 알

려주며 조선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하여 품고있는 감정에 대하여서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면서 동무들이 외국인들과의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것만큼 매사를 심중히 처리하며 경각성도 높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실로 외국인들과의 사업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귀중한 말씀이였다.

나는 그렇게도 막연하고 자신이 없게만 생각되였던 외국기자와의 사업의 앞길이 환히 열리고 신심과 의욕이 생겨남을 느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우리는 다음날부터 그의 요구대로 현지참관의 길을 떠났다.

평양 교외의 어느 한 농촌마을에 갔을 때였다.

마을에서는 김매기를 기본적으로 끝낸 여가에 살림집을 새로 짓거나 초가지붕을 기와로 새로 잇는 일판들을 벌리고 있었다.

외국기자는 이러한 흥겨운 일판들을 찾아다니며 성수가 나서 일하는 농민들의 작업모습을 보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집들에 찾아들어가 가구들이며 살림살이형편을 직접 보고 물어보기도 하는것이였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하여 지난 기간 90여호의 농가가 있는 이 마을에 기와집이라곤 지주집을 비롯하여 서너채밖에 없었다는것, 그런데 8.15해방후 22세대의 기와집이 생겨나게 되였다는것과 지금 짓는 기와집 10채까지 합치면 가을전에 이 동네에서 기와집이 30～40% 비률을 차지하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마을의 40%이상의 농가에서 재봉기, 20%의 농가에서 라지오를 새로 장만하였으며 특히 해방후 모든 집에 전기가 들어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새 건설, 새생활로 약동하는 농촌을 참관하면서 시종 머리를 끄덕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는 그후 숙소에서 신문과 잡지, 화보 등 여러 출판물들을 보면서 우리 나라의 비약적인 발전상에 대하여 더욱 똑똑히 인식하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 외국기자는 안내하던 우리 일군에게 **김일성**장군님을 꼭 만나뵈와야 하겠다고 자기의 절절한 의사를 표시하는것이였다.

나는 이에 대하여 그 즉시로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이 외국기자를 접견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신 다음 그의 건강이며 숙식조건에 대하여 따뜻이 물으시며 그에게 우리 나라 실정에 대하여 말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전 우리 인민이 처하였던 비참한 처지와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벌린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에 대하여 이야기하여주시였으며 해방후 2년간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시였다.

시종 만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명쾌하면서 설득력있는 론리로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인품과 위대한 풍모에 접하는 순간 그는 그이를 감동에 찬 눈길로 우러러보기만 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그 외국기자의 소원도 헤아리시고 그에게 조선의 여름은 동해안이 좋으니 송도원 같은데 가서 바다바람을 쏘이며 푹 쉬기도 하고 천하절승 조선의 금강산도 구경하고 가라고 따뜻이 말씀해주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그의 감격은 이를데없이 컸다.

그는 숙소에 돌아와서 자기는 세계적으로 이름있다는 국가지도자들을 한두사람만 만나지 않았는데 김일성장군님과 같이 뛰여난 품성을 다 겸비하신 위대한 령도자는 처음 만나뵈왔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출중하신 인품에 대하여 흥분을 금치 못하며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나는 오늘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온 첫순간에 완전히 매혹되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의 영채로 빛나는 안광, 한없이 인자하고 너그러운 인상, 젊고 후리후리한 체격, 이것만 보고서도 나는 대뜸 그이께서 희세의 영웅이시며 세계적인 위인이시라는것을 깊이 느낄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은 정말 가을의 찬서리도 순간에 녹이는 해빛과도 같은 정열적인분이시며 령롱한 달밤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것과 같이 부드러운분이십니다.

나는 당신들이 왜 장군님, 장군님 하면서 그이를 높이 존경하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았습니다. 나도 조선사람들처럼 그이를 김일성장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오늘 김일성장군님의 접견을 받으면서 새 민주조선 발전의 결정적요인이 바로 이 위대한 지도자의 전무후무한 탁월한 령도력에 있다는것을 절감하였다고 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 우리 인민들에 대하여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는 그의 얼굴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나는 자본주의나라에 적을 둔 이 외국기자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을 거듭 높이 칭송하는것을 보면서 참으로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수령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크나큰 행복에 대하여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우리는 다음날 그를 데리고 원산으로 내려갔다.

그는 송도원휴양소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그곳에 휴양을 하러 온 근로자들과 만나 담화도 하고 휴양생활을 마음껏 즐기고있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도 목격하였다. 또한 그는 원산시내와 교외의 공장과 농촌마을들을 참관하고 학교도 찾아갔다. 그러면서 수많은 근로자들, 어린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었다.

누구와 이야기해도 어디를 가보아도 나라의 주인, 공장과 농촌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과 긍지가 안겨왔으며 부강번영하는 새 조국을 일떠세우고 행복한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벅찬 투쟁으로 들끓고있었다.

이 현실을 목격하면 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놀라움과 감탄은 더욱 커갔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그 기자의 그동안 원산방문정형에 대하여 보고드리였다. 그러면서 그의 동향이 좋고 취재가 더 심화될수록 우리의 현실에 더 탄복해하므로 그에게 글을 하나 씌워 우리 신문에 내려 한다는것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말을 들으시며 그 외국기자가

우리 나라의 현실에 감탄을 표시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누구든지 우리 나라에 와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그 기자가 글을 써서 출판물에 내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면 몰라도 글을 쓰라고 권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 출판물들과 관계를 가지고있는 기자로서 자존심도 있고 명예문제도 생각하기때문에 충분한 자료준비와 구상이 없이 지금 갑자기 글을 써내려고는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돌아가서는 조선에서 취재한 자료들을 가지고 글을 써서 발표할것입니다.

지금은 기자회견이나 좌담회 같은것을 조직하여 그의 감상을 자유롭게 발표하게 하고 그것을 보도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통신과 방송으로 전하면 그것은 그의 말을 통하여 우리 나라를 대외에 소개하는것으로 됩니다.

참으로 명철한 판단에 의하여 취해주시는 현명한 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또다시 그 기자와의 차후사업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기자의 우리 나라 방문기일이 짧아 지방참관을 더 시킬수 없는 조건에서 원산에서의 일정이 끝나면 평양에서 진행되는 8.15해방 2주년기념경축대회에 참가시켜 발전한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형편을 알수 있게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는 원산에서 그 외국기자와 국내기자들과의 회견을 조직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끼리 허심하게 의견을 교환해보자고 하면서 자기가 조선에 와서 느낀 감상을 솔직하게 털어내놓았다.

그는 자기가 북조선에 와서 무엇보다도 놀랍게 생각한것은 남조선처럼 외국군대가 판을 치는것이 아니라 정권을 운영하고 경제를 건설하며 인민생활을 꾸려나가는 이 모든 사업을 조선사람들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나가고있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세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군에게 전적으로 예속된 남조선과는 달리 북조선에서는 자주적으로 건국사업을 해나가고있는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문 하루라도 북조선에 와 보면 이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공장과 농촌, 문화기관들을 참관하면서 받은 커다란 감동에 대하여서도 여러가지로 이야기하였다.

이 기자회견에 대한 소식은 신문, 통신, 방송을 통하여 내외에 널리 보도되였다.

우리는 8.15해방 2주년 평양시기념대회준비를 하면서 그 기자를 이 대회에 참가시킬것을 예견하였다.

8월 14일에 있은 기념보고대회에 이어 8월 15일 당일에는 기념군중시위가 진행되게 되였다.

우리는 그 기자를 데리고 아침 일찌기 시위군중이 모이는 광장으로 갔다.

그런데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절반이상 모여온 때에 와서 억수로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흩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군중은 기발과 표어판 그리고 가장물들을 들고 만

세를 웨치고 구호를 부르면서 계속 광장으로 밀려들어왔다.

광장은 립추의 여지없이 모인 군중과 떠나갈듯한 만세소리, 구호의 웨침소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으며 기발대와 표어판, 해방후 두해동안의 성과를 보여주는 각종 가장물들로 숲을 이루었다.

비살이 세지기 시작할 때부터 주최측에서 군중시위는 일기관계로 다음날로 연기한다는것을 확성기로 계속 알리고있었으나 사람들은 흩어지기가 아쉬운듯 좀처럼 광장을 뜨려하지 않았다.

이 숭엄한 광경은 그 외국기자로 하여금 말할수 없이 크나큰 감동에 휩싸이게 하였다.

군중시위는 결국 16일에 진행되였는데 그 기자는 이날 현지에서 시위광경을 목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그 기자의 우리 나라 방문정형을 료해하시고 그가 우리 나라를 떠나기에 앞서 다과회를 차려주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리하여 8월 17일에 기자, 작가, 예술인 등 수십명의 참가밑에 그를 환영하는 다과회가 열리게 되였다.

다과회에서 그는 김일성장군님께서 한갖 기자에 지나지 않는 자기에게 거듭 깊은 관심과 극진한 환대를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체류기간 우리 나라에서 보고 느낀 소감을 감동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는 북조선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민족경제를 복구건설하고 민주주의적인 민족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하면서 이 성과들은 경탄할만한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북조선의 민주력량이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다고 하면서 그의 증거로서 8.15해방 2주년경축군중시위광경을 들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그날 많은 비가 내리는데도 군중이 시위광장에 모여와 누구 하나 자의로 흩어지려 하지 않은것은 조선의 근로자들이 김일성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흠모하며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다는것을 현실생활에서 보여주는것이라고 힘주어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일성장군님은 특출한 정치적재능과 반일투쟁의 훌륭한 과거를 가지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십니다. 오늘 조선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되여있는 민주주의적인 통일적중앙정부가 수립되면 조선민족이 김일성장군님을 통일정부의 수반으로 틀림없이 추대할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격동에 넘쳐 말하는것이였다.

그는 우리들에게 자기가 돌아가면 북조선의 현실을 소개하는 글을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 신문들에 쓰며 소책자도 꼭 내겠다고 하였다.

그는 환영다과회가 있은지 이틀만에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를 떠남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께 다음과 같은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위원장각하,

이번에 저는 북조선을 방문하면서 각하께서와 각하의 지도밑에 인민위원회가 저를 뜨겁게 환대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으나 이와 같이 저를 후대하여주고 보도자료들을 수집할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준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감사편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북조선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수령님께와 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고 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썼다.

《북조선에 와서 놀랄만한 이 모든 업적들을 직접 본 저는 이곳에서 실시되고있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앞으로 남조선에서도 반드시 실시되며 이곳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행복을 남조선인민들도 꼭 누리게 될 날이 오리라는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 **김일성**위원장각하께서는 이곳에서 전조선민족의 장래를 위한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고계십니다.

저는 앞으로 오래지 않아 조선에 각하께서 이끄시는 통일적중앙정부가 수립되는 날 … 정부주석본청에서 각하를 다시 만나뵈옵게 되기를 기대하는바입니다.》

그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나날에 가는 곳마다에서 신생민주조선의 장엄한 현실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받았으며 짓밟히고 빛을 잃었던 식민지조선을 그처럼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조선으로, 영원히 부강번영할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안고 돌아갔다.

그 이듬해인 1948년초에 구라파의 한 출판물에는 그가 쓴 우리 나라 방문인상기가 게재되였다. 그는 우리앞에서 한 결의를 어기지 않고 우리 나라 현실을 그대로 담은 인상기를 썼던것이다.

그는 방문인상기에서 먼저 북조선에는 자주적인 인민정권이 서있으며 모든 문제를 조선사람들자신이 처리해나가고있다는것을 남조선의 실태와 대비하면서 썼다.

《나는 북조선에서 자유롭게 려행하면서 하등의 감시도

받음이 없이 조선사람들과 얼마든지 만나 취재할수 있었다. 나는 그들과 많이 이야기하였는데 그들은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인민위원회선거 등 사업을 외국사람들의 하등의 간섭도 없이 공산당의 지도밑에 자기네 힘으로 하였다는것을 나에게 말하였다.…

해방후 조선의 방방곡곡에는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인민위원회들이 발생하였다.

얼마후에는 이것들을 통솔지도하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인민위원회를 무시하였을뿐아니라 탄압하였다.

북조선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더욱 공고화되고 발전하였다.

나는 인민위원회선거방법, 인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등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듣고 북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민주주의가 근로대중이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할수 있게 하며 민주주의적으로 수립된 인민정권은 근로인민이 주권행사에 적극 참가하고 운영하기에 편리한 정권형태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필자는 자기 글에서 또한 북조선에서는 거창한 사회경제적변혁이 짧은 기간에 이룩되고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혁혁한 성과가 달성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북조선에서 달성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농업이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총경지면적의 62%를 차지하고 불로소득을 하며 호강스럽게 지내던 지주들의 토지소유제를 철페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분배하였다.

일제시기에는 수확물의 50～80%를 지주에게 물었는데 지금은 25%의 현물세만 인민정권에 바치면 된다. 토지개혁

후 농촌은 급속한 물질적향상을 보이였다. 수년이래 북조선은 처음으로 그의 식량을 전적으로 자급자족하고있다.

산업복구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일제는 항복전후에 조선의 수다한 공장, 기업소 등을 파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조선에서는 1947년에는 1946년에 비하여 생산량이 몇배 장성하였다. 현재 북조선산업은 일제시기의 군수산업으로부터 필수품산업으로 전환되였으며 그때의 예속적인 산업으로부터 자립적인 산업으로 전진하고있다.…》

그가 쓴 글은 발표되자마자 여러 나라 통신과 신문, 방송을 통하여 널리 보도되였으며 세계인민들의 이목을 해방된 조선으로 집중시켰다.

그의 우리 나라 방문인상기를 통하여 세계의 수많은 인민들은 장기간 일제의 식민지로 있던 조선이 제2차대전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알게 되였으며 새 민주조선의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우리 인민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해방된 조선을 처음으로 찾아왔던 그 외국기자가 돌아간 후 우리 나라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그와 같은 문필가들, 진보적인사들이 수많이 찾아왔다.

오늘도 외국의 벗들은 우리 나라를 그칠새없이 방문하고있으며 그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에 대하여, 한없이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에 대하여 말과 글과 화면, 화폭으로 자랑높이 소개하고있으며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을 기쁜 마음으로 세상사람들에게 전하고있다.

나는 외국의 벗들이 발표한 우리 나라에 대한 방문인상담과 기행문들 그리고 그들과 가진 기자회견기, 좌담회, 환

영모임 등에 대한 보도에 접할 때마다 근 40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외국기자와의 사업을 하나하나 배워주시고 이끌어주시던 그때의 감격적인 일들을 돌이켜보며 깊은 감회에 잠기군한다.

참으로 민주건국의 그길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심장으로 체득한 위대한 수령님의 예지와 령도력, 조직적수완과 전개력은 한없이 비범하고 탁월한것이였다.

하여 우리 나라는 일찌기 건국의 첫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한 그때부터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수많은 나라 인민들속에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킬수 있었던것이다.

제4장 남북련석회의때 있은 이 야 기

4월련석회의전야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남북련석회의를 민족대단결의 회의로 특히는 우익정객들의 사상전환의 회의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실로 끝없는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련석회의소집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내적으로 각 방면에 걸쳐 여러가지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시켜오신것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회의장을 꾸리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회의보장을 위한 선전사업을 벌리고 회의문건을 만들며 예술공연을 준비하고 대표들을 접대하는 문제 등 련석회의와 관련된 크고작은 모든 사업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것이나를 물론하고 그이의 구체적인 지도가 깃들어있지 않은것이란 하나도 없다.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소집된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것은 1948년 3월 25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조선민전중앙위원회 제26차회의에서 남북련석회의를 평양에서 열것을 제의하시였던것이다.

이날 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집무실로 간 나는 그이로부터 남북련석회의조직준비위원회를 내오겠는데 그 서기장사업을 나에게 맡기시려 한다는 뜻밖의 말씀을 받아안게 되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사랑에 가슴뜨거워오름을 금치 못하면서도 힘과 능력이 모자라 그 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것 같이 생각되여 그이께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이런 심중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도와주고 밀어주겠으니 마음놓고 해보라고 하시면서 서기장이 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기장은 남북련석회의에 대한 선전사업, 문건준비사업은 물론 회의에 오는 대표들과의 사업, 그들의 숙식조건보장, 예술공연준비 등 전반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나가면서 남조선에서 들어오는 우익민족주의자들과의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미리부터 남북련석회의조직준비위원회사업을 계획하고 전개해나갈 준비를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다음날부터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지침으로 삼아 남북련석회의조직준비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달라붙었다. 그런데 이날 저녁때 나는 또다시 그이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석회의준비사업계획을 세우고있는가고 물으신 다음 선전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번에 열리게 되는 회의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번 회의를 성과적으

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대대적인 선전공세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문들과 출판물들이 이 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신문들과 출판물들은 이번 회의에 참가하게 되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민주인사들이 회의에 성실히 참가하여 회의의 성과를 보장하도록 선전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련석회의가 가지는 목적과 의의를 해설하는 글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폭로하고 놈들을 우리 인민들과 세계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선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지난 2년반동안 우리 북조선에서 이룩한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모든 성과들을 적극 소개선전함으로써 조선인민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기 힘으로 능히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능력있는 인민이라는것을 련석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대표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이 똑똑히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련석회의에 참가하러 북반부에 들어오는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구성은 복잡하며 그 동향도 각이하다고 하시면서 출판보도물들에서는 예리한 정치적 분석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련석회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옳바로 취급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에게 주기 위한 출판선전물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는 특히 그들이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립장과 태도, 2년반동안의 민주건설성과 등을 납득할수 있게 글과 사진, 통계자료들을 잘 배합하여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남북련석회의와 관련한 선전방향으로부터 그 내용과 구체적방도에 이르기까지 선전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환히 밝혀준 참으로 귀중한 교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남북련석회의를 위한 선전공세를 활발히 벌려나갔다.

우리는 신문, 방송을 통하여 남북련석회의의 목적과 의의, 북반부의 경제, 문화 건설성과,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의 우월성 등을 련이어 해설하였으며 수많은 선전자료들을 인쇄하여 남조선에서 들어온 대표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특히 우리는 련석회의에 참가하러 북반부에 들어온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우익정객들의 담화와 감상담 등을 제때에 널리 보도함으로써 남조선의 각계인사들과 광범한 인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게 하였다.

남조선기자들에게는 북반부에서의 인민경제복구건설정형을 잘 알수 있게 만든 각종 통계수자자료들과 사진자료첩까지 보장해주었다.

남북련석회의 준비를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는 여기에 그치는것이 아니였다.

남조선대표들에게 보낼 초대장작성문제 하나를 놓고도 그것을 종이쪽지에 이름을 써보내는 단순한 사업으로 보지 말고 중요한 정치적사업으로 알고 잘 쓰라고, 누구든지 초대장을 받으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감동되여 하루빨리 우

리를 찾아오고싶은 충동을 느끼도록 잘 만들라고 거듭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를 진행할 회의장선택문제에도 실로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우리들은 준비위원회에서 련석회의장소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론의를 하고있었다.

당시 평양시내에는 근 10개에 달하는 극장과 여러 기관의 회의실, 구락부들이 있었는데 그가운데 어느것을 회의장으로 쓰겠는가 하는것이 론의의 초점으로 되였다.

어떤 사람들은 력사가 오랜 극장을 써야 남조선에서 들어오는 대표들에게도 낯익어 좋을것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번화하고 교통이 편리한 시가지중심에 회의장을 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력설하였다.

사람들마다 어찌나 의견을 제갈래로 많이 제기하고 주장을 강하게 세우는지 끝내 회의장소문제를 락착지을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할수없이 회의장으로 쓸만한 대상을 3개 선정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장소이름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읽어내려가시다가 나를 보시고 《여기에 모란봉극장은 두번째로 씌여있는데 이 극장을 회의장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많지 못했습니까.》라고 물으시는것이였다.

모란봉극장은 그때 지은지 얼마 안되는 새로운 건물이였다. 이곳을 회의장으로 택할데 대한 안도 제기되였으나 남조선에서 오는 대표들모두에게 이미 잘 알려진 극장을 쓰는것이 감회도 자아내고 친근감도 주고 여러모로 좋을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바람에 두번째 후보장소로 선정하였던것이다.

이러한 나의 대답을 들으시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남북련석회의 장소를 모란봉극장에 꾸리도록 합시다.

다른 장소들보다 모란봉극장에서 회의를 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모란봉은 오랜 옛적부터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넋이 어려있는 유서깊은 산이며 천하제일강산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뫼봉우리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임진조국전쟁때 이곳에서 피흘려싸워 왜적들을 물리친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나 침입하는 적을 모란봉에서 때려부시고 평양을 지켰습니다.

산모양이 함박꽃처럼 생겼다 하여 옛날부터 그 이름을 모란봉이라 불리운 이 산은 사철 푸른 소나무와 갖가지 나무들, 봄부터 가을까지 그칠새없이 피는 아름다운 꽃들, 선조들의 슬기를 보여주는 옛성벽과 을밀대, 최승대 등 여러 장대들, 깎아지른듯한 기암절벽들로 하여 그야말로 절승경개를 이루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사람치고 평양의 모란봉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모란봉하면 평양을 생각하게 되는것입니다.

우리는 해방후 이 산기슭에 우리의 힘으로 인민의 극장을 짓고 유서깊은 모란봉의 이름을 달았습니다.

모란봉극장에서 남북련석회의를 하면 남조선에서 오는 대표들은 외적에 굽히지 않은 우리 민족의 긍지와 존엄, 경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안고 회의에 적극 참가하게 될것입니다.

모란봉극장을 련석회의장소로 선정하여주신 그이의 빛나는 예지에 나는 정말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남북련석회의 대표들에게 높은 민족적 자부심과 흐뭇하고 친근한 마음을 안겨주는데서는 당시 모란봉극장만한 훌륭한 장소가 더는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고서야 나는 회의장소 하나를 정하는데서도 회의의 성격과 회의참가자의 구성상 특성, 그들의 감정, 심리를 깊이 고려하여 그에 맞게 선정해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게 되였다.

남북련석회의장소를 모란봉극장으로 정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참석한 대표들에게 사상적영향을 크게 줄수 있게 회의장안을 잘 꾸리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우리는 회의장안을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잡하게 제기된것은 주석단배경문제였다.

주석단배경장치를 위한 도안을 작성할 때였다.

우리들은 창작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고심하였다.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이 각이한 남북조선대표들의 회의니만큼 모든 참가자들에게 납득이 되고 사상적영향을 주도록 배경처리를 잘해야 하였다.

우리는 이런 방향에 근거하여 주석단배경장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차례 협의회를 가지였다.

배경에 무궁화꽃송이들을 그리자는 사람도 있었고 금강산을 그리는것이 어떤가고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신통한것이 못된다고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한편 회의에 참가하는 우익정객들을 놀래우지 말아야 한다고 《심중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남조선에서 들어오는 중간파와 우익인물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내려먹이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배경에 다른 장치를 안하는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종내 결심을 채택하지 못하고 망설이고있었다.

이럴무렵 주석단배경처리문제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를 부르시여 주석단배경에 조선지도를 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해방후 처음으로 남북의 겨레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사를 론의하는 뜻깊은 회의를 가지는데 주석단배경도 그에 맞게 잘 장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조선지도를 잘 만들어 배경에 붙입시다.

조선지도를 붙이면 회의참가자들에게 우리 나라가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하나의 강토이라는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이 불타는 애국애족의 정신과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려는 숭고한 자각을 가지고 련석회의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참으로 남북련석회의 성격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훌륭한 주석단배경장치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우리는 주석단배경에 조선지도를 형상하기 위한 작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었다.

이무렵 반당종파분자들은 회의장을 꾸리는데 저들도 큰 관심이나 가지고있는것처럼 행동하면서 정치회의는 초상화나 붉은기를 걸고 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느니, 회의참가자구성때문에 초상화와 붉은기가 고려된다면 회의이름만 써붙이고 회의하는것이 낫다느니 하고 떠벌이고있었다.

그러나 회의장주석단배경처리문제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계시기전까지는 누구도 종파분자들의 책동의 부당성에 대하여 똑바로 가려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이 사대주의, 교조주의에서 나온 잡소리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허황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조선지도를 잘 부각해서 장치하는 일을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지도를 장치하는 사업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도를 아무 표식도 없이 우리 나라 형태만 선으로 그린것으로 하지 말고 조선반도의 등뼈와 같은 척량산맥들과 큰 강과 벌들이 나타나게 잘 만드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시였다.

우리 나라의 산맥들은 북쪽에 있는 함경산맥과 랑림산맥으로부터 태백산맥을 지나 소백산맥에 이르기까지 련련히 잇닿아있습니다.

한강, 례성강, 림진강도 북반부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렀고 철원평야, 연백평야는 북반부와 남반부에 걸쳐 펼쳐져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지세가 나타나게 만든 지도를 보면 누구나 우리 나라가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불가분리의 강토이며 우리 민족은 헤여져 살래야 살수 없는 하나의 민족이라는것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국토를 량단하고 우리 민족을 분렬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 미제와 괴뢰도당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

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주석단배경의 조선지도가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에 대한 큰 정치사업을 말없이 대신해준다는것을 보여줍니다.

회의날자도 박두해오는데 조선지도 하나에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는것을 알고 빨리 그것을 잘 만들어 걸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세심한 가르치심을 받으며 우리는 주석단배경에 걸 우리 나라의 지도를 완성하였다.

회의를 며칠 앞둔 어느날이였다.

모란봉극장에서 우리가 주석단을 한창 장치하고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에 나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사를 받으시고 회의가 박두하였는데 회의장을 어떻게 꾸렸는지 한번 돌아보기 위해 나오시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무대에 꾸린 주석단부터 돌아보시였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나라의 커다란 지도가 걸려있었는데 거기에는 산맥들과 평야들, 큰 강들이 잘 나타나게 부각되여있었다.

맑은 청색바탕우에 걸린 부각한 조선지도는 마치도 바다우에 솟아있는 우리 나라의 온 강산을 한눈으로 부감하는것 같은 인상을 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석단배경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다가 못내 만족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무대장치가 아주 잘되였습니다.

조선지도를 부각해서 붙이니 이번 회의가 강조하려는 〈조선은 하나이다, 통일된 조국을 위하여 온 민족이 단합하자〉라는 기본정신이 그대로 잘 나타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주석단배경에 조선지도를 걸기를 참 잘했다고 거듭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우리들이 복잡했던 주석단배경처리문제를 옳게 수습하고 이끌어주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돌이켜보며 깊은 감동에 휩싸여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나에게 무대에 온도계가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나는 의아하게 생각되여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석단우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전열기를 놓아서라도 주석단이 있는 무대를 좀 덥히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이번 회의에는 늙은이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는것만큼 주석단과 회의장안의 온도를 잘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런 세밀한데까지 관심을 돌리지 못한 자신을 뉘우치며 가르치심대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장 좌석에 대표들이 앉도록 표식하여놓은것을 살펴보시면서 남조선에서 오는 대표들이 불편한 점이 없이 회의에 참가할수 있게 자리를 정해주라고 이르시였다.

거족적인 대단결을 촉구하는 4월남북련석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세심한 가르치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되였으며 마침내 1948년 4월 19일에 시작되였다.

회의시간이 되기 퍽 전부터 대표들이 모란봉극장으로 련달아 들이닥쳤다.

특히 남조선에서 온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커다란 감회를 안고 모란봉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슬기로운 민족의 정기가 어린 소나무 푸른 모란봉, 청류

벽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 예나 오늘이나 다름없이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잊을수 없는 강산이였다.

그들은 서로 여기서 좀 올라가면 유명한 을밀대, 최승대가 있다고 소곤거리기도 하고 저게 아름다운 릉라도라고 가리켜 소리치기도 하였다.

그들은 모란봉극장과 같이 훌륭한 건물을 해방후에 우리 인민들이 지은데 대하여 경탄을 표시하면서 기둥이며 벽이며 계단손잡이며를 쓸어만져보기도 하였다.

그들은 이 극장 하나를 통해서도 북반부인민들이 벌리고 있는 민주건설의 힘찬 맥박을 느낄수 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회의장안에 들어간 그들은 더욱 깊은 감동에 잠겨 젖어드는 눈만 슴벅거리였다.

주석단배경의 커다란 조선지도를 바라보는 그들은 우리 민족은 하나이며 3천리 우리 강토도 하나로 잇닿아있다는것이 가슴을 찌르도록 깊이 안겨와 한동안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우리를 반신반의하면서 회의에 참가한 일부 사람들도 감탄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련석회의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영원히 아로새겨진 1948년 4월남북련석회의, 우리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가슴을 격동시키고 온 세상에 일대 파문을 던진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의 대회합은 바로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완전무결한 사전준비를 갖추고 성공리에 진행되여 소기의 목적을 훌륭히 달성할수 있었던것이다.

《우리의 현실이 좋은 교양자료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련석회의에 참가하러 온 남조선대표들에게 새 민주조선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기세와 행복한 생활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가지 참관사업을 잘 조직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주시였다.

4월중순 어느날 나를 몸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석회의에 참가한 남조선대표들과의 사업정형을 하나하나 료해하시다가 그들에 대한 정치사업이 일면적으로 협소하게 진행되고있는것을 헤아리시고 현실참관사업을 조직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대표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선전만 들어온 사람들이니 우리의 건설성과를 말로만 듣고서는 잘 믿지 않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선 그들에게 황해제철소를 보여주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황해제철소는 동양에서도 손꼽히는 큰 공장인데다가 8.15전에는 순전히 왜놈기술자들이 운영해나가던 공장이기때문에 대표들이 깊은 주의를 가지고 돌아볼것입니다. 남조선대표들이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조선민족은 능히 제손으로 제 나라를 세울수 있고 운영해나갈수 있는 재능있고 우수한 민족이라는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하며 조선의 자주독립은 오직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쟁취할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과의 사업에서는 긴 연설보다 현실을 제눈으로 보고 느끼도록 하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해제철소에 대한 참관일정도 짜주시고 참관방법까지 상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제철소를 견학하는 과정에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자기들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게 해야 하며 참관사업을 그들의 특성을 참작하여 로숙하게 잘 조직하라고 거듭 일러주시는것이였다.

현실참관을 통한 실물교양이 남조선대표들과의 사업에서 아주 중요하고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나의 협소한 안목을 틔워주고 가슴에 크나큰 힘과 신심을 안겨준 참으로 귀중한 교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나는 남조선에서 온 대표들의 황해제철소에 대한 참관사업을 빈틈없이 준비해나갔다.

우리는 그이께서 정해주신 4월의 어느 청명한 날에 특별렬차를 타고 평양을 떠나 참관지인 송림으로 향하였다.

차안은 흥겨운 이야기판으로 활기를 띠였으며 모든 대표들의 가슴은 려행을 떠난 학생들의 심정과 같이 한껏 부풀어 오른듯하였다.

그들가운데 어느 한 대표가 나에게 황해제철소의 유래에 대하여 물어보는것이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직후에 서해안지방에 풍부히 매장되여있는 철광석으로 선철, 강철을 뽑아 략탈해갈 목적으로 대동강가의 한적한 포구였던 이고장에 제철소를 세웠는데 그때 일본의 한 재벌인 《림겸이》란놈이 이고장 이름을 《겸이포》라고 달고 제철소이름도 《겸이포

제철소》라고 달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일제가 패망하자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치욕스러운 왜놈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황해제철소 이름을 친히 달아주시였으며 이고장의 이름도 송림이라고 고쳐주신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김일성장군님께서 펴시는 정사 하나하나가 다 나라와 민중을 위하는 참말로 옳은 정사라고 하면서 감동을 금치 못해하는것이였다.

그때 서울의 어느 신문사에서 온 기자가 일제시기 《겸이포제철소》에 취재하러 갔던 이야기를 꺼내는것이였다.

그는 자기가 제철소에 가보니 왜놈들이 조선인로동자들을 마소와 같이 부려먹을뿐아니라 움막과 같은 집에 그들을 몰아넣고있더라고 하면서 공장구내에는 로동자들을 위한 위생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이란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로동자들을 만나 물어보니 그들가운데는 《징용》 또는 《보국대》라는 이름으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놈들은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도처에 술한 군대들까지 풀어놓고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왜놈들의 전용식당이라는곳에 가보니 놈들은 로동자들이 구경도 못하는 《기린》맥주와 《정종》술과 고기를 배불리 처먹고있었다고 분격에 넘쳐 말하는것이였다.

그 기자의 말을 들으며 대표들은 우리 로동자들의 지난날 참혹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일본놈들에게 저마끔 한마디씩 욕을 퍼붓기도 하였다.

이때 많은 대표들이 나를 보고 황해제철소의 변모된 모

습에 대하여, 로동자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이야기해달라고 서로 독촉하는것이였다.

나는 그들에게 《백문이 불여일견》(백번 듣는것이 한번 보는것만 못하다는 뜻)이라는데 제철소에 가보면 모든것이 스스로 리해될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는 사이에 렬차는 송림에 도착하였다.

황해제철소 정문에 들어선 때부터 해탄과, 제선과, 제강과, 요업과, 공작과(그때에는 직장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 등을 돌아보는 2시간동안 남조선대표들속에서는 감격과 흥분, 경탄과 찬사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울려나왔다.

특히 그들은 제선과(용광로직장)에서 오랜 로동자로부터 제3호용광로를 복구하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일본놈들이 로안의 쇠물을 뽑지 않은채 불을 끄고 달아남으로써 로와 쇠물과 슬라크가 하나로 엉켜붙어 용광로가 못쓰게 되였다. 놈들은 수십년이 걸려도 용광로를 복구하지 못한다고 줴쳤다.

그러나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복구를 시작하였다.

1단계는 쇠물과 함께 엉켜붙은 슬라크를 까내는 작업이였다. 힘은 들었으나 기어이 해냈다.

그다음 내화벽돌을 만들고 로를 개축하였다.

원래 일본놈들은 제 나라에서 만든 내화벽돌을 배로 실어다가 썼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체로 만들어냈고 일본기술자들밖에 축조하지 못한다던 벽돌축조도 우리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힘으로 해냈다.

이리하여 지난해 12월 3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첫 출선식을 거행하였다.

로동자의 이러한 이야기는 남조선대표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러는 사이에 마침 출선작업이 시작되였다.

시뻘건 쇠물이 출선구에서 홈을 따라 콸콸 흘러내려가는 장쾌한 광경을 보고 대표들모두는 너무나 기뻐 손벽을 치고 환성을 올리였으며 격정이 솟구쳐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기도 하는것이였다.

그들모두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민주한독당》의 한 대표는 용해공의 손을 덥석 잡고 감격에 넘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들의 억센 투쟁모습을 보니 우리들도 막 힘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참으로 위대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 현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이 완전히 자주독립할수 있는 민족이라는것, 우리가 독립하는 길은 오직 이길 즉 북조선과 같은 길뿐이라는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오늘 본 모든것이 완전히 우리 민족자신의것이라는것을 깊이 깨달았으며 또한 황해제철소의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각밑에서 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이 위대한 현실은 우리가 남조선에서 늘 들어오던 모든 헛소문을 분쇄할것이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자랑할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습니다.》

황철에 대한 남조선대표들의 참관은 실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에 대하여 나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다만 여기에 그때 왔던 한 기자가 서울에 돌아가서 쓴 기행문의 구절을 소개하려고 한다.

《나는 두시간동안이나 이 제철소의 모든 시설을 구석구석 빼놓지 않고 다 돌아보았다.

일제가 황급히 패망할 때에 제1, 제2, 제3 용광로에서 끓이고있던 쇠물을 빼내지 않고 갔기때문에 그것이 굳어져 용광로로서는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해방후 이곳 로동자들의 피눈물나는 활동으로 용광로는 다시 살아났다.

…지금 이곳에서는 일제시대에 만들지 못하던 철도레루가 생산되고있으며 교량건설에 쓰는 강재와 강판, 아연판, 강관, 선철, 강철, 콕스외에 류안, 나프탈린 등의 화학품까지 생산하고있다. 이리하여 동양유수의 제철소가 외국인의 감독이나 그들의 손을 빌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움직이고있는것이다.

…

우리 시찰단 일행은 오후2시경 제철소안에 있는 대식당으로 안내되였다.

이 식당의 한쪽으로는 역시 로동자들을 위한 탁구장, 도서실, 휴게실 등이 달려있었다.

이 건물은 일본놈들만이 쓰던곳이다.

우리를 위해 푸짐한 식사와 맥주, 소주 등이 식탁에 올랐다.

무대우에서는 제철소로동자들의 취주악대가 우리들을 환영해주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일제가 착취하던 이곳을 우리 로동자들이 차지하고 일본놈들이 저들만 배부르게 먹던 이 식당에서 우리 로동자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그들자신이 악대를 조직하고 즐겁게 놀수 있는것이다.

행복된 북조선의 로동자들은 아무 착취도 없는 그들의 직장을 가지고있고 조국을 건설하고있는것이다.

…오후4시경 우리는 송림역을 떠났다. 정거장근처의 로동자사택들, 이곳 역시 일제때 일본놈 간부들이 살고있던 곳이지만 지금엔 우리 로동자들의 가족들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어린애들이 혹은 창문을 열고 혹은 문앞과 길가에 서서 우리 일행을 환송해주었다.

그들의 입과 입에서는 〈남북통일, 자주독립〉의 웨침이 나왔으며 70로파는 길가에서 춤을 추었다.

철도연선에서 길가는 사람들은 손을 흔들어주고 어린 학생들은 모자를 벗어흔들고 밭을 가는 농부는 땀씻던 수건을 흔들고 마차를 몰아가던 마부는 두손을 높이 들고 만세를 불러주었다.

우리를 보고 듣고가던 꽹매기를 쳐주는 사람도 보였다.

뜨거운 감격의 눈물에 젖은채 기차는 달린다.

남북통일을 방해하는자 그 누구냐? 우리는 그자들을 반대할것을 다시금 가슴속에 맹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포치하여주신 황해제철소에 대한 참관사업은 처음부터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황철에 대한 참관사업을 끝마치고 돌아온 나는 다음날 아침에 위대한 수령님께 그 정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보고를 들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것 보시오. 그들이 황해제철소 하나를 보고 벌써 남조선과 대비하면서 북조선이 나아가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모든 선전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

민주건설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우리 민주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널리 선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이며 북조선과 같은 민주조선이 세워질것이라는것을 믿지 않을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대표들이 황해제철소에서 우리 나라 공업발전의 모습을 보았으니 농촌마을을 참관시켜 발전하는 농촌의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그들에게 과자, 사탕이 쏟아져나오는 곡산공장도 보이고 600자굴뚝을 가진 공장으로 동양에서 이름난 남포제련소도 보이며 혁명자유가족학원과 새로 건설한 예술영화촬영소도 참관시키라고 이르시였다.

황해제철소에서 돌아온후 커다란 흥분과 기대 속에서 다음 참관일정을 기다리고있던 남조선대표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를 전달받고 모두 기쁨에 넘쳐 환성을 올리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는 청산리에 대한 참관사업을 조직하였다.

그때 우리가 찾아간 청산리는 복숭아꽃 만발한 언덕아래 100여호의 농가들이 오붓하게 앉아있는 복스러운 마을이였다. 해방후 새로 지은 기와집들이 많이 들어앉은 청산리마을은 볼수록 아름다왔다.

대표들은 마을의 집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한집에 들어가니 뒤주간에 쌀가마니가 가득히 쌓여있었다.

4월도 중순이 넘었으니 남조선대표들이 한 말대로 표현하면 《맥령기》(보리고개라는 뜻), 춘궁기가 한창인데 그렇게 쌀가마니가 쌓여있으니 잘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였다.

그래서 《전국유교련맹》대표라는 사람이 그 집 주인에게 물어보는것이였다.

그 농민은 자기 집에서는 분여받은 8,000평의 논, 밭을 부치고있는데 수확한 농작물가운데서 현물세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집것이니 저렇게 곡식가마니를 쌓아놓고 산다고 하였다.

다른 농가에 들어간 대표들은 방안의 양복장이며 이부자리, 재봉기 등을 쓸어만져보기도 하고 부엌문을 열어 찬장과 윤기도는 가마 등을 보고 연방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였다.

어떤 사람은 방안전등스위치를 켜보기도 하고 벽에 붙은 농산계획표를 수첩에 옮겨베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옆집마당에서 큰소리가 들려오기에 나는 급히 그쪽으로 가보았다. 거기에서는 우리 안내일군이 그 집 농민에게 무엇인가 량해시키고있었다. 나는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남조선대표 한사람이 그 농민과 담화하면서 이곳에서는 농민들한테서 쌀이라든가 돈 같은것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일이 없는가고 물었다고 한다.

남조선농촌에서는 매일과 같이 벌어지는 사실이니 이곳에서도 간혹 그런 일이 있지 않는지 하고 물어보았던것 같았다.

그랬더니 그 농민이 성이 나서 여기가 어디인데 그따위를 묻는가고 큰소리로 면박을 주었다는것이였다. 소박한 그 농민으로서는 있을수 있는 일이였다.

우리는 량쪽을 다 량해시키고 민주선전실로 갔다.

남조선대표들은 민주선전실에서 이 동네에 중학생이 40여명이고 대학생이 6명이라는 도표를 보고 이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더 깊이 알게 되였다.

현지참관사업은 남조선정객들의 깊은 관심속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였다.

나는 여기에 완고한 민족주의자였던 김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며 감동을 금치 못하였던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한다.

나는 어느날 김구일행을 인솔하고 혁명자유가족학원(오늘의 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러 갔다.

일행은 학원구내를 돌아보기에 앞서 원장으로부터 학원의 래력을 들을 때 벌써 감격과 경탄으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학원의 원장으로 말하면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하였고 《상해림시정부》에도 관계한바가 있는 사람이였다. 김구일행도 오래전부터 잘 알고있었다.

김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이 학원의 원장을 하고있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김구의 가슴에 일어난 충격의 파도는 학원을 돌아보다가 남만에서 독립군사령으로 있었던 량세봉의 아들을 만나보았을 때에 더욱 높아갔다.

김구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나에게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였다.

《나는 지난 시기 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배척해왔는데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반일투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자녀들을 모두 이렇게 애국렬사의 유자녀로 우대하며 나라의 기둥감으로 키워주고계시는구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장군님의 하늘과 바다와 같은 높고 깊은 사랑과 덕망에 가슴뜨거워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소.》

그는 격정으로 적시여진 눈굽을 손수건으로 닦고나서 말을 계속하였다.

《모든것을 다 알만합니다. 모진 세월의 풍파속에 남겨놓은 혈육들을 친자식으로, 미래의 주인으로 말아키워주시는 장군님의 따사로운 요람이 있으니 그이의 전사들이 어찌 사생을 결단하고 싸우지 않았겠소.》

김구는 북반부의 빛나는 사회현실을 목격하고 더우기 이 학원을 돌아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과 탁월한 령도력, 그이의 한없이 고매한 덕성에 깊이 머리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젠 주동적으로 현실참관이며 예술공연관람 같은것을 우리에게 적극 제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는 남북련석회의가 열리기 며칠전에 남조선대표들에게 연극 《백두산》을 관람시킨바가 있었다.

그때 김구는 미제의 방해책동으로 늦게야 북반부에 들어왔으므로 연극을 보지 못하였다.

련석회의가 한창 진행되고있던 어느날 나를 보고 연극 《백두산》이 그리도 훌륭하다는데 한번 보여줄수 없겠는가고 간청하는것이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을 뵙게 된 나는 김구가 연극 《백두산》을 꼽시 보고싶어한다는것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구를 비롯해서 남조선에서 들어온 우익정객들이 생각했던것보다 아주 좋게 나오고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란다니 내가 바쁘기는 하지만 그와 함께 연극을 보겠습니다.》

김구와 함께 공연까지 봐주시겠다는 말씀에 접하여 나는 그이께서 남조선에서 들어온 우익정객들과의 사업을 얼마나

중요시하고계시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였다.

그후 4월하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시여 일찌기 극장에 나오시였다.

뒤늦게야 극장에 도착한 김구는 정문에까지 나오시여 자기를 귀한 손님으로 극진하게 환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올리면서 장군님께서 이처럼 나오실줄은 모르고 늦게 도착하여 정말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앞세우시고 휴계실에 들어가시여 늙은 그가 잠시 다리쉼을 할수 있도록 지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그사이 여러곳을 다니시기에 피곤하시겠습니다.

선생께서 연극 〈백두산〉을 보시겠다고 하였는데 창작된지 오래지 않아서 아직 미숙한 점들이 있습니다. 련석회의를 경축하여 공연하는것이니 보아주십시오.》

위대한 수령님의 겸허하신 말씀에 김구는 황송함을 금치 못해하면서 장군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쁘신 시간을 내주시는것은 더없이 고마우나 이미 보신것일터이니 념려마시고 일을 보시라고 몇번이고 말씀드리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귀한 손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오늘 저녁시간은 선생을 위해 낸 시간이니 념려말라고 하시면서 그를 앞세우고 관람석으로 나오시였다.

김구는 공연이 시작되자부터 연극에 완전히 심취되여 제가 듣던것보다 더 훌륭한 연극입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라고 하면서 시종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김구는 연극이 끝나자 옆에 앉아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손을 두손으로 덥석 잡으며 《장군님께서 정말 나라의 광복을 위해 15성상 혈로를 헤치시며 많은 로고를 하셨습니다.

나는 백두산의 기상이 어떤것이였는가를 이제야 똑똑히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이를 높이 칭송해마지않았다. 계속하여 그는《북에서는 예술이 우리 민족의 량심에 부끄럽지 않게 아주 건전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남의 예술은 뒤떨어진 복고와 일제잔재에다가 부패타락한 미국놈의 예술까지 혼탕이 되여 눈뜨고는 볼수 없는 지경이 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오늘밤 무대에 오른 이런 훌륭한 연극을 남조선인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자기의 진심을 담아 말씀올리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통일되여 동포형제자매들이 서로 오가게 되면 이런 연극을 평양에 와서도 볼수 있고 서울에 가서도 볼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북의 정치인들과 인민들이 모두 일치단결하여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억세게 벌려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김구가 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현실을 여러모로 직접 보고 체험한 과정은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을 깊이 간직하고 북반부를 옳게 리해하는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였다.

남조선정객들의 심중에서 일어난 이러한 심각한 변화는 김구와 같은 사상관점과 태도의 소유자였던 김규식에게도 례외로 될수가 없었다.

그는 사정이 있어 평양에 늦어 도착했었는데 여러날동안 거의 말없이 지내왔었다.

그러나 그는 예술공연을 관람하고 현실을 견학하며 련석회의를 지지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 많은것을 느끼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연회석

상에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는 나도 우리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겠습니다.…남의 장단에 춤출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추는것이 제일입니다.

여러분도 보다싶이 북에 와보니 북조선은 자급자족할 토대가 되여있습니다.

남쪽은 공장이 놀고 생산은 없고 외국의것만 바라보고있는데 여기는 공장이 일하고있으니 남쪽은 망하는 세간살이 같고 여기는 새로 일어서서 잘되는 집안 같습니다.

남조선에서 온 대표 여러분!

인제 우리는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북조선에서 빛나는 민주건설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바로 그 길, 김일성장군님께서 밝히신 민족자주로선을 따라 힘껏 싸워나아갑시다.》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은 그자체로서뿐아니라 그것이 구현된 현실에 의하여 더욱 깊이 확증되는것이다.

남조선에서 온 대표들은 북조선에 체류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를 알았고 그것이 구현된 찬란한 현실을 제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였다.

《출중한 령수는 위대한 현실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김구가 우리에게 늘 하던 이야기이다.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 그것을 구현하여 펼쳐주신 빛나는 현실, 이것이 그들을 사상전환의 길, 련공과 자주통일의 길로 이끌어주었던것이다.

참으로 남북련석회의의 나날은 나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남조선정객들과의 사업을 조직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이께서 우리의 현실이 좋은 교양자료라고 하신 말씀의 참뜻을 심장으로 체득하는 뜻깊은 배움의 나날로 되였다.

격문의 구절구절마다에

며칠동안 계속되여온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가 막을 내리던 날인 4월 23일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 대표들의 열렬한 지지찬동속에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이라는 격문을 채택하였다.

회의장에서 랑독된 격문은 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울려퍼지였다.

회의참가자들과 전체 인민들은 힘있게 울리는 격문을 들으면서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웠으며 성스러운 구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슬기로운 민족적기개를 떨칠 억센 투지를 굳게 다지였다. 그마만큼 격문은 사람들의 심금을 격동시키는 절절한 내용과 명문장들로 엮어져있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은 이 격문은 4월남북련석회의의 다른 문건들과 마찬가지로 그 초고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나하나 손수 쓰다싶이하신 뜻깊은 문건이였다.

남북련석회의준비사업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4월초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업을 맡아하던 나를 부르시여 회의문건준비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련석회의에서 전체 조선인민을 구국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격문을 채택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초안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남북련석회의이름으로 격문을 채택하는것은 날로 로골화되는 미제와 리승만매국도당의 괴뢰정권조작음모를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조선인민을 불러일으키는데서 매우 중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격문에 담을 내용을 가르쳐주시면서 그 문투에 대해서까지 말씀해주시였다.

《이 격문은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과 각계인사들에게 보내는 글인것만큼 그에 맞게 잘 써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쓰는 문투가 아니라 좀 고투를 섞어서라도 절절한 민족적감정이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례를 들면 평양 또는 조국땅이라고 쓰는 대목도 〈유서깊은 고도 평양에서〉라든가 〈선조의 유골이 묻혀있는 조국강토〉 등의 표현들을 써서 절절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이 격문을 만들어본 경험이 부족하다는것을 헤아리시고 격문의 특성과 그것을 쓰는데서 지켜야 할 기본요구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격문에서는 반드시 모든 우리 인민들에게 투쟁 목표와 과업을 뚜렷하게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절절하게 호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격문을 호소성이 강할뿐아니라 설득력있게 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나는 신심이 생기는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곧 격문초안을 작성하는 사업을 조직하고 여기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격문을 쓴다는것은 막상 시작해보니 쉬운 일이 아니였다.

특히 그 대상이 민주주의로 교양받으며 새생활을 창조해

나가고있는 북반부인민들뿐아니라 미제의 강점밑에서 신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과 각계인사들인것만큼 격문에 담아야 할 내용과 그 문장 하나하나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모여 토론도 하고 몇번씩이나 고쳐쓰기도 하면서 모대기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다나니 시일이 걸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사이에도 여러차례 련석회의와 관련한 문건준비정형을 료해하시면서 격문을 잘 만들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여러날동안 머리를 짜내며 고심하던끝에 마침내 격문초안을 만들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게 되였다. 그것은 과업을 받은지 근 보름이 지나 회의개막을 방금 앞둔 때였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된 다음날인 4월 20일 저녁이였다.

이날 회의에 대한 보장사업을 총화하며 다음날의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던 우리는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우리들이 급히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에 들어서니 그이의 책상우에는 격문초안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격문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우리를 부르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즈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지도사업으로 분초가 새롭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계시였다. 회의에서 하실 보고를 준비하시고 여러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일일이 만나 담화하시며 실로 그이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모르시였다.

이처럼 다망하신 가운데서도 그이께서는 격문을 완성하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고계신것이였다.

그런데 그 격문초안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격문초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려는것이 아니라 이 격문초안을 세심히 검토하시고 손수 일일이 고쳐놓으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글줄을 지우시며 새로 고쳐쓰시기도 하고 화살표를 그려가시며 더 써넣어주시기도 하신 격문초안에는 우리들이 원래 썼던 글줄들이 어느 하나도 그대로 있는것이 없었다.

우리는 격문의 글줄마다에 기울이신 그이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헤아려져 실로 벅차오르는 감격과 함께 무거운 자책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드러우신 어조로 격문을 약간 고쳐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함께 의논해보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격문은 첫머리부터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끌어당기게끔 되여야 그 목적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좀 손을 댔는데 읽을테니 들어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격문초안을 손에 드시고 자신께서 고쳐 써넣으신 부분을 천천히 읽어내려가시는것이였다.

《상호부동한 정견을 가진 여러 정당들과 제 단체대표들이 어찌하여 호상 분쟁을 중지하고 우리 조국의 유서깊은 고도 평양에서 일당에 회합하게 되였는가? 산명수려한 금수강산 삼천리 우리 조국의 운명을 념념불이하는 우국의 충정을 참지 못하여 우리는 남북에서 여기에 모였노라.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3천만 우리 민족의 의사를 대표하여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 모였노라.

다시 고하노니 우리 조국과 민족을 또다시 암흑과 참화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마수가 머리우에 박두하였음을 누구나 통감하였기때문에 우리는 분연 이자리에 달려왔노라.》

참으로 더없이 깊은 뜻이 담긴 명문장들이였다.

각이한 정견을 가진 여러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 각계 인사들이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장에 모인 숭고한 취지를 뚜렷이 밝힌 구절구절들에는 불타는 애국애족의 일념과 우국충정의 숨결이 뜨겁게 맥박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문의 다음부분에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과 통일정부수립을 반대하는 미제의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단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보다 설득력있게, 예리하게 써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미제가 제놈들이 만들어낸 《유엔림시조선위원단》과 그것을 내세워 감행하고있는 단독괴뢰정부조작음모를 결부시켜 상전과 주구들의 범죄적인 민족분렬책동을 폭로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문에는 또한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민족분렬책동에 대한 전민족적인 분노와 놈들의 《단독정부》조작음모를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려는 우리 인민의 억센 결의가 힘차게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조선민족은 죽지 않았다, 왜적의 노예로서 쓰라린 망국의 슬픔을 겪어온 우리 조선민족은 또다시 망국의 노예생활을 거듭하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조선인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한사람도 놈들이 실시하려는 망국적《단독선거》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다, 우리 민족은 오직 통일된 조국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강한 론조를

세워 써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문의 마지막부분을 더욱 호소성과 선동성이 강한 내용으로 절절하게 써야 하겠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귀중한 말씀을 정중히 정리해내려가니 그대로 훌륭한 격문의 구절이 되여갔다.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명의로 내보낼 격문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심혈에 의하여 완성되였다.

그런데 격문을 통하여 전체 조선인민을 반미구국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려는 그이의 로고는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 이튿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격문안을 그이께 다시 올렸을 때였다.

하시던 일을 미루시고 그 격문초안부터 다시금 세세히 검토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자리에서 우리들에게 《격문의 마지막에다가 이 련석회의에 참가한 정당, 사회단체의 이름을 다 밝혀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격문이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전체 성원들에게 자기들자신의것으로 접수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직의 대소에 관계없이 또 련석회의에 보낸 대표수의 많고적고에 구애됨이 없이 이번 회의사업에 참가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이름을 밝혀 격문을 내보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문을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격문의 내용도 좋고 글도 절절하고 힘있게 되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신 그이께서는 이 격문을 신문에 발표하되 글자를 큼직큼직하게 찍어서 내보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

고 격문을 신문에 낼뿐아니라 삐라와 소책자로 찍어 남조선에 많이 내보내며 신문의 호외르도 인쇄하여 련석회의를 경축하는 군중대회때 비행기로 뿌리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련석회의에서 전체 대표들의 일치한 지지찬동밑에 채택된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이란 격문은 회의가 끝난 다음날 신문 1면에 큰 활자로 한면을 꽉 채워 두드러지게 발표되였다.

신문뿐아니라 통신, 방송으로도 여러차례 보도하였으며 삐라와 소책자로 찍어 남조선인민들과 각계인사들에게 보냈다.

련석회의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상공에서는 격문을 찍은 신문의 호외가 비행기로 꽃보라처럼 뿌려져 그자리에 참석한 남조선의 인사들과 30여만 군중의 가슴을 통일의 열망으로 들끓게 하였다.

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각계인사들은 마디마디 불타는 애국사상과 자주정신, 슬기로운 민족의 기개가 뜨겁게 맥박치는 격문에 무한히 고무되여 미제와 리승만매국도당의 단독《선거》와 단독괴뢰정부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구국투쟁에 분연히 떨쳐나섰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격문의 구절구절마다에 뜨거운 심혈을 기울이시여 밝혀주신 애국애족의 사상과 민족자주의 정신은 분렬의 위기를 막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체 조선인민과 각계인사들의 공동의 투쟁리념으로, 기치로 되였다.

남조선기자들의 매혹, 경탄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가 끝난지 며칠 지난 1948년 4월 29일이였다.

이날은 련석회의취재를 위하여 평양에 온 남조선기자들이 이미부터 가슴깊이 품어온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영광의 날이였다.

바로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들을 몸소 만나주신것이였다.

전체 조선인민이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것은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남녘땅에서 들어온 모든 대표들의 한결같은 소원이였다.

남조선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38선을 넘어 북조선에 들어온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특히 그들은 련석회의에서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국투쟁강령을 받아안고 끝없는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그이를 만나뵈올 절절한 념원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요청을 여러차례 받으면서도 이 사실을 위대한 수령님께 그대로 보고올리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당시 남북련석회의사업으로 실로 분초가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계시였다.

련석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그이께서는 각 정당,사회단체대표들과 일일이 사업하시기에 잠시의 여유도 없으시였다.

더우기 남조선기자들은 여러 언론기관들에서 들어온것만큼 그들의 구성이 복잡하였고 정치적동향도 각이하였다. 그들가운데는 애국적립장에 선 진보적기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낡은 부르죠아사상에 물젖은 사람들이였다.

이들속에는 반동파에게 매수된 어용기자들도 끼여있었다.

이러한 기자들이 그처럼 바쁘신 시간을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쉬이 받게 되리라고 생각한 우리 일군들은 없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게 된것이였다.

이날 오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였다.

이 소식을 전하게 된 나자신은 물론 이 시각을 그처럼 간절히 기다려온 남조선기자들도 감격으로 하여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나는 남조선신문기자단 일행을 인솔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곳으로 갔다.

접견장소에 이르는동안에도 그들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기자들이 도착하자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몸소 문밖에까지 나오시여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기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안부도 물으시고 앉을자리도 손수 권해주시였다.

모두가 앞상에 앉기를 저어하면서 벽에 붙어있는 걸상쪽으로 가려고 하자 그이께서는 사양말고 다들 앞상에 나와앉으라고 거듭 이르시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지척에 모시고 남조선기자들은 정중한 자세로 자리를 잡았다.

나도 그이께서 권해주신대로 앞상에 그들과 함께 앉았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리에 앉은 그들을 둘러보시며 벌써 만나보려고 하였으나 시간을 얻지 못하여 늦어졌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시간을 냈으니 우리 서로 기탄없이 이야기를 나누어보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이 말씀에 기자들은 소원이 이루어진 기쁨과 함께 송구한 감을 감추지 못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먼저 남조선기자들에게 무슨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들의 의향을 물으시자 한 기자가 자세를 바로잡고 조용히 일어서더니 남북련석회의가 성과적으로 끝났는데 남북통일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소감을 듣고싶다고 정중히 말씀올렸다.

그의 질문을 다 적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있는 그에게 어서 자리에 앉으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또 다른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시였다.

그이께 올린 남조선기자들의 물음은 여러가지였다.

어떤 기자는 북조선에서 실시한 민주개혁의 의의와 민주건설문제에 대하여 알고싶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런가 하면 북조선에서 인민정권의 수립과 정규무력건설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주실것을 청드리는 기자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물음에 대한 대답부터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가 성과있게 진행된 사실은 전조선의 진보적력량의 단결이 더욱 강화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바와 같이 남북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은 남북련석회의의 결정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며 찬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련석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들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 숙망을 옳게 표현하였으며 따라서 민족의 통일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는것을 명백히 증명하여주는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의 통일과 행동의 통일은 우리 승리의 가장 중요한 담보입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그렇기때문에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전민족적력량을 동원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우리 위업의 승리여부가 달려있다고 힘주어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조선인민군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킨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반동들이 퍼뜨리고 있는 비렬한 요언의 본질을 폭로하시고 우리 인민군대가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는 신성한 사명과 목적을 지닌 군대라는것을 명백히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적어두신 기자들의 질문을 들여다보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세운 인민정권을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하고있다는데 이에 대하여 좀 이야기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인민정권을 공산주의라고 부르는자들은 그들이 사회문제에 있어서 판무식쟁이가 아니면 음흉한 목적을 가진 악선동자라는것을 스스로 폭로할뿐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분자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것을 〈공산주의〉라고 떠들어대는것은 오늘 그들의 버릇으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안으며 기자들은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이 쓰고있는 상투적인 수법과 그 밑

바다에 숨은 검은 속심까지 여지없이 까밝히신 그이의 말씀에 감탄하여마지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민주주의발전의 도상에서 북조선인민들이 쟁취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운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인민위원회는 로동자, 농민, 사무원, 지식인, 상인, 기업가, 종교인 등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여있으며 여러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신 그이께서는 북조선인민회의를 실례로 드시여 그 대의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담화석상에서 또한 북조선민주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선 간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에 대하여, 민주개혁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였으며 그때 미제의 악랄한 책동으로 복잡하게 제기된 전력공급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립장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였다.

남조선기자들은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있던 문제들을 그처럼 명백하고 알기 쉽게 하나하나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풍부한 식견,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자주독립국가건설에 대한 그이의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립장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제기된 모든 물음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없이 명쾌하게 대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우러르며 끝으로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여주실것은 없으신가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선 나는 우리 조국 남반부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나

의 열렬한 형제적축하를 전하여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이 출판계의 대표이니만큼 자기 운명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민족적재생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북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남조선동포들에게 객관적으로 옳게 전하여주기를 바랍니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동포애적사랑이 담긴 뜻깊은 말씀이였다.

자기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표시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당부를 받아안은 남조선기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끝없는 감격과 기쁨이 어리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물을것이 없는가고 다정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그들속에서는 알고싶던 모든 문제들이 명백히 밝혀져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께서 몇가지 물어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북조선에 온 그들의 소감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남조선기자들은 저저마다 자기들의 소감을 솔직히 말씀드렸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북조선을 동경하여왔다고 하면서 남조선에서는 반민주주의적인 암흑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있는데 북조선에서는 민주주의가 꽃피고 광명이 펼쳐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처럼 동경하고 머리속에서만 그리던 북조선에 실지 와서 보고 상상외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데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황해제철소와 국립영화촬영소, 혁명자유가족학원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와 교육, 문화 기관들을 참관한 소감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모든 놀라운 발전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데 대하여 끝없는 경탄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북조선에서 실시한 민주개혁과 민족문화예술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조선의 정치정세와 경제형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을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끝으로 북조선에 와서 그들이 북과 남의 형편사이에 어떤 차이를 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이 물으심에 나이 지긋한 기자가 이렇게 말씀올렸다.

《남은 파괴요, 북은 건설입니다. 남조선을 구원할 원동력은 북조선입니다.

북조선의 눈부신 발전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집니다. 약소민족이 이렇게 단시일내에 큰 성과를 거둔것은 력사상 처음입니다.

이러한 력사적위업을 령도하신 김일성장군님께 다시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자 여기저기에서 《그렇습니다. 장군님》,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흥분된 목소리가 약속이라도 한듯 한시에 터져나오는것이였다.

남조선기자들이 북조선에 와서 보고 듣고 느낀것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진정에 넘친 말이였다.

남조선기자들이 북조선에 체류한것은 불과 열흘남짓한 짧은 기간이였다. 그러나 이 기간 그들이 받은 충격과 인식은 한생동안 받은 그것과도 비할수 없이 강하고 큰것이였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미제와 온갖 반동세력이 판을 치는 남조선사회에서 낡은 부르죠아사상과 편견에 사로잡혀 오직

밥벌이를 위하여 펜을 달리던 이들이 그처럼 며칠사이에 정의와 진리를 깨닫고 북반부에서 진행되고있는 민주건설의 길이 바로 해방된 새 조선이 나아갈 길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된것은 참으로 그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에서 일어난 하나의 커다란 전변이였다.

물론 그들에게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쉽게 이루어진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남조선기자들과의 사업을 몸소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이룩될수 있은것이였다.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앞두고 우리들이 남조선에서 들어오는 대표들, 각계인사들과의 사업에 착수할 때였다.

우리는 처음에 남조선기자들과의 사업을 신중성있게 하지 못하였었다.

여러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사업이 바쁘다고 하여 그들과의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고 이들에게 북반부현실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고 그들이 우리의 건설과 우리의 사회제도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우리는 낡은 사회의 기자들이란 상대하기가 까다롭고 복잡하니 말썽이나 일으키지 않게 적당히 다루다가 돌려보내자는 심산이였다.

그러던 4월중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서 앉으라고 나에게 손수 자리를 권하시고나서 련석회의준비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

시면서 남조선에서 들어오는 기자들과의 사업계획도 알아보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사업계획의 부족점을 일깨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남조선기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동무들이 가지고있는 안을 들어보니 너무 소극적이며 피동적입니다.

기자들과 사업을 잘하라고 하는것은 그들의 활동이 남조선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입니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기자들은 직접 출판언론수단을 다루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문필활동에 의하여 사회여론이 크게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남조선언론출판기관들에서 련석회의취재를 위하여 북반부에 들어올것을 제기한것을 보면 극우익반동들의 언론기관 몇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통신사, 신문사들에서 기자를 보내겠다고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물론 여기에는 떨떨한자들도 있지만 경향이 좋은 언론기관의 기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북반부에 와서 보고 듣고 느낀것들을 신문, 방송, 통신을 통하여 발표하게 되면 남반부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민들이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될것이며 통일적인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더 힘차게 싸워나가게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방향에 따라 우리는 남조선기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그들의 생활조건과 취재활동조건도 보장해주고 참관사업도 조직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를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남조선기자들에게 북조선의 현실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도록 우리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국립가극단창립공연을 위하여 준비한 가극의 시연회를 하게 된 날에 있은 일이였다.

그날은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가 끝난 날이였는데 남조선기자들속에서 국립극장에서 진행한다는 그 시연공연을 볼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그들은 신문에 4월 25일부터 이 가극을 국립극장에서 공연한다는 광고가 난것을 보았고 또 서울에 있다가 이미 북반부에 들어와 예술활동을 벌리고있는 친우들에게서 시연회소식을 들었다는것이였다.

그동안 우리 일군들과 어지간히 친숙해진 그들은 공연을 이틀 앞두고 하는 시연회이니 가극을 대중앞에 공개할수 있게 다 완성되였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허물없이 그것을 보여달라고 제기한것이였다.

그런데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동안 여러번 합평도 하고 작품토론도 많이 하였지만 시연회에 내놓을 작품이 과연 그 의견들을 다 참작하여 원만히 고쳐졌겠는가 하는것이 걱정되여서였다.

사실은 그동안 제기된 의견들을 다 처리하고 가극을 공연할수 있게 준비해놓은 다음 어느날부터 한다고 광고했어야 할것이였으나 광고가 먼저 나갔던것이다.

이러한 실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뜻밖에도 우리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남조선기자들을 시연공연에 초대하라고 하시면서 그들까지 참가시켜 합평회를 조직하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합평회에서는 남조선기자들도 의견

을 제기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합평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북조선에서의 민족가극과 민족문화발전에 대한 옳은 인식과 견해를 줄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나는 합평에서 의견들이 제기되면 공연여부문제를 결정하기가 딱하게 될것 같다는것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연공연합평회에서 의견들이 제기되면 딱해할것이 없이 공연날자를 미루고라도 작품을 더 완성한 다음에 공연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남조선기자들에게 우리가 인민들을 교양하기 위한 참다운 민족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옳바른 시책을 실시하고있다는것을 정확히 인식시킬수 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는 곧 남조선기자들을 초대하여 가극의 시연회를 조직하였다. 시연공연합평회에서는 좋은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의견들이란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안되는 오유나 부족점이라기보다 앞으로 사상예술적으로 작품의 완벽성을 더 기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희망에서 도의적으로 이야기한것들이였다.

이것은 공연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처리할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작품이든지 인민들에 대한 교양적의의가 있게 완성되기전에는 내놓아서는 안된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제기된 의견을 참작하여 작품을 완성한 다음에 가극공연을 시작한다는것을 알렸다.

이 말에 그자리에 앉아있던 남조선기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한 기자는 그렇게 되면 모레부터 공연하기로 되여있는것을 어떻게 하는가고 묻는것이였다.

이 물음에 우리 일군은 완성될 때까지 연기한다는것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눈이 휘둥그래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다음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모든 예술공연이 무엇보다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되고있는 남조선과 같은 사회에서는 작품의 보다 높은 수준에로의 완성을 위하여 공연을 중지하고 수정작업을 한다는것은 애당초 있을수 없는 일이였다.

작품의 질적수준에는 관계없이 대강 얼버무려 만들기만하면 저렬한 작품을 가지고도 공연회수만 늘여 관람자대중의 호주머니부터 털어내는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술공연의 《륜리》였다.

남조선에서 만약 지각있는 예술인들이 창작적량심으로부터 철칙처럼 통용되고있는 이 《륜리》를 어긴다면 그들은 파산몰락되고 예술활동자체를 할수 없게 될것이였다.

남조선기자들이 놀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이 가극이 이틀후부터 공연하기로 되여있는것 같은데 그것을 연기하게 되면 이 극단이 큰 손실을 입게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의견처리를 하는 방도를 택하는것이 어떤가고 하는것이였다.

그것은 결국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보지 않게 계획대로 공연을 하면서 차차 작품에 손을 대도 일없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였다.

남조선에서 온 그들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 문제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인민정권하에서는 예술이 인민들을 교양하며 그들의 문화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전적으로 복무한다는것을 이야기해주면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먹어도 작품을 미흡한 점이 없이 완성한 다음에라야

대중앞에 내놓는다고 설명해주었다.

그리하여 남조선기자들은 북조선의 문학예술이야말로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을 참답게 교양하며 그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문학예술이라는것을 깊은 감동속에 깨닫게 되였다.

우리는 이때 가극시연회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를 처음 대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사업에서 선전일군들은 언제나 조성된 정황과 조건에 맞게 그들에게 우리 사회제도의 본질을 인식시킬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깊이 체득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중대회와 북조선인민회의에도 남조선기자들을 참가시켜 그들이 우리 인민정권의 옳바른 시책과 우리 인민의 단결된 위력을 직접 목격하도록 하시였다.

4월 25일 평양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남북련석회의를 지지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는 30여만 시민들의 장엄한 대시위가 있었다.

이 군중시위를 보게 된 남조선기자들은 수십만 군중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우리 민족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힘차게 전진하는 그 도도한 흐름에 누구나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한 기자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씩씩한 군중시위는 난생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북조선에 와서 보니 모든것이 한가지 생각, 한가지 모습인데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건설이라는 한가지 생각, 한가지 모습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건설을 하려면 모든것을 하나에 집중시키고 탁월한 령도를 받들어야 한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장군 만세!〉의 구호는 민주과업수행에서 전체 인민의 위대한 구호가 된것임을 알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남조선기자들은 이처럼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북조선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북조선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며 남조선을 구원할 원동력이라는것을 깊이 확신하게 되였으며 이러한 력사적위업을 승리에로 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의 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된것이였다.

한 남조선기자는 후날 북조선의 위대한 현실을 본데 대하여 책에서 이렇게 감회깊이 썼다.

《내가 북조선의 현실을 보고 확고히 말할수 있는것은 모든 북조선민주개혁의 위대한 령도자인 김일성장군님의 영명한 민족지도에 매혹되고 감격하였다는 그것뿐이였다.

현실을 떠난 정치는 있을수 없다.

김일성장군님의 과거의 찬란한 민족해방사는 오늘의 북조선민주개혁의 성과에서 더욱 빛나게 되는것이다.

우리와 일문일답을 하실 때에도 언어구구에 그분은 자신만만히 말씀하시였으나 재래의 오만불손한 정치가들이 접견을 할 때와 같은 태도는 티끌만치도 없었다. 그분은 어디까지든지 다정스러운 인민의 벗이였다.

36세의 젊은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그분도 젊지만 북조선의 민주건설은 더우기나 젊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모신 인민들은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굳세게 얼마든지 전진해나갈것이다.》

제5장 헌법, 국호, 국기, 국장, 국가를 우리 식으로

1

헌법초안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이시여

우리 인민이 자기의 첫 헌법을 가지고 자주적인 국가주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공화국헌법을 마련하시면서 그것이 철두철미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는 주체의 헌장으로 되게 하여주신 그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로고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의 첫 헌법초안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사업을 맡아할 헌법제정위원회까지 무어주신것은 1947년 11월이였다.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가 시작되기 며칠전의 어느날이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 국, 부장들을 자신의 집무실에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분석하시면서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에서는 조선헌법제정준비문제를 토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미제는 민주주의적인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끝끝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길로 줄달음치고있습니다. 놈들이 《립법의원》이라는 허수아비기관을 만들어내고 소위 남조선《림시헌법》이라는것까지 조작했으며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날조해낸 오늘 미제의 야망이 무엇이며 그의 비호하에 있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속심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극악한 민족분렬책동을 신랄히 단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형세하에서 우리 인민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미 우리 당이 내세운 정치로선에 따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하루빨리 창건하여 이 땅우에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에서 토의하게 되는 조선헌법제정준비문제는 전체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로 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이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똑똑히 알고 인민회의결정을 잘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며칠후에 열린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조선헌법제정준비에 대한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였다.

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제정위원회가 헌법초안을 만들어 다음번 북조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채택하도록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이후 헌법초안을 작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 사업을 빨리 다그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공화국의 첫 헌법초안을 작성하는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국, 부의 책임일군들은 헌법제정위원회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런데 제정위원회일군들이나 우리들이나 누구나 할것없이 헌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고 공화국의 첫 헌법이 어떤 방향에서 작성되여야 하는지 옳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헌법초안작성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있는것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1월하순 어느날 우리들을 부르시여 헌법초안을 잘 작성하자면 동무들자신부터 지금 우리가 왜 헌법을 제정하려 하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알고 일을 추진시켜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헌법은 무엇보다도 북조선에서 우리가 실시한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 제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인민들이 꿈으로만 간직해왔으며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장기간 피흘려 싸워온 민주주의적사회경제개혁을 북조선에서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민주개혁을 실시한지 2년도 안되지만 그 생활력은 이미 현실에서 크게 나타나고있습니다.

헌법의 제정은 또한 남북의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새 조선의 헌법, 앞으로 거족적투쟁으로 창건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의 기본법이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를 실제로 체득시키기 위하여서도 필요합니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헌법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황급히 조작해낸 남조선의 소위 《헌법》의 반동성을 폭로하고 북조선에 수립된 인민정권과 민주제도의 진보성, 우월성을 보여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헌법에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의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국가형태와 주권형식, 공민의 민주주의적권리와 기본적의무를 비롯하여 국장, 국기에 이르기까지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기본문제들을 밝혀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6월에 북조선민전산하 정당, 사회단체열성자대회에서 앞으로 세우는 민주주의적통일중앙정부가 어떤 정부로 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밝혔는데 그것이 헌법초안작성에 도움이 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문제를 사리정연한 론리로 분석하시며 일깨워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은 헌법초안작성을 담당한 모든 일군들의 눈을 틔워주고 신심을 가지게 하였다. 우리들은 헌법제정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였으며 헌법초안작성의 방향과 원칙뿐아니라 거기에 담아야 할 구체적내용까지도 선하게 떠오르게 되였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민전산하 정당, 사회단체열성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민주주의조선림시정부를 세우는것과 관련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할것인가》에서 민주주의적통일정부와 지방정권기관의

구성과 그 원칙, 인민의 정치적자유, 공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청산할 문제, 사법기관의 민주화와 교육, 민족문화, 경제 정책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이 모든것은 이미 북조선에서 산 현실로 된 문제로서 앞으로 창건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법인 헌법에 반드시 담겨져야 할 근본문제들이였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확고한 자주적립장을 가지지 못한 일부 일군들은 우리 당과 인민이 현실적으로 북조선에 이룩해놓은 자랑찬 성과로부터 출발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나라나 인민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을 뒤적거리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이 가지고있는 이 결함을 바로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신것이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7년 6월 14일에 하신 력사적인 보고의 내용에 철저히 립각하여 그것을 법조문화해나가는 방향에서 헌법초안작성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헌법초안을 작성하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사업정형을 알아보시고 그들이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해명해주시기도 하고 새롭게 가르쳐주시기도 하시였다. 이리하여 헌법초안은 본격적으로 그 작성사업이 시작된후 두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완성되게 되였다. 이제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토의하고 채택만 하면 될것이였다.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회의를 앞둔 1948년 2월초의 어느 날이였다.

우리들을 집무실로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곧 북조선인민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회의가 끝나면 이와 관련한 선전사업을 기동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하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 인민회의에서는 헌법을 채택하지 않고 지금 작성된 헌법초안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이는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을 어떻게 벌리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해두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것이였다.

나는 헌법초안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이려고 하신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놀라운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것은 헌법초안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지도밑에 작성된것이므로 인민회의에서 헌법으로 채택하고 공포하는 사업만이 남아있는것으로 여기고있었기때문이였다.

어제날의 낡은 사회에서 헌법에 대한 전군중적토의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헌법초안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이는것은 우리 나라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이 주권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 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에서만이 진행할수 있는 사업이며 그것은 그대로 우리 주권과 사회제도, 우리 헌법의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것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사업은 인민들이 나라의 정사에 적극 참여하며 우리 헌법에 인민대중의 념원과 의사를 더욱 원만히 반영하기 위한 훌륭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계속되였다.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사업은 그자체가 인민대중에게 우리 헌법을 깊이 해설침투시켜 그들자신의 헌법으로

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선전교양사업으로 될것입니다.

인민들은 헌법초안에 대한 대중적토의에 적극 참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두가 다 우리 헌법이야말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진정으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헌법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게 될것이며 이 헌법을 수호하며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악랄한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 결의를 굳게 다지게 될것입니다.》

새길수록 깊은 뜻이 담긴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 이것은 오직 인민의 자유와 행복,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오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구상하시고 발기하실수 있는 류례없는 일대 정치사업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모신 새 민주조선에서만이 실현될수 있는 력사적인 사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헌법초안토의사업의 형식과 방법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헌법초안에 대한 토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은 각 기관, 기업소, 학교, 가두, 농촌들에서 헌법초안해설보고회를 가지도록 하는것입니다. 보고자가 헌법초안을 조항별로 해설해주면서 제기된 질문에 해답을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의할 사항은 단체별 또는 개별적으로 제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설보고회에서는 지지토론도 하게 하고 이 헌법을 받들고 새 민주조선 건설에 떨쳐나설 결의도 다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 정당, 사회단체들에서도 선전원을 준비시켜 자기산하 조직성원들속에 들어가 강연, 해설담화, 좌담회, 독보회, 호별방문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침투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문을 비롯한 여러 출판보도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헌법초안토의사업에 대한 선전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면서 로동계급의 자주적국가건설의 력사에 전례없는 획기적사변으로 특기할 전인민적헌법토의사업을 마련하시였을뿐아니라 그 방법까지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우리 일군들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령도의 현명성에 크나큰 감탄과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드디여 공화국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가 1948년 2월부터 일제히 진행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는 매 기관, 기업소, 학교, 가두, 농촌들에서 헌법초안해설보고회를 빠짐없이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많은 간부들이 파견되여 해설보고회에 출연하여 헌법조항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대중에게 침투시켰다.

계획에 따라 나도 평양지구의 문화예술인들의 해설보고회에 출연하였다. 보고회장소인 국립극장에 가니 1,200여명의 참가자들로 하여 장내가 꽉 들어차있었다.

해설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벌어졌는데 여러 작가, 예술인들이 련달아 연단에 나와 헌법초안을 절대지지하며 그것을 옹호관철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할것을 열렬히 토론하였다.

그러면서 일치하게 이러한 인민적인 헌법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편지를 올릴것을 제기하는것이였다. 열의들이 얼마나 높은지 토론을 제한하지 않으면 몇시간이라도 계속될 형편이였다.

해설보고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올리는 감사문을 만장의 우렁찬 박수속에 채택하였다.

이것은 대중이 갈망하고 고대하던 우리의 헌법을 가지게 된 감격과 기쁨의 발현이였으며 바로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부합되는 새 조선의 헌법이 마련된데 대한 충심으로부터의 감사의 표시였다.

다른 단위들에서도 이렇게 해설보고회가 활발히 진행되였다.

해설담화와 강연, 좌담회도 대대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선전일군들이 가두, 농촌의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헌법초안에 대한 해설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전체 인민들은 실로 비상한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헌법초안에 대한 토의사업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였다. 그 수는 무려 746만여명에 달하였다.

인민들은 헌법초안을 전폭적으로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이때 인민들의 정치적열의가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것은 헌법초안에 대한 토의과정에 각지 인민들이 공화국의 첫 헌법을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무려 6,680여통에 달하는 감사문을 올렸으며 헌법초안을 지지하는 58,000여통의 결정서를 채택하여 보내온 사실만 놓고도 잘 알수 있었다.

이러한 감사문과 결정서들에는 인민들의 진실하고 소박한 심정이 그대로 반영되여있었다.

한 감사문에서 인민들은 이처럼 훌륭한 공화국헌법을 마

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영광과 행복이라고 하면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을 표시하였다. 다른 한 감사문에는 지난날 사람값에 가지도 못하던 로동자, 농민들을 국가의 주인으로 높이 내세우는 헌법을 가지게 된것만도 더없는 영광인데 그 헌법초안을 토의하는 사업에까지 참가하고보니 이제는 정말 자신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였다는 생각과 주인구실을 똑바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깊어졌다고 진실하게 씌여있었다.

헌법초안에 대한 토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테로와 탄압을 무릅쓰고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속에서도 비밀리에 진행되였다.

남조선의 한 사회단체는 헌법초안을 지지하여 채택한 결정서에서 이 공화국헌법초안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끝까지 굴함없이 투쟁할 결의를 절절히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감사문과 헌법초안을 지지하는 결정서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생각되는바가 참으로 많았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사업, 정녕 그것은 인민들에게 국가주권의 주인된 자각과 혁명적열의를 높여주는 힘있는 정치사업이였으며 대중의 앙양된 기세로 미제와 반동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는 일대 정치투쟁이였다.

마침내 1948년 4월에 소집된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헌법초안을 창건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으로 그대로 채택할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헌법인 공화국헌법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으며 그것은 통

일독립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2

《아홉자타령》을 분쇄하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워보면 볼수록 친근하게 안겨오고 뜻깊게 새겨지는 우리 나라의 이 존엄있는 국호!

지금은 사람들이 범상하게 대하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의 이 국호에는 참으로 한없이 숭고한 뜻이 담겨있다. 거기에는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있으며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게 하시려고 뜨거운 심혈을 기울이신 그이의 불면불휴의 로고가 깃들어있는것이다.

1948년 7월초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곧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호문제를 두고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시비하고있는것을 바로잡아야 하겠기에 불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국호문제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어떤자들인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는 헌법토의를 통하

여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은것입니다.

우리가 당을 창건할 때 당의 정치로선에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립한다는것을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선이라는 말아래 무슨 글자가 아홉자씩이나 달렸는가, 국호가 너무 길다》느니, 《외국에서는 나라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다》느니 잡소리를 하고있습니다. 《인민공화국으로 하든가 아니면 인민이라는 말을 빼고 민주주의공화국으로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말도 계속 돌리고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헌법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토의하여 채택할 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다가 뒤에서 수군거리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아홉글자가 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준하여 국호가 길다고 하는가라고 물으니 그들은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호와 대비하여보고 그러는것이라고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사대주의적경향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이름이야 우리가 주인이 되여 자기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요구에 맞게 지으면 될것인데 무엇때문에 남을 쳐다보겠는가고 하시면서 어디까지나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인민들이 요구하는 국호를 제정하면 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국호는 국가의 공식적인 이름으로서 여기에는 국가정권의 계급적본질과 국가형태가 반영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호를 옳게 제정하자면 혁명의 근본목적과 당면임무를 다같이 고려하여야 하며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에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성격과 참다운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이 뚜렷이 반영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인민정권건설로선과 국호를 하늘을 쳐다보고 내놓은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해방직후 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에 대한 로선을 내놓게 된 경위와 그 실현을 위한 투쟁과정 그리고 정권문제에서 반동세력과 종파분자들의 그릇된 주장과 악랄한 책동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이전에도 일부 들려주신 이야기였지만 이날 그이의 말씀에서 나는 이때까지 근 3년동안 복잡한 투쟁을 거쳐온 우리 나라 국호제정의 력사를 커다란 감동속에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15해방직후에 조성되였던 복잡한 사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였다.

그때 우리 인민들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치로선이 제시되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휘황한 전망과 확고한 신심을 안고 건국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그러나 온갖 반동세력과 종파분자들은 참다운 인민정권수립과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어떤자들은 해방된 조선에 썩어빠진 봉건제도를 되살리고 봉건국가를 세우려고 하면서 우리 나라를 《동진제국》 또는 《대한제국》이라고 해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동진제국》이라고 하자는것은 오랜 옛날인 기원전후시기에 우리 나라 중부이남지역에 존재하였던 진국의 이름을 되

살리려는것이였다.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동쪽에 있는 진나라라는 뜻에서 동진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 그것에 유래하여 《동진제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던것이다.

또한 《대한제국》이라고 하자는것은 리조봉건국가말기에 그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부르던것을 되살리려는것이였다.

이것이야말로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망상이 아닐수 없었다.

한편 남조선괴뢰도당은 이놈들대로 우리 나라에 부르죠아공화국을 세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우리 나라를 반민주주의의 길로 끌어가려고 꾀하면서 부르죠아반동정권조작책동에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상해의 외국조차지 뒤골목에 내걸었던 무슨 《림시정부》라는 간판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중경이요, 어디요 돌아다니다가 서울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 나라의 이름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그것은 봉건리조말기의 이름을 약간 변형시켜 그대로 답습하려는것으로서 친일, 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이 좌지우지하는 반동적부르죠아정권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우리 나라에 봉건국가를 되살리거나 부르죠아반동정권을 세우려는 책동은 물론 사람들속에서 그 어떤 공감과 지지도 받을수 없었으며 인민대중의 강력한 배격과 규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런데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관철과 국호문제에서는 종파분자들의 그릇된 좌우경적인 주장과 책동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자들이 들고나온 궤변의 허황성

과 비렬한 책동에 대하여 나에게 하나하나 분석해주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종파분자들은 제2차세계대전은 계급전쟁이며 로동계급을 축으로 하는 국제적력량이 전쟁에서 승리한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 나라에 당장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허황하기 그지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로동자, 빈고농의 공화국》을 주장하여나섰다. 이것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현단계의 요구와 구체적실정도 고려하지 않고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따려는 그릇된 주장이였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자들은 부르죠아반동정권을 세우려는 반동세력의 책동에 발맞추면서 《인민공화국》을 제창해나섰다.

해방직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화요파에 속하여 종파활동을 한 몇명의 인물들이 남조선에서 파견되여 평양에 왔을 때 그들을 만나신 일이 있었다.

이때 종파분자들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인민공화국》이나 같은것이 아닌가고 하면서 저들이 내세우는 《인민공화국》을 합리화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즉석에서 물리치시면서 국가정권의 계급적성격도 무시하고 국호를 제정하려는것인가고 되게 비판하시였다.

사실 이자들이 내세우는 《인민공화국》의 《인민》은 반동들이 말하는 《국민》과 같은것으로서 그속에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인민의 원쑤들까지 다 포함시키려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이자들이 제창한 《인민공화국》은 조선민족이면 누구나 다 참가한다는 반동적인 정권이였다.

실제적으로 해방직후 서울의 거리들과 지어 평양의 《화신백화점》담벽에까지 이자들이 내붙인 《인민공화국》의 《각

료》명단에는 리승만, 조만식을 비롯한 극악한 매국배족의 무리들이 상좌를 차지하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요파인물들에게 우리가 주장하는 인민이란 개념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근로대중을 의미한다고 명철하게 밝히시면서 리승만을 비롯한 매국배족도당은 우리의 국가정권에서 있을 자리가 없으며 타도해야할 대상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인민이란 개념이 마치 로동자와 농민만을 포괄하는듯이 그릇되게 인식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인민이란 개념에는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반동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이 다 포함된다는것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묶어세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하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세워야 하며 이러한 국가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거듭 명백히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심오한 사상과 론리정연한 주장앞에 종파분자들은 된 타격을 받고 감히 머리조차 들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후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수립을 앞두고 공화국의 헌법초안을 작성할 때 종파분자들은 국호문제를 다시 들고나와 혼란을 조성하였다.

물론 이자들의 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하였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시오. 종파주의사상이 골수에 배긴자들의 책동이 얼마나 집요한가, 국호문제에서도 우리들을 반대한자들은 반동세력과 함께 종파사대주의자들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공화국헌법을

먼저 북조선 전지역에 실시하는 단계에 이른 오늘에 와서까지 <아홉자타령>을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고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나는 양봉음위하면서 정권건설과 국호제정문제를 각방으로 방해해온 종파분자들에 대한 분노를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 남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 나라 실정에 맞고 우리 인민이 좋아하면 좋은것이다, 원리적으로 보나 계급적으로 보나 우리 나라의 국호는 독창적인것이며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는 가장 정당한 국호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정치로선에 밝혀진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에 대하여 시비하는자들의 속심은 딴데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종파분자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에서 나온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며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괴뢰정권조작책동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초 어느날이였다.

이날 당중앙위원회에서 진행된 한 회의에서는 남북조선인민들의 총선거에 의하여 공화국을 창건하는 사업이 목전에 다가온것과 관련하여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이때 종파분자들이 다시금 국호에서 《인민》자를 빼자느니 《민주주의》자를 빼자느니 하는 주장을 집요하게 들고나왔다. 하지만 흑심으로 가득찬 놈들의 악랄한 책동은 회의참가자들의 단호한 반격에 의하여 여지없이 분쇄되고말았다.

그리하여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시하신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우리 나라의 국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나는 이 긍지높은 국호를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되뇌여보았다.

외워볼수록 그 국호속에 담겨져있는 깊은 뜻이 가슴가득히 안겨와 흥분을 걷잡을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정하여주신 이 국호야말로 우리 인민들에게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누리에 떨치는 뜻깊은 국호였다.

우리 조국은 이 존엄있는 국호와 더불어 온 세계에 자주의 기치를 높이 휘날리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손수 국기도안까지 그려보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면서 국호와 함께 국기를 바로 제정하는것을 새로 수립될 통일정부와 국가사회제도 그리고 우리 혁명의 성격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우리 나라의 국기를 제정할데 대한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된것은 1947년 11월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때부터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에서

헌법을 제정할데 대한 문제를 제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창건할 공화국의 국기와 국장 도안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안고 우리는 국기도안을 만드는데 곧 착수하게 되였다. 그런데 막상 착수하고보니 처음 생각했던것보다는 너무도 어려웠다.

외국의 국기들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것들은 우리와는 다른 국가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기발이였으므로 참고할것이 못되였다.

우리 나라의 국기는 어떤 방향에서 되여야 하는가, 거기에는 어떤 사상적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모대기며 초조한 나날을 보내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이 국기도안을 진척시키지 못하고있는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 방향을 밝혀주시였다.

국기도안창작정형을 알아보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국기는 그 형태에서나 거기에 담는 내용에서나 어느 나라것과도 다른 완전히 새롭고 조선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완전히 새롭고 조선적인것으로 되게 하는것, 이것이 우리 나라 국기도안작성의 근본방향이였으며 여기에서 지켜야 할 근본립장이였다.

국기를 세계의 어느 나라것과도 다른 새롭고 조선적인것으로 되게 하여야 공화국의 자주적인 성격과 사명을 뚜렷이 할수 있으며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남김없이 떨칠수 있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국기도안의 근본방향뿐아니라 거기에 담아야 할 사상적내용과 그 표현방도에 대해서까

지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국기에는 붉은색, 흰색, 푸른색을 넣어서 만드는것이 좋겠습니다.

국기에 붉은색을 넣자는것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조선의 진정한 혁명가들이 흘린 피와 우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혁명력량을 상징적으로 반영하자는것입니다.

그리고 국기의 흰색은 조선은 찬란하고 유구한 민족문화를 가지고있는 하나의 민족국가라는것을 나타내게 될것이며 푸른색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씩씩한 기백과 공화국의 자주권을 상징하게 될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기도안은 일반 그림과 다르기때문에 도안을 법칙성을 띠게 비례관계를 고려하여 잘 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을 받아안은 미술가들은 신심을 안고 도안작성에 달라붙었다.

그들은 국기도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적 내용을 담아 그것을 선과 색채로 표현해나갔다.

1948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들을 부르시고 국기도안작성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때까지 미술가들은 국기도안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들은 국기에 담아야 할 내용을 세가지 색갈로 표시하고서도 그 세가지 색갈의 비례를 어떻게 설정하겠는가 하는것을 풀지 못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이러한 실태를 그대로 보고올리게 되였다.

며칠후 우리는 그이의 부르심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기도안을 창작하느라고 수고를 한다고 따뜻이 위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국기도안을 완성하는 문제를 함께 연구해보자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붉은색과 흰색, 푸른색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기에 흰색과 푸른색의 비중이 붉은색에 비하여 너무 많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항일혁명선렬들과 진정한 조선의 혁명가들이 흘린 붉은 피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혁명력량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기본바탕으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붉은색바탕을 중심축으로 하고 그 우와 아래에 대칭적으로 흰줄과 푸른줄의 크기의 비례를 잘 맞추어 국기도안을 완성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국기의 전반적 길이와 너비, 색들간의 조화와 비례원칙을 세우고 도안을 그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국기색갈의 비례관계에 대하여 그동안 새롭게 생각해본것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인차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있는 우리들의 송구스러운 심중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이것을 놓고 좀 의견을 나누어보자고 하시며 앞상우에 서너장의 국기그림을 펼쳐놓으시였다. 16절지 크기만한 흰종이에 연필로 그리고 색연필로 색갈표식까지 한 국기그림이였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들은 그 바쁘신 속에서도 종이우에 이런 비례, 저런 비례로 국기의 선을 긋고 색을 칠해 보시면서 한장 또 한장 그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가 헤아려져 이루 말할수 없는 크나큰 감동에 휩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중 한장을 앞에 당겨놓으시더니 이만한 비례로 하는것이 제일 합리적이며 보기에도 좋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기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는 2:1로 하며 기폭의 우와 아래에 대칭으로 놓이는 푸른색은 기발 너비의 6분의 1 정도씩으로 하고 나머지는 붉은색바탕으로 하되 이 붉은색바탕에서 우, 아래에 대칭으로 흰색의 줄을 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흰색의 너비는 지금의 도안보다 더 가늘면서도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되 그 비례는 푸른색의 6분의 1 정도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린 기발도안 한가운데를 가리키시면서 《이 흰동그라미속에는 무엇을 그리려고 합니까?》라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들이 보고드린 국기도안에는 붉은색바탕에 흰동그라미를 내놓았을뿐 그안에 아무것도 그려넣지 않았던것이다.

나는 아직 명백한 구상이 없는데 창작가들이 백두산과 해를 그려보았다는것을 말씀드리였다.

마침 우리는 그런것을 흰동그라미안에 그린 도안을 가지고 갔었으므로 경애하는 수령님께 펼쳐드리였다.

한동안 그 그림을 보시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도안을 보면서 생각되는게 없습니까?》라고 하시였다.

《멀리서 보면 무엇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는 사실대로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말을 긍정하시듯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 동그라미안에는 붉은색 오각별을 그려넣는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나 승리하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상징적으로 반영하여 오각별을 그려넣는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보습을 그려넣으라고 하였다는데 그것은 얼빠진 소리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보습은 뒤떨어진 지난날을 표시하는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봉건국가의 기발이라면 몰라도 부강하고 발전하는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인 우리 나라의 국기에 보습을 그려넣는다는것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는 일입니다.

동무들이 그린 백두산과 해는 일정한 뜻은 담겨져있으나 구도적으로 볼 때 선명하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느 모로나 오각별이 제일 좋습니다. 붉은색의 오각별을 그려넣도록 합시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흰동그라미가 기발의 한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발대쪽으로 가져가되 그 중심이 기발길이의 3분의 1 정도의 위치에 놓이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붉은 오각별이 기발대쪽에 있어야 언제나 백전백승하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기백과 기상을 뚜렷이 나타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눈앞에는 완성된 국기도안이 선히 떠올랐다.

그것은 오각별과 붉은색바탕 그리고 대칭의 푸른색, 흰색 띠들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어 아름답고 숭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국기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따

라 영원무궁토록 번영하는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펼쳐보이는 공화국의 존엄있는 국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마침내 기발도안이 완성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국기로 채택되게 되였던것이다.

용광로 대신 형상된 수력발전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기제정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국장도안을 완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도록 이끄시였다.

국장도안을 완성하기까지에는 국기제정사업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것은 당시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의원회에 들어앉아있던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었다.

창작가들은 이미 헌법제정사업이 포치된 초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농동맹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과 강력한 현대적공업, 선진적농업을 가진 우리 나라의 발전전망이 나타나게 도안을 만들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대로 국장도안을 창작하기 위하여 있는 재능과 힘을 다 바쳐 작업을 계속하고있었다.

그리하여 벼이삭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안에다 용광로를 그린 초안을 만들게 되였다.

이무렵 상임의원회의 책임적인 자리에 들어앉아있던 반당종파분자놈은 제가 헌법초안제정위원회사업을 맡아보게 된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창작가들을 불러다가 별의별 궤변을 다 늘어놓으면서 용광로를 빼고 그자리에 경복궁을 그려넣을

것을 강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로 가서야 나는 놈들의 음흉한 책동을 알게 되였다.

이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요즘 상임의원회 위원장이 국장도안을 그리고있는 미술가들에게 자기 의견을 내려먹이려고 하였다는데 알고있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나는 아직 모르고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그가 며칠전에 미술가들 불러다놓고 국장도안에 대한 의견을 주었다고 한다고 하시고는 한참동안이나 계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국장의 모양과 테두리를 일본놈들의것처럼 동그랗게 만들라, 국장에 벼이삭테두리를 넣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특히 국장가운데 다른것을 그리지 말고 경복궁을 그려넣으라, 그래야 조선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미술가들에게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반당종파분자들의 양봉음위하는 비렬한 책동을 알게 된 나의 가슴은 그자들에 대한 분격으로 넘쳐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하신 어조로 《국장도안에 경복궁을 그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상징하는 신성한 국장에 리조봉건국가의 왕궁을 그려넣으라는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소리입니다.》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복궁은 리성계가 리왕조를 세우면서 14세기말에 수많은 인민들을 강제동원하여 서울에 지은 왕궁이며 그후 전란으로 불탔던것을 지난세기중엽에 대원군이 《결두세》니, 《원납세》니 하는 가지가지 살인적인 가렴잡세를 거두어들인 돈과 강제동원한 수만명의 서울시민과 지방농민들의

피땀으로 다시 세운 인민들의 원한과 저주가 사무쳐있는 건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돌아와 창작가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전달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향대로 국장도안을 그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국장도안은 1948년 2월초 헌법초안을 전인민적토의에 붙이게 된 림박에 가서야 초안이 완성되였다. 벼이삭으로 테두리를 싼 안에 거의 같은 크기로 용광로와 백두산을 그리고 제일 웃부분에 오각별을 그린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도안을 보시고 《우리가 준 방향대로 국장도안에 발전된 현대적공업과 농업을 표현하려고 노력한것이 나타납니다.

봉건냄새가 그대로 풍기는 경복궁이 아니라 용광로를 넣으니 얼마나 현대적이며 힘있어 보입니까. 백두산과 오각별은 뜻이 있게 잘 착상하여 그렸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장에 경복궁을 넣으라는것은 국기에 오각별대신 보습을 그려넣으라고 한것과 꼭같은 망발이라고 하시면서 그자들의 온갖 압력과 시비를 물리치고 이런 초안을 만들어내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용광로가 공업발전의 전망을 표현하는것이기는 하지만 공업의 한 부분을 반영하는것에 지나지 않으니 공업과 그리고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전망을 포괄적으로 표현할수 있는것을 더 연구해보아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제 곧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가 시작되게 된것만큼 더 연구를 계속하면서 현재로서는 이 도안을 그대로 내놓고 대중의 의견을 들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용광로를 그린 국장도안이 지상에 발표되였다.

헌법초안에 대한 대중적토의가 시작되자 국기에 대하여서는 절대지지하는 의견만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국장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견이 나왔다.

정식으로 보내온 의견서나 건의서 외에도 헌법초안에 대한 해설보고회와 강연, 담화 사업에 나갔을 때 일군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나자신도 그런 의견을 많이 접수하였다.

그들의 의견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명철하게 지적하신 국장도안의 부족점과 관련되여있었다.

그들은 국장도안이 복잡하며 어둡고 칙칙하다는 말도 하였고 용광로와 백두산이 같은 크기로 그려졌으니 어느쪽을 그림의 중심사상으로 강조하려는것인지 명확하게 안겨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다른 의견은 왜 하필 용광로를 그리는가, 현대적공업을 표시하는데는 비료공장을 비롯한 흥남지구 공장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철도라든가 큰 배를 부각하여도 현대적인 국가라는것을 보여줄수 있지 않는가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던 나머지 어떤 사람은 공장굴뚝과 기계와 용광로 등 공업을 상징할수 있는 여러가지를 조화적으로 국장안에 그려넣으면 좋겠다고까지 하였다.

이 말들은 다 정확하고 합당한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발표된 국장도안이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국장도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대중의 의견에 대해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

을 주시였다.

용광로가 있는 도안은 확실히 일면성을 면할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하였지만 용광로를 가지고서는 우리 나라의 전반적발전방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중도 일정한 의견을 제기한것입니다. 대중의 눈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인민들이 절대 지지찬동하고 환영할수 있는 훌륭한 국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장차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된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전변될 휘황한 전망을 보여주자면 국장에 우리 조국의 전기화문제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인민들의 귀중한 로력이 깃든 세계굴지의 수풍발전소가 있는데 그런것을 잘 그리면 나라의 전기화전망을 직관적으로 표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국장도안을 고치는 문제를 연구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가 목전에 다가온 지금 국장제정문제로 론쟁거리를 만들어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전기화를 반영한 도안이 되면 그것을 헌법초안토의과정에 미술전문가들이 제기한 건의서의 형식으로 지상에 발표하여 대중의 의견을 들어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은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혁명대오의 단결을 강화해야 하였던 당시의 형편에서 허황한 주장을 집요하게 고집하는 얼빠진자들과의 끝없는 론쟁으로 생길수 있는 복잡한 사태를 미리 막고 국장제정에 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고수하며 우리 인민이 념원하는 가장 훌륭하고 존엄있는 국장을 완성할수 있게 하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그후 신문지상에는 용광로대신 수풍발전소를 그린 국장도안이 발표되였다. 물론 아직도 구도상으로나 세부적으로 완성할 여지가 많은 도안이였다.

그러나 그것이 공개된후 대중으로부터 많은 편지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일치하게 헌법초안토의때 처음 발표된 국장도안보다 훨씬 좋다고 하면서 새로운 도안을 지지환영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면서 《그럴것입니다. 인민들이 좋다면 다 좋은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발표한 그림에 기초하여 국장도안을 완성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였다.

며칠후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갔을 때 그이께서는 수력발전소가 들어간 국장도안과 용광로가 있는 이전의 도안을 책상우에 나란히 펼치고 보고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오늘은 새 국장도안을 완성할 방도를 의논해보자고 불렀다고 하시면서 아직도 국장도안이 가지고있는 결함을 지적하시였다.

《이 도안은 우리가 준 전기화의 내용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간결하지 못하고 전반적구도가 잘 째이지 못했습니다. 도안도 그림의 일종이니만큼 국장도안을 완성하는데서도 미학적 원칙과 요구가 잘 관철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도안이 아름답고 고상하면서도 선명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기화를 상징하는 발전소를 지금 도안처럼 아래에 처지게 놓지 말고 중심부에 더 크게 그리며 송전탑을 언제에서 떨어지는 물을 배경으로 왼쪽에 놓으며 백두산은 지금처럼 수력발전소와 같은 크기로 할것이 아니라 좀 작게 원경으로 처리하며 그우의 오각별에서는 별빛이 빛나게 그려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둘레

의 벼이삭도 더 탐스럽게 벼알을 더 많이 그려넣고 벼이삭을 묶은 띠를 국장의 아래부분에서 맺게 하고 거기에 두줄로 우리 나라의 국호를 써넣으면 구도적으로 더 째이고 국장이 더 무게있어보일것이라고 하시였다.

창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의도대로 국장도안을 완성하였다.

우리가 이에 대하여 보고드리러 갔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완성된 국장도면을 놓고 만족의 미소를 띠우시며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보시오. 우리의 국장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국장이 나라이름과 같이 밝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나라의 특징을 잘 반영한 국장입니다.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국가의 계급적성격과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이 상징적으로 잘 반영되였습니다.

나라의 장래발전방향도 잘 표현되였습니다. 벼이삭도 많고 알도 많으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국장에 담겨있는 사상적내용이 째인 구도와 선명한 색채, 아름다운 장식에 의하여 조화적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제일 웃부분에 빛을 뿌리는 오각별이 있고 아래중심에 국호가 놓여있으니 아주 무게가 있고 존엄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나라 국장은 세계에 내놓아도 빛날수 있습니다. 자랑할만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8년 8월초순 다가오는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공화국의 창건을 앞두고 소집하신 당중앙위원회의 한 회의에서 그동안 진행되여온 국기, 국장 제정사업을 총화하시였다. 이때 회의장에는 국기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새로 완성된 국장도안도 전시되여있었다.

전시된 국장도안은 회의참가자들의 큰 주의를 끌었다.

큼직한 그 도안은 오늘의 국장과 내용과 형태가 꼭같은 것이였는데 회의장에서 처음 이 국장도안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미 지상에 발표되였던것(중심에 수력발전소 대신 용광로가 있고 원형으로 된 도안)보다 훨씬 사상이 명백하고 구도상으로도 완벽한데 감탄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의 허황한 주장들을 날카롭게 비판하시면서 회의장에 전시된 저 국장이 앞으로 창건될 우리 공화국의 국장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말씀에 회의참가자들은 모두 흥분으로 설레였으며 끓어넘치는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국기와 국장을 제정하는 사업에 참여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 도안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저 도안들이 미술가들의 지혜와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오한 사색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착상되고 완성되였음을 아시라》고 소리높이 웨치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우리 조국의 존엄있는 국호와 함께 국기와 국장은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님의 예지로 빛나는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태여나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위력과 존엄, 우리 인민의 긍지와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게 되였던것이다.

가사로부터 곡에 이르기까지

조선은 맑은 아침의 나라, 동해의 창파가 아침해를 안아올리며 붉은 노을을 강산에 아름답게 펼쳐가는 새벽이면 우리 인민들은, 아니 온 세계 사람들은 첫 전파를 타고 울리는 장중한 조선의 선률을 듣는다.

사람들에게 한없이 숭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노래, 그것은 우리 인민이 심장으로부터 부르는 빛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노래이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

부르면 부를수록 《애국가》는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을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로 부풀게 하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사는 끝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넘쳐흐르게 하고있다.

이제는 나도 이 노래를 듣고 부른것이 수천수백번,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 노래에 깃든 깊은 사연에 대하여 돌이켜보군한다.

해방 1주년을 성대히 기념한 다음날인 1946년 8월 16일이였다.

8.15기념행사총화때문에 바삐 돌아가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15해방 1주년행사를 보장하느라고 수고했다고 말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강산에 해방의 만세소리 메아리치고 우리 인민들모두가 감격과 기쁨으로 들끓던 8.15를 맞이했던것이 엊그제같은데 벌써 한돐이 되였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그리시고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번에 8.15해방 한돐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국가를 부르지 않고 기념보고회를 하고보니 생각이 많았습니다. 원래 그런 정치행사때에는 국가를 부르거나 주악하여야 합니다.

일제때에는 우리 나라가 식민지였기때문에 모임을 하면 인민들이 놈들이 시키는대로 일본국가를 불러야 했지만 이젠 주권을 우리 손에 틀어쥐고 새 조국을 일떠세우고있는데 우리 인민이 부를수 있는 우리의 국가가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란 어떤 노래인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였다.

《국가란 나라의 노래, 조국에 대한 노래라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국가들에는 자기 나라를 찬양하고 자기 나라 제도의 영원성을 노래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주권을 잡은 계급이 자기들의 계급적지배를 튼튼히 다지려는 정치적목적에서 국가적으로 제정한 노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예리한 계급적성격을 띠게 되는것입

니다.

왜놈들의 국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본주의나라들, 특히 제국주의나라들의 국가는 배타적인 민족주의사상과 침략적인 사상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러나 근로인민이 주권을 장악한 나라들의 국가는 례외없이 자기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감정으로 일관되여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노예살이에서 벗어나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 인민들이 부르는 국가는 조국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찬양과 숭고한 사랑을 담은 인민적인 노래로 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진 국가를 제정하는것은 다른 가요들을 창작보급하는것보다 비할바없이 어렵고 책임적인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창작력량을 잘 편성하여 이 사업을 실속있게 밀고나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국가를 빛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노래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애국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활짝 열어젖힌 창문너머 해빛밝고 푸르디푸른 하늘높이에 비둘기떼들이 날아예는것이 보였다.

창문가에 다가가시여 한참이나 밖을 바라보시고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였다.

우선 우리 나라가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과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것이 잘 나타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항일무

장투쟁을 벌렸으며 마침내 조국을 광복한 슬기로운 인민이라는 자부심이 잘 표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방된 우리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긍지와 자부심, 새 민주조선 건설의 주인으로서 부강하고 문명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세년년 행복하게 살려는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야 하며 자기 조국에 대한 애착과 사랑의 감정이 더욱 솟구쳐나도록 해야 합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의 노래인 《애국가》는 새 민주조선의 국가로서 중요한 노래인것만큼 깊이가 있고 장중한 맛이 나게 지어야 합니다.

곡도 조선음악선률이 잘 나타나고 조국을 사랑하는 인민들의 사상감정이 승화되게 형상을 잘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기상, 조선의 기상이 잘 나타나게 하며 참된 인민의 나라를 대대손손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와 엄숙한 맹세가 그대로 표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가사와 곡을 만드는것이 좋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에 주신 말씀은 우리 나라 국가제정의 방향과 거기에 담아야 할 기본내용을 밝혀주신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우리는 그이의 말씀을 창작가들에게 전달하고 《애국가》를 창작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다시금 창작가들을 찾으시여 가사에 담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실 《애국가》의 가사는 그때 그이께서 하신 말씀내용을 그대로 정리한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렇듯 세심한 보살피심과 끊임없는 지도에 의하여 《애국가》의 가사와 곡은 1947년 5월에 와서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우리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신대로 노래가 된 것 같이 생각되였다.

《애국가》가 다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애국가》의 가사도 보아주시고 곡도 보아주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곡을 더 완성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아직도 곡의 선률이 장중하지 못합니다.

곡의 선률을 더 무게있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애국가》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고상해지고 삼천리금수강산이 보이는것 같이 마음을 틀어잡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이 부르기 쉽게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곡의 선률을 장중하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를 모방하지 말고 우리 나라 국가의 특색이 잘 나타나게 숭엄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노래를 다 부른 다음에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겨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애국가》의 곡을 행진곡조로 하지 말고 장중하게 그리고 맑고 아름다운 조선선률이 잘 나타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과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유구한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근로인민이 주인이 된 우리 조국의 국가인 《애국가》가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다.

국가가 제정되였으니 이젠 그것을 보급하고 사용하는 문제가 남았다. 우리는 인차 《애국가》를 방송으로도 보급하고 출판물에도 내며 학교에서도 배워주어 인민들이 다 부를수 있게 만들면 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평양에서 예술

단체에 과업을 주어 《애국가》연주발표회도 하고 《애국가》제정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것을 계획하였다. 이것이 나라의 정치정세를 고려하지 못한 생각이였다는것을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깨닫게 되였다.

1947년 7월 어느날이였다.

《애국가》를 보급할데 대한 계획서를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오늘 조성된 정치정세로 보아 〈애국가〉를 보급하는 사업을 당분간 뒤로 미루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하고있는 나를 미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애국가〉를 보급하는 사업은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새 조국 건설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교양사업인 동시에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고 남조선에 지주, 자본가놈들의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미제와 괴뢰도당에 타격을 가하는 일대 정치공세로 됩니다.

이러한 정치사업, 정치공세에서는 시기를 잘 선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민주주의적인 통일적중앙정부의 수립을 가로막고 남조선에서만이라도 지주, 자본가들의 제도를 유지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습니다. 놈들은 저들의 음흉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유엔에 조선문제를 끌고갈 궁궁이를 하는 한편 우리를 걸고들 구실을 찾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애국가〉를 보급하고 쓰기 시작하면 놈들이 북조선에서 독립정부를 세우려고 국가까지 제정하여 공개하였다고 떠벌일것입니다. 이것은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복잡성을 조성하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에게 절대로 언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애국가》의 보급과 사용을 뒤로 미루었다가 가장 효과를 볼수 있을 때,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을 수세에 몰아넣을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그것을 보급선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후퇴와 양보가 아니라 통일적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우리가 주동을 틀어쥐고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기 위한 전술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실로 우리 당이 사상선전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전략전술이며 원칙이였다.

나는 이 전술문제의 중요성을 얼마후에 다시한번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그것은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 준비사업을 벌리던 1948년 3월하순에 있은 일이였다.

어느날 나는 련석회의와 관련한 선전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다.

나는 그이께 계획서를 올리면서 이번 기회에 《애국가》를 보급하는것이 의의가 있을것 같이 생각되여 그 사업을 예견하였다는것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획서를 다 보시고나서 너그러우신 웃음을 지으시며 《남북련석회의를 앞두고 이미 우리가 만들어놓은 〈애국가〉를 보급했으면 하는 동무의 심정을 알만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노래를 보급하면 안됩니다.

아다싶이 이번에 련석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들의 구성이 복잡합니다. 이런것을 잘 고려하여 선전사업을 해야 성과를

거들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지금 미제가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하여 괴뢰정권을 조작하려고 날뛰고있는데 우리가 《애국가》를 보급하면 적들에게 역선전자료를 줄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새로 지은 《애국가》를 지금 내놓으면 이번에 련석회의에 참가하는 남조선정객들에게도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있는 우리 립장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품게 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은 북조선과 남조선의 전체 인민들과 애국적인사들을 다 조직동원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단선》, 《단정》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벌리고있는 때인만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여기에 집중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전조선인민의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하는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 때 필요한 시기를 선택하여 우리의 《애국가》를 보급하고 사용하게끔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나는 자신이 얼마나 문제를 협소하게 고찰해왔는가를 깊이 깨달았다.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는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속에는 우리를 지지하고 동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우리의 정책을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북반부에 가서 어떤가를 보자고 들어오는 우익정객들도 일부 있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자기들이 불러온 이른바 《애국가》의 허황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조선민족의 조국에 대한 노래로 믿고있는 형편에서 련석회의나 그들을 위한 다른 행사들에서 새로 제정한 《애국가》를 부르게 되면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들은 북조선에서는 통일정부를 세우자고 하면서 그것이 성취되기도전에 왜 독자적인 국가를 제정하여 부르는가 하고 의아한 생각을 가질수도 있는것이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거족적투쟁에로 모든 반미, 반괴뢰 애국력량을 조직동원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는 일로는 못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미리 헤아려보시고 《애국가》의 보급을 또다시 미루시였던것이다.

언제나 조성된 사태의 본질과 그 깊은 밑바닥까지 꿰뚫어보시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전술을 세우시여 우리 인민을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는 이처럼 선전사업의 묘리를 또하나 체득하게 되였으며 범할번한 커다란 정치적실책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다.

《애국가》는 전조선의 통일적중앙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공포실시하며 공화국 국기와 국장의 사용을 개시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부르기 시작하였다.

《애국가》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인 조선의 국가로서 의식과 국가행사때는 물론 국가가 필요한 모든 기회마다에 합창으로 불리우거나 주악되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국가—《애국가》가 제정되고 그것이 보급사용되게 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울이신 이렇듯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애국가》는 북반부인민들을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남반부인민들속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더욱 높이 불러일으켰다.

반면에 그것은 애국의 넋이 응결된 철추가 되여 매국배

족의 무리인 리승만괴뢰도당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다.

금은보화 가득찬 수려한 강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가 깃든 우리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려는 인민들의 굳은 결의가 어려있는 《애국가》.

《애국가》는 오늘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의 조국을 더욱 빛내여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제6장 선전사업을 급변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1

《해방지구에 나가서 선전 사업을 해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 당과 인민은 이날부터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3년간의 어려운 전쟁을 치르게 되였다.

평화적건설로 들끓던 우리 나라는 전쟁의 참화속에 휘말려들고 모든것은 전시체제로 개편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체제에 상응하게 선전선동체계를 개편하고 정치선전사업방향을 제시하시여 군인들과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1950년 8월초 어느날이였다.

나는 이틀전에 조국으로 돌아온 쏘련방문 우리 나라 예술단의 활동정형을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기 위하여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예술단이 6월초순에 평양을 떠나 쏘련에 가서 한달나마 공연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내가 예술단을 책임지고 갔다

왔던것이다.

그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여리 포연탄우를 헤치시고 몸소 최전선을 현지지도하시고 돌아오신 날 저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길을 헤쳐오신 피로가 겹쌓이시였으나 조금도 그런 내색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평시보다 더욱 정열과 락관에 넘쳐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느때와 다름없는 환하신 얼굴로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그사이 수고가 많았겠다고 따뜻이 손잡아주시는것이였다.

우리 예술단의 활동정형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방문공연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거듭 치하하시면서 국내에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적들을 격파하면서 력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예술인들이 싸우는 조선의 이름을 떨치고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나는 그이께 조국에 돌아온 예술인들이 한결같이 총을 잡고 전선으로 나갈것을 탄원하고있다는것을 말씀올리였다.

나의 보고를 주의깊게 듣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예술인들이 전선에 나갈것을 탄원해나선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모두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벌써 수십만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에 참가할것을 열렬히 탄원하여 전선에 출동하였으며 원쑤놈들을 족치는 싸움을 벌리고있습니다.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싶은것은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전선에만 나갈수 없습니다. 인

민군대는 총으로 원쑤놈들을 무찌르며 로동자와 농민은 마치와 낫으로 전쟁승리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예술인들앞에 나서는 임무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였다.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선이 멀리 남으로 이동하고 해방지구가 날로 늘어나는 조건에서 해방된 남녘인민들속에 들어가 예술활동을 적극 전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급선무로 나서는것은 해방지역인민들에 대한 선전사업을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악선전만 들어왔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반부에 대한 외곡된 표상을 가지고있는데 이것들을 깨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사회제도의 우월성, 조국해방전쟁의 정의적성격과 승리의 가능성 등을 깊이 인식시켜 승리의 신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해방지구에 나가서 선전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미 방송국동무들에게 지시하였더니 방송원들과 기자들이 지금 서울방송국에 나가서 방송을 하고있습니다。그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반영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서울을 해방하였을 때에 처음에는 그것을 잘 믿지 않던 사람들도 우리가 서울방송국의 마이크를 통하여 방송을 했더니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예술활동은 인민대중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예술단도 해방지구에 직접 나가 공연활동을 벌림으

로써 남조선인민들에게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어야 하겠습니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내용을 담은 연극과 노래, 춤 등을 잘 준비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보이면 말로 백번 강조하는것보다 더 큰 실효를 거둘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을 쥐고 싸우는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투쟁이며 전쟁의 승리에 크게 이바지하는 보람찬 사업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쏘련에 갔다온 예술단을 해치지 말고 그대로 데리고 서울로 나가되 그전에 먼저 평양에서 귀환공연부터 크게 조직하라고 이르시는것이였다.

여기에는 예술단전체성원들에게 예술의 무기로 전쟁승리에 이바지한다는 긍지와 영예를 안겨주며 이와 함께 적기들의 폭격을 무릅쓰고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분투하고있는 평양시민들을 고무해주시려는 그이의 높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을 받아안으며 그이께서 우리 예술단을 전쟁이 일어난 격동적인 시기에도 조국에 소환하신것이 아니라 공연활동을 계속하여 쏘련인민들속에서 싸우는 우리 인민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게 하신 깊은 의도를 비로소 깨달을수 있었다.

쏘련을 방문한 우리 나라 예술단이 6월 18일 모스크바의 챠이꼽스끼음악당에서 첫 공연을 성과적으로 하고 련이어 각계층 쏘련인민들속에서 다양한 공연활동을 벌리고있던 6월 25일이였다.

조선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각국의 통신, 방송들이 미제의 침략전쟁도발에 대하여 일제히 보도하였다. 그러자 세계가 놀라움에 휩싸이고 조선전쟁의 결말에 대한 론의로 분분하였다.

우리 나라와 미제와의 대결, 이것은 해방된지 다섯해밖에 안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힘에 겨운 전쟁이였다.

세계 《최강》을 떠벌이는 미제와 맞다들었으니 조국은 얼마나 준엄한 시련에 처해있는가.

우리 인민이 과연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낼것인가.

원쑤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고 초조한 마음에 휩싸여있던 우리 예술인들은 저저마다 조국에 돌아가 싸우게 해달라고 제기해나섰다. 나 역시 같은 마음이였다.

조국이 위험에 처해있는 때 외국땅에서 그대로 공연을 벌려놓고있을수는 없었다.

우리의 이러한 심정은 대사관을 통하여 곧 조국에 보고되였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였다. 대사관의 한 일군이 급히 달려와 감격에 넘친 소식을 전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화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신것이였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예정대로 공연을 다 끝내고 돌아오시오. 정황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반격하여 서울을 향해 진격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동무들은 예술공연활동을 통하여 조선인민은 끝까지 싸울것이며 침략자들을 타승하고야말것이라는것을 외국의 벗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속에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무의 말씀을 받아안은 우리들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 속에 쏘련방문공연을 계속하였다. 레닌그라드, 끼예브, 노보씨비리스크 등 공연지마다에서 우리 예술인

들은 싸우는 조선인민의 긍지와 자랑을 담아 더욱 기운차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으며 쏘련인민들속에서 영웅적인 우리 인민에 대한 지지와 존경의 정을 높이 불러일으켰던것이다.…

우리 예술단은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모란봉극장에서 성대한 귀환공연을 가진 다음 서울로 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예술단이 서울로 떠나기직전에 나를 부르시여 해방지구에 가서 진행할 선전사업에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말씀하여주시였다.

《해방지구의 인민들에게 무엇보다도 공화국의 주인된 자각을 안겨주어야 하겠습니다.

해방지구인민들은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반인민적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나라의 주인이 되였으며 이제 북반부에서와 같이 토지개혁을 하고 산업국유화도 하여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해설선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위력에 대하여 선전함으로써 승리의 신심을 확고히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에 대한 전군중적원호를 강화하며 전선의 승리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송과 신문을 통한 보도선전을 튼튼히 틀어쥐고 해방지구인민들에 대한 선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강연, 보고, 해설담화와 직관선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선전사업을 실속있게 기동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군대의 진격에 의하여 전선형편과 정세가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있는 조건에서 정세보고와 강

련을 준비된 일군들로써 수시로 조직하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8.15해방 5주년기념 서울시보고대회부터 잘 조직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지금 남반부인민참관단이 평양에 와서 각지를 견학하고있는데 그들이 돌아간 다음 귀환 보고회나 강연 같은것을 조직하면 아주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해방지구인민들에 대한 선전사업의 방향뿐아니라 그 방도에 대해서까지 이토록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지침으로 우리는 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우리는 8.15해방 5주년기념 서울시보고대회를 준비하였다.

잘 알려진 극장이나 회의장 같은것은 적기의 폭격대상으로 될수 있기때문에 어느 한 학교의 강당을 장소로 택하였다.

서울시내 근로자들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고대회는 성대히 진행되였다.

북반부에 갔던 인민참관단이 돌아오기 시작하자 우리는 그들을 준비시켜 각지에서 귀환보고회를 가지게 하였다.

참관단성원들은 북반부에 들어가 인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던 일, 8.15해방 5주년기념 평양시경축대회에 참가했던 일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자유가족학원, 국립영화촬영소, 평남관개건설장과 대동군안의 농촌마을 등을 견학한 사실들을 귀환보고회에서뿐아니라 자기 직장과 마을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실감있게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남녘인민들에게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고 공화국의 품에 안겨 살게 될 긍지를 높여주는 생동한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는 해방지구의 도시와 농촌들에서 사진전시회도 조직하고 이동영사대활동도 적극 벌리도록 하였다.

신문 발행과 배포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양에서 지형을 서울로 날라다가 신문을 인쇄하였다.

한편 우리는 예술단의 활동에 큰 힘을 넣었다.

우리와 함께 서울에 간 예술단은 국립교향악단의 지휘자들을 비롯하여 각 예술단체 출신의 성악가들과 연주가, 무용가들 100여명으로 구성되여있었다.

쏘련에 갔던 예술인들이 거의다 그대로 망라되여있었다.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한 우리 예술단은 큰 무대에서뿐 아니라 영등포의 공장지구에 나가 마당에서도 공연하고 인민군후방병원 야외무대에서도 공연하였다. 우리는 이르는곳마다에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시랑송, 단막극을 비롯하여 우아하고 힘있는 노래와 무용 등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고무하고 투쟁에로 일떠세웠다.

이무렵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그동안 해방지구에 와서 진행한 선전사업정형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예술단을 여러개 편대로 나누어 각 도에 파견하려 한다는것을 말씀올리였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말씀하시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예술단을 소편대로 나누어 해방지구의 여러 지방에 파견합시다. 해방지구인민들속에서 예술활동을 벌려 그들을 교양하자고 간것만큼 서울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더 나가는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전선이 락동강과 남해까지 이동된 조건에서 서울도 먼 후방으로 되였습니다.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적기의 폭격이 심하며 공연장소도 별로 없는 조건에서 모든것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각 지방에 찾아가 인민들에게 우리 예술공연을 보여주면 그것이 큰 정치사업으로 될것입니다.

우리 예술단이 서울에서도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지방에 가서 공연을 보여주면 인민들을 더 크게 감동시킬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이 아끼는 예술인들인데 소편대공연에서 사소한 사고도 없도록 미리 대책을 잘 세워주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는 예술단을 7개의 편대로 나누어 편성하였다.

인원은 적지만 편대단위로 노래와 기악과 무용을 다할수 있게 예술인들을 고루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경기도와 남강원도는 물론 멀리 전라남도에까지 예술단의 편대들이 찾아갔다.

락동강계선에서 인민군용사들이 피의 결전을 벌리고있는 바로 그때 우리 예술단성원들은 노래와 춤을 무기로 삼아 침략자들을 단죄하고 인민들을 원쑤격멸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포성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예술단의 공연은 해방지역의 각지 인민들속에 우리 공화국을 지지하고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관철하며 당면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군대를 적극 지지원호하도록 하는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난 첫 시기에 해방지구인민들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의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우리들을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이것은 해방지역에서 당 및 정권 기관들을 복구하고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며 이 지역 인민들의 대중적원호속에 우리 인민군대가 전투성과를 급속히 확대해나갈수 있게 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되였다.

별오리에서 내보내신 조국전선호소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전시환경과 인민들의 사상동향을 제때에 포착하시고 정치사상사업방향뿐 아니라 내용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영용한 우리 인민군대가 재진격으로 넘어간 얼마후인 1950년 11월초순의 어느날이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시던 급한 일들을 다 뒤로 미루시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지금 계속 남으로 진격하면서 패주하는 적들에게 련속 타격을 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리한 정세에 비추어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더욱 굳게 묶어세워 적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줌으로써 최후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조국전선회의를 하나 하자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회의를 준비할 과업을 주자고 불렀다고 하시면서 이번 조국전선회의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전체 인민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동무가 그것을 맡아서 써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소문작성방향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호소문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전체 인민이 승리의 신심 드높이 적들의 마지막숨통을 졸라매는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용감하게 싸우도록 고무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돌아오면서 다시금 그이의 탁월한 령도풍모에 깊이 탄복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이때로 말하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전쟁 제3계단에 들어선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인민군대는 전전선에 걸쳐 전면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가 전선서부에서는 청천강이북에 기여들었던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고 청천강이남으로 몰아냈으며 전선동부에서는 황초령, 부전령, 장진호반 일대에서 놈들의 주력을 완전히 포위소멸함으로써 전쟁의 형세를 근본적으로 역전시키였다.

정세가 이처럼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의 일군들속에서는 아직도 승리에 대한 신심을 못가지거나 지어는 적들의 폭격에 겁을 먹고 산골에 은거하여 그날그날을 안일하게 보내면서 산하 당원들과 동맹원들을 전쟁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지 않고있었다.

특히는 우당과 종교단체안에 잠입하였던 반동들이 일시적후퇴의 어려운 시기에 조국과 인민 앞에 씻을수 없는 죄행을 저지른것으로 하여 우당들에 대한 대중의 감정은 좋지 않았으며 통일전선운동은 심히 약화되였으나 누구 하나 이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이 문제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헤아리시고 그를 수습할데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계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의 작전을 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통일전선운동에서 나타나고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바로잡으며 하나로 굳게 단결된 인민대중의 힘으로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게 하시기 위하여 조국전선회의를 열고 호소문을 발표할것을 발기하신것이였다.

나는 며칠 걸려 조국전선중앙위원회 확대상무위원회에서 채택할 호소문의 초고를 썼다. 추고를 한 다음 깨끗이 정서한 원고를 다시 읽어보니 자기딴에는 들어가야 할 사상, 강조해야 할 문제들이 다 담겨진것 같이 생각되였다. 회의날자를 2~3일 앞둔 11월중순의 어느날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원고를 올리였다.

연필로 밑줄을 그으시기도 하고 원고지의 모서리를 접어두기도 하시면서 초고를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께서 표식해두셨던곳을 펼쳐 읽어보시는것이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호소문을 쓰느라고 수고를 했는데 좀 고쳐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후퇴를 하고 적들이 들어왔으니 이젠 공화국이 망한줄로 생각하고 너절한짓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성된 정세에 상응하게 긴장하게 살며 아글타글 일할대신 겁을 먹고 산골안에 피신하여 일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 되는대로 살아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싸우며 어데서나 전투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그 어느때보다 전체 인민의 일치단결된 힘이 요구

되는 오늘의 긴장한 정세하에서 각 정당, 사회단체들에 소속된 성원들이 조국을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모두가 이 판가리 전쟁에 떨쳐나서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조국전선중앙위원회상무위원회를 여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기간 선전사업부문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정의적성격과 적들에 비한 우리의 전략전술의 우월성, 우리 후방의 견고성, 날로 강화되는 국제적인 지지성원에 대한 해설사업을 로동당원들뿐아니라 우당산하의 성원들, 광범한 군중속에 이르기까지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일시적후퇴과정에 일부 사람들은 승리의 신심을 잃고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행위까지 감행하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사실 그 시기 일부 정당, 사회단체안에 잠입해있던 불순분자, 이색분자, 반동분자들이 엄중한 죄행을 저질렀다. 어떤고장에서는 우당성원들가운데 악질분자들이 감추어두었던 《태극기》를 들고나와 적들을 환영하였을뿐아니라 미제침략군놈들의 졸개가 되여 로동당원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의식수준이 낮은 사람들가운데 일부는 나쁜놈들의 꾀임수에 넘어가 놈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죄를 지었다.

우당안에서 반동분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 반역적행위를 감행한것으로 하여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 속에서는 우당들과 통일전선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견이 대두되였고 지어는 우당들을 그냥두고 활동시켜 뭘하겠는가, 군사위원회 명령체계면 되는데 조국전선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전쟁 제3계단에 방금 들어선 때에 조국전선회의를 소집

하시고 호소문을 내보내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은 바로 이와 같은 복잡한 사태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한 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조성된 사태의 심중성을 보지 못함으로써 호소문을 각계각층 군중의 복잡한 사상동향과 심리를 고려하여 그에 맞게 쓰지 못하고 일반적인 호소와 강조를 하는데 그쳤던것이다.

다시 말씀을 이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조국전선사업을 강화하고 모든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조국전선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을 내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호소문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망라되여있는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의 성원들, 무소속인사들과 광범한 각계각층의 군중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것이라고 힘주어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소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호소문이 론설이나 학습제강, 해설담화자료를 비롯한 다른 선전교양자료와 구별되는 기본특징은 호소성이 강할뿐아니라 그것이 글에 일관하게 관통되여있는것입니다. 호소문에서는 호소하는 내용이 간결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그 표현도 전투적이며 선동적이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호소문을 읽거나 들으면 누구나 격동되여 호소문이 제기한 과업수행에 떨쳐나서지 않고는 못견디게 글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호소문이 대중의 사상동향과 심리상태를 심중히 고려하여 그들의 심장을 울리도록 적중한 표현들을 골라가면서 글을 잘 써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나는 호소문을 고쳐썼다. 그이께서는 호소문원고를 다시금 검토하시면서 손수 글을 다듬어 완성해주시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확대상무위원회는 예정된 날자대로 1950년 11월 19일에 별오리의 한 농가에 꾸린 소박한 회의장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과 중앙위원회 위원들, 기자들 등 40여명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인민들을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 발광하고 있으나 우리는 능히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굳게 단결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을 받아안은 회의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새로운 결의가 어려있었다.

회의에서는 전체 인민에게 보내는 조국전선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호소문에서는 미제의 조선침략목적과 야수적만행을 폭로규탄한 다음 인민군대의 재진공이 개시된 유리한 군사정치정세하에서 각계각층의 전체 인민이 정견과 신앙,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를 쳐물리치는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전선원호사업과 적들의 일시적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역을 복구정비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회의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와 호소문을 방송으

로 보도하는것과 함께 신문으로도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그이께 보고드리였다.

조국전선회의와 관련한 선전사업계획을 다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우리 나라의 형편을 깊이 고려하여 이 호소문을 기동적으로 선전하고 침투시킬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사실 나는 호소문침투계획을 나라에 조성된 어려운 형편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종전에 하던 방법대로 쉽게 세웠었다.

나는 전쟁이 일어나기직전에 조국전선중앙위원회가 8.15 해방 다섯돐을 계기로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북총선거를 실시할것을 제의하여 발표한 호소문을 우리 방송과 출판물들을 통하여 내보냈다는데서 그 방법대로 할것을 예견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얼마나 안일하고 형식적인 사업태도였는가 하는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다음과 같은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소문에 대한 선전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평화시기도 아닌 전쟁시기 그것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끝나고 재진격을 하고있는 복잡한 환경속에서 이와 같은 호소문을 해설침투시켜야 한다는것을 념두에 두고 이 사업을 기동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이것은 정상상태가 못되는 특이한 조건하에서 벌리는 선전사업입니다.

강계에서 방송이나 하고 후퇴해 들어온 신문사들에서 내는 신문에 보도만 하는것으로 그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문을 침투시킬수 없습니다.

방송은 출력이 약하고 신문발행은 아직 정상화되지 못

하였을뿐아니라 부수도 적습니다.

그런것만큼 호소문선전대책을 여러가지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호소문을 게재한 신문을 많이 찍으며 이와 함께 호소문만 선전문형태로 따로 찍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소문을 우리 방송에서 보도할뿐아니라 그것을 형제나라 방송을 통하여서도 보도하는 사업을 조직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속에 널리 알리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호소문을 인쇄한 선전물을 해방지역은 물론 적강점지역에도 많이 내보내여 직관선전물로 널리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전선에서는 호소문을 해설침투시킬 일군들을 선발하여 해방지역과 적강점지역에 파견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서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제18차확대상무위원회 사업에 대한 선전의 구체적방법을 체득하게 된 우리는 회의에서 하신 그이의 보고와 호소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해설침투시켰다.

방송에서 반복하여 내보내는 한편 형제나라 방송을 통하여 세상에 널리 보도하였다. 신문들에 게재하였으며 종이에다 선전문형식으로 호소문만 찍어 적강점지역에까지 대대적으로 내보내였다.

조국전선산하에서 수십명의 각 정당, 사회단체 일군 및 선전원을 선발하여 전선과 적후에 파견하였다. 그들은 광범한 인민들에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확대상무위원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를 침투하고 선전문으로 찍은 호소문을 널리 배포선전하였다.

그들의 맹렬한 활동에 의하여 당시 적의 일시적강점하에 있던 안주, 함흥, 원산 등 여러 지방들에서는 호소문을 등사하여 광범히 보급하였다. 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관철하며 호소문을 실현하기 위한 궐기모임, 군중집회들이 자강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들에서 진행되였으며 우당과 각 사회단체들에서는 열성자회의들을 진행하고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들을 통하여 해설침투된 조국전선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은 모든 인민들로 하여금 부닥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승리의 신심을 잃지 않고 전쟁승리를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호소문은 특히 우당산하의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군중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호소문에서 우리 당의 정당한 통일전선정책과 자기들에 대한 편견없는 원칙적인 태도와 립장을 다시금 똑똑히 인식하게 된 그들은 조국전선사업의 강화와 전선원호, 전시생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였다.

이러한 과정에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강화되고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믿음직한 힘이 더욱 튼튼히 마련되여갔다.

별오리에서 내보내신 조국전선호소문, 실로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후퇴의 난국을 수습하고 전쟁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시기 위하여 몸소 포치하고 이끄신 일대 정치선전공세의 하나였으며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진 선전교양사업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웅장한 지하극장을 건설하시여

전시환경에 맞게 사상, 문화 선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밝히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기의 맹폭격이 끊임없이 감행되는 어려운 조건에서 선전사업을 쉴새없이 진행하시기 위하여 그 거점을 꾸리고 여기에서 힘있는 정치사상사업과 문화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전쟁시기 모란봉지하극장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에게 승리할 래일에 대한 가슴부푸는 희망을 안겨주는 교양사업의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모란봉지하극장이 건설되기 시작한것은 1951년 늦은봄이였다.

우리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불러일으킬 사상, 문화 선전의 거점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모란봉지하극장 건설을 몸소 발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도록 구체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1951년 5월에 착공된 모란봉지하극장 건설은 불과 3개월사이에 완공되였다.

극장은 바닥과 벽이 모두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처리되였으며 관람석과 배우준비실, 소회의실과 휴계실 등의 공기갈이와 음향처리가 잘되고 관람자들을 쉽게 입퇴장시킬수 있는 조건까지 원만히 보장되여있었다.

미제야만들은 지상의 모란봉극장을 무참히 파괴하였으나

우리 인민은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강철의 의지로 지심깊이 안전한곳에 새로운 모란봉극장을 일떠세웠던것이다.

실로 전쟁의 불비속에서 마련된 이 지하극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문화예술발전과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하여 돌려주신 크나큰 배려가 깃들어있는 문화의 전당이였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지와 뛰여난 슬기가 어려있는 훌륭한 지하건설물이였다.

이때부터 중요한 국가적인 회의들과 모임들이 이 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고무추동하시기 위하여 모란봉지하극장에서 각종 예술창작과 공연활동, 영화상영 등을 정상화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전선에서 치렬한 전투가 날로 격화되던 1952년 초봄 어느날이였다. 이날도 평양에 대한 적들의 야만적인 폭격이 감행되여 건물들이 파괴되고 거리가 불탔다.

저녁무렵 내가 전선방문 소편대공연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있는데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던 나는 순간 자세를 바로하며 정중히 일어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어주신 전화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요사이 폭격이 심한데 모두 무사한가고 우리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러신 그이께서는 요즘 모란봉지하극장을 어떻게 운영하고있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당시 지상에 있던 여러 극장, 영화관, 구락부, 회의실들이 폭격에 의하여 거의 파괴된 조건에서 모란봉지하극장은 인민들에 대한 중요한 교양장소로 쉴새없이 리용되고있었다.

여기서는 정치행사들과 각종 회의들이 조직되고 매일과

같이 예술공연과 영화상영이 진행되고있었다.

이러한 정형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란봉지하극장이 잘 운영되고있다니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란봉지하극장에서 중요한 전람회를 하나 열어야겠는데 자료들을 전시할 자리를 마련하고 전람회날자를 운영계획에 예견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란봉지하극장에서 어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라든가 어떤 예술공연을 하라고 걸어주신 전화는 여러번 받았지만 전람회를 열어야겠다는 말씀을 받기는 처음이였다.

나는 송수화기를 정중히 받쳐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였다.

《이번에 지하극장에서 전후 평양시복구건설의 전망을 보여주는 전람회를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민이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어려운 전쟁을 벌리고있지만 우리가 승리할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전쟁으로 파괴된 그 모든것을 승리한 이 땅우에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복구하며 새로 일떠세울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수도 평양도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되였으나 우리는 전쟁이 끝나면 다시 훌륭히 건설하고야말것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에 대하여 인민들에게 전람회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보여주자는것이라고 하시였다.

평양시복구건설전망을 보여주는 전람회! 참으로 너무도

뜻밖의 일이여서 나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전선에서는 한치의 땅, 하나의 실개울을 두고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있었다.

전쟁은 장기화되고 전선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승리를 환히 내다보시고 전후에 진행할 평양시복구건설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전람회를 조직하시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평양시복구건설전망을 보여주는 전람회를 진행하는것은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안겨주며 그들을 전쟁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잘 보장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전람회준비사업을 다그쳤다.

우리 나라 건축건설발전에서 하나의 획기적전환점을 마련해놓은 이 지하극장은 복구건설된 수도의 앞날을 보여주는 전람회를 여는데 알맞춤한 장소였다.

마침내 이해 5월 모란봉지하극장에서는 평양시복구건설전망을 보여주는 전람회가 열리였다.

이 놀랍고도 희한한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저저마다 모란봉지하극장으로 밀려들었다.

로동자, 농민들, 청년학생들, 지식인들…관람자들가운데는 가렬처절한 전투마당에서 온 인민군군인들도 있었다.

지하극장의 벽면들에는 전후에 재더미를 털고 일떠설 혁명의 수도 평양시의 웅장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설계도들과 부감도들이 많이 진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수도복구건설구상을 담은 그 모든 전시품들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감격과 희망을 안겨주

였다.

전쟁을 초월하여 펼쳐진 래일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평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생동한 화폭들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으며 전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갔다.

1952년말과 1953년초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는 미제의 악명높은 《신공세》기도와 관련하여 더욱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으며 전쟁은 더욱 가렬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시기에도 조선인민군군무자예술경연을 모란봉지하극장에서 벌리실것을 발기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사업을 잘 보장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지금 전쟁은 엄혹하고 가렬처절하지만 우리 인민군 군인들은 싸우는 고지마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있으며 시를 쓰고있습니다.

미제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런 혁명적락관주의를 가지고 싸우는 우리 인민군대를 어떻게 이길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민군대는 참으로 장합니다. 모두가 싸움도 잘하지만 예술써클도 잘합니다. 우리 병사들은 미국놈들과의 판가리결전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자기들이 만든 화선악기의 선률에 맞추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혁명적락관주의정신, 필승의 신념을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입니다.

바로 미국놈들이 무서워하는것이 이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무자예술경연은 지금 전선형편을 고려하여 군단별로 선발한 군무자예술소조들을 올려다가 모란봉지하극장에서 공연하는 방법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

치시였다.

이리하여 온 나라가 미제의 《신공세》기도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로 떨쳐나서고 전투기자재들과 인원들이 전선으로 전선으로 수송되던 그 엄혹한 시기에 인민군예술소조원들을 실은 자동차들이 전선의 고지로부터 평양에로 련이어 들이닥쳤으며 그들의 공연은 지하극장무대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깊은 관심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모란봉지하극장에서는 전선의 인민군용사들과 후방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과 사상감정을 반영한 노래와 춤 등 예술공연들이 날마다 진행되였다.

하루에도 수십차례나 적기가 날아들어 폭탄과 기총탄을 퍼붓던 그때 평양의 지하극장에서 울린 전투적이며 랑만적인 노래와 춤은 싸우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용사들을 무한히 고무하였다.

그것은 말그대로 폭음을 짓누르며 승리에로 부른 영웅서사시적인 교향곡이였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로동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에 대한 소식을 광범히 보도하였다.

그리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란봉지하극장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궁륭식천정의 밝은 전등불아래 눈부시게 반짝이는 대리석 벽과 바닥, 휘넓은 관람석과 훌륭한 무대들이 하나의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극장과 바로 이곳에서 진행된 생동한 예술소조공연을 보고 전쟁승리에 대한 확신과 래일에 대한 희망으로 차고넘쳤으며 새로운 투쟁결의를 다지였다.

이곳에 직접 와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희한한 소식에 접하여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 소식을 받아안은 인민군용사들은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멸적의 기세 드높이 돌격전에로 내달렸으며 후방인민들은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로 전시생산과 전선원호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쳤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불비속을 뚫고 모란봉밑에서 끊임없이 울려퍼지는 평양의 노래, 영웅적조선인민의 노래를 들으며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모란봉지하극장에서 열린 이러한 예술공연을 직접 본 한 외국인은 흥분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 인민과 인민군대의 혁명적락관성은 대단하다. 포연속에서 대지하극장이 마련되였고 거기에서는 대음악회와 대공연들이 쉽없이 벌어지고있다.

이런 정신과 이런 전투적기백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놈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전쟁의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모란봉에 지하극장을 건설하고 그곳을 민족문화예술발전과 사상문화선전교양의 거점으로 꾸리도록 하시였으며 이 지하극장에서 각종 형식으로 사상 및 문화 선전활동을 벌려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2

정전된 그 밤에

우리 인민은 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승리한것처럼 전후복구건설에서도 불굴의 기상, 불패의 힘을 발휘하여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전쟁의 불길속에서 무르익히신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에 의하여 이룩된 승리였으며 수령님께서 정전으로 하여 조성된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상선전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인민들을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한사람같이 불러일으키신 결과에 마련된 승리였다.

기억도 새로운 1953년 7월 27일에 있은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를 최고사령부로 부르신다는 련락을 받게 되였다. 그것은 긴 여름해도 진지 퍼그나 오래된 다음이였다.

정전협정에 대한 조인은 오전10시에 진행되였으나 협정조항에 밤10시부터 정화하게 되여있었으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전선에서는 치렬한 전투가 계속되고있었다.

후에 보도를 통하여 안 사실이지만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이 조인된 다음부터 밤에 정화할 때까지의 시간을 리용하여 전선에서 최후발악을 다하였다.

비행기와 함선 등 모든 전쟁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대대적

인 폭격과 포사격을 감행하였다.

정화의 마지막시각이 다가오는 밤 8시부터 10시사이의 2시간동안에 놈들은 포는 물론 보총, 경기, 중기 등 모든 형태의 저격무기까지 모조리 끌어내여 아군진지들에 대한 맹사격을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이러한 단말마적인 최후발악을 짓부시는 전선부대들의 격렬한 전투행동을 지휘하시는 그 긴장한 시각에 나를 불러주신것이였다.

떠날 차비를 하는데 축포가 련달아 터져올라 밤하늘에 온통 꽃불을 켜놓았다.

미제침략자들의 최후발악을 짓누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리신 최고사령관 명령대로 밤9시 정각에 124문의 포가 일제사격으로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인 승리를 기념하는 축포를 쏘기 시작한것이였다. 사람마다 밖으로 뛰여나와 서로 얼싸안고 전승의 기쁨을 나누고있었다.

우리는 자동차로 거리를 얼마쯤 달렸다. 갑자기 어둠속에 잠겨있던 길 좌우켠 여기저기의 반토굴집에서 휘황한 전등불이 비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앞에 달려오던 자동차도 우리 뒤에 오던 자동차도 전조등을 환히 켜는것이였다. 그제서야 우리도 밤10시 정각이 된줄 알고 전조등을 켰다.

사람들이 승리의 감격과 기쁨으로 잠못이루며 대동강뚝에서, 언덕우와 큰길가에서 오래간만에 보는 불빛밝은 수도의 야경을 즐기고있었다.

혹심한 전쟁의 상처가 차창밖으로 흘러갔다. 련달린 폭탄구뎅이, 타다남은 전주, 구들장들이 드러난 불탄 집자리, 무너진 콩크리트벽체, 끊어진 다리…

그러나 인민들은 이 참혹한 페허우에서도 락심을 모르며

재더미만 남은 거리와 마을들에 떨쳐나와 전쟁승리를 축하하며 춤추고 노래 부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 작전실에 우리가 도착한것은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쯤 지나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자 그이께서는 우리 전체 인민이 잘 싸웠기때문에 전쟁을 이긴것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에게 축하를 보내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에게 자리까지 권하시고 마주앉으시였다.

가렬한 전화의 3년, 전쟁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미제와 싸워이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안색은 피로에 잠겨계셨다.

그이께 《수령님, 너무 축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후 나는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축갔단 말이지. 종파놈들때문에 그럴수도 있소. 간첩을 옆에 두고 싸움을 했으니 말해 뭘하겠소.》라고 말씀하시고는 인제는 다 일없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전을 맞은 인민들의 기세가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나는 방금전에 최고사령부로 오던 길에 본 일이며 수도의 밤하늘에 축포가 오르던 광경이며 정전이 조인된후 곧 선전일군들속에서 제기되였던 문제들이며 정전과 관련하여 인민들속에서 제기된 반영들이며 죄다 말씀드리였다.

두서없이 드리는 나의 보고를 허물없이 듣고계시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만족하신 어조로 참 좋은 일이라고, 우리 인민은 불굴의 인민이며 영웅적인민이라고 하시며 이런 인

민이 우리 당을 받들기에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할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이런 인민이 있기에 전후복구건설도 문제될것이 없다고 확신에 넘친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 우리 인민의 이 높은 혁명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보고 전후복구건설계획을 세운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부터 해야 할 선전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려고 동무를 불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전쟁시기에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전쟁승리에로 동원하는것이 선전부문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였습니다. 그러나 정전이 된 오늘에 있어서 그것은 전체 인민들을 전후복구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 모든 선전력량을 집중하는것입니다.

우선 선전기관들에서 전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의 력사적의의를 옳게 해설선전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신심 드높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떨쳐나서도록 고무하고 추동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력사에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투쟁을 전개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으나 조국해방전쟁때와 같이 전체 인민의 단결된 력량으로 강대한 적에게 결정적타격을 주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여본적은 일찌기 없었으며 오늘처럼 우리 인민이 높은 국제적위신을 지니게 되고 전세계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동정을 받아본 때는 없었다는것을 우리 인민들이 잘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우리의 선전사업에서 특별히 류의할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시고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정전과 관련하여 사람들속에서 편향이 생길수 있다는것을 예견하여야 합니다.

전쟁이 당장 또 일어날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후복구건설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편향도 생길수 있고 정전을 완전한 평화가 온것처럼 생각하면서 안일해이하고 자만자족하는 경향도 나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정황을 꿰뚫어보고 그에 맞는 선전사업의 묘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지금 대중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정전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가지도록 선전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그래야 인민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전후복구건설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전일군들은 한번의 선전사업을 하여도 사람들의 사상동향과 심리상태를 깊이 파악하고 그에 맞게 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전된 지금 인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바로 그런 원칙에서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시키도록 조직진행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나는 그제서야 그이께서 나에게 정전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선전사업부터 잘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신데는 전후선전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게 하시려는 그이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있음을 깨달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으로 여지없이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여야 할 어려운 전투를 앞둔 이 순간 인민들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그들을 자력갱생하는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전후복구건설에 대한 당의 새 구호가 나가면 아직 준비

되지 못한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동요하거나 남에게 의존하여 그것을 해결해보려는 경향이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군들부터 우리자체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일떠서겠다는 굳은 각오와 견결한 립장을 가지도록 하며 사람들을 불굴의 의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 힘을 돌리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을 새겨듣는 나의 머리속에는 전해 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평양시복구건설전망에 대한 전람회를 본 우리 문화선전일군들속에서는 일부 편향들이 나타났었다.

영화예술부문만 놓고보더라도 전후에 진행할 촬영소의 복구건설문제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전쟁으로 파괴된 영화촬영소를 빨리 복구하여야 시보영화와 기록영화, 예술영화 등을 만들어내여 전후재더미우에서 일떠서 싸우는 우리 인민들의 로력투쟁을 고무할수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일부 사람들은 자재도 자금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재더미우에 촬영소를 다시 세울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니 간단한 설비나 들여놓을 정도로 림시건물이나 세우면 될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다시 전쟁이 터지면 어차피 영화의 완성공정은 이웃 형제나라의 촬영소를 리용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지나 않겠는지 하고 은근히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혹심한 파괴앞에서 벌써 겁을 먹은 표현이였으며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상에서 나온것이였다.

사실 이러한 편향은 그들에게만 한한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도 있었다.

가렬한 전쟁의 불비속에서 전후복구건설의 터전을 마련해나가시는 나날에 나타났던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으시며 우리 인민들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새로운 진군을 앞둔 이 시각 무엇보다 그러한 편향이 또다시 미칠 엄중성을 미리 헤아리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대중을 무장시킬 문제부터 밝혀주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에 탄복하면서 나는 그이의 높은 기대에 보답할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결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그것은 진지방어전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진지방어전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갱도전법을 창조하였는데 인민군대의 력사가 오래거나 전쟁경험이 많아서 그런것을 창조할수 있은것은 아니다, 60년래의 대홍수가 나서 전선에 무기와 탄약을 비롯하여 포탄과 식량마저 운반할수 없었던 시기 인민군전사들은 먹을것이 없어서 산나물과 산열매를 뜯어 겨우 끼니를 에우면서도 갱도를 파고 전호와 참호를 굴설했으며 그것마저도 놈들의 비행기폭격으로 낮에는 할수 없어 밤마다 새워가면서 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조국의 한치의 땅도 미제원쑤들에게 내주지 말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갱도안에다 병실도 식당도 목욕탕도 지었고 문화오락실, 지어 방아간까지 만들어놓고 배심있게 싸웠다고 하시면서 이것들은 어느것 하나 남의 힘을 빌어한것이 아니였고 남의 나라 군사교범이나 전쟁경험을 참고하여 만든것도 아니였다고 힘주어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볼수 있는가, 어떤 간고한 환경에서도 당의 요구와 의도를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관철해나가는 불굴의 투쟁정신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이 잘 싸운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전후에 새로 나선 혁명임무와 결부시켜 선전해야 합니다.

당의 의도를 옳게 파악할수 있도록 리치를 가르쳐주며 우리가 처한 오늘의 실정에서 전후복구건설에로 호소하는 당의 요구와 의도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이 조국해방전쟁과 같은 가장 어려운 시련속에서 전쟁의 최후승리를 믿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 곤난을 극복하고 싸워 이긴것처럼 그 기백과 정신으로 계속 전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전된 이 시각에 우리는 인민들이 정전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게 하며 남을 쳐다보려 하지 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튼튼히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 전쟁관점에서 대하여야 할 문제이며 우리앞에 나서는 난관들은 남에게 의존함이 없이 전쟁때처럼 우리자체의 힘으로 극복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이기때문에 당의 이러한 선전원리를 옳게 파악하고 선전활동을 벌려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을 받아안고 나는 눈앞이 환해지며 신심과 용기가 솟구침을 느끼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고 작전실에서 나왔다.

자정이 훨씬 넘었으나 문밖에서는 아직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온 몇몇 일군들이 그이를 만나뵈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도 나처럼 정전의 이 밤에 그이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온것이였다.

참으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맡아안으시고 우리 인민을 오늘과 같은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전후복구건설이라는 새로운 거창한 전투에로 전국, 전민을 조직동원하고계시였으며 여기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시키는것을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우고계시는것이였다.

인민대중의 사상부터 발동시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전화가 멎은 바로 그때부터 우리 선전의 화력은 인민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늦춤이 없이 간고분투, 자력갱생하는 혁명정신으로 전후복구건설전투를 벌려나가도록 하는데 집중할수 있었으며 기적의 위훈을 떨치도록 그들을 힘있게 고무할수 있었다.

3,000대의 라지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우리 혁명대오를 튼튼히 다지며 파괴된 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농

촌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를 헤아리시고 농촌민주선전실을 거점으로 농민들속에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1955년 6월 2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전국농촌민주선전실장대회가 성대히 개막되였다.

이것은 농촌에서 사상문화교양사업을 강화하며 농촌진지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농촌민주선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에 이미 마련해주신 농촌에서의 대중교양의 중요한 거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농업협동화운동이 힘있게 추진되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민들에 대한 사상문화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민주선전실을 더 잘 꾸리며 활발히 운영하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전국농촌민주선전실장대회도 농촌민주선전실장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농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게 하시려고 그이께서 손수 소집하신 뜻깊은 대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 앞서 대회의 진행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전후 우리 당의 농촌정책과 농촌민주선전실장들의 과업》이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연설에서 우리 당의 농촌정책을 하나하나 해설해주시고 농민들에 대한 사상문화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국농촌민주선전실장대회 이후에도 농촌민주선전실들이 여러가지 교양 자료들과 수단들을 충분히 갖추어 농민들에 대한 사상문화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리용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온갖 배려를 다 돌려

주시였다.

대회가 끝난지 며칠 지난 어느날이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에 보낼 라지오가 마련되여 오늘 동무를 불렀습니다.

3,000대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서 이것은 적지 않은 수자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이 라지오를 모두다 농촌민주선전실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전번 회의때 민주선전실장들이 전축도 제기하고 악기도 요구했는데 그것보다 라지오가 더 필요할것입니다.

라지오가 있으면 당정책을 제때에 알수 있고 안팎의 정세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작품을 감상할수도 있고 새 노래도 배울수 있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농민들이 사상교양을 받을수 있고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추서게 되면 전축과 악기를 비롯한 문화기재들도 해결해줍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말씀을 받아안으며 나는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워 어쩔바를 몰랐다.

3,000대의 라지오, 그것은 우리 농민들의 사상문화생활을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수 마련해주신것이였다.

당시는 전후복구건설에 착수한 첫시기여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형편에서도 전국의

농촌민주선전실마다에 설치할 라지오를 마련하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베푸시였으며 라지오가 마련되자 그것을 하루빨리 농촌민주선전실들에 보내도록 또다시 이 사업을 손수 포치하시는것이였다.

여기에는 바로 우리 농민들이 농촌민주선전실에서 누구나 우리 당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기의 사상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 튼튼히 준비되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한없이 높은 뜻과 크나큰 은정이 담겨져있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높은 뜻을 새겨가는 나의 머리속에는 전쟁전 민주건설시기 그이께서 농촌을 현지지도하실 때 있었던 일이 깊은 감회속에 돌이켜졌다.

어느날 한 농촌을 현지지도하시던 그이께서는 민주선전실에 들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갔던 우리들도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선전실에서는 몇명의 청년들이 모여앉아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격에 목메여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서있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그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농사일이 힘들지 않는가, 나이는 몇살이며 학교는 어디를 다니였는가 등 생활의 이모저모를 물으시였다.

친어버이처럼 따뜻이 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농촌청년들은 어려움도 잊고 자기들의 희망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어떤 청년은 농산기사가 되겠다고 했고 또 어떤 청년은 과학자가 되겠다고 말씀올렸다.

그런데 한 청년은 머리를 숙인채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청년을 바라보시며 동무는 왜 말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곁에 있던 청년이 그를 대신하여 이 동무는 도시에 나가 사는것이 소원이라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농촌청년들이 다 도시로 나가고싶어한다면 장차 농촌은 누가 지키겠는가고 하시면서 농촌의 주인은 바로 동무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청년들이 농촌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농촌을 잘 꾸려나갈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안 한쪽 구석에 놓인 라지오를 보시고 민주선전실장에게 요새 방송을 다 듣는가, 어떤 방송을 주로 듣는가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물으심에 민주선전실장이 일어서서 아침과 밤 방송은 듣지만 낮방송은 벌에 나가있기때문에 다 듣지 못한다고 정중히 대답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농민들이 우리 방송을 통하여 당정책을 잘 알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번제로 라지오방송청취책임자를 내오고 그들이 하루방송을 다 듣고 적어두었다가 이렇게 모였을 때 알려주는 체계를 세우라고 그 방법까지 대주시는것이였다.

그제서야 머리를 앓던 문제가 풀린듯 민주선전실장은 기쁨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꼭 집행하겠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청년들을 비롯한 농민들의 방송청취정형을 자세히 료해하시고 앞으로 방송을

통하여 그들의 사상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갈데 대하여 거듭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농촌마을을 현지지도하시고 돌아오시는 차안에서 이윽토록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그러시다가 그이께서는 문득 나에게 민주선전실에 모였던 청년들이 하던 말이 생각나는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그제서야 그이께서 농촌청년들과 나누신 담화를 두고 생각에 잠겨계셨다는것을 알게 된 나는 선전사업을 맡은 일군의 하나로서 대중에 대한 교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책감이 앞서 생각난다고 나직이 대답을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선전실들에 라지오를 설치하고 방송을 통하여 농민들을 잘 교양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였다.

《아직은 신문과 잡지의 부수가 적고 또 제때에 보급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방송이 인민들을 교양하는데서 큰 역할을 놀아야 합니다.

우리 당의 선전선동수단인 방송은 무엇보다먼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잘하여야 하며 계급교양도 잘하여야 합니다.

특히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것을 잘 깨우쳐주어야 합니다.

로동자는 공장의 설비를 아끼고 사랑하며 농민은 땅을 잘 다루고 자기고장을 꽃피우려는 정신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농촌에는 방금 만났던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라지오를 통

하여 사상교양도 하고 문화교양도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라지오를 통하여 농촌민주선전실에서 농민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문화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부터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세심히 보살펴주신 중요한 사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전쟁으로 농촌의 사상문화교양수단들이 파괴된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여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농촌에 보낼 라지오를 손수 마련해주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3,000대의 라지오를 농촌에 빨리 보내주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그 리용률을 높일데 대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주시였다.

《농촌민주선전실들에서 라지오를 통하여 농민들을 옳게 교양하며 그들의 사상문화수준을 적극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방송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민주선전실장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민주선전실장들은 농민들이 모두 방송을 듣도록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당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듣고 적어두었다가 농민들에게 빠짐없이 전달침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농촌민주선전실들에서 농민들이 라지오를 통하여 당정책을 잘 알고 그 관철에 떨쳐나서게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보내는 라지오를 농민들에 대한 사상문화교양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의 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배려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는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라지오를 속히 농촌에

보내는 사업을 조직하였다.

전국각지 농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시는 라지오를 전달하는 모임들이 일제히 진행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은정깊은 사랑이 담긴 라지오를 받아안은 농민들은 크나큰 감격속에 그이께서 베풀어주시는 극진한 배려에 농촌진지의 강화와 농업증산으로 보답할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농촌민주선전실장들은 라지오를 통하여 당정책을 농민들속에 깊이 침투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농촌민주선전실들은 농민들에 대한 사상문화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려지고 날마다 활발히 운영되였다.

라지오에서 힘차게 울리는 우리 당의 목소리를 들으며 농민들은 농업정책관철에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자기의 사상의식과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여갔다.

외국출판물리용을 혁명의 리익에 맞게

전후 사상선전, 문화선전의 모든 분야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해나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출판물보급사업을 실무적사업으로 보는 그릇된 경향을 바로잡으시고 그것이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한 고리로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해방직후부터 오랜 기간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출판물보급

사업에 대한 옳은 견해와 립장이 서있지 못하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으로 사고 파는 출판물을 상품의 일종으로 여기고있었다.

8.15해방전에 우리 사람들이 출판물을 책장사한테서 사본것은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해방후 다른 형제나라들에서도 상업적형태로 출판물들이 거래되고있었던것만큼 출판물배포사업을 상업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심히 그릇된 립장이며 시급히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옳지 못한 견해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출판물보급사업의 참된 의의를 똑똑히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 당 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옳게 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시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한 고리인 출판물보급사업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나서고있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에서 낸 출판물들을 필요에 따라 정확히 들여오고 적절히 배포리용하도록 하는것과 관련된 문제였다.

당시 이 사업에서는 우리 일군들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무책임성으로 하여 적지 않은 편향들이 나타나고있었다.

이 부문을 담당한 일군들은 전후 나라의 전반적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 출판물을 제대로 발행하기 힘들다 하여 다른 나라들의 출판물을 덮어놓고 많이 들여오기 시작하였다.

사실 그때에는 신문을 내자고 해도 종이가 부족하였고 인쇄설비 하나 똑똑한것이 없었다. 종이가 많이 들고 복잡한 기술공정을 거쳐야 하는 장편소설이나 큰 과학기술도서류들을 출판하는 문제는 사실상 엄두를 내기가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인민들의 문화적수요는 당분간 수입해들여오는 외국출판물에 의존하게 되였다.

거기에다가 전후복구건설과 인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문제, 경제문제들을 참고하기 위하여 형제나라들의 출판물들을 들여오게 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날이 가고 달이 지나 해가 바뀌면서 계속되다보니 책방과 도서관들에는 외국도서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반당종파분자들이 남의것을 그대로 받아물고 내세우다보니 사태는 더욱 엄중하게 되였다.

이자들은 우리 작가들이 쓴 소설 한편이라도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쓴 책 한권이라도 더 찍어내려고 애쓰는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덮어놓고 하대하면서 우리것은 쓸만한것이 없으니 외국의것을 사오라고 내려먹이군하였다.

사태는 이렇게 심각하였으나 우리들은 전후의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의것이 부족한만큼 남의것을 들여오는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로 생각하였고 또 그것이 반동출판물들이 아닌것만큼 그게 문제시하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출판물보급사업실태를 깊이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에서 나타나고있는 편향을 극복하도록 우리 일군들을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1954년 9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급히 그이의 집무실로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가 올리는 인사를 받으시고는 문득 요즘 책방이나 도서관에 나가보는가고 물으시였다.

나는 그 물으심의 깊은 의도를 알지 못한채 반동출판물

을 검열하기 위해 개인고서점들에는 자주 나가본다고 말씀올리였다. 우리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미제가 강점지역에 퍼뜨리고 간 반동출판물들이 일부 개인고서점들에 나돌아 그것들을 회수처리할데 대한 문제가 그때 중요하게 나서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대답을 들으시고 반동출판물을 없애는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금은 그것만이 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지금 책방에 가보면 번역소설뿐이고 우리 나라 소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문화수준을 높이자면 다른 나라의 소설들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책방들에는 응당 우리 나라 책이 더 많아야 합니다.

외국소설은 사람이름만 외우려고 해도 힘이 듭니다.

들여온 소설가운데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지 않는 책들도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나는 그이께서 책방에 나가보는가고 물으신 그 의도를 알게 되였다.

사실 이무렵 도서수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지도체계가 서있지 않았던 사정으로 하여 책과 잡지, 화보류들이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비호밑에 아무런 통제도 받음이 없이 수입되여 도서관, 책방, 교육기관들에 퍼지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때까지만 하여도 책방에 나가보고 외국에서 들여온 도서들의 비중이 많은데 대하여 생각은 하면서도 외국의 잡지, 도서들을 사들여오고 그것을 배포판매하는것은 상업성이나 체신성에서 주관해보는 일이므로 우리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일로 여겨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책에 잠겨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선전일군들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우리 혁명에 리로운가

해로운가, 우리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겠는가를 따져볼줄 알아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출판물들을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정신을 높이고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편집발행하며 특히 외국출판물을 들여오는데서는 선진과학기술과 문화를 섭취하는데 필요한 책을 위주로 수입하도록 해야 하겠는데 아직까지 이런 면에서 부족점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곧 시정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때 외국출판물들을 들여오는 사업을 두 기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도서류들은 상업성 도서상업관리국에서, 정기간행물은 체신성 출판관리국에서 수입해다가 판매하고있었다.

그들은 정치적고려를 깊이 돌리지 않고 대상하는 나라의 의견과 독자들의 요구라 하여 무질서하게 외국책들을 수입하고있었던것이다.

나는 이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상업성에서 외국도서들을 제 마음대로 사다가 팔고 또 체신성에서 아무런 정치적고려도 없이 외국의 정기간행물들을 들여다가 파는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출판물들을 상업망에서 판매한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게 할수는 없다, 출판물이 서점에서 매매된다 하여 그것을 단순한 상품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똑똑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출판물보급사업은 장사놀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판물은 인민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서점은 보통상품을 사고파는 상점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사상적량식을 공급해주는 출판물보급기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점, 서점판매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고치겠는가 하는것도 앞으로 연구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군들은 출판물보급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모르고 외국출판물을 다른 물품을 사오는것처럼 수입해다가 마구 팔고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서적을 들여올것은 들여와야 합니다.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선진과학기술지식과 경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중한 고려와 타산없이 필요한것, 불필요한것을 가리지 않고 되는대로 들여오고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상교양사업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상업적견지에서 보고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런 페단을 빨리 없애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의하여 문화선전성에 도서관리국이 새로 나오고 거기서 상업성 도서상업관리국과 체신성 출판관리국이 하던 일들을 다 넘겨받아 출판물의 수입과 판매를 통일적으로 해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듯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심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출판물보급사업이 판매를 위주로 하던 낡은 상업적형태의 체계로부터 사상교양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출판물수요에 맞게 보급하는 새로운 체계로 전환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출판물보급사업은 당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한 고리로서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에 더 적극 이바지하게 되였다.

제7장 새형의 출판보도물 건설을 위하여

1

《당문헌을 내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당의 위력한 출판선전기지인 조선로동당출판사가 창립되여 두해가 지난 1947년 11월초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선전일군들을 친히 부르시여 당출판사사업을 전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나는 출판사가 창립된 이후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지어주신 조선로동당출판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그때부터 기자, 편집원들의 열의가 매우 높다는데 대하여서와 그동안 당출판사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자료들을 발행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였다고 그이께 보고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고 일군들을 고무하시면서 당출판물발행에서 일련의 성과가 있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출판사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출판사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당사상사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당출판물발행사업은 당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이며 그것은 매 시기의 당사상사업의 높이를 가늠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당창건초기부터 당출판사를 꾸리고 출판물발행사업을 강화하는것을 당건설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내세웠으며 이 사업을 계통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을 받아안으면서 나는 해방직후부터 당출판선전기지를 튼튼히 꾸리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신 그이의 불멸의 로고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되였다.

나라가 해방된지 한달이 좀 지난후인 1945년 9월하순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정형을 료해하시면서 당이 창건되면 출판선전기지가 있어야 한다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고 해결방도도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여러차례 부르시여 출판선전기지를 꾸리기 위한 준비사업정형을 알아보시고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손수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 력사에서 처음으로 당의 출판선전기지인 인민출판사가 나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출판사의 이름을 해방직후의 조성된 정세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처음에는 이렇게 달도록 하시였으며 공산당을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시키시면서 로동출판사라고 부르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그후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적출판물의 권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출판사이름도 정식으로 조선로동당출판사라고 밝히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7년 4월 어느날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조선로동당출판사라고 정식으로 밝힐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는 우리 당의 중요한 출판선전기관입니다.

당출판사를 단순한 업무기관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당출판사는 자본주의사회의 출판사들처럼 출판업으로 돈벌이를 하는 영업기관이 아닙니다.

당출판사는 다른 출판기관들과도 구별됩니다.

조선로동당출판사는 당문헌을 편찬발행하며 우리 당의 사상, 리론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는 당의 중요한 사상선전기관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의 사업과 직접 련결된 문필활동을 하는 당중앙위원회직속기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당출판사를 통하여 당문헌과 당선전교양자료들을 편집발행하여 우리 당의 사상, 리론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시려는 그이의 높은 뜻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의도를 옳게 체득하지 못했던 우리는 당출판사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당출판물발행사업을 잘해나가지 못하고있었다.

특히 출판사의 력량도 비할바없이 커지고 출판사이름도 당의 명칭까지 붙고보니 이것저것 하고싶은 생각이 많아졌다.

그리하여 당출판사에서 외국도서들도 많이 번역출판하게 되였다.

이것은 그 사명과 임무에 있어서 다른 출판기관과 구별되는 당출판사의 경우를 놓고볼 때 격에 맞지 않는 일이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매우 잘한 일로 여기면서 이 사

업에 적지 않은 힘을 넣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로부터 지난 2년동안의 당출판사 사업을 료해하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헤아리시고 당출판사의 기본사명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출판사는 당문헌을 비롯하여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는 여러가지 책자들을 발행하는 출판사입니다.

다시말하여 당출판사는 우리가 한 보고, 연설, 담화들을 책으로 발행하는 당문헌출판사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상교양자료들을 편집발행하는 당의 사상선전기관입니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당출판선전기관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 건설에서 독특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돌이켜보면 당출판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출판선전기지로 꾸려지고 자랑찬 자기 력사의 길을 걸어왔었다.

우리 당의 창건과 더불어 방금 꾸려진 인민출판사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뜨거운 념원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와 당의 기본구호인 《우리 민족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장군** 만세!》를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하는것으로부터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인민출판사는 1945년 10월 23일 해방직후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를 출판함으로써 해방된 조국땅에서 우리 당의 문헌을 편찬출판하는 새 력사를 펼치였으며 바로 이날 당출판사가 창립되였음을 온 세상에 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기 위하여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집필하시였으며 그것을 당출판사에서 편찬발행하게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 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조직위원회 일군들에게 《당문헌을 내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일깨워주시면서 첫걸음을 뗀 당출판사가 자기 사업을 옳게 수행해나가도록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당문헌이 출판되여나올 때마다 그것을 일일이 보아주시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으로 무장시킬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으며 일부 일군들의 무책임성으로 당문헌이 제때에 편찬출판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문헌편찬사업에 대하여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도록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조직위원회 제6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과업》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그이께 올렸을 때였다.

단행본은 설비도 변변치 않고 일군들의 수준도 높지 못하여 인쇄의 질이 최상으로 보장되지 못한것이였다.

그런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잘 만들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한장한장 번져가시며 그 내용으로부터 표지장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보아주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문헌을 이렇게 책으로 출판해야 당조직들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학습을 조직할수 있고 당원들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연구학습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선전부에서 당문헌을 책으로 출판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한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중요한 연설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8.15해방 1주년 평양시경축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대회가 있은지 20일이 넘도록 신문에 발표되였다는것으로 하여 편찬발행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6년 9월초 어느날 우리들을 부르시여 당문헌편찬에 대한 옳은 립장과 인식을 가지도록 따뜻이 일깨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신문에 전문이 나갔다고 하여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당문헌들을 책으로 내지 않으면 사상사업에서 주동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문헌을 책으로 만들라고 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가장 영향력있는 정치적량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우리 당의 사상, 리론으로 조선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시려는 한없이 숭고한 뜻이 담긴 귀중한 말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유일한 투쟁강령이며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인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당문헌을 체계적으로 편찬출판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가장 고귀한 혁명적량식을 줄수 있으며 그들이 조선혁명에 대한 옳은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힘차게 투쟁하도록 고무할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문헌을 발행하는것이 출판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당출판사를 당문헌출판사라고 규정해주시였으며 당문헌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더 많이 출판할데 대한 과업을 주신것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시는 당출판사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깨닫고 당문헌들을 더 많이 발행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안게 된 우리는 크나큰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문헌편찬출판사업을 더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그이께 정중히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출판사 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다시금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앞으로 당출판사에서는 해당시기의 당사업, 당사상교양사업의 기본방향에 엄격히 립각하여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것을 더 많이 내는 원칙에서 일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이날 당출판사 사업을 깊이 료해하시고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당문헌을 발행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당사상사업, 당출판선전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출판사 사업에서는 그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실 때마다 제때에 편찬발행하였으며 그이의 문헌집들도 여러가지 형식으로 출판하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는 도서들과 혁명전통교양자료들, 당교양망학습자료들과 당의 강연, 선동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편집발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해방직후의 그 어려운 나날부터 당출판사에서 발행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우리 당의 력사적문헌들은 새 조국 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들은 물론 새생활창조를 위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투쟁의 기치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오늘도 그들을 승리에로 고무하는 참다운 교과서로 되고있다.

《정로》는 우리 당 정책의 옹호자, 선전자

우리 당보 《로동신문》의 첫 제호는 《정로》였다. 정로란 곧 인민들에게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을 잘 알려주고 대중을 옳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이 제호에는 우리 당이 갓 창건되였던 그때 당기관지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가 가장 뚜렷하게 표현되여있었다. 당보는 이 뜻깊은 제호와 함께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인민들에게 깊이 해설침투시키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 자기의 첫걸음을 자랑차게 내디디였다.

그무렵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 당사업을 배우면서 한편 《정로》의 글을 쓰는 과업도 맡아수행하고있었다.

그러나 나는 짧은 기간을 통하여서도 당보가 우리 당정책의 옹호자, 선전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하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를 가슴깊이 체득할수 있었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감격도 새롭던 어느날이였다.

새 조국 건설의 전반사업을 이끌어나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를 친히 부르시여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하여 의논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먼저 나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나서 해방된 조국의 현실과 당앞에 나선 과업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주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해설침투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사상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당보편집발행사업이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는 당보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정로》사의 형편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정로》에 글을 쓰는 일군들이 적은 조건에서 동무는 당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당분간 당보의 글도 한몫 맡아 써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나는 인차 대답을 올릴수가 없었다. 사실 글을 써본 경험이 별로 없었던 나에게 있어서 이 과업은 여간만 어려운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당보사업이 그이께서 당건설과 혁명위업수행에서 매우 중요하게 내세우시는 사업이라는것을 생각하니 나는 자신이 지닌 무거운 책임을 새삼스러이 느끼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창건을 앞두고 벌써 당보창간사업을 동시에 다그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이 빨리 추진되고있습

니다. 당이 창건되면 당보도 곧 내와야 합니다.

당보는 당의 수중에 장악된 예리한 사상적무기이며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수단입니다. 당보를 창간해야 당의 로선을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킬수 있으며 대중을 새 조국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보를 창간하는 사업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간곡한 교시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 당이 창건된지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당보 《정로》가 창간되여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처럼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세심히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시는 당보편집사업에 참가한다는것은 참으로 영예롭고 보람찬 일로 될것이였다.

그리하여 나는 그이께 모든 힘과 정력을 다 바쳐 어버이 수령님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씀올렸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물론 동무가 글을 써본 경험은 없겠지만 글쓰는 일을 신비롭게 여길것은 없다, 사상을 뚝바로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잘 쓸수 있다고 하시면서 《신문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는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해설선전해야 할 당보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가 뚜렷이 밝혀져있었다.

당시는 당보가 갓 창간된 때여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해설선전해야 할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보를 통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해설침투하기 위한 사업을 반당종파분자들이 각방으로 방해하였

다. 당보편집일군들의 준비정도도 매우 미숙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해방전부터 출판보도부문에 종사해온 사람들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낡은 사회에서 신문편집사업을 하던 관점과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있었으며 새형의 당적출판보도물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글을 쓰고 편집하는 립장과 자세가 옳게 서있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형편을 깊이 헤아리시고 당보가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면서 당보일군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에 뜨거운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의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당보편집일군들을 친히 만나시여 글을 쓰고 편집하는데서 옳바른 관점과 자세를 가지도록 따뜻이 깨우쳐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1945년 12월중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당중앙조직위원회의 집무실로 나를 또다시 불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전부에서 일을 해보니 어떤가, 신문에는 어떤 글을 써주었는가고 하시면서 《정로》의 편집사업형편을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당건설과 새 조국 건설에서 당보가 놀아야 할 역할에 대하여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보는 당의 위력한 선전수단이며 혁명과 건설의 유력한 무기입니다.

계급적원쑤들이 반동선전을 강화하고있으며 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이 도처에서 좌우경적구호를 들고 대중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려고 책동하고있는 오늘의 복잡한 정세에서 당보앞에는 우리 당의 정치로선을 당원들과 대중

속에 정확히 해석선전하고 그 실현에로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당시 《정로》편집사업에서는 당보의 숭고한 사명에 어긋나는 편향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었다. 우선 《정로》에 나가는 글들을 보아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있게 해설하는 글들은 많지 못하고 대부분 국내소식이나 다른 나라의 형편과 경험을 소개하는 기사들이였다. 그리고 기자들도 자기 머리로 우리 실정에 맞게 글을 쓰는것이 아니라 적지 않게 남의것을 모방하여 글을 쓰고 편집하고있었다. 그러다나니 당보가 자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에게 깊이 해설침투시켜야 할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보편집발행사업의 이러한 실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당보가 나아갈 앞길과 글을 쓰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을 환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당보가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그가운데서도 1945년 12월 당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때에 있은 일은 지금도 나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다.

갓 창건된 당을 강철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시기 위해 력사적인 당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로》가 이 회의에 대한 보도사업을 잘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나에게 회의와 관련한 글을 써서 《정로》에 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보고에서 각급 당단

체들의 사업에서 달성한 성과와 발로된 결함, 특히 조직로선 관철에서 나타난 결함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의 책동을 극복하고 당건설과 당조직정치사업 전반을 추켜세우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회의가 끝난날 저녁이였다.

선전부사무실에서 신문에 낼 글을 어떻게 쓸것인가 하고 머리를 짜고있던 나는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의 집무실로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 대한 글때문에 불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조성된 정세로 보아 기사에서는 새 민주조국 건설과 완전독립을 위하여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반동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친일파, 이색분자들과의 투쟁을 계속 강화하며 광범한 근로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데 대하여서도 중요하게 언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토의된 문제의 중심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글을 쓰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으니 집필방향과 그 중심사상이 머리속에 환히 떠올랐다.

그런데 한가지 난처한 일은 회의도중에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들을 제대로 다 받아쓰지 못한것이였다. 그때는 록음기도 없었고 나자신이 속기술도 아직 배우지 못하고 있었다.

참으로 딱한 일이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대한 수령님께 그대로 말씀올리자니 송구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새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시고 회의도중에 하신 교시내용을 다시금 차근차근 말씀하

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정로》 1945년 12월 21일부는 력사적인 당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 대한 사설과 기사들로 특집되였다.

그리하여 신문은 제1면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회의에서 제시하신 그이의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로선을 해설하는 글들을 게재하였다.

이처럼 우리 당보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우리 당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인민들속에 철저히 침투시키며 대중을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우리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수행해나갈수 있었다.

《〈근로자〉는 우리 당의 사상리론을 들고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던 1955년에 있은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선전일군을 부르시여 당리론기관지 《근로자》의 편집발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근로자》에 실린 론설들을 읽어보았는데 아직도 편집방향이 똑똑치 못하고 당의 의도가 글에 명백히 반영되지 못한것 같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근로자〉가 주체문제를 가지고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광

범히 선전해야 합니다. 주체문제를 가지고 쓴 똑똑한 글이 별로 없습니다.

당이 내놓은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깊이있게 해설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에는 잡지 《근로자》의 편집사업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이 뚜렷이 밝혀져있었으며 수령님께서 몸소 심혈을 기울이시여 창간하신 《근로자》가 우리 당의 정치리론잡지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데 대한 그이의 커다란 기대가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당창건준비사업을 추진시키시던 그 바쁘신 나날에 당출판사와 당보와 함께 당의 리론잡지를 내올데 대한 구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당시 정세는 어렵고 복잡하였다. 특히 당이 창건된 다음 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은 우리 당의 정치로선 관철을 각방으로 방해하면서 좌우경적구호를 들고나와 인민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려고 책동하였다.

온갖 계급적원쑤들은 반동선전을 일삼으면서 인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려고 날뛰였다.

이 복잡한 정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정치로선을 정확히 해설선전하며 그들을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당의 리론선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리론잡지창간준비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이끄시였다.

1945년 12월 어느날, 당중앙조직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신 그이께서는 당의 목소리를 인민대중속에 신속정확히 알려주기 위하여 당보를 주간으로부터 일간으로 전환하며 당

의 리론잡지를 내오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아직 리론선전일군들이 준비되여있지 못한 조건에서 당의 정치리론기관지를 낸다는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두가 달라붙고 관심을 돌리면 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리론선전일군들을 길러내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그후 당의 정치리론잡지의 편집일군대렬을 꾸리며 리론선전일군들을 키우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였다.

그런데 종파분자들이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으로부터 우리 당의 정치리론잡지 창간을 위한 준비사업을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한편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일부 일군들은 남의것만 쳐다보면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선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돌리지 않고있었다.

그리하여 인민정권의 수립과 제반 민주개혁 실시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공산당을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이 진행되던 때에도 이에 대한 리론선전을 옳게 하지 못하고있었고 당의 정치리론잡지도 아직 내오지 못하고있었다.

사태는 너무도 한심하였으나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할 나자신이 이에 대한 옳은 인식과 확고한 주견을 못가진채 그냥 바삐 돌아가기만 하였다.

이러한 때인 1946년 7월하순 어느날이였다.

이날 오후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다.

당시는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한

창 추진되고있던 때여서 그이의 책상우에는 방금 보시던 문건들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정치리론잡지창간준비사업정형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선전사업에서 발로되고있는 결함과 당의 정치리론잡지를 내올 필요성에 대하여 차근차근 깨우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덮어놓고 남을 쳐다보면서 남의 나라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우리 당의 정책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우리나라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발전시킨것입니다.

우리 당 정책을 대대적으로 해석선전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그때까지 우리의 출판보도선전에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동떨어진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있었다.

무엇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침투하는 사업이 매우 미약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있는 거대한 사회경제적변혁과 그 의의를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대신 맑스-레닌주의일반원리를 해설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소개선전하는 글들이 많이 나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우리 혁명의 업적과 경험을 깊이있게 분석하고 리론적으로 전개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당의 리론선전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당보외에 당중앙위원회 리론잡지를 꼭 내와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석선전하고 그 정

당성과 생활력을 리론적으로 전개하여 일반화하며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는데서 그 잡지가 큰 역할을 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힘주어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근로자》의 창간준비사업을 다그치도록 가르치시면서 필요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이해 8월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에서는 당의 정치리론잡지 《근로자》를 창간할데 대한 결정서까지 채택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근로자》창간준비사업은 1946년 9월하순에 들어서면서 마감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9월 24일이였다.

이날 오전에 당의 리론잡지를 빨리 편집발행할데 대하여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녁때 또다시 《근로자》 첫호에 넣을 론설들의 준비정형을 알아보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얼마전에 진행한 공산당과 신민당과의 합당사업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립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초미의 과업으로 나서고있습니다.

합당직후에 창간되는 정치리론기관지 《근로자》는 마땅히 첫호부터 이러한 문제를 들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한 글을 준비한것이 있는데 《근로자》의 첫호에 내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 나를 부르시여 그 친필원고를 안겨주시면서 《근로자》의 첫호 발행공정을 다그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로작원고에는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남조선로동당의 창건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활달한 필치로 큼직큼직하게 씌여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로작은 당시 우리 나라 혁명발전과 당건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고있던 문제, 북조선에서 창립된 로동당을 강화발전시키며 남조선에서 로동당의 창건을 빨리 해결할데 대한 문제를 심오한 사상과 설득력있는 분석, 정연한 론리로 전면적으로 해명한 력사적인 로작이였다.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근로자》가 당의 정치리론기관지로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당과 혁명이 제기하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를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는 빛나는 모범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10월초 어느날 《근로자》창간호의 편성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주시면서 예견되였던 일부 론설제목들 대신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와 관련한 문헌들을 첫호에 싣도록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946년 10월 25일 우리 당의 정치리론기관지 《근로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에서 하신 보고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와 결론 《로동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그리고 평안남도당열성자회의에서 하신 연설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의 총화에 관하여》와 그이의 론문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남조선로동당의 창건 문제에 대하여》를 앞자리에 싣고 발행됨으로써 그의 창간을 세상에 선포하게 되였다.

그러나 창간된 《근로자》가 당의 정치리론기관지로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일부 편집일군들은 남의것만 쳐다보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였으며 지어 당기관지를 부르죠아출판물처럼 만들려는 경향까지 나타났었다.

바로 이러한 실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정치리론잡지의 기본임무를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시면서 《근로자》의 편집사업을 개선하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창간호는 물론 매호마다 《근로자》의 편집내용을 일일이 다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군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7년 4월 어느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였다.

《〈근로자〉의 기본임무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리론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해석선전함으로써 당원들과 대중들을 우리 당의 사상과 혁명리론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두리에 그들을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어디까지나 우리 당의 위력한 혁명적리론의 힘으로 대중을 이끌고 교양하여야 하며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근로자》의 편집사업에서 이러저러한 편향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리론선전사업을 잘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자》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쓴 글들을 지나치게 많이 편집할 때에는 《〈근로자〉는 우리 당의 사상리론을 들고나가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리론기관지편집에서 주체적립장을 지키도록 가르치시였으며 잡지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많이 취급할 때에는 우리의 경험을 많이 소개하고 우리의것을 위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근로자》에 나가는 글들을 친히 보아주시면서 잘된것은 무엇이고 잘못된것은 무엇인가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모든 론설들의 글줄마다에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독창성과 정당성이 힘있게 론증되도록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전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확립문제가 더욱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던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근로자》 편집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교시를 주심으로써 당의 정치리론기관지가 주체사상선전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정력적인 지도와 뜨거운 심혈로 하여 《근로자》는 우리 당의 위력한 정치리론기관지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었으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여 조선혁명의 주체를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민주조선》에 축하문을 보내주시며

신문 《민주조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에 몸소 창간하여주신 당적출판보도물의 하나이다. 특히 신문은 그 창간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축하문을 받아안고 정중히 편집한 끝없는 영광속에 자기 력사의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아래 힘있게 추진되여온 신문 《민주조선》의 창간준비사업은 1946년 6월초에 이

르러 마감짓게 되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정부기관지창간준비사업이 끝났다는것을 보고드리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문창간준비가 다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수고했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다가 신문 《민주조선》은 정부기관지인것만큼 자신께서 직접 축하문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면서 다음날 아침 그 원고를 신문사에 가져다주라고 하시는것이였다.

나는 끝없는 감격을 안고 돌아와 이 사실을 신문편집집단에 알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축하문을 정중히 게재할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다음날 아침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로 간 나는 그이께서 주시는 친필로 된 축하문을 받아안게 되였다.

《신문 〈민주조선〉은 새 조선 건설을 위한 옳바른 지침이 되라》

활달한 필체로 이렇게 시작된 축하문의 글줄을 더듬는 순간 나는 정부기관지창간사업을 그토록 중하게 여기시여 간밤도 지새우시며 원고를 쓰시였을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가 헤아려져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적시였다.

참으로 신문 《민주조선》을 내오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는 끝없이 깊고도 큰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축하문을 안고 돌아오는 나의 머리에는 신문 《민주조선》 창간을 준비하던 지난 나날에 있은 가지가지의 일들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졌다.

정부기관지를 창간하는것은 해방후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의 출판선전기지와 기관지들을 내오는 사업에서 겪은것과 마찬

가지로 그 첫걸음부터 수많은 난관과 애로를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난관과 애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한것이라 할지라도 추호의 드팀도 없이 정부기관지창간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1946년 3월중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의 집무실로 갔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부기관지창간을 위한 준비사업정형에 대하여 세세히 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물으심대로 사업정형을 보고올리는 나의 마음은 그사이 적지 않은 시일이 지나갔으나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것으로 하여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두고 책망하실 대신에 오히려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면서 힘주어말씀하시였다.

《지금 반동파들과 반당종파분자들은 우리가 혁명적출판물을 가지는것을 총이나 대포를 가지는것보다 더 무서워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출판물이 놈들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가장 예리한 사상적무기이기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난관앞에서 주저앉을것이 아니라 맞받아나가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방안을 거니시다가 료해한데 의하면 지방들에 인쇄설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잘 내놓지 않는 모양이라고 하시면서 도당책임비서들한테 전화를 걸어줄테니 인쇄설비를 받아다가 신문창간을 위한 준비를 더 다그쳐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우리를 부르시여 신문을 발간할수 있는 준비가 되였는가 알아보시면서 이제 창간하게 될 정부기관지가 중앙신문으로서의 면모를 손색

없이 갖출수 있도록 편집 내용과 형식으로부터 지면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한편 걸린 문제들을 손수 풀어주시였다.

1946년 5월하순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정부기관지창간을 빨리 다그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먼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다음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이 자기의 신문을 하루속히 가질 필요성과 그 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기관지의 제호를 어떻게 달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창간될 정부기관지의 제호를 무엇이라고 달면 좋겠는가고 허물없이 물으시며 우리 함께 의논해보자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서로들 자기들이 생각한바를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드렸다.

어떤 사람은 《로농신문》이라고 하면 좋을것 같다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조선민보》, 《민족시보》라고 달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제기된 의견들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우리는 신문의 제호를 하나 다는것도 어디까지나 주체적립장에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맞게 달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초혁명적인 구호밑에 좌경적편향을 범하여도 안되며 과거의 신문을 그대로 본따려는 우경적편향을 범하여도 안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제기된 의견들이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로농신문》은 우리 혁명의 현단계를 뛰여넘은 초혁명적인것이며 《조선민보》나 《민족시보》는 지난날의 신문을 그대로 본딴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문제호 하나 제대로 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는 우리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 생각에는 신문이름을 〈민주조선〉이라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민주조선건설을 당면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민주조선을 건설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 예속자본가 등 반동파들을 제외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다 커다란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습니다. 신문의 이름을 〈민주조선〉으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리해할것이며 그들은 신문을 자기들의 친근한 벗으로, 교사로 인정하고 애독하게 될것입니다.》

《민주조선》,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 혁명의 현단계에 맞는 신문의 성격과 사명이 선명하게 안겨오고 불러보면 볼수록 우리 인민의 지향과 생활감정이 정확히 반영된 다정한 이름이였다.

나는 불과 넉자밖에 안되는 한 신문의 제호에도 그렇듯 심원한 뜻을 담으시여 그 성격과 사명을 뚜렷이 밝히시고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기호까지도 완전무결하게 반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끝없는 감격과 기쁨을 안고 회의장에서 돌아온 우리는 낮에 밤을 이어 신문발행준비를 다그쳤으며 마침내 창간의 날을 맞이할수 있게 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축하문을 정중히 안고 내가 신문사에 도착하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문창간에 즈음하여 친필로 된 축하문을 보내주시였다는 소식이 삽시에 전해져 신문사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 모두의 가슴마다에 끓어넘치는 감격과 흥분의 파도를 일으켰다.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의 구절구절을 심장깊이 새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축하문에서 해방후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과정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신문 《민주조선》의 성격과 사명, 그 활동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기관지로서 발간되는 신문 〈민주조선〉은 새 조선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에게 복무하며 우리 인민을 민주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건국사업에로 불러일으키는 참다운 선전자, 선동자, 조직자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띠고 나온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조선〉은 공장, 광산, 어장, 도시, 농촌 할것없이 방방곡곡의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참다운 벗이 되고 참다운 스승이 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생활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들의 요구를 정당히 해결해주기 위하여 힘쓰며 인민들의 사상과 감정을 민주주의적방향으로 이끄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민주조선〉은 모든 반민주주의적이며 반민족적인 반동세력과 그들의 반동적선전을 짓부시는 강력한 무기로 되여야 한다.》

마디마디에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축하문을 받아안은 신문사의 모든 일군들은 그이께서 밝혀주신 신문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불타는 충성의 결의를 다졌다.

마침내 1946년 6월 4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 속에서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의 창간호가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신문 제1면의 가장 좋은 자리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께서 친히 보내주신 축하문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그옆에는 《김일성장군 유격대전사》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으며 축하문아래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20개조정강》을 게재하였다. 이것은 신문 《민주조선》이 그 첫걸음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는 당적출판보도물로서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을 뚜렷이 하면서 세상에 태여났음을 보여주었다.

《민주조선》창간호가 나온 날 아침 나는 인쇄잉크냄새가 그대로 풍기는 창간호를 가슴에 안고 곧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달려갔다.

창간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주 훌륭하다고, 편집도 눈에 띄게 잘하였다고 치하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처럼 바라던 정부기관지를 가지게 되였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못내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간된 신문에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위한 사상적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신문사동무들이 창간호를 내느라고 밤을 꼬박 새웠겠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겠는데 그 동무들에게 나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인사를 전달하였을 때였다.

신문사 기자, 편집원들은 모두 너무도 기쁘고 가슴이 벅

차올라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다.

그것은 정녕 우리 조국 력사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인민의 정부기관지를 마련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환호였으며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그들의 열화같은 충성의 맹세였다.

2

보도선전에서 모방주의편향을 바로잡아주시려고

1947년초 어느날이였다. 이날은 마침 일요일이여서 사람들이 마음껏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요일의 휴식마저 뒤로 미루시고 통신사에 나가보자고 하시며 해방산에 자리잡고있던 통신사를 찾아주시였다.

당시 통신사는 새 청사로 옮겨온지 얼마 되지 않아 안팎의 정리도 잘되지 않았었다.

이날도 이곳 일군들은 모두 나와서 한시도 중단할수 없는 통신보도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청사를 정리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통신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끓어넘치는 감격에 휩싸여있는 이곳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모두들 건강한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이 이곳에 온후 곧 나와보자고 했는데 일이 바빠서 와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현관으로 들어서시였다.

맑고 푸른 대동강과 수려한 모란봉이 한눈에 안겨오는

청사동남쪽 외랑복도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시내를 부감하시고 경치가 좋다고, 통신사는 문화기관이니 이런곳에 있어야 한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통신사의 매 방들을 돌아보시며 이곳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이윽고 중앙복도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신사 창립이후의 사업정형에 대하여 이곳 일군들에게 세세히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그동안의 사업정형을 그이께 보고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통신사를 창립하여주신 이후 이곳 일군들은 첫 통신을 세계에 날린데 이어 통신보도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었다.

그러나 통신보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도 경험도 없었던 그들은 당과 정부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어떻게 하면 다할수 있겠는가를 잘 모르고있었을뿐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가지 실천적문제들앞에서 모대기고있었다.

당시 정세는 매우 긴장하고 어려웠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감행하면서 통일적인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수립을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한편 반당종파분자들은 저들의 추악한 목적에 출판보도물을 리용하려고 날뛰면서 출판보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혼란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걸음을 내디딘 통신보도사업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정부의 대변기관으로서, 세계여론을 선도하는 국제언론기관으로서 통신사의 역할을 높이며 통신보도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과업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그러신 그이께서는 통신보도사업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너무도 허물없이 인자하게 대해주시는데서 어려움을 잊은 한 일군은 우리가 외국통신의 경험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사실 당시는 통신사가 갓 창설되여 첫걸음을 내디디던 때여서 력량도 부족하고 기술수단들도 제대로 갖추어있지 못하였다. 게다가 우리 일군들속에는 남의것만 쳐다보고 그것을 모방하거나 통채로 삼키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사상경향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리하여 통신보도사업에서는 남들이 하는것을 그대로 따르는 현상이 적지 않았다. 국제문제를 취급하는데서 다른 나라의 통신자료들을 그대로 리용하고있었으며 지어 국내문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통신의 본을 따고있었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일군들은 그것이 잘못된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보도일군의 질문에서 통신보도사업을 진행하는 일군들의 립장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깊이 헤아리시였다.

생각에 잠기시였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윽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통신보도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합니다. 보도사업에서 물론 외국의 경험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해야 합니다. 남의 말만 듣고 보도사업을 하거나 남의 형식만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보도기사 한건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으로 써야 합니다. 통신보도사업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것이 주가 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교시를 받아안게 된 우리는 지난날 그릇된 관점에 사로잡혀있던 자신들에 대한 깊은 자책감과 함께 우리 당의 목소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통신보도의 역할을 높일수 있는 앞길이 환히 안겨와 크나큰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는 나의 머리속에는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 선히 떠올랐다.

2월 26일이였다. 이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책상우에는 방금 보시던 신문들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문편집에서 고쳐야 할 문제가 있기에 동무를 불렀다고 하시면서 신문들을 다시금 살펴보시며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펼쳐놓으신 신문을 가리키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요즘 신문들에서 다른 나라를 소개하는 글을 고려없이 마구 싣는것이 큰 결함입니다.

우리의 민주건설에 도움을 주는것이건 안주는것이건 가리지 않고 다른 나라를 소개하는 글을 맹목적으로 실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것은 싣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소개하는 글을 싣는다해도 너무 많이 싣지 말고 우리의 민주건설에 직접 도움을 줄수 있는것만 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요하게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 벌어지고있는 좋은 소식들을 더 많이 싣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다.

3월중순 어느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조선사의

한 일군을 부르시여 외국통신이 날린 자료들을 그대로 많이 받아물고있는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신문에 다른 나라의 자료보다도 우리의것을 더 많이 소개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신문사에 지방부를 내오고 각지의 통신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게 하신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글을 더 많이 싣고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있는 새로운 소식들을 광범히 소개선전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신문편집사업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도록 이처럼 그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이날 이번에는 통신사에 몸소 찾아오시여 우리의것이 주가 되여야 한다고 통신보도활동의 원칙을 명철하게 밝혀주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신문, 통신,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선전에서는 우리의것을 위주로 하는 주체의 원칙이 점차 서가게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질수는 없었다. 우리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낡은 사고방식은 뿌리깊은것이였으며 신문, 방송, 통신에서는 남의것을 그대로 받아무는 현상이 오래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바쁘신속에서도 일군들과 기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시고 손잡아이끌어주신 그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서만 출판보도선전에서 주체의 원칙이 확립되고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전쟁시기인 1951년 8월에 있었던 일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있다.

그때 우리는 전쟁의 장기화와 관련하여 통신보도사업을 더욱 강화할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있을 통

신사 특파원을 더 늘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관련한 문건을 작성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올렸다.

문건을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부르시여 제기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을 하고있는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전선과 후방의 소식을 내외에 더 많이 소개해야 할 통신보도의 임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애로운 시선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다른 나라를 소개하는 특파원의 기사 몇건보다 싸우는 조선을 소개하는 한건의 기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통신사동무들은 지금 조선에서 할 일이 더 많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몇건의 기사보다 싸우는 조선을 소개하는 한건의 기사가 더 중요하다는 이 말씀, 천만근의 무게를 가지고 심장을 뜨겁게 울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이 말씀을 받아안게 된 우리는 저절로 머리가 숙어짐을 느꼈다. 당시 전쟁의 엄혹한 시련을 헤치며 싸우는 우리 인민들은 매일과 같이 전선과 후방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다. 전세계인민들도 청소한 조선이 어떻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맞서 싸워이기는가에 대하여 경탄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싸우는 조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싸우는 조선의 소식, 영웅적인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투쟁과 승리의 소식을 전파에 담아 내외에 널리 소개선전하는것은 우리 통신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의 구체적형편과 정세의 요구, 내외인민들의 지향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있을 특파

원만을 더 늘이려고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지각이 없고 주객이 전도된 행동이였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몇건의 기사보다 싸우는 조선을 소개하는 한건의 기사가 더 중요하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고서야 우리는 모든것을 조선혁명으로부터 출발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깊이 체득할수 있었으며 어디까지나 우리의것을 기본으로 선전할데 대한 보도사업의 원칙을 심장깊이 새길수 있었다.

우리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바로 이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선혁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었다.

《이런 영웅담을 많이 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일군들에게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진리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있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명언이다.

나는 그 말씀의 진리성을 산 생활속에서 그것도 자신의 구체적인 사업과정에서 체험하였다.

그가운데서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생생한 표상으로 간직되여있는 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1953년 2월초, 신문《민주조선》에는 《몸으로 화구를 막고 또다시 복수전에로!》라는 김성진영웅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세상에 나가자마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전쟁사상 아직 불을 뿜는 적화구를 몸으로 막은 용사가 다시 소생하여 복수전에 떨쳐나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있다는것과 함께 바로 그런 기적이 우리의 영웅적인 조선인민군 군인들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높은 긍지로 하여 그토록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이 시기 전선형편을 보면 미제는 당치않은 구실로 정전담판을 지연시키면서 그 시간적공간을 리용하여 모험적인 《신공세》를 준비하는데 열을 올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이런 간계를 제때에 꿰뚫어보시고 적들과 대치한 모든 전선에서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벌려 타격을 가함으로써 놈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신공세》기도를 완전히 짓부셔버릴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전전선에 걸쳐 적들이 차지하고있는 고지들에 대한 습격전투가 세차게 벌어졌으며 적들은 수많은 고지들을 잃고 뒤로 물러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그이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목숨으로 옹호관철할 불같은 각오를 안고 습격전투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였다.

그러던 1953년 1월 어느날이였다.

적들의 고지에 대한 습격전투에 참가한 한 전사가 불을 뿜는 화구를 가슴으로 막고 의식을 잃은채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였다.

그 영웅전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를 살려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곧 중앙의 유능한 군의일군들을 파견하시는 한편 귀중한 약까지 보내시여 그를 소생시키도록 크나큰 배

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사랑은 죽음을 이겨내는 불사의 힘이 되여 며칠동안이나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전사는 드디여 의식을 회복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그에게 인삼을 비롯하여 몸을 빨리 추세우는데 특효가 있는 여러가지 보약들을 보내주시였다.

그리하여 영웅전사는 위대한 사랑을 심장에 받아안고 기적적으로 몸을 추세우고 또다시 복수전에로 달려나갈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며 따라서 제 정신을 가진 사람치고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거나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사상체계가 모호하고 우리는 남만 못하고 큰 나라, 앞선 나라에서 이룩하지 못하는 기적은 우리 나라에서도 이룩할수 없다고 생각하는자들, 말하자면 사대주의에 물젖어 완전히 머저리가 된자들만은 그 엄연한 사실을 믿지 못하였으며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김성진영웅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이 나간지 며칠 되지 않아 내각서적출판지도국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전화로 말하기를 그 영웅담이 실린 신문을 빨리 회수해야겠다는것이였다.

그 론거인즉 아직 전쟁력사에 불을 뿜어대는 적화구를 몸으로 막고 살아났다는 사실은 있어본 일이 없다, 제2차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에서도 있어본 일이 없는데 항차 조선전쟁에서 어떻게 그런 기적이 생길수 있겠는가, 또 앞선 사회주의나라에서도 없었던 일인데 해방을 맞은지 불과 5년밖

에 안되는 조선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수 있겠는가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그 신문을 회수하지 않으면 나라망신을 시킬수 있다고까지 하였다.

그것은 참으로 큰 나라앞에 허리도 못펴고 엎드려사는 가련한자의 잠꼬대였다.

나는 그 영웅에 대한 기사내용이 실재한 사실이라는것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말을 하였지만 이미 제 정신을 줴버리고 남의 정신으로 산지 오래인 그에게 통할리가 없었다.

신문을 회수하는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였으므로 나는 이 사실을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나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더니 완전히 머저리가 되였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성진영웅에 대한 글을 낸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런 영웅담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 기사는 우리 인민들에게 당에 대한 충실성,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글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전쟁력사에도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이런 좋은 영웅담을 소개해준데 대하여 매우 기뻐하고있으며 그 영웅전사처럼 미제를 복수하는 싸움터로 달려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습니다. 선전사업은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신문에 소개된 영웅전사를 두차례나 몸가까이 부르시여 11발의 총탄이 뚫고나간 험한 상

처자리도 일일이 만져보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후에 열린 내각전원회의에서 있은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우리 인민이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강대한 원쑤들을 격멸하고 계속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무비의 영웅성과 고도의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싸운 결과라고 하시면서 김성진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얼마전에 신문 《민주조선》에 그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아주 잘 썼다고 하시면서 그는 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고 아군의 진격을 보장하였으며 그의 가슴은 11개의 탄알이 뚫고나갔으나 그는 죽지 않고 다시 소생하여 원쑤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겨주고있다고 힘주어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것은 어느 민족의 력사에도 어느 나라 전쟁사에도 없는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기사를 신문에 낸데 대하여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11발의 총알을 맞으면서 적의 화구를 막은 사람이 살아날수 있는가. 이것은 기적이라기보다 허위에 가까운 일이며 리해할수 없는 과장된 사실이라는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제정신이 없이 남의 정신으로 사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세계전쟁사에 없는 사실이 어찌 조선전쟁에서 창조될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조선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무엇이 모자랍니까? 조선사람은 외국사람보다 꼭 못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장내를 둘러보시였다.

사대주의병에 걸린 사람들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용하나 천만근의 무게가 실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사실 이 동무의 영웅적위훈은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전사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웅이 죽었으니 조선의 영웅도 꼭 죽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고하는 자체가 사대주의입니다.

영웅이 적의 화구를 막고서도 살아났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 나쁠것이 무엇입니까?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사람만이 이와 같은 엄연한 사실을 보지도 못하며 믿지도 못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영웅에 대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회수할것이 아니라 더욱 널리 선전하여 모두가 그처럼 당과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힘주어말씀하시였다.

그러신 그이께서는《내가 오늘 동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은 전쟁승리에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하고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것을 더 많이 내세우고 우리의것으로 교양사업을 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일군들은 남의 얼굴을 쳐다보거나 남의 장단에 춤을 출것이 아니라 맑은 제정신을 가지고 우리 장단에 우리 춤을 추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김성진동무의 투쟁이야기와 같은 영웅담을 더 많이 써내야 하겠습니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일부 사람들에게서 발로된 사대주의적경향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우리 선전일군들속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있는 그러한 사상적병집을 수술해내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런 은정어린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우리는 조선혁명, 우리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사상선전사업을 벌려나가야 한다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더욱 튼튼히 세울수 있었던것이다.

대외선전의 방향을 밝히시여

혁명과 건설에서 출판물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민을 새 조국 건설투쟁에로 이끄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외선전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6년 5월 북조선 각 도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선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으며 현재는 어떻게 살며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있으며 장차 어디로 나아가려 하는가를 쏘련, 중국 기타 나라 인민들과 전세계 피압박민족들에게 선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진영국가들과 친선 및 협조 관계를 맺으며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동정과 지지를 받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당시 대외선전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였다.

원쑤들의 온갖 침략과 모략 책동을 짓부시고 부강한 민

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섰다.

대외선전을 잘해야 세계인민들에게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주고 그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여 국제적으로 우리 혁명위업을 지지성원하는 련대성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게 할수 있었다.

대외선전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에는 이 사업을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보시고 그것을 힘있게 벌려 우리 혁명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으시려는 그이의 높은 뜻이 담겨져있는것이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에 온갖 힘을 기울이면서 대외선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던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대외선전의 위력한 수단인 외국문출판물을 발간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대외선전출판기관을 창설하고 외국문출판물을 내오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갖추어야만 하였다. 그러자니 곤난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부사업을 맡아보게 된 나는 대외선전출판물발간을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시켜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였으나 너무나도 걸리는 문제가 많아 공화국이 창건되고 문화선전성이 나올 때까지도 외국문출판물을 발행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외선전출판기관을 창설하며 외국

문출판물을 발간하는 길에 가로놓인 난관들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하나하나 다 세워주시였으며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1948년말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여 대외출판물발간준비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외선전출판물을 하루빨리 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외선전출판물은 지금 우리 나라 출판부문의 형편으로 보아 우선 잡지부터 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의 실태를 외국사람들에게 널리 소개선전하는 잡지를 새로 발간하여야 하겠습니다.

잡지의 제호는 〈새조선〉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로어로만 내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력량이 준비되는데 따라 점차 중어, 영어, 일어로도 내고 다른 여러 나라 말로도 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귀중한 말씀에서 우리는 대외선전출판사업을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다.

사실 외국문출판물발간 준비에 착수하였을 때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 나라의 어제와 오늘을 전면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도서를 만들어 내보내야 우리 나라를 외국사람들에게 깊이있게 소개선전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에 관한 사전을 만드는것과 같은 매우 방대한 사업으로서 력량도 문제이고 기간도 여러해 걸려

야만 해결될수 있는 일이였다.

다른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형편을 그때그때 신속히 보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문으로 된 신문을 낼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것도 그때의 번역력량과 인쇄설비로 보아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이였다.

바로 이럴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잡지부터 발행하며 그것도 한개 나라 말로 시작하여 번역력량이 준비되는데 따라 그 잡지를 여러 나라 말로 더 낼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던것이다.

그후 외국문잡지발간 준비사업은 더욱 힘있게 추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마침내 1949년 12월 오늘의 외국문종합출판사의 전신인 새조선사가 창립되였다.

새조선사는 우리 나라의 첫 대외선전출판기관이였다.

우리는 《새조선》의 창간준비를 다그쳤다.

집체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새조선》창간호의 편성안을 만들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하여 그이께 보고를 올리였다.

그 편성안에는 단풍이 든 금강산, 눈덮인 모란봉의 을밀대와 송도원, 이름난 온천과 약수터, 고려 청자기와 인삼 그리고 장고춤을 추는 무용수와 같은 그림과 사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있었다.

잡지를 만드는 기자들이나 지도하는 일군들이나 다 외국에 우리 나라를 소개선전한다면 이러한 명승, 고적들과 명산물, 세태풍속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림을 많이 편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정책적안목으로 보지 못한 매우 짧은 생각이였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서야 《새조선》창간호의 편성안이 그이의 의도대로 되지 못하였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새조선》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내는 외국문출판물인데 그 편성안을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았겠다고 하시면서 이 잡지가 대외선전물이니만큼 내용을 잘 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조선》창간호의 편성안을 좀 고쳐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동무들이 짠 편성안을 보면 주로 우리 나라의 명승, 고적들과 명산물, 우리 인민의 세태풍속 등을 소개하는것으로 되여있다, 물론 이러한것도 우리 외국문출판물들을 통하여 소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이것이 위주로 되여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새로 내는 외국문출판물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해방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소개선전하여야 합니다. 잡지에서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새생활, 새사회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을 보여주어야 하며 특히 우리 인민이 나라의 통일을 열렬히 바라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있다는것을 소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가 《새조선》을 내온 목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새조선》이 우리 나라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잡지처럼 편집될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

는 안됩니다.

《새조선》은 우리의 혁명투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잡지로 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새 민주조선 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는 화보형식의 사회정치문화잡지로 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은 대외선전출판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알맹이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신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우리들은 그이의 이 말씀에서 대외선전출판물 편집발간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 속에서 1950년 4월 우리 나라의 첫 외국문잡지 《새조선》창간호가 드디여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창간호안의 첫장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그리고 잡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변혁과 빛나는 성과들을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소개한 글들과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폭로하는 글들이 사진과 함께 편집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외국문잡지 《새조선》창간호가 나온데 대하여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잡지창간호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잡지의 차례와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만하면 괜찮게 되였습니다. 시작이 절반입니다.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이런 잡지를 만들어낸다는것은 훌륭한 일입

니다.

…

일군들을 양성하면 점차 더 잘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모든것을 다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여 외국문잡지창간호가 나오게 하시고는 그 성과를 고스란히 일군들에게 돌려주시며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치하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에는 새조선사 일군들이 더욱 분발하여 외국문출판물 편집발행사업을 강화발전시켜 권위있는 대외선전물을 더 많이, 더 잘 만들어낼것을 바라시는 그이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가 담겨져있었다.

새조선사의 창립과 잡지 《새조선》의 창간은 우리 당의 출판보도력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변이였다.

이때로부터 대외선전잡지 《새조선》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전세계인민들속에 널리 선전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사상적무기의 하나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게 되였다.

나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의 문헌들, 혁명전통도서들 그리고 우리 인민의 투쟁성과를 보여주는 각종 출판물들이 여러 나라 말로 출판되여 세계 5대륙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교과서로 되고있는 벅찬 현실을 볼 때 일찌기 새 조선 건설의 어려운 그 시기에 우리 혁명에서 대외선전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헤아리시고 외국문출판물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몸소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군한다.

3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말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에서 적아간의 치렬한 공방전이 계속되고있던 1951년 5월말 어느날이였다.

이날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로 갔다.

그간의 사업정형을 료해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방송화술문제때문에 불렀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요사이 방송에서 나오는 녀성방송원의 화술이 조선말이 아닌 《외국식조선말》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요즘 방송을 들어보면 우리 방송원의 말이 매우 듣기 거북하게 번져가고있습니다. 그 동무가 처음 방송할 때에는 우리 사람들이 듣기 좋고 알기 쉬운 말로 방송하더니 요즘은 점점 말씨가 변하여 마치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말을 하는 식으로 방송하고있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 우리 방송원들의 화술을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방송에서 화술은 방송내용을 옳게 전달하는 기본수단이다. 따라서 방송화술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방송의 전투적기능을 높이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그런데 해방후 우리 방송이 창설되고 모든것을 새로 시작하다나니 우리 일군들은 방송화술에 대한 그 어떤 연구도

없었고 확고한 주견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방송원들도 경험이 없다보니 어떻게 해야 방송화술을 개선할수 있겠는지 알지 못하였고 제나름대로 방송하고있었다. 게다가 방송화술에서 쓸데없이 멋을 부리거나 남의 본을 따는 현상까지 나타나고있었다.

이미 해방직후부터 방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는 과정에 이러한 실태를 깊이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방송원들이 진실로 조선사람들의 감정에 맞는 우리 식의 화술을 해결하도록 세심히 보살피시고 일깨워주시였다.

1946년 여름 어느날, 방송국사업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송원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담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가까이 뵈옵게 된 방송원은 끝없는 감격에 휩싸여 흥분된 심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방송원은 당의 목소리를 인민들에게 전하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우리 당의 대변자, 선전자라고 하시면서 크나큰 긍지와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송에 대한 인민들의 반영을 들어보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방송원은 아무런 대답도 올리지 못하였다. 방송원은 물론 일군들도 그때까지 방송에 대한 인민들의 반영을 알아보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송원들은 자기가 하는 방송을 인민들이 어떻게 듣고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송원들뿐아니라 방송국의 모든 일군들이 방송선전내용이 인민들속에서 어떤 실효를 나타내고있는가를 늘 알아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방송을 들어보면 근로자들이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 적지 않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방송은 근로하는 인민의 방송입니다. 우리가 방송하는 목적은 인민을 계몽하고 각성시켜 새 조국 건설에 더 잘 불러일으키자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로인민들이 알아들을수 없는 말로 방송하고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지 않는 음악을 내보내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시급히 고쳐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방송원과 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간곡한 말씀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인민대중이야 알아듣건말건 까다롭고 힘든 말들을 되는대로 써가면서 방송하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인민들의 수준과 사상감정에 맞게 방송선전을 개선강화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마음속깊이 다졌다.

이날만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내용과 방송원들의 화술을 하나하나 헤아려보시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을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1946년 11월하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앙방송국 송신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온 나라에 방송이 나갈수 있도록 방송출력을 높인것만큼 방송사업을 더 잘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방송화술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방송은 우리 당의 중요한 선전선동수단의 하나입니다.

우리 방송원들의 말에서 좀 더 기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원들은 인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할 때에는 기쁜 목소리로 하고 남조선의 비통한 소식을 전할 때에는 자신이 진실로 격분에 못이겨 원쑤를 단죄하는 강렬한 감정을 담아 방송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말하면 인민의 사상감정을 담아 방송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방송이 인민의 목소리로, 인민의 방송으로 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우리 방송 화술의 근본 요구와 원칙을 뚜렷이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렇듯 세심한 지도로 하여 방송화술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송화술이 점차 개선되는데 대하여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면서 방송원들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주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방송에서 아직도 낡고 힘든 말투가 섞여나올 때마다 그것을 놓침없이 헤아려보시고 고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1949년 1월 1일,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도 방송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방송원들이 용하다고 하시면서 마이크앞에 나서면 긴장되기마련인데 방송원들은 마이크앞에서도 거침없이 류창하게 말을 한다고 분에 넘친 치하를 주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방송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선전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방송을 그들이 알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적〉, 무슨 〈적〉 하면서 어려운 말을

즐겨쓰는데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민대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로 방송하는것은 헛대포를 쏘는것과 같습니다. 동무들은 절대로 헛대포를 쏘지 말고 로동자, 농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방송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방송이 근로자들을 실속있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인민의 참된 교양자가 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설명절날도 쉬지 않으시고 방송일군들을 만나시여 인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 인민대중의 사상감정에 맞는 말로 방송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당부하시고 일일이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빠짐없이 방송을 들으시며 한 녀성방송원의 목소리에서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외국식조선말》이 섞여나옴을 헤아려보시고 그것을 바로잡아주시기 위하여 또다시 분초가 귀중하신 시간을 바쳐가시는것이였다.

참으로 우리 방송을 참다운 당의 목소리, 인민의 목소리로 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뜨거운 심혈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것이였다.

이윽하여 다시 말씀을 이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말을 《외국식조선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우리 조선말은 표현이 풍부하고 발음이 다양하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고 문화적인 아주 훌륭한 말인것이다. 우리 말로써는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사상감정도 다 잘 나타낼수 있다.

우리 말은 억양도 좋고 또 힘있는 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이런 훌륭한 자기 말을 가지고있는것을 응당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우리 나라의 고유한 말을 바탕으로 한 혁명적이며 아름다운 말들이 사용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말로써 인민을 교양하는 방송이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과 감정에 맞지 않는 〈외국식조선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평양에서 이루어지고있는 고유하고 아름답고 혁명적인 우리 말을 잘 연구하여 우리 나라 방송의 화술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참으로 한없이 깊은 사상이 담긴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에는 주체적인 방송화술체계를 세워 우리 당의 목소리, 우리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력한 선전수단으로서의 방송의 전투적기능을 높여나가기 위한 근본 요구와 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여있었다.

이 심오한 사상이 담긴 뜻깊은 말씀을 받아안으면서 나는 전화의 나날에도 방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한 방송원의 말씨까지 헤아리시고 주체적인 방송화술을 발전시켜나가는 길을 그처럼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위대한 령도풍모에 실로 끝없는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그이께서 밝혀주신대로 주체적인 방송화술체계를 튼튼히 세워 우리 방송의 위력을 더욱 높여나가리라 굳게 마음다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에 주신 귀중한 가르치심은 주체적인 방송화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방송선전사업전반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표지장정 하나하나에도

돌이켜보면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서 잡지, 도서들을 처음 발행할 때 그 표지장정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때 우리가 발행한 출판물들은 장정수준이 매우 낮았다. 아무런 색갈도 없는 흰바탕에 검은 테두리선을 긋고 저자이름과 책이름을 밝힌 그 시기의 표지들은 너무도 볼품이 없었다.

이것은 우리들의 수준이 어리고 경험이 없는탓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출판물들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게 잘 만들려는 관점이 옳게 서있지 못한것과 관련되여있었다.

당시 우리 일군들은 깊은 연구도 없이 책이름과 저자이름이나 밝혀 되는대로 표지를 만들어내보냈다. 그런가 하면 표지의 앞뒤에 이것저것 조잡하게 그려넣은것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우리들의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부족점을 깊이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잡지, 도서들의 장정수준을 높여 출판물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도록 할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출판물의 표지장정 하나하나에도 우리 혁명의 성격과 우리 나라의 실정,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이 잘 반영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뜨거운 심혈을 기울이시였는가 하는것은 당의 정치리론잡지 《근로자》의 표지가 완성되던 과정만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당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의 창간호가 나온데 이어

제2호가 발행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1946년 12월 12일이였다.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의 집무실에 갔을 때 책상우에는 갓 발행되여나온 《근로자》 제2호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잡지를 손에 드시고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근로자〉는 우리 당의 정치리론잡지입니다.

우리 당은 혁명을 하는 당입니다. 그러므로 책의 표지 하나에도 그 특성이 잘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혁명을 하는 우리 당의 붉은 사상이 잘 나타나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를 자본주의사회에서 나오는 잡지들처럼 이것저것 오가잡탕을 넣어서 조잡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성격과 당사상교양사업의 특성에 맞게 편집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는 잡지편집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여러가지로 모색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 안목과 식견이 매우 부족했던 우리는 당의 정치리론잡지의 특성을 살릴데 대한 그이의 높은 뜻을 옳게 실현하지 못하고있었다.

잡지의 표지장정 하나만을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특성을 살린다고 하면서 표지에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형상하면 되는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표지장정을 매달 바꾸어 때로는 로동자의 씩씩한 모습도 넣어보고 소를 몰고가는 농부를 그려보기도 하였다. 지어 다른 나라 출판물들을 본따서 책의 뒤면 표지에 새책소개와 영업안내광고그림까지 받쳐 내보냈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듬해 4월 우리 일군들에게 《근로자》의 기본임무를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시면서 《근로자》 편집에서 중요한것은 당의 정치리론잡지라는 특성을 명확히 살리는것이며 대중용 일반잡지들처럼 그림, 삽화, 사진 같은것을 넣거나 부르죠아출판물들을 모방하여 흥미거리로 편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우리 일군들을 부르시여 자신께서 구상하신 잡지 《근로자》의 표지장정의 개선방향까지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리론잡지 <근로자>의 표지장정을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상징인 마치와 낫과 붓이 들어있고 혁명하는 우리 당의 붉은 사상이 잘 나타나도록 도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표지장정을 매달 바꾸지 말고 도안을 잘해서 고정시키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근로자》의 표지장정도안을 두고 모대기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된 우리는 눈앞이 환해짐을 느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잡지의 표지장정도안까지 그처럼 명철하게 가르쳐주시는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한없이 높은 뜻에 크나큰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그때로부터 보름이 지난 5월초 어느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근로자》의 표지장정도안을 만들어 그이께 올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도안을 받아드시고 표지도안의 이모저모를 짚어가시면서 **《동무들이 당의 리론잡지 <근로자>**

의 표지장정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이 도안이 보기에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붉은색바탕우에 제호를 달아놓으니 우리가 내는 기관지답습니다.

혁명을 하는 우리 당의 성격도 상징적으로 잘 반영된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상징인 마치와 낫, 붓으로 된 당마크가 새겨지고 붉은색바탕우에 《근로자》란 제호가 뚜렷한 잡지 《근로자》의 표지장정은 이렇게 완성되였으며 오늘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당의 력사와 함께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뿐아니라 다른 잡지들의 표지들에도 우리 나라의 현실이 옳게 반영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조선화보》가 처음 발간될 때였다.

《조선화보》의 표지도안문제를 놓고 모대기며 토의를 거듭하던 우리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주신 그이께서는 화보의 표지도안이 준비되였으면 한번 보자고 하시며 우리들이 준비해가지고간 미숙한 표지도안을 몸소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책상우에 펼쳐놓은 표지도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시다가 그중의 하나를 손에 드시고 이것이 좋은것 같다고 하시며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였다.

이윽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조선화보인것만큼 공화국기발을 넣는것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화보가 수백가지가 있는데 어데 가든지 표지만 보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화보이라는것을 알수 있도

록 오각별 빛나는 우리의 람홍색기발을 넣읍시다.》

그이의 뜻깊은 이 가르치심으로 하여 표지도안문제를 두고 모대기던 우리의 착잡한 생각은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조선화보》의 표지 웃부분에 새겨진 람홍색공화국기발, 그것은 우리의 화보를 세계의 수백개 화보들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하는 훌륭한 표식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징하는것으로서 우리 화보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성격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잡지와 함께 도서의 표지장정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표지장정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리고 주체를 세우도록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7년 4월 어느날 우리 일군들을 친히 부르시여 그때까지 이렇다할 개진을 가져오지 못하고있던 도서의 표지장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책장정, 특히 표지는 사람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표지장정은 인민들에게 친근감과 읽고싶은 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되여야 합니다. 색조도 복잡한것보다 간결하고 선명한것이 좋습니다. 특히 표지장정은 민족적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표지에서도 계급성과 인민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체를 세워야 합니다.》

책장정, 특히 그 표지를 사람의 얼굴에 비유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장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몇천마디의 말보다 더 뚜렷이 밝혀주는것이였다.

표지장정에서 민족적특색을 살리며 주체를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도서의 내용뿐아니라 그 형식까지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게 개선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그후 도서들의 표지장정에서는 무미건조하고 딱딱한감이 없어지고 일정한 개선을 가져오게 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그대로 받들기에는 우리 일군들의 수준이 너무도 어리였다.

1948년 7월, 당문헌을 단행본으로 출판한것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을 부르시여 출판물의 장정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정은 책의 특성이 잘 나타나게 하고 대중의 기호에 맞게 해야 하며 색이 변하지 않게 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특히 작은 책이나 얇은 책일수록 장정을 잘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고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서야 우리 일군들은 도서출판사업에서 발로시킨 심중한 결함을 깊이 뉘우치고 옳바른 주체적관점에 서서 책장정사업을 개선해나가게 되였다.

1948년 9월초, 당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문헌집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를 출판하였다.

이 문헌집을 받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서의 장정수준이 종전보다 한계단 높아졌다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당출판사에서 장정의 질을 훨씬 높여 국제적수준에 올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고무의 말씀을 받아안은 우리 일군들은 넘치는 감격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출판물의 표지

장정 하나하나에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현실,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이 옳게 반영되도록 하시려고 그렇듯 깊은 관심과 뜨거운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으로 하여 책장정사업에서 이제 전진의 걸음걸음을 확고히 내디디게 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러한 정력적이고도 구체적인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의 출판물들은 그 내용뿐아니라 형식에서도 주체적인 면모를 훌륭히 갖춘 당적출판물로, 인민대중의 사랑받는 참다운 벗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였다.

좋은 글을 쓰는 비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출판보도선전사업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기간 우리 기자들이 좋은 글을 쓰고 글재간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면서 그들속에 좋은 글과 글재간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워주시기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의 이러한 일상적인 가르치심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기자들은 글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주체적관점을 확고한 신념으로 체득하게 되였으며 좋은 글을 쓰는 재간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가운데서 나는 1947년 봄에 있었던 사실을 여기에 적으려고 한다.

그해 3월초순 어느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 출입기자단을 뭇게 되였다. 출입기자단은 여러 출판보도기관들에서 선발된 기자들로 조직되였다.

이날 각 출판보도기관들에서 여러명의 기자들이 북조선인민위원회 청사로 모여왔다. 지정된 인원들이 다 왔음을 확인한 나는 그들에게 출입기자단조직의 취지와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고 단장을 선출하였다. 이것으로 출입기자단조직은 끝났다. 나는 이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올리고 곧 기자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뜻밖에도 출입기자단성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이 감격에 넘친 소식에 접한 기자들은 흥분으로 설레였다. 그들은 모두가 급히 일어나 옷깃을 여미였으나 누구도 선뜻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나의 재촉을 받고서야 그들은 서둘러 층계를 올라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앞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자들을 기다리시다가 문가에까지 나오시여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선전부장동무가 언제부터 출입기자단을 뭇는다고 했는데 오늘에야 기자동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담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나니 매우 반갑다고 하시며 서로 이름들이나 알고 지내자고 하시면서 기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기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에 말문이 막혀 자기의 이름조차 제대로 말씀올리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대신해서 어느 기관의 누구라는것을 소개하여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마다 낯을 익혀두시려는듯 다정하게 바라보시며 수고가 많겠다고 고무도 해주시고 어떤 기자의 이름을 들으시고는 글자풀이를 하시며 기억해두기 쉬

운 이름이라 하시며 호탕하게 웃기도 하시였다.

그이의 이렇듯 한없이 소탈하신 풍모로 하여 기자들은 어느덧 어려움도 잊게 되였으며 긴장이 풀리게 되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자들에게 자리를 권하시고 차례차례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나이는 얼마인가, 가족은 몇이고 건강은 어떤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리고 글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가, 일제때 신문기자를 해본 사람은 없는가고 알아보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기자들은 한사람한사람씩 일어나 정중히 대답올렸다.

그들 대부분은 해방후 비로소 기자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였다. 그러기에 별로 글을 써보지 못하였으며 문필기량도 아직 높지 못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글재간을 높여 좋은 글을 쓸수 있겠는가 하고 늘 생각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영예로운 기자가 되였으나 아직 글을 잘 쓰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하고있는 그들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이러한 심정을 그대로 말씀올리게 되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글을 잘 쓰지 못하는것은 동무들의 죄가 아니라 일본놈들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서른여섯해동안이나 강점하고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갖은 악랄한짓을 다하였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일제놈들이 우리 인민에게서 생존의 권리뿐아니라 배움의 권리도 빼앗아갔으며 우리의 우수한 언어도 없애버리려고 하였다고 단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이 해방됨으로써 비로소 우리 인민은 이 모든것을 되찾게 되였으며 우리 말을 하고 우리 글을 쓸수 있

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일본놈때에 글을 써보지 못했지만 노력하면 빨리 발전할수 있을것이라고 그들에게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글을 쓰는 일이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신비한것은 아닙니다.

사상이 똑바로 서고 자꾸 써버릇하면 능히 훌륭한 글을 잘 쓸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고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정하게 기자들을 둘러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동무들이 새 민주조선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글을 쓰자면 먼저 글을 쓰는 기자동무들자신이 당적립장과 계급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야 하고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기자라는 임무자체가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질것을 요구하는것만큼 누구보다 당정책학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이께서는 이렇듯 좋은 글을 쓰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복잡한 현상속에서 옳고그른것을 가려낼수 있는 예리한 정치적안목을 가질수 있게 하며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글, 새 조선 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글을 쓸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보인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좋은 글감을 마련하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리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좋은 경험과 생동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쓴 글이라야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줄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에서 기자들은 혁명과 건설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그러면 실제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시고 담화를 계속하시였다.

당시 일부 기자들속에서는 남의것을 모방하고 잔재간을 피우려는 경향이 지배하다보니 우리의 신문, 방송, 통신 등에서는 주자는 사상이 뚜렷하지 못하고 리해하기 힘든 글들이 적지 않게 나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출판보도물의 실태를 깊이 분석하시면서 그러한 현상을 없애고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할뿐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리해하기 쉬운 글을 써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부 사람들은 남이 모르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많이 써야 유식한줄 아는데 실지는 그런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진짜 유식한 사람일수록 쉬운 말을 하고 쉬운 글을 쓰는 법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어떤 필자들은 복합문으로 된 긴 문장을 쓰기때문에 몇번씩 곱씹어읽지 않고는 그 글의 뜻을 쉽사리 알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문장을 짧게 만들고 사상을 명확히 전달할수 있게 글을 쓰는것이 문장가의 솜씨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의 글은 더욱 짧고 내용이 있게 쓰면서도 인민대중이 다 알수 있는 쉬운 말로 써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는 홰불처럼 우리들의 눈앞을 환히 틔워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이밖에도 신문편집사업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당면한 당 및 국가적인 사업, 국

내외정세 등에 대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자세히 말씀하여주시였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하루해가 저물고 밖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말씀을 받아안기에 온 정신이 쏠려있던 우리는 시간가는줄도 몰랐다.

그러다가 방안에 전등불이 환하게 켜져서야 우리는 새 조국 건설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분초를 쪼개가시며 사업하시는 그이의 곁에 너무 오래 머물러있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일어서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우리들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리시고 다정하신 음성으로 《…일없습니다. 오늘은 출입기자단동무들을 위하여 시간을 특별히 냈습니다.》라고 하시며 우리들을 안심시켜주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다가 앞으로 한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우리 당과 정권의 당면한 시책도 알려주며 신문편집과 관련한 의견도 나누고 기자들의 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도 의논하기로 하자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나에게 출입기자단을 조직한것만큼 방도 하나 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손수 제일 좋은 방까지 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무실을 떠나는 기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좋은 글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크나큰 믿음을 표시하여주시였다.

기자들은 넘치는 감격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며 좋은 글을 더 많이 써서 조선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할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기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시여 출판보도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기자들이 좋은 글을 써서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도록 따뜻이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으로 하여 우리 기자들속에서는 책상머리에 앉아 남의것을 모방하거나 인민들이 리해할수 없는 말로 글을 쓰는 그릇된 경향이 극복되고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생동한 사실에 기초하여 자기 머리로 글을 쓰는 주체적인 관점과 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이 과정에 우리 기자들의 문필기량은 끊임없이 높아졌으며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당의 사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인민대중의 사랑받는 주체형의 혁명적출판보도물로 발전하게 되였다.

출판물의 발행질서를 세워주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출판선전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면서 특히 출판물의 발행질서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해방직후 출판물의 발행질서를 비롯하여 그에 대한 국가적인 지도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것은 인민대중에게 당의 목소리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민주건국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해방직후 출판물발행사업에서는 초보적인 질서와 체계조차 서있지 못하고 매우 문란하였다.

당시 평양과 지방에 조직된 여러 출판기관들에서는 제멋

대로 출판물들을 발행하고있었는데 거기에는 당의 목소리와는 다른 별의별 괴이한것들이 다 나타나고있었다.

《만민보》, 《인민일보》, 《새길》, 《평북신보》, 《자유황해》, 《바른말》 등 지방의 신문과 책자들에서는 당과 계급의 리익을 훼손시키는 글들을 적지 않게 내보내고있었으며 정치성이 없는 구호와 표어, 선전화들을 제멋대로 만들어 선전하고있었다.

심지어 도당기관지들에서는 지방할거주의자들을 내세우는 글들까지 적지 않게 내보내고있었으며 지방주의, 자유주의, 개인영웅주의를 조장시키는 글들을 아무 꺼리낌없이 내고있었다.

반동분자들은 도처에서 저저마다 《주의주장》을 선전하고있었으며 자기들이 내는 도서와 잡지들을 통하여 형형색색의 반동적인 주장을 류포시키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개인인쇄소들에서는 출판물의 내용에는 관계없이 돈만 주면 반동사상을 설교하는 출판물도 망탕 찍어내고있었으며 개인들이 경영하는 고서점에서는 자본주의출판물들까지 뻐젓이 팔고있었다.

이 모든것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오염시키고 당과 대중의 단결을 방해하며 민주건국사업에 커다란 해독적작용을 놀고있었다.

형편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전부문의 일군들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있었다. 그들은 출판물의 발행 질서와 제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그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안도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하시고 해방직후 그처럼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출판물의 발행질

서를 세우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리시고 선전부문 일군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그를 바로잡기 위한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몸소 조직적대책을 취하여주시였다.

그러나 출판물발행질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당의 의도대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46년 2월 22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선전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여 출판물발행질서를 세우기 위한 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또다시 이 사업과 관련한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해방직후부터 계속 강조해오고 특히 당중앙조직위원회 제4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심각히 비판하였으나 출판기관들이 아직도 당의 선전방향에 철저히 립각하여 글들을 내보내지 못하고있다고 심각히 지적하시면서 한시바삐 출판물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행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출판물의 발행질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다시금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출판물발행사업을 빨리 당중앙에 집중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친히 그를 위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이 부문에 유능한 인재를 선발배치하고 그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보위하는 일군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당중앙에서 직접 운영하는 군중서점을 도, 시, 군들에 내오고 그것을 통하여 당문헌을 비롯한 여러 출판물들을 배포보급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가르치심을 받들고 우리들은 출

판물발행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시켜나갔다.

그러던 때인 1946년 3월 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를 또다시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선전사업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료해하시면서 출판물의 발행질서를 세우는 사업에 다시금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소책자들이 나오고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정치적혼란을 일으킬수 있고 반동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하겠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는 것이였다.

반동적인 소책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여러차례 강조하여오신 문제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잘 받들지 못한 자책감으로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나의 심중을 헤아리시고 이제부터라도 빨리 수습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출판물발행질서를 똑똑히 세워 앞으로는 우리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한건의 출판물도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출판물발행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는 실로 헤아릴수 없이 크고 뜨거운것이였다.

1946년 3월하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토지개혁을 진두에서 조직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새로 임명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들을 몸소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출판인쇄부문의 실태와

출판선전부문의 임무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인민에게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지만 지주, 자본가들과 그 앞잡이들에게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줄수 없으며 반동사상을 퍼뜨리는 출판선전물을 찍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출판인쇄사업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고 국가적지도통제, 다시말하여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적 언론, 출판의 계급적성격과 출판인쇄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통제기능을 력사상 처음으로 뚜렷이 밝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접하여 우리는 그이의 비범한 예지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출판물인쇄발행사업에서 무질서한 현상을 더는 지속시키지 말며 출판인쇄기관들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제는 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였고 선전부도 나왔으니 출판물을 발행하는 모든 기관, 단체, 개인들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등록하고 그들의 출판인쇄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출판사들로부터 어떤 출판물을 얼마나 내겠는가 하는 계획 같은것을 미리 받는것도 연구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우리들이 그토록 암중모색하던 출판물발행질서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방도를 밝혀준 참으로 귀중한 교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출판인쇄기관들을 지도하고 출판물발행질서를 세우는 사업을 조금도 미룰수 없고 또 다른 누구에게 양보할수도 없다

고 하시면서 선전부문 일군들이 고도의 책임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잘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후 출판물발행질서를 세우는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먼저 전국각지에 있는 출판인쇄 기관, 단체, 개인들을 조사등록하고 그것을 통합정리하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평양발안출판사, 개진사, 애린원 등 규모가 작고 설비가 불비한 출판사들과 인쇄소들을 정리하는 한편 인민출판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1946년 가을에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소속으로 민주조선출판사를 새로 조직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지방 출판기관들과 인쇄소들에 대한 등록정리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1946년 초여름부터 반년 남짓한 사이에 전국적범위에서 출판인쇄기관들이 정리되고 신문, 잡지, 도서, 선전화 등 각종 출판선전물들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편집인쇄하는 사업 체계와 질서가 기본적으로 서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우리 당 출판인쇄보급사업에 계속 깊은 주의를 돌리시고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 많은 사실가운데서 한두가지만을 여기에 적으려고 한다.

공화국이 창건되여 1년 남짓한 세월이 지난 1949년 11월에 있은 일이다.

당시 발전하는 현실은 국가적지도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계획화수준을 높이고 사업 질서와 규

률을 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부문에서는 해방직후부터 지속되여온 사업에서의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한 타성이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있었다.

우리 문화선전성에서 맡아보던 출판인쇄부문의 실태도 별로 다름이 없었다.

원래 출판인쇄사업은 자체의 특수성과 공정의 복잡성으로 하여 어느 부문보다도 계획화되고 조직화되여야 하겠으나 우리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당시까지만 하여도 이 사업이 째여져있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출판사업의 이러한 실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그것을 개선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느날 그이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나를 집무실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종합적인 출판물발행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모든 출판기관들의 편집발행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오늘 성숙된 문제로 나서고있는데 문화선전성이 출판사업을 지도하는것만큼 이 사업을 동무네가 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발행계획에는 신문, 잡지, 도서, 교과서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출판선전물들을 다 포괄시켜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계획에 예견하여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국가적인 년간출판물발행계획이 세워지면 해마다 당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체계를 세우도록 합시다.

당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년간출판물발행계획은 법으로 여기고 그 누구도 마음대로 뜯어고치거나 어기는 일이 없이 무조건 그대로 집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의 출판물발행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화와 출판물발행계획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비준체계의 확립은 당사상사업의 위력한 무기인 출판물발행사업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게 하는 매우 정당하고 현명한 조치였다.

사실 문화선전성에서 출판인쇄사업을 지도하느라고 했지만 국가적인 년간출판물발행계획도 없이 일하고있었으며 다만 출판기관별로 계획을 받아가지고 개별대상의 방법으로 발행사업을 지도하는 형편이였다.

그러다보니 계획이란 말뿐이지 년간을 통하여 그대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문제시하지도 않았다.

뿐만아니라 일부 출판기관 일군들은 자기 기관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출판계획을 내지 않고 생각나는대로 출판물을 발행하고있었다.

이와 같이 출판물발행사업이 한곬으로 조직화, 계획화되지 못하다보니 출판사업전반에 대한 국가적지도가 사실상 철저히 보장되지 못하고있었으며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지 않는 도서들이 나가거나 같은 내용의 책이 여러 출판기관들에서 2중으로 발행되는 등의 페단들이 나타나고있었다.

그리나 우리는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대하면서 시정대책을 세우지 않고있었으며 그저 인쇄공장들을 꾸리고 출판물의 가지수와 부수를 늘이는데만 관심을 돌리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근시안적인 일본새를 나무람하실 대신에 출판물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사업은 처음 하는 일이고 방대한 사업인것만큼 어려울수 있다고 오히려 고무해주시면서 종합적인 발행계획을 세우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인 문제로부터 방법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것이였다.

나는 후더워오르는 가슴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제기할 문제가 있으면 말하시오.》라고 말씀하시였다.

내가 아무 의견도 없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그럼 래년도 발행계획부터 문화선전성에서 통일적으로 맡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년말까지 날자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래년도 출판물발행계획을 빨리 세워 당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에 제기하라고 이르시였다.

나는 돌아오는 즉시로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각 출판기관 일군들과 그밖의 기관, 단체의 출판관계일군들에게 전달침투시키고 1950년도 출판물발행계획을 세우는 사업을 다그쳤다.

수립된 계획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1950년도부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법화된 년간출판물발행계획을 가지고 출판사업을 조직지도하게 되였다.

이것은 참으로 출판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국가적지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출판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진행하며 모든 출판선전물들이 혁명의 사상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출판지도사업 체계와 기구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시였으며 그것이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출판인쇄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통일적지도사업체계를 세우시고 그것을 강화발전시켜오신 과정은 언제나 사상사업을 틀어쥐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밀고나가시는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을 우리 일군들에게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준 뜻깊은 나날이였다.

제 8 장 참다운 민족문화예술의 터전을 닦으시려고

1

우리 영화의 첫걸음

1946년 7월초순 어느날에 있은 일이였다.

8.15해방 한돐을 앞두고 건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 지펴올리고있던 우리 근로자들은 또하나의 감격적인 사실에 접하게 되였다.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기록영화 《우리의 건설》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상영되기 시작한것이였다.

이 기록영화를 처음으로 돌리게 된 조선극장은 시간전부터 밀려든 관람자들로 하여 초만원을 이루었다.

그들과 함께 나도 이 영화를 보았다.

영사막에는 제일먼저 3.1인민봉기 27주년 평안남도경축대회장면들이 밝게 펼쳐졌다.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 기발과 표어판, 프랑카드들이 숲을 이룬 역전광장, 순간 모든 군중이 열정에 넘쳐 두손을 들어 흔들고 기발들이 물결친다.

인산인해를 이룬 온 광장이 일시에 바다처럼 세차게 설레인다.

소박하게 꾸린 경축대회주석단에 그토록 흠모하여마지 않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장군님께서 나오신것이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손저어흔드시며 환호하는 군중에게 답례하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광장의 군중이 감격의 눈물속에 더욱 세찬 환호를 올리는데 영화를 관람하는 우리들도 뜨거운것을 삼키며 일제히 폭풍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영화는 사람들의 시종일관한 흥분과 감격의 도가니속에 3.1인민봉기기념행사로부터 화면을 5.1절기념행사장면으로 그리고 또 5월 19일에 진행된 민주주의적인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 장면, 보통강개수공사와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치렬한 로력투쟁모습으로 옮겨간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관람자들속에서는 감탄의 목소리와 장내가 떠나갈듯한 박수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왔다.

전 6권으로 된 기록영화 《우리의 건설》은 우리 인민의 민주조국건설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처음으로 영화화면에 수록한 력사적인 대화폭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참으로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또한 그것은 해방된 우리 근로자들의 완강한 투지,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이 낳은 위대한 현실을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나라의 주인된 긍지와 자기 힘에 대한 신심, 앞날에 대한 끝없는 희망으로 끓어넘치게 하였던것이다.

이 모든 광경을 자꾸만 젖어드는 눈으로 바라보던 나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영화가 자기의 첫걸음을 내디디도록 가르쳐주시고 손잡아이끌어주시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 감회깊이 되새겨졌다.

그해 2월중순 어느날이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화문제를 토론해보자고 찾았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영화찍을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까? 영화반을 어떻게 활동시키면 좋을것 같습니까?》라고 물으시였다.

나는 구체적인 대책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내가 당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하게 되였을 때 부서에는 영화반이 꾸려져있었다.

그런데 나는 3.1인민봉기기념행사준비를 비롯한 당면에 나선 사업만 료해하고 집행하느라고 새 직무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수일이 지나도록 영화반사업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올리였다.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영화는 직관적인 위력한 선전선동수단입니다.

영화는 화면에 력사적인 사실과 사건들을 집약적으로 담아 그것을 생동하게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우월성을 가

지고있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여러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그들을 교양할수 있는것도 영화가 가지고있는 우월성입니다.

영화는 이처럼 대중성이 있고 그 인식교양적기능과 정서적감화력이 큰 예술형식입니다.

이런데로부터 영화를 여러가지 예술형식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위력한 대중교양수단이라고 말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빨리 만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선전교양수단으로 적극 리용하여야 합니다.

당선전부에 영화반을 둔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영화예술을 빨리 발전시켜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복무하게 하시려는 원대한 구상으로부터 당안에 영화반을 내오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동안 영화반을 꾸리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북조선 방방곡곡에 수소문하여 영화인들을 찾아내게 하실뿐아니라 멀리 남녘땅에서까지 영화 창작가들과 기술자들을 데려오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영화반사업을 밀고나가야 할 선전부일군들이 전문가도 부족하고 촬영기, 필림현상시설도 없다고 걱정만하고 앉아있다나니 그후 이 사업에서는 전진이 없고 제자리걸음을 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로와 난관앞에 주저앉아 더 나가지 못하고있는 영화반사업을 힘있게 내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가르쳐주시고 고무해주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모든것이 없는 빈터에서 영화제작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는 우리의 앞길은 간고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조선영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가로놓인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극복해나가면서 영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촬영기와 영화필림도 구하고 현상시설도 자체의 힘으로 꾸려야 합니다.

늦어도 2월말까지 준비를 하고 3.1운동기념행사부터 영화를 찍을수 있도록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나라를 해방한후 처음으로 조직하는 3.1운동기념행사인데 그것을 기록영화로 잘 찍어서 인민들에게 널리 보여주는 동시에 력사기록으로 남겨야 하겠습니다.

해방후 우리가 처음으로 만드는 영화인만큼 잘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집체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자력갱생하는 혁명정신으로 조선의 첫 영화를 만들어봅시다.》라고 힘주어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그토록 간곡하게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서 우리 영화를 만들어내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느끼게 되였다. 그리하여 나는 영화반성원들과 함께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촬영기와 필림, 현상설비 등을 구하기에 힘썼다.

간난신고를 한 끝에 겨우 촬영기 한대를 구하였고 약간의 필림도 수집하였다. 촬영기는 일제시기에 조선의 영화인들이 사용하던 구식기계인데 수명도 거의 다된 낡은것이였다.

그러나 아직 촬영은 할수 있고 또 그것밖에 없으니 부득불 이 기계를 유일한 밑천으로 삼을수밖에 없었다.

현상설비가 없는것이 문제였는데 그것도 영화반동무들이 자체로 꾸리기로 하였다.

드디여 3월 1일이 다가왔다.

나는 영화반성원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역전광장으로 나갔다.

기발과 표어판들을 높이 들고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웨치며 대회장으로, 대회장으로 밀려드는 군중의 모습을 여러모로 찍은 영화반성원들은 군중이 선 맨앞자리에서 대회가 시작되는 시각을 긴장하게 기다리고있었다. 주석단에 오르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개회시간을 좀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회장에 도착하시였다.

순간 수만군중이 일시에 올리는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며 울려퍼졌다. 만세소리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였다.

촬영기재를 들고 긴장하게 대기하고있던 영화반성원들은 격정에 넘쳐 군중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감격적인 장면들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다 촬영해나갔다.

개회가 선언되고 만장의 환호속에 연단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연설을 시작하시였다. 대회의 흐름에 따라 촬영가들은 영화를 계속 찍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끝나고 군중은 시위행진에로 넘어갔다.

이때 대회진행장면들을 제대로 찍었는가고 나에게 물으신 그이께서는 시위대렬을 편성하여 거리쪽으로 행진해나가는 군중의 모습을 찍느라고 촬영가가 뛰여다니는것을 보시고 《**촬영기 한대를 가지고 뛰여다니며 촬영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행사의 여러모를 다 찍을수 없습니다.**

빨리 자리를 옮기면서 찍을수 있도록 영화반동무들에게 자동차를 한대 보장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다니면서 좋은 장면을 놓치지 말고 제때에 찍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저 동무들에게 빨리 자동차를 보내주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기록영화 《우리의 건설》의 첫 부분을 이루는 3.1인민봉기 27주년 평안남도경축대회와 그에 이어 진행된 대군중시위광경에 대한 화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세심한 관심과 크나큰 배려 속에서 력사적인 화폭으로 수록되게 되였던것이다.

3.1인민봉기기념행사에 대한 촬영을 마친 우리 영화반에서는 토지개혁법령이 발표되자 촬영기를 메고 강서군을 비롯한 농촌지역으로 나가 토지개혁에 대한 영화를 찍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선전일군답게 낮에는 토지분여사업이 진행되는 논밭으로, 경축모임장소로 다니면서 기쁨과 희망에 넘친 농민들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밤에는 밤대로 마을사람들을 모여놓고 토지개혁의 의의도 해설해주고 토지개혁법령세칙도 설명해주면서 농민들을 깨우쳐주고 고무하였다.

영화반이 해야 할 사업은 날이 갈수록 더 많아졌다. 이미 찍어놓은 필림들을 현상하고 편집하여 영화를 완성해야 하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들끓는 근로자들의 복구건설투쟁모습도 촬영해야 하였다.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기념하게 되는 5.1절행사도 바야흐로 다가오고있었다.

그런데 촬영기도 더 구한것이 없고 가지고있던 필림도 바닥이 났다.

어떻게 할것인가? 설비와 자재가 없다고 그냥 걱정만 하고있겠는가. 그럴수는 없었다.

우리는 부서적으로 떨쳐나 이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영화반성원들은 여섯명모두가 설비, 자재를 구하러 각곳으로 떠났다.

이무렵 영화반의 사업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화반동무들이 적은 인원으로 영화도 만들고 자재, 설비도 자체로 구하느라고 수고가 많겠다고 뜨겁게 위로해주시였다.

그러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도 영화기자재를 수소문해보겠으니 부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보라고 하시였다.

우리 부서가 모두 떨쳐나서 영화기재를 수집하기 위하여 낮과 밤을 보내던 4월말의 어느날이였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여 모두가 격동된 가슴을 오래도록 진정시키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동안 몸소 여러 기관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시여 찾아내신 귀중한 영화기재들을 영화반에 선물로 보내주신것이였다.

촬영기 한대와 복사기 한대, 9,000여메터의 필림 등 그이께서 보내주신 영화기재들이 영화반사무실 한가운데 그득히 쌓아졌다.

이 귀중한 사랑의 선물을 바라보는 우리 부서 일군들모두의 눈굽은 젖어있었다. 특히 그사이 근 한달동안이나 전국의 각곳을 찾아다니며 자재, 설비를 수집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소득이 없이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던 영화반의 촬영가, 연출가, 기술자들은 서로 부등켜안고 볼을 비비며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토록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고무된 영화반성원들은 용기백배하여 밤을 지새우며 촬영준비를 갖추고 5.1절기념 평양시군중대회광경을 찍었으며 그 기세로 5월 19일의 군중대회에 대한 촬영도 하였고 련이어 벌어진 보통강개수를 위한 평양시민들의 장엄한 투쟁과 각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의 복구건설투쟁모습을 영화화면에 옮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1절행사에 대한 영화촬영때에도 그리고 5월 19일 평양시군중대회를 촬영할 때에도 그 준비로부터 행사장소에서의 촬영작업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다 보살펴주시고 따뜻이 가르쳐주시면서 영화반성원들이 제대로 기록영화를 만들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속에 3.1인민봉기기념행사와 5.1절기념행사 그리고 5월 19일 평양시군중대회광경과 근로자들의 복구건설투쟁모습을 담은 기록영화들이 완성되였다.

이 세편의 영화는 각각 2권짜리로 만들어졌으므로 모두해서 6권의 기록영화가 완성되였다.

6월하순 어느날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기록영화가 다 되였다는것과 인차 내부시사회를 가지려 한다는것을 보고드리였다.

시사회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영화인데 다들 함께 보자고 하시며 일군들을 데리고 나오시여 이 기록영화들을 보아주시였다.

박수도 제일선참 쳐주시고 옆에 앉은 일군들에게 화면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서 영화를 마지막까지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기록영화가 아주 좋습니다.

영화를 잘 찍었습니다. 해방된 우리 인민의 새 조국 건설투쟁이 잘 안겨옵니다.

나라의 주인이 된 인민의 드높은 긍지와 자각,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따라 난관을 뚫고 새생활을 창조해나가려는 불굴의 투지와 기백이 화면에 흘러넘치고있습니다.

특히 3.1운동기념경축대회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대한 화면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으며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인민이라는것을 누구나 다 깊이 느낄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빈터에서 우리가 영화반을 조직하였는데 간고분투하여 그 동무들이 적은 인원으로 짧은 기간에 좋은 기록영화를 만들어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일제의 《총독부》때 있던 영화제작 설비와 자재들 그리고 적지 않은 전문기술자들을 가지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 1년동안에 《해방뉴스》라는 보잘것없는 시보영화를 대여섯권밖에 내놓은것이 없는데 우리는 5～6명의 인원으로 그것도 2월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 불과 5개월기간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6권짜리 기록영화를 만들어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가로막힌 난관앞에서 안타까이 모대길 때마다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걸린 고리를 손수 풀어주시면서 첫 기록영화의 완성에로 이끌어주시였음에도 그 성과와 영예를 우리 영화 창작가들과 기술자들에게 돌려주시니 그이의 이 크나큰 은정에 우리모두는 가슴에 뜨거운것이 솟구치고 목이 메여오름을 어찌할수 없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 영화가 3.1인민봉기기념행사편과 5.1절기념행사편 그리고 5월 19일 평양시군중대회와 보통강개수공사, 공장, 기업소 복구건설투쟁을 담은 편으로 갈라

져있는것만큼 세편의 영화에 각각 제목을 붙여 따로따로 내돌리게 했으면 한다는것을 말씀드리였다.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이제 영화를 보니 그렇게 세편으로 갈라서 각각 딴 기록영화로 내보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편적인 소식이나 전하는 영화로 되고맙니다.

지금 완성된 세가지 내용의 영화를 하나의 기록영화로 묶어서 내보내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서너달동안에 벌어진 격동적인 사변과 사실들을 일관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성있게 보여주어 그들을 감동시키고 교양할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주제밑에 내용을 꿰고 종합한 영화라야 무게있는 기록영화가 될수 있고 영화의 실효성도 더욱 높일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기록영화들에 중요하게 강조되고있는 사상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신심과 희망에 넘쳐 새조국 건설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영화제목을 《우리의 건설》이라고 다는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설》이라는 제목밑에 세편의 영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꿰서 돌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우리는 각각 2권씩으로 세가지 만들었던 영화를 《우리의 건설》이라는 제목밑에 다 합하여 하나의 구성체계안에 흐름을 관통시킴으로써 6권짜리 기록영화로 완성하였으며 며칠후에는 조선극장에서 이 영화에 대한 첫 상영을 하게 되였던것이다.

당선전부 영화반에서는 기록영화 《우리의 건설》에 련이어 해방후 1년동안의 새 민주조국 건설투쟁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영화도 만드는 등 기록영화창작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갔다.

몸소 당선전부안에 영화반을 두시고 기록영화창작으로써 우리 영화의 첫걸음을 떼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이어 예술영화창작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1949년에 나온 새 민주조선의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은 영화를 위력한 선전선동수단의 하나로 보시고 해방후 초시기부터 이 사업에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예술영화 《내 고향》의 종자로부터 그의 구성, 담아야 할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 가르쳐주시고 영화제목도 친히 《내 고향》이라고 달아주시였으며 영화제작에서 걸린 모든 문제들을 손수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이리하여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은 혁명전통주제의 훌륭한 영화로 완성되여 민주건설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기록영화 《우리의 건설》부터 첫시작을 뗀 우리 영화들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하에서 우리 인민들이 당의 부름따라 난관을 뚫고 새 조국 건설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추동하는 위력한 교양수단으로 복무하였다.

또한 그것은 영화예술을 우리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길로 끊임없이 개화발전시키며 오늘과 같은 주체적영화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가져올수 있게 한 힘있는 원천으로, 믿음직한 터전으로 되였다.

문예창작의 혁명적원리를 일깨워주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투쟁력사를 널리 해설선전하는 문제는 해방직후 우리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선하시였다는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작가, 예술가들의 모든 관심은 우리 인민들속에 전설처럼 전해져온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들의 작품에 반영하는 문제에 쏠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투쟁사적을 알고싶어하는 인민들의 열망 또한 불같이 뜨거웠고 간절하였다.

당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에서 사업하고 있던 나는 매일과 같이 평범한 근로자로부터 시작하여 작가, 예술가들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투쟁사적을 알게 해달라는 요구에 접하게 되였다.

어떤 작가는 당선전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경애하는 장군님의 저택을 방문하여 그이를 만나뵙고 저들의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리겠노라고까지 하였다.

사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일하신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우리로서는 작가, 예술가들을 만나주실것을 그이께 선뜻 말씀올릴수가 없었다.

그것은 다른 문제와도 달라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가

들을 만나시게 되면 긴 시간을 내셔야 할것이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인민들의 소원과 작가들의 희망이 그토록 간절하기에 더는 그냥 있을수 없어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작가, 예술가들을 만나주시여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것을 말씀올리였다.

끝없이 겸허하신 그이께서는 그때마다 그것은 급한 일이 아니니 바쁜 일이나 치르고보자고 하시며 웃음으로 받아넘기군하시였다.

나는 여러가지로 생각하던 끝에 이 문제를 김책동지에게 죄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수 있게 도와줄것을 부탁하였다.

얼마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실현되게 되였다.

1946년 5월 어느날 김책동지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주시기로 하시였다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서둘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한편 창작가들을 급히 불렀다.

저녁7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투사들과 함께 친히 접견장소에 나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의 손을 하나하나 뜨겁게 잡아주시며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석을 놓은 의자를 권해드리자 소탈하게 웃으시며 《내가 이 방 주인자리에 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자리엔 동무가 앉으시오.》라고 하시며 창작가들가까이에 있는 보통의자에 앉으시였다.

자리가 정돈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가, 예술가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해방이 된 다음 동무들과 이렇게 만나니 매우 기쁩니다.》

그러시면서 해방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여러가지로

애로가 많을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가들의 사업과 생활을 초보적이나마 료해하시였을 때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이의 혁명활동력사에 대하여 알려줄것을 인민들은 간절하게 바라고있다는것을 말씀올리면서 그에 대하여 창작가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해주셨으면 한다는 청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내가 혼자서 한것이 아닙니다.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동무들의 영용한 투쟁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서 일제와 싸워이긴 혁명전쟁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우리들모두가 그토록 한결같이 듣고싶어하는 이야기, 장군님자신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불사조마냥 용감하게 싸운 유격대원들의 투쟁이야기, 항일유격대를 성심성의로 도운 인민들의 슬기로운 투쟁이야기만을 펼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인민들에게 애국주의사상과 혁명의식을 넣어주자면 무엇보다도먼저 그들에게 항일유격대의 혁명정신을 배워주는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작가들이 항일무장투쟁에 대하여 널리 소개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세계에는 혁명을 하느라고 유격투쟁을 벌린 나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의 유격투쟁은 대체로 국가적후방을 가지고 정규군과의 련계속에서 진행되였거나 아니면 국

제적후원속에서 진행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몇년씩밖에 안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조건에서 유격투쟁을 시작하였기때문에 국가적후방도 없었고 또 외부의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장투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기간으로 보아도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동안 유격투쟁을 하였습니다.

만주사변이후만 쳐도 15년이나 되는데 이것은 세계유격투쟁사상 가장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영웅적인 유격투쟁이였습니다.

우리들은 흥분으로 높뛰는 가슴을 애써 억제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긴장하게 펜을 달리였다.

영웅서사시적인 년대기로 엮어진 우리 항일무장투쟁의 전로정은 혁명투쟁에 대한 하나의 교과서일뿐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철학적물음에 진정한 대답을 주는 위대한 생활의 서사시라고도 말할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시련에 찬 혁명투쟁의 길을 헤쳐오면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모든 고초를 겪었고 혁명가로서 체험할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체험하였으며 이 과정에 우리의 새로운 혁명적인생관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해 가을 당선전부 출판과 성원들에게도 말한바 있지만 이자리에 있는 동무들은 새 조선 건설에 떨쳐나선 문필가들인것만큼 누구보다도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가 만주벌판과 백두산에서 무장투쟁을 했다고 하니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속에서는 항일유격대가 마치 총

이나 쓰고 일제놈들을 족친 순수 싸움군인줄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편향은 요즘에 출판물들에 나오는 글들이나 무대에서 상연되고있는 예술작품들에서도 나타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하여 깊이 모르는데서 오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은 물론 무장을 들고 직접 일본놈들과 싸운 전쟁이니만큼 헤아릴수 없이 많은 전투를 진행한것만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무장투쟁력사는 순수 전투의 력사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항일무장투쟁력사의 갈피갈피마다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었으며 노래도 있고 춤도 시도 있었다고 하시였다.

항일유격대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였으며 이 과정에 자력갱생하고 간고분투하여 끝까지 싸우는 정신도 키웠고 발자욱을 옮길 때마다 앞을 가로막는 난관을 극복하면서 불요불굴하는 정신을 키웠으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동지애의 새 력사도 창조하였다. 그뿐아니라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들을 계몽각성시키고 그들을 항일무장투쟁에로 불러일으켰으며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의 지지속에서 싸우는 군대는 어떤 강적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도 남기였다.

조용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창문가로 다가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쓰느라고 여념이 없었던 우리들은 머리를 들어 격정으로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일제의 어용출판물을 통하여 극히 단편적으로 알고있던 항일무장투쟁, 인민들의 동경과 상상의 나래 펼쳐지는 가운

데 무수히 생겨난 희한한 전설과 더불어 머리에 그려보던 항일유격대의 모습,

일제식민지통치에 시달릴대로 시달리던 우리 인민들의 가슴에 민족의 긍지와 기쁨, 꺼지지 않는 희망을 안겨주던 바로 그 항일무장투쟁의 진수를 비로소 이 밤에 깨닫게 되는 우리의 감격은 그지없었으며 그럴수록 간난신고를 겪으시며 이 영웅적인 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더욱더 뜨겁게 끓어번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리에 돌아오시여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자리에 있는 동무들의 임무와 역할은 큽니다. 항일유격대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빛나는 투쟁업적에 대한 글을 써내여 인민들을 교양하여야 하며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가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빛나는 항일무장투쟁력사는 당의 문필가들인 동무들의 손에 의하여 씌여져야 합니다.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수많은 유격대원들이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바쳤습니다. 이 혁명선렬들의 빛나는 투쟁사를 바로 동무들이 써야 합니다.》라고 힘주어말씀하시였다.

여기에는 조국광복의 이날을 보지 못하고 먼저 곁을 떠나간 혁명전사들에 대한 그이의 깊은 혁명적의리와 뜨거운 사랑이 차넘쳐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문필활동에서 항일유격대의 전투성과를 위주로 묘사하고 소개하려는 편향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사실 그무렵에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글들이나 무대예술작품들이 나온것들을 보면 위대한 전투라든가 경이적인 전과

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르 형상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유격대가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하였고 커다란 전과를 올린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유격활동의 한측면을 놓고 말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중요한것은 유격대의 군사행동이 조국광복의 위업수행에서 어떤 큰 의의를 가지였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밝히고 작품에 예술적으로 형상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천보전투를 실례로 드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1937년 6월 국내에 들어와 싸운 보천보전투를 놓고봅시다. 이 전투는 우리가 대담하게 국내에 쳐들어와서 일본놈들에게 큰 타격을 준 전투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전과의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보천보전투가 가지는 력사적의의를 약화시킬수 있습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그 전과를 놓고볼 때 일제놈들을 몇놈 죽이고 기관총과 총 몇십정을 빼앗은것이 큰 성시를 점령한 전투에 비하면 문제로 안될수도 있어보일것입니다.

일본놈들의 방대한 침략무력에 비해볼 때 그것은 커보이지 않을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천보전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전과나 대비해보아서는 안됩니다.

보천보에서 울린 우리의 총소리가 우리 인민에게는 조국광복의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 적들에게는 무서운 멸망의 공포를 안겨준 이 비할바없이 커다란 정치적의의를 작품에서 똑똑히 밝혀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이날 담화에서 작가들에게 항일유격대가 종전의 군대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진정한 혁명군대라는것을 설명해주시면서 특히 유격대가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속에서 15성상 싸워 승리할수 있었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 작가들은 대부분이 일본놈의 군대만 보아왔고 혁명군대에 대한 표상이 없는데로부터 군대라고 하면 인민들과 격페된 상태에 놓여있는 목석같은 무장인원들의 집단으로, 인민들에게 호령하고 대중우에 군림하는 권력조직으로 생각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니 이무렵에 나온 작품들에는 인민들과 깊은 련계를 가지고 그들의 물심량면으로 되는 지원속에 활동하는 유격대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있게 그려내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민들의 이러한 인식상부족과 작가들의 식견에서의 제한성을 헤아려보시고 참다운 인민의 군대로서의 항일유격대의 풍모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였다.

그 이야기들은 어느것이나 작가들에게 있어서 난생처음 듣는 리상세계의 정답고 따뜻한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황홀하게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인민들이 항일유격대를 어떻게 지지원호하였는가 하는 이야기에로 계속되였다.

항일유격대가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그곳 인민들은 유격대원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적정을 알려주며 량식을 제공해주었다. 산속에다 곡식을 감추고 표식을 해놓고 가져가라고 련락을 해주었으며 어떤 때에는 감자를 다 캐버린것처럼 줄거리를 다 뽑아없애고 감자알은 땅속에 그냥 둬둔채 우리에게 련락을 하여 캐가게 하여주었다.

어느 음력설명절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인민들이 항일유격대에 선물로 떡을 쳐서 가져왔다. 이때 떡짐을 지고 온 한 로인이 울면서 고백하기를 《사실은 내

가 나쁜 마음을 먹고 왜놈들이 시키는대로 독약이 든 이 떡 짐을 가지고 왔소마는 어르신네들처럼 훌륭한분들에게 어떻게 이 독약을 먹일수 있겠소이까.》 하고 전후사연을 유격대에 이야기해주어 위기를 모면할수 있게 하였다.

이런 일은 지금에는 간단한 일 같이 보이지만 이 사실이 한번 일제관헌들에게 들키면 무서운 박해를 당하던 그 때의 조건에서는 유격대에 대한 혈육의 정이 없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것이다.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짤막한 실례를 통하여서도 항일유격대가 얼마나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가, 인민들이 얼마나 지성으로 유격대를 도와주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그럴수록 그들은 모든 항일유격대원들을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참다운 혁명가로, 투사로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경모의 정으로 가슴이 더욱 뜨겁게 불타오름을 어찌하지 못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 동지애와 강철같은 규률에 대하여, 유격대오안에서의 조직정치생활과 문화생활에 대하여서도 말씀해주시였다.

이날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여러 시간에 걸쳐 계속되였다.

피곤도 잊으시고 정력적으로 말씀하시는 그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창작가들은 간고하였던 항일무장투쟁에 대하여 처음으로 폭넓고 깊이있는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오래 계속되였으나 자신의 투쟁사적에 대하여서는 종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끝마치시면서 작가들에게 더 물을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시며 다정한 눈길로 그들을 둘러보

시였다.

이때 그자리에 있는 모두의 마음은 하나와 같았다.

작가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자신의 투쟁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항일투사들까지도 오늘과 같은 모임에서조차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런데 몇몇 작가들이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께 그이의 투쟁이야기를 다문 얼마만이라도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청을 드리였다.

생각하면 참으로 외람되기 그지없는 행동이였다.

나는 밤도 퍽 깊었을뿐아니라 분초가 새로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시간을 우리들이 지체시키고있다는 송구한 감으로 하여 작가들의 물음을 제지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탓하실 대신 《지난해말 우리에게 왔던 서울신문사 기자들도 그런 요구를 자꾸 제기해서 땀을 뺐습니다. 그런데 동무들도 역시 그렇게 묻는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찌면 약속한것처럼 꼭 같습니까.》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까도 이야기한것처럼 항일유격투쟁은 우리가 혼자 한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조선의 애국자들이 우리의 두리에 하나로 뭉쳐 일본놈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리였습니다.

그러니 동무들은 그들의 투쟁에 대한 소설과 시도 쓰고 연극도 영화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곁에 있던 항일투사들에게 동무들이 작가동무들의 요구를 들어 잘 도와주라고 이르시였다.

20성상 기나긴 세월 총검의 숲을 헤치고 일제를 족치며

그이께서 걸어오신 혈전의 길은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것이였던가.

그 길우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불멸의 위훈과 혁명업적은 얼마나 위대하고 휘황찬란한것인가.

그럼에도 그 공훈, 그 영예를 항일의 전사들에게 돌리시며 자신의 투쟁담에 대해서는 끝내 사양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끝없이 겸허하신 성품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작가들, 투사들의 얼굴마다에는 감동의 빛이 력연히 어려있었으며 이름할수 없는 숭엄한 감정의 파도가 방안에 세차게 물결쳤다.

참으로 해방된 조국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 지새운 이 밤은 창작가들에게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어떻게 바쳐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력사에 길이 전해질 영광에 찬 밤이였다.

이 밤에 들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이야기는 해방후 예술영화 《내 고향》,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의 문학예술이 가장 옳바른 혁명적인 궤도를 따라 찬란한 개화의 한길로 나아갈수 있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대영화촬영기지의 첫 력사를 더듬어

혁명의 수도 평양의 시가지중심으로부터 20리나마 상거한 하당벌은 해방직후까지만 하여도 잡초속에 여윈 수수대들이 어수선히 늘어서있던 메마른 벌판이였다.

그러나 오늘 가을마다 황금파도 물결치는 이 벌판 한가운

데는 의좋게 서있는 형산과 제산을 앞에 두고 점점이 널려있는 푸른 동산을 뒤로 하나의 현대적인 영화도시가 그림마냥 펼쳐져있다.

최신영화 촬영설비와 제작설비들로 가득찬 크고작은 건물들, 규모있게 가로세로 뻗은 구내포장도로들, 사연깊은 진달래를 비롯한 잘 가꾸어진 정원수들과 잔디밭, 화단들, 각이한 시대와 나라, 지방의 양상과 광경을 영화적으로 형상할수 있게 꾸려진 훌륭한 야외촬영거리, 바로 이것이 주체조선의 또하나의 커다란 자랑인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이다.

참으로 우리 영화인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의 손길아래 세상에 보기 드문 최고급의 영화예술의 전당에서 마음껏 창작활동을 벌리고있다.

오늘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세계굴지의 영화촬영기지로서 명성을 크게 떨치고있는것을 볼 때마다 해방직후의 그 어려웠던 나날 대중교양에서 영화예술이 노는 거대한 인식교양자적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영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다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돌이켜보게 된다.

해방전 우리 나라에는 일제의 《총독부》 어용기관으로서 보잘것없는 영화제작소가 서울에 하나 있었을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사람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기관은 물론 아니였고 그와는 반대로 진정한 의미의 조선영화가 나오지 못하도록 감독통제하는 폭압기구에 불과한것이였다.

북반부에는 영화와 관련되는 그 어떤 자그마한 기관이나 기업소도 없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영화촬영기지를 꾸리는 일도 완전히 빈터우에서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해방직후만 하여도 공장, 기업소가 움직이지 못하고 인민생활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였으므로 그 누구도 영화촬영소를 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또 할수도 없었다.

언제나 사상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을 혁명령도에서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곤난이 그럽던 그 어려운 나날에 친히 영화촬영소를 꾸릴것을 발기하시고 이를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다 돌려주시였던것이다.

1947년 이른봄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날 나를 전화로 부르시여 자신과 함께 어디에 잠간 다녀와야 되겠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디에 가시는지 알지 못한채 그이와 동행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자동차는 서평양조차장을 지나고 하당벌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산굽이를 에돌아 어떤 공장인듯한 큰 건물앞에 와서 멎었다.

《이 집을 좀 구경하려고 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건물을 향해 앞장서 걸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첫칸부터 매 방마다 다 돌아보시고 마당에 나오시더니 집둘레를 주의깊게 살펴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집에 어떤 기관을 넣으려고 하는가고 김책동지에게 물으시였다.

그러자 그는 아직 어느 기관도 넣지 않았으나 앞으로 공장으로 리용하려 한다고 말씀올리였다.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집을 영화촬영소로 쓰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화인들이 촬영

소건물이 없어 사방에 흩어져서 일하고있습니다. 그 동무들의 애로를 빨리 풀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영화촬영소는 실내촬영장도 있고 제작실도 있어야 하겠으니 이렇게 널직한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화촬영소는 시내에 두는것보다 이렇게 좀 떨어진 교외에 두는것이 낫습니다. 동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영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돌려주신 그이의 크나큰 배려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김책동지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장군님의 말씀대로 그 집을 영화인들에게 내주도록 하겠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나에게 동무가 주인인데 마음에 드느냐고 물으시였다.

나는 문화선전사업에서 가장 큰 애로로 되고있던 문제가 그이의 배려에 의하여 풀리게 된것이 너무나도 기뻐 《예,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영화촬영소로 쓰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대답을 들으시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가 욕심을 부릴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촬영소로 쓰도록 합시다. 부위원장동무도 동의를 하였으니 문제가 아주 잘 풀렸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모든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고있을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그런 조건을 성숙시켜나가면서 영화를 만들기 위한 준비사업을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화촬영소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차안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큰 예술영화촬영기지를 꾸릴데 대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풀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여기에다가 세계적수준의 영화촬영기지를 꾸려줍시다.

영화예술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던 사정으로 하여 영화예술의 발전이 심히 억제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좀 도와주면 빨리 발전할수 있을것입니다. 남조선의 영화인들도 조선영화를 만들고싶은 자기들의 숙망을 우리 당이 풀어주리라는것을 굳게 믿고 북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영화촬영소를 훌륭하게 짓고 조선영화를 찍어냅시다. 그러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영한 영화,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는 영화를 만들어내게 될것이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이 생활필수품들이 부족하여 고생하고있는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이곳에 양말공장을 복구하여 인민들에게 신길 양말 한켤레라도 더 짜게 할 생각도 해보았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양말공장을 복구하지 않고 영화촬영소로 만들자고 하는가? 그것은 영화촬영소를 꾸리는 문제가 돼지목장이나 양말공장을 하나 더 짓는것과 대비가 되지 않는 중요한 일로 되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촬영소를 잘 꾸려놓으면 영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을 교양하는데서 큰 은을 낼수 있습니다.

크게 마음먹고 한번 내밀어봅시다.

참으로 새기면 새길수록 가슴뜨거워지는 말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촬영소의 건물을 해결해주신데 이어 북조선국립영화촬영소 설치에 관한 결정관철을 위한 대책을 몸소 세워주시고 여러가지 걸려있던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영화촬영소를 짓고 영화를 만드는데 막대한 액수의 국가자금이 돌려졌으며 국내에서 구할수 없는 촬영기재들을 시급히 외국에서 수입해들여오도록 대책이 세워졌다.

이때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서 첫 인민경제계획—1947년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전투가 시작되여 로력, 자재, 설비와 자금이 대단히 긴장되여있을 때였다.

영화예술발전에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푼전이 귀중하던 이러한 때에 그토록 많은 돈을 영화예술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돌려주시였던것이다.

영화촬영소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던 1948년 4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우리가 일하고있는 사무실에 들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화촬영소건설이 끝나가고있는데 한번 나가보지 않겠느냐고 하시는것이였다.

나는 영화촬영소사업에 자주 관심을 돌리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이의 뒤를 따라 사무실을 나섰다.

현관에는 뜻밖에도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서계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나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면서 예술영화촬영소가 그렇게 훌륭하게 건설되고있다기에 한번 구경하고싶어 나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뜻깊은 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우리는 촬영소를 향해 떠났다.

언뜻언뜻 차창가를 스쳐지나는 가로수들은 따사로운 봄볕을 받아 더욱 푸르러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촬영소에 도착한 우리는 이곳 일군들의 안내로 먼저 영사실에 들렸다. 촬영소일군들로부터 최근에 갓 완성한 기록영화와 시보영화가 있다는것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것을 보아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미 주신것이였다.

이날 영화시사회에서는 조선인민군의 열병식과 훈련모습을 반영한 기록영화 《인민군대》와 새 조선의 문화건설을 주제로 한 시보영화 《문화건설》에 대한 상영이 있었다.

영화를 보시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장에 서시여 새로 꾸려진 촬영소구내를 돌아보시였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나도 그이의 뒤를 따라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동안에 일떠선 촬영소의 크고작은 건물들과 설치된 설비들을 보시면서 일군들과 예술인들에게 일을 많이 했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며 말씀하시였다.

《예술영화촬영소가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촬영소를 꾸리는 사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실내촬영장과 부속건물들도 더 지어야 하겠습니다.》

촬영소건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넓은 마당 한쪽 구석에 무져놓은 어린 나무들을 보시자 심자고 떠다놓은 나무들인가고 물으시였다.

촬영소의 한 일군이 그렇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일제놈들의 략탈로 벌거숭이가 된 뒤산과 그전날 목발이던 어

수선한 촬영소구내를 가슴아픈 시선으로 바라보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영화촬영소는 문화기관인것만큼 공기도 맑고 경치도 아름다와야 합니다.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이 창작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면 나와서 휴식할수 있게 정원을 잘 꾸리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공기도 맑아지고 창작가, 예술인들의 건강에도 좋을것입니다.》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에게 더 훌륭한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에 그자리에 섰던 우리모두는 격동된 심정을 억누를수가 없었다.

촬영소 구내와 뒤산이 푸른 숲으로 뒤덮여 갖가지 새들이 날아들고 맑은 공기가 차넘칠 래일의 휘황한 정경을 눈앞에 그려보고있는데 김정숙동지께서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저 뒤산에다 과일나무와 함께 진달래도 떠다심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도 장군님을 모시고 조국진군의 길에서 본 삼지연의 진달래를 잊을수가 없어요. 그후부터 우리는 조국 하면 붉은 진달래를 생각했답니다.

저 야산에 사과꽃, 복숭아꽃과 함께 진달래가 붉게 핀다면 정말 아름다울거예요. 그리고 이 촬영소구내에도 군데군데 진달래를 떠다심으세요. 진달래는 참 좋은 꽃이랍니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이 말씀에 모두가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때 다시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도 나무를 심고 가는것이 좋겠습니다. 나무가 크기때문에 바람에 흔들릴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려 뿌리가 땅

에 붙지 않을수 있으니 나무에 버림대를 대주는것이 좋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먼저 삽을 들고 나서시였다. 이날 일군들은 키가 넘게 자란 네군도단풍나무 한그루를 심을수 있게 준비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고리를 벗어 맡기시고 삽질을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옆에서 재게 삽질을 하시며 나무심기를 도우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우리 나라 영화예술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활짝 꽃펴날 밝은 앞날을 그리시며 한삽한삽 사랑의 흙을 뜨시여 나무뿌리를 덮어주시였다.

그러신 다음 김정숙동지께서는 네군도단풍나무뒤에 또하나의 구뎅이를 파시여 진향나무를 심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땀을 씻을념도 안하시고 어머님과 함께 삽질을 계속하시여 진향나무뿌리도 잘 덮어주시였다.

이렇게 하여 예술영화촬영소에는 위대한 혁명사적이 깃든 나무들이 지심깊이 뿌리내리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 또다시 예술영화촬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이날 필림현상실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동식기계로 필림을 현상하는것을 보시고 기계를 사다줄바에는 왜 자동식을 사다주지 못했느냐고 나를 책망하시면서 뒤에 서있는 김책동지를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좀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촬영소를 현대적으로 꾸려줍시다.

앞으로 외국사람들이 와봐도 손색이 없게 마음먹고 잘

꾸려줍시다.》

현장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작가, 영화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첫 예술영화인 《내 고향》 창작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료해하시고 그를 완성하는데서 지침으로 될 귀중한 가르치심까지 주시고 촬영소를 떠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예술영화촬영소를 현대적으로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애로들을 다 풀어주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돌아오시는 차안에서까지 그 무엇인가 더 도와줄것이 없는지 하고 생각을 깊이 더듬으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형편은 어렵지만 영화예술인들에게 쌀도 보내주고 대우도 높여주며 애로되는 문제들도 다 풀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품을 찾아 온 나라 각지에서 지어 38선을 넘어 모여온 수많은 영화예술인들, 기술자들이 여기 우리 인민의 첫 예술영화촬영소에서 보람찬 창조활동을 벌리게 되였다.

영화예술발전에 그토록 크나큰 관심을 돌리시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은정깊은 사랑속에서 우리의 주체적인 예술영화촬영기지는 새 민주조선의 기상을 안고 하당벌에 거연히 솟아올랐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고달픈 영화인생활을 해온 남조선의 한 인사는 1948년 봄 평양에 들어왔다가 우리의 영화촬영소를 돌아본 자기의 소감을 남조선출판물에 다음과 같이 썼다.

《대망의 국립영화촬영소에 우리들은 발을 들여놓았다. 평양시의 하당리에 있는 이 영화촬영소의 부지는 58,000평, 건평은 2,000평, 현재 종업원은 200여명이다. …

나는 영화인생활을 20여년이나 했지만 그동안 언제나 무

는 영화제작소라고 빈집기둥에다 간판을 붙여놓고 그것을 유일한 일터로 삼아 생활을 해온것만큼 이렇게 훌륭한 설비들이 갖추어진 큰 건물이 영화인들의 일터라는것을 알았을 때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8. 15전 일제의 야만적문화탄압은 방대한 자본과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는 영화사업을 만신창의 병신으로 만들어놓았다. 하여 촬영소라는것이 카메라 한대 똑똑한것을 갖지 못한 박물관적유물로 되여버렸으며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본가들의 파렴치한 략탈, 억압으로 말미암아 조선영화인들은 무권리와 천대와 주림 속에서 지내왔던것이다.

그러나 북조선에서는 이러한것은 벌써 한때의 악몽으로 지나가버리고말았다. 사실 영화예술이라는 이 거대한 민족문화사업은 몇개인의 자본가의 리윤추구를 위한 사업이 되여서는 결코 안된다.

북조선에서 영화사업은 거족적인 민족문화사업으로 중대하게 인식되고 국가경영으로 발족했던것이다.

북조선국립영화촬영소는 거대한 건물이였으므로 예술가나 기술자들은 자기 방들을 하나씩 차지하고있었다. 로동자, 농민 출신의 촬영가, 연출가들이 근 20명이나 있고 촬영소안에 설치된 영화연구소에서는 수십명의 새로운 영화 예술인과 기술자들을 양성하고있다. …

나는 8. 15전에 몇해동안 서울에서 함께 곤난을 겪으며 일하던 많은 영화인들을 뒤에 두고 오후6시에 뻐스에 올랐다. 나는 그들과 헤여지기가 퍽그나 서운하였다. …

그러나 우리 영화인들은 뿔뿔이 헤여졌다가도 일이 생기고 일터가 장만되면 어느때 어디서든지 같이 모여서 일할수 있는것이다.

인제야말로 우리들, 영화인들이 한군데 뭉치여 좋은 일

을 할 때도 시간문제인것이다.

그때에는 북조선국립영화촬영소가 성인이 될것이며 우리들은 영화의 학도로서 새 출발을 해도 늦지는 않을것이다.》

참으로 예술영화촬영기지의 창설, 이것은 새 민주조국건설투쟁에서 이룩한 또하나의 커다란 승리였으며 우리 인민의 찬란한 민족문화발전사에 특기할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빛을 뿌리게 된 장편서사시 《백 두 산》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는 혁명시문학작품의 하나이다.

시인 조기천이 《백두산》을 창작하여내놓은 1947년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 수십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즐겨 이 시를 읊고있으며 그때마다 가슴에 솟구쳐오르는 커다란 격정을 억제하지 못해하고있다.

이 서사시가 우리 인민의 그토록 뜨거운 사랑을 받고있는것은 그것이 일제식민지통치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던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여 조선인민의 가슴에 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높은 덕성,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성의 열정을 감동적으로 노래한 작품이기때문이다.

《백두산》은 해방후 새 조선의 문학이 처음으로 내놓은 장편서사시로서 우리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하는데서 참으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낸

의의있는 작품이다.

나는 오늘도 사람들이 무대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 시를 열정적으로 읊으며 항일유격대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고있는것을 볼 때마다 《백두산》이 세상에 태여나고 혁명시작품으로서 빛을 뿌리게 된 깊은 사연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군한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처음으로 《로동신문》 1947년 2월 7일호부터 2월 21일호까지사이에 11회에 걸쳐 련재되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로동신문》에 이 작품이 련재되는것에 대하여 놀라와하였다. 그것은 이때까지 창작된 일이 없는 장편서사시라는데도 있었지만 이런 시작품이 당기관지에 그것도 련속 게재되였다는데서였다.

그들은 제나름으로 시가 아주 잘되였으니 당보에까지 련재되는가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물론 《백두산》 창작과정에 깃든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해석이였다.

1947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를 부르시여 《백두산》의 원고를 빨리 로동신문사에 보내여 련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 내용을 내가 시인에게 전달하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사실 〈백두산〉의 저자는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시인의 이 말은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백두산》과 같은 큰 장편서사시를 쓸수 있는 시적착상을 주시고 작품의 핵을 주시였으며 창작의 전과정을 하나하나 지도해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시인을 만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빛나

는 력사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깊은 회고에 잠기시여 항일유격대가 백두산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린데 대하여 말씀하실때 시인의 머리속에는 이 나라 조종의 산,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광복의 홰불을 높이 드신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대하여 써야 한다는 시적착상이 이루어지고 영웅서사시의 주제가 환히 떠올랐다.

그리하여 시인은 지체없이 펜을 들었던것이다.

조기천이 항일무장투쟁을 주제로 하는 장편서사시를 창작중이라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가르쳐주시고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령도의 손길아래 시인은 1946년 11월말에 작품의 초고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이때 시인의 장편서사시 창작사업앞에는 뜻하지 않던 난관이 조성되였다.

원고를 본 많은 사람들이 서사시의 사상예술성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혁명의 이색분자들의 부추김을 받는 일부 불건전한자들이 문학부문의 내부합평회에서 호메로스가 어떻소, 괴테가 어떻소 하면서 기교도 쌓지 않고 대작부터 쓰려 한다고 비난을 하는가 하면 시의·언어표현들이 과장이 많다는 시비도 하였으며 지어 어떤자들은 작품을 3분의 1로 줄이라고까지 강요해나섰던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7년 1월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는 첫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전투지휘로 분초가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장편·서사시를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시가 아주 좋다고, 훌륭하다고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작품을 더 완벽하게 만들수 있는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진실한 생활에서 울려나오는 격조높은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일부 사람들이 《백두산》의 시구표현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전반적구성이 째인 이 시를 무턱대고 줄인다면 오히려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손상시키게 될것이니 그런 놀음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서사시의 원고를 놓고 시비하는 일부 불건전한자들에 대한 타격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사시에서 보천보전투를 기본사건으로 묘사한것은 좋은 시도라고 하시면서 보천보전투를 형상한 부분을 따로 하나의 장으로 설정하되 바로 그것이 서사시의 전반흐름에서 절정을 이루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바로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착상을 주시고 핵을 주시였을뿐아니라 그의 구성과 지어는 시구표현에 이르기까지 실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심으로써 비로소 완성될수 있었다.

나는 신문사에 《백두산》원고를 보내겠다는것을 알리고 시인을 직접 편집국에 찾아가게 하였다.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도 신문에는 서사시가 나오지 않았다. 알아보니 문학예술부문과 신문부문에 틀고앉아있던 일부 불건전한자들이 당치도 않는 구실을 대면서 서사시의 발표를 하루하루 뒤로 미루고있었던것이다.

이러던 2월초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를 부르시여 왜 아직 《백두산》의 원고를 보내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신문에 그때까지 게재되지 않은것을 보시고 그이께서는 시인이 좀더 손을 대고있는줄로 생각하시였던것이다.

나는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나서 다음

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백두산》과 같은 장편서사시는 《로동신문》에 내야 합니다. 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을 당기관지에 내지 못하겠습니까.

《백두산》과 같은 좋은 작품을 신문에 낼수 없다고 하는것은 사상문화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하나의 교조주의적경향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출판물편집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이야 어떻게 하든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면 되는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당보를 편집할 때 시같은 문예작품을 잘 내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어느덧 그이의 음성은 격해있었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나의 가슴도 서사시의 발표를 방해하는자들에 대한 분격으로 하여 끓어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과 같은 장편서사시를 당기관지에 내면 항일유격대의 혁명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는데 좋은 작용을 놀수 있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을 신문에도 내고 방송으로도 불며 시집으로도 출판하여 인민들속에 널리 선전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당 일군들을 찾으시여 당의 지시를 홍정하는 그들의 비당적이며 비조직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추궁하시고 인차 장편서사시를 지상에 발표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리하여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비로소 《로동신문》에 련재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장편서사시는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사람들의 심장을 틀

어잡았다.

인민들은 작품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똑똑히 인식하게 되였으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끝없는 흠모의 정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이무렵 많은 사람들이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읽은 자기들의 소감을 편지로 써보내여왔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리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 무한한 긍지와 영예감에 대하여 썼으며 또한 수령님께 그토록 충실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첫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이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얼마나 큰 작용을 노는가 하는것을 현실로 보여준 생동한 실례로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창작과 그의 발표를 달가와하지 않는 불순한 계층은 뒤에서 이 작품을 거세하고 말살하기 위한 간교한 책동을 벌리고있었다.

시인이 《백두산》을 한창 창작하고있던 그때에 벌써 이러저러한 시비를 걸고 압력을 가한 그자들은 시가 완성된후 발표되는것을 각방으로 방해하였을뿐아니라 그후에도 계속 음흉한 장난을 벌리고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장편서사시에 대한 긍정적인 반향이 대단히 크다는것만 보면서 일부 들려오는 이러저러한 뒤소리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남이 잘되는것을 시기질투하는 일부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것이다.

그러던 3월하순 어느날,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

을 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나를 따뜻이 맞이해주시면서 요즘 장편서사시가 지상에 발표된 다음 반영들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나는 그이께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이것을 시집으로 출판보급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되고있다는것을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보고를 들으시고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그 시를 사랑할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의견들이 제기된것은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나는 일부 작가들속에서 《백두산》의 시어가 너무 과격하다느니, 유격대원들의 형상이 진실감이 적다느니 하는 등의 말들이 돌고있기는 하나 그것들은 창작실무적인 토론과정에서 제기된것이기때문에 별로 큰 문제거리가 될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책상우에 있는 신문들을 한장씩 번져보고계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나에게 요즘 《백두산》에 대한 시평이 지상에 나가고있는것을 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나는 당황하여 어찌할바를 몰라 고개만 떨구고있었다. 사실 바쁘다는 구실로 신문에 나가는 글들에 관심을 돌리지 않다나니 그런 글이 발표되는것을 모르고있었던것이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요즘 발표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놓고 이러저러한 말들이 일부 작가들속에서 돌고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소한 일로 지나쳐버려서는 안됩니다.

지금 반동들은 우리 인민들속에 부르죠아반동문학을 류포시키기 위하여 발악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문단주의를 부르짖는 작가들을 리용하고있습니다. 《기성시인》이니 《이름있는 작가》니 하면서 일제시기부터 글깨나 썼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추어주면서 당을 속이고 자기들의 작품들만이 판을 치게 하려 하고있습니다.

이런자들은 새로 자라나는 귀중한 싹들을 짓밟아버리고 있습니다. 햇내기라느니, 코흘리개라느니 하면서 인격적으로 모욕하면서 우리의 문단을 우롱하고있습니다.

시 《백두산》을 헐뜯으려 하거나 이 시인을 비방중상하는 것도 다 이런 그릇된 사상경향에서 나오는것입니다.

이것은 낡은 일제사상잔재로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오늘 시급히 극복청산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나에게는 이 장편서사시의 초고합평때 열을 올리며 토론하던 몇몇 작가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은 지금 외국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는 소설처럼 이야기줄거리를 가진 서사시라기보다 그런것이 없이 시인의 감정을 표현한 서정시라고 하면서 서사시의 불필요성을 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에 《백두산》의 작가는 감히 서사시 그것도 장편을 쓰겠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사실 여기에는 서사시는 이렇게 론의거리로 되여있는 시형식이기때문에 우리 나라 문단의 《대가》들도 손을 대지 않고있는데 주제넘게도 신인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가라는 비양과 야유의 뜻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나를 일깨워주시듯 이 장편서사시의 시구와 시어에 대하여, 시의 구성과 인물형상에 대하여 운운하는것은 그들의 딴 속심에서 나오는

하나의 책동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의 시구절이나 시인을 놓고 이러쿵저러쿵하는 사람들속에는 이 시가 항일무장투쟁을 형상한데 대하여 마땅치 않게 여기는자들도 있습니다.

항일의 혁명전통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쓰는데 대하여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면서 속으로 은근히 달가와하지 않는 자들의 책동이 담겨져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이의 안색에는 심중한 빛이 어리여있었다.

그때까지 작가들속에서 나타났던 일부 뒤소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갈라보지 못했던 나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고서야 사태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 잠입한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당을 창건할 때 애를 먹이고 복잡하게 놀던 종파분자들이 고질화된 종파습성을 버리지 않고 계속 나쁜 장난을 하고있으며 문학예술분야에서도 쏠라닥거리고있습니다.

이자들은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한 글만 나오면 은근히 시비질을 하고있습니다.

종파분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정면에서 헐뜯지는 못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시켜 저들의 말을 대신하게 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조선인민의 숭고한 애국주의정신과 혁명적기백, 민족적기개를 잘 묘사한 우수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자들이 이 시를 두고 항일유격투쟁만을 그리고 이여의 투쟁들을 언급하지 않았기때문에 조선민족의 기개와 투쟁정신을 전반적으로 개괄하여 보여

주지 못하고있다고 말하고있는데에는 음흉한 기도가 숨어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것은 결국 항일혁명투쟁의 혁명전통, 항일유격대의 투쟁업적 대신 그 어떤 다른 투쟁전통을 내세우려는 속심을 드러내놓은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자들은 이것을 작품합평, 작품평론 등의 공간들을 리용하여 마치도 시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외피를 씌워 들고나오고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러므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지지옹호하는가 아니면 비난배척하는가 하는것은 단순히 작품 창작과 평론에만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라 항일의 혁명전통을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전통으로 인정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래서 요즘 다른 신문에 련재되던 이 장편서사시에 대한 부당한 평론을 중지시켰다고 하시면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우리 당에서 옹호해주어야 합니다.

이 시를 옹호하는것은 단순히 하나의 문학작품을 지지하는데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 〈백두산〉을 지지하고 옹호하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옹호하는것으로 됩니다.》라고 힘주어말씀하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잘못하면 《백두산》이 나쁜 놈들에 의하여 매장될수 있는데 이 장편서사시를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부당한 평론놀음을 하지 못하게 하며 《백두산》을 옳게 평하는 글을 하나 잘 써서 내도록 해야 하겠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창작과 그 발표와 관련하여 벌어지고있는 복잡한 사태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분석은 그 본질을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밝히신것이며 가장 정확한것이였다.

항일의 혁명전통을 음으로양으로 헐뜯으며 제각기 저들의 이른바 《투쟁》에 대하여 내세우려는 시도는 비로소 이때 시작된것이 아니였다.

항일유격대의 투쟁기, 영웅기들이 출판물들에 나오기 시작하자 종파분자들은 왜 우리들의 투쟁기는 안내는가, 우리 사진을 왜 작게 내는가, 어째서 1면에 안내고 2면에 주었는가 하면서 별의별 시비를 다 걸고들었다.

그러니 이자들이 항일유격대의 투쟁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노래한 《백두산》과 같이 크고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된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리가 없었다.

그들은 부르죠아문단에 대두했던 서사시와 서정시 가운데 어느것이 진짜시이고 먼저 나왔는가, 서사시가 필요한가 어떤가 하는 모호한 견해와 부질없는 론쟁들을 새삼스럽게 소개하는가 하면 철호가 정치공작원 같지 않다느니 꽃분이의 말이 봉건녀성의 말처럼 표현되였다느니 그들의 행동선이 일관하게 련결 안된다느니 뭐니 하고 비방하다가 마침내 우리 민족의 모든 투쟁을 개괄하지 못하고 항일유격대의 투쟁만 묘사한것이 이 작품의 큰 약점이라고 저들의 진의도를 로출시켰던것이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쟁의 혁명전통을 거세할것을 노린 종파분자들의 집요한 책동의 한 고리였다.

나는 그자들의 음흉한 속심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사전에 대책을 세우지 못한 자신을 부끄럽게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과업을 주신 장편서사시 《백두산》에 대한 새로운 평론을 조직하려고 서둘렀다.

그런데 이미 그릇된 시평이 나간 조건에서 그것을 놓고 반박하고 비판하는 식으로 해야 할지 그렇게 안하고 다른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글을 써내야 할지 궁리가 잘 나지 않아

모대기고있었다.

그러던 3월하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를 집무실로 불러주시였다.

내가 그이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급히 달려갔을 때 거기에는 당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들도 와있었다.(당시 나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부사업을 책임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장편서사시에 대한 새로운 평론을 어떻게 준비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보신 다음 우리들을 보고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평가하는 글을 당에서 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인들과 평론가들속에서 이 장편서사시에 대하여 혹평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백두산〉은 해방된 조선의 문단, 근로인민을 위한 우리의 문학예술이 낳은 대걸작이며 당과 혁명에 충실한 시인의 높은 혁명적열정과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 예술적재능이 가져다준 귀중한 열매입니다.

아직까지 〈백두산〉과 같은 시가 나온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에 내놓고도 널리 자랑할만한 일입니다.》라고 힘주어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세계문학전집을 읽고 또 여러 나라의 혁명적인 시들도 많이 들어왔으나 아직까지 자기 인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내용으로 이만큼 큰 작품을 써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이 시는 우리 나라 문학예술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인은 생활체험으로 보나 세계관의 발전과정으로 보나 항일투사들처럼 단련된 사람이 아닌데도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력사를 집약적으로,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장편서사시를 창작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작가

가 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 열렬한 옹호의 정신을 지니고있었기때문에 가능했던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작가는 재능있는 시인인데 그의 시적재능은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부터 발휘된것이라고 하시였다.

기성문단에 전혀 이름이 없던 신인이 해방후 창작활동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면서 그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내놓은것이 너무나도 대견스러우신듯 이렇게 그를 높이 평가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의 구체적내용을 드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백두산〉은 머리시의 첫 구절부터 웅장하고도 대담하며 작가자신의 민족애가 잘 나타나게 썼습니다. 시가 독자들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인은 자기의 작품에서 항일무장투쟁사를 조선인민의 진정한 민족해방투쟁사로 보았으며 그의 빛나는 전통을 우리 당과 인민이 이어받아야 할 혁명전통으로 정당하게 보고 형상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작가가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혁명전통의 본질을 옳게 찾아볼수 있는 높은 사상적준비를 가지고 시를 썼기때문에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과 대화, 작가자신의 서정적인 주정토로가 정당한 론리의 힘을 가지고 독자들을 설복시킬수 있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품이 이렇게 잘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측면은 다 무시하고 시구가 어떻소, 시어가 어떻소 하면서 이 서사시를 비평하는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신 그이께서는 지금 흔히 하고있는 평론이라는것이 잘된 작품인 경우에도 우점을 많이 소개하고 그 모범을 본받게 하는 방향에서 평하는것이 아니라 우점은 덮

어두고 잘못된것만 골라서 그것을 비평하고있는데 이런 평론을 구태여 하겠는가 하는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에서 《백두산》에 대한 시평을 내주는것이 좋겠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메마른 론설식 평을 할것이 아니라 잘된 시구들을 들면서 사람들에게 납득이 가게, 그들이 사실적으로 인정을 할수 있게 평론을 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출판사나 로동신문사 같은 당출판기관의 이름으로 시집 〈백두산〉을 내야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시집을 당출판사나 로동신문사의 이름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두산〉은 당출판기관의 이름으로 내주는것이 필요합니다.

〈백두산〉에 대한 평론을 당보에 내고 시집을 당출판기관에서 내면 광범한 인민들에게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이 장편서사시에 대한 옳은 인식을 줄수 있고 나쁜놈들이 〈백두산〉을 매장시키려는 불순한 책동을 더는 하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여주신 말씀은 해방된 우리 나라의 문학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시하여주신 지도적지침이였으며 작품을 당적원칙에서 가장 정확하게 분석평가하는 혁명적문학평론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것이였다.

그때로부터 얼마 지난 4월중순,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대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가지는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를 강조한 시평이 《로동신

문》에 나갔으며 뒤이어 당출판기관을 통하여 《백두산》이 시집으로 출판되고 전국에 보급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종파분자들을 비롯한 불건전한자들의 비방중상과 공격의 대상으로 되였던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매장의 위기로부터 구원될수 있었으며 해방된 조선이 낳은 첫 대서사시작품, 혁명적시문학의 훌륭한 본보기로서 그 빛을 뿌리게 되였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새 조국 건설투쟁에로 한결같이 불러일으켰다.

서사시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 싸우는 고지의 용사들을 원쑤격멸에로 힘있게 고무하였으며 전후복구건설투쟁은 물론 시련과 난관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오는 전과정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불굴의 의지를 안겨주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로 되였으며 오늘도 커다란 힘으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드시여 오늘까지도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따를만한 작품이 없다고 높은 평가를 주시였을뿐아니라 그 서사시를 기초로 하여 혁명영화 《백두산》을 창조하게 하시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해주시였다.

그뿐아니라 시인의 묘를 자리좋은곳에 이장해주시고 《혁명시인 조기천》이라고 그 이름을 빛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 혁명시인 조기천과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영생하며 온 세상에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2

민족가극을 새로운 길로

우리의 민족가극은 처음에 판소리에 바탕을 둔 창극형태로부터 시작되였다.

우리 나라에 고유한 음악극형태인 창극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던 1900년대초에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파쑈적탄압과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하여 음악과 극, 조형예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로 등장한 창극은 순조로운 발전의 길을 걸을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광복하시고 문화예술부문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비로소 민족가극은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게 되였으며 수많은 고전작품들이 창극으로 창조되여 공연되게 되였다. 1955년 9월이였다. 민족음악예술부문에서는 민요를 바탕으로 한 창극 《심청전》을 창조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이것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음악예술발전을 위해 기울여오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이 낳은 귀중한 결실이였다.

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던 나는 기쁨에 넘친 마음으로 창극 《심청전》이 완성된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보고를 들으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시간을 내시여 모란봉극장에 나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하게 된 예술인들은 크나큰 영예와 기쁨을 안고 공연을 훌륭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막이 끝났을 때 선참으로 박수를 보내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판소리로 안하고 민요를 바탕으로 하니 음악이 아름답고 가사가 똑똑해서 알아듣기 쉽습니다. 무대배경도 좋고 배우들이 노래도 잘 부릅니다.

훌륭한 작품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막이 내리자 옆에 있던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는 민요로 만든 〈심청전〉이 마음에 듭니다. 쐑소리가 나는 판소리창극보다 훨씬 듣기 좋습니다.

음악이란 인민들이 듣고 좋다고 해야 좋은 음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인민들의 사상감정에도 맞지 않고 그들이 리해할수도 없는 음악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판소리가 바로 그런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민족가극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해방후에 판소리창극도 해보았고 민요조의 창극도 해보았습니다. 어느것이 조선사람의 감정에 맞습니까?

내 생각에는 민요조의 창극이 더 듣기 좋고 음악의 선률도 아름답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나에게는 민족음악, 특히는 창극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섰던 민요를 바

탕으로 하여 창극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그이께서 몸소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오신 나날들이 가슴속에 감명깊게 되새겨졌다.

해방전은 물론 해방이 된 다음 일정한 시기까지도 우리나라 민족음악분야에서는 판소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창극도 이에 토대하고있었다.

대본으로부터 음악적바탕에 이르기까지 판소리에 기초하고있던 창극은 불가피하게 판소리가 가지고있는 제한성과 약점들을 면할수 없었다.

그것은 판소리가 오랜 옛날 소재들을 내용으로 하고있을뿐아니라 가사가 대중이 알아듣기 힘든 한문투로 되여있고 선률이 량반귀족들의 변태적인 취미와 정서를 반영하고있다는 점 그리고 가수들이 쐑소리를 내는것 등등이였다.

창극의 음악적바탕으로 되고있던 판소리의 이런 제한성과 약점들은 민족가극을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우리 나라 민족음악예술부문에서는 민족가극의 음악적바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게 되였다.

그러나 완고한 복고주의자들은 《판소리제1주의》를 주장하면서 옛날것을 아무런 고려도 없이 덮어놓고 되살리려고 책동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사대주의에 물젖은자들은 민족적인것을 무턱대고 낡은것이라고 하면서 줴버리고 외국의것만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새 조국 건설투쟁을 이끄시는 첫시기부터 민족음악의 이런 실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민주주의적음악건설의 주체적인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1946년 봄 어느날 함남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인민들이 차린 연회에 참석하시여 예술공연을 보시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국노래를 외국말 그대로 부른 가수에게 외국노래보다 우리의 노래를 더 잘 불러야 인민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7년 6월 어느날에는 제1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의 일군들을 부르시여 준비사업정형을 알아보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노래도 좋은 곡목들을 골라서 련습을 계속 잘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양산도》나 《아리랑》과 같은 좋은 민요들이 많은데 이런 좋은 민요들을 불러야 합니다. 동무들이 아니고 누가 부르겠습니까? 동무들이 먼저 부르고 선구자가 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훌륭한 민요들을 뒤두고 왜 남의것만 부르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아름다운 민요들을 많이 살리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아름다운 민요들을 많이 살리고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남의것이 아니라 조선적인 선률, 민족적인 정서가 있는 우리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장 우수하고 인민적인 음악유산인 민요를 많이 살리고 발전시킬데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시였을뿐아니라 국립음악학교에 민족음악학부를 설치하고 민족음악을 전문하는 예술후비들을 키워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일제에 의하여 억눌리고 짓밟혔던 민족음악을 부흥시켜 혁명의 요구와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민족적이면서도 혁명적인 음악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민족음악의 이런 발전방향에 따라 민족가극분야에서도 일련의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였다.

창극은 철저히 판소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복고주의적견해가 깨여지기 시작하였으며 민요조를 바탕으로 한 가극 《꽃신》과 같은 작품들이 창작공연되게 되였다.

1947년 12월 어느날 가극 《꽃신》을 친히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였다.

《가극에 나오는 곡이 마음에 듭니다.

노래가 아름답습니다. 동무들이 많이 노력했기때문에 성과가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극은 이런 방향으로 민족적향취가 풍기도록 발전시키는것이 좋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 《꽃신》을 보시고 이렇듯 우리의 민족가극이 나아갈 방향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던것이다.

그러나 민족가극의 음악적바탕문제가 판소리로부터 민요로 확고히 전환되기까지는 복고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투쟁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었다.

복고주의자들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끝나고 장엄한 전후복구건설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르러 저들의 정체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기 시작하였다.

이자들은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민족가극을 현대화하는

것을 《민족음악의 양악화》라고 시비하면서 현대성구현의 자그마한 싹이라도 짓눌러버리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복고주의자들의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하시였다. 당시 일부 일군들과 예술인들의 복고주의적책동으로 하여 쐑소리가 조장되다보니 민족음악부문에 새로운 후비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쐑소리를 내는 낡은 사람들만이 모이게 되였으며 이것은 우리의 민족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실로 엄중한 장애로 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옛날에 량반들이 갓쓰고 당나귀를 타고다니면서 즐기던 쐑소리를 양복을 입고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쐑소리를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옛날의것을 아무런 고려도 없이 덮어놓고 되살리려는 복고주의적경향이라고 엄하게 비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 당이 민족문학예술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에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판소리를 음악적바탕으로 하고있던 낡은 창극으로부터 민요를 음악적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가극에로의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민족음악예술부문에서는 《심청전》, 《춘향전》과 같은 고전작품들을 민요바탕의 창극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던것이다.

시간은 흘러 창극 《심청전》의 공연은 모든 관람자들의 커다란 흥분과 감동 속에 끝났다.

온 장내가 떠나갈듯한 박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막이 여러

번 오르내렸다.

그러나 복고주의가 골수에 배긴 반당종파분자만은 아무 말도 없이 휴계실로 나오더니 민요라는것은 옛날에 민간에서 부르던것으로서 음악적으로 세련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조선음악의 전통을 이은것이 못된다고 얼빠진 소리를 하면서 동의라도 구하려는듯 두리번거리며 주위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것이였다.

사람들은 이자를 증오와 조소의 눈길로 쏘아보았다.

그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자 이자는 제혼자 중얼거리다가 입을 다물어버리고말았다.

휴계실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심청전》을 본 인민들의 반영은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나는 매일 만원일뿐더러 벌써 반달분의 관람권이 다 팔렸다는것을 그대로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대답을 들으시고 인민들이 좋아하면 그것은 성공한 작품이라는것을 의미한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휴계실에 작가, 연출가 등 몇몇 일군들을 부르시여 민족가극발전을 위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요조로 민족고전을 가극화한 《심청전》이 아주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민족음악부문에서는 이것을 경험으로 하여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민족가극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심청전〉은 음악의 선률이 아름답고 배우들이 노래도 잘 불러서 조선사람의 감정에 맞습니다.

가사를 똑똑하게 들을수 있는것도 우점입니다.

판소리창극보다 비할바없이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오늘 공연이 잘되였는데 이 창극을 창작하느라고 동무들의 수고가 많았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부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는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하면서 구라파가극에서 배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있는데 이것 역시 철저히 경계하여야 할 문제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자리에 있던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가극은 가사와 음악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여 생활을 극적으로 반영한 종합예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내세운 민족음악발전방향에 따라 민족적특색이 나타나며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고 그들이 리해할수 있는 새로운 혁명적가극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귀중한 교시는 민족가극창조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게 한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많은 민족고전들이 민요를 바탕으로 한 민족가극으로 창조되였으며 《강건너마을에서 새 노래 들려온다》, 《녀성혁명가》를 비롯한 훌륭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릴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민족가극은 쐑소리가 나는 판소리의 낡은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아름답고 우아하고 부드러운 민요음조에 기초한 새로운 바탕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의 민족가극의 새로운 터전은 바로 이렇게 마련되였다.

참된 교예가 태여나던 나날에

우리 나라의 교예는 해방후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문예정책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인민들에 대한 사상문화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예배우들을 키우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민족교예발전의 방향문제 그리고 교예배우들의 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1952년 봄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가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는 피어린 싸움을 벌리고있던 그 준엄한 시기에 우리를 부르시여 교예단을 창립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는 교예배우들을 꾸리기 위하여 몇명 안되는 전문일군들을 공화국각지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알맞는 대상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사실 좋은 육체적준비와 강의한 의지, 예술적표현력을 겸비해야 하는 교예배우감을 선뜻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였던것이다.

어느날 나는 사업보고를 올리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에 가게 되였다. 이때 나는 교예배우를 고르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그이께 보고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교

예배우는 훌륭한 체력과 기술적숙련이 갖추어져야 하는것만큼 성인들속에서 고르기가 어려울것이라고 하시면서 나어린 학생들가운데서 좋은 아이들을 골라 잘 양성하면 될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사실 이때까지 교예배우를 선발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온 나라를 헤매고 다녔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속에서 골라내여 양성할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하였던것이다.

다시 말씀을 이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예배우후비로 고른 아이들에게 오전에는 학교교육을 주고 오후에는 교예기술교육을 주게 하여 그들모두가 다 중등지식을 소유하게 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 집생각을 하지 않게 하며 명절날과 생일날도 잘 쇠게 하고 옷과 이부자리도 잘해주어 훌륭한 예술가로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힘든 체력교예를 하는 동무들에게는 백미를 공급하는것과 함께 고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식물을 특별히 공급할데 대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나는 이날 우리 나라 민족교예발전의 빛나는 래일을 내다보며 최고사령부를 떠났다.

그후 인차 우리는 여러 학교들에서 교예배우로 될수 있는 자질을 가진 어린이들을 선발하여 양성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때로부터 몇해가 지난 1957년 5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룡흥교 왼켠에 천막을 치고 공연을 계속하고있던 교예극장의 배우들을 고무해주시기 위하여 친히 극장에 나오시였다.

그때의 가설극장은 교예배우들이 자체의 힘으로 지은것이였으므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어설픈곳이였다.

그러나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 점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나무람하지 않으시고 배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동무들이 자체의 힘으로 가설극장을 지을래기 수고가 많았겠다고 오히려 치하의 말씀까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게 된 배우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이께 인사의 말씀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감격에 북받쳐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있는 교예배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의 합숙조건은 어떤가, 앓는 사람은 없는가, 영양제로는 무엇이 공급되며 공연기자재들은 다 갖추었는가, 지어는 배우들의 의복이며 신발들은 제대로 공급되는가 하는것까지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다시금 두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예배우들의 생활형편을 료해하신 다음 전쟁시기에 여러 학교들에서 데려온 동무들이 다 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들이 오늘 교예단에서 핵심이 되여 공연을 하고있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그들의 생활형편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그럼 어디 우리 배우들의 공연을 보자고 하시며 가설극장관람석으로 스스럼없이 들어서시였다.

입재주와 손재주로부터 시작한 공연은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우아한 성품과 용감하고 락천적인 기개를 보여주는 바줄타기와 널뛰기, 쇠줄부채춤 등 민족교예종목으로 넘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목이 끝날 때마다 만족하게 웃으

시며 출연하는 배우들의 이름과 나이도 알아보시였고 제일 먼저 박수를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1부가 끝나자 휴계실에 나오시여 매우 만족해하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조선민족교예를 발굴해서 공연한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 나라는 오랜 옛날부터 그런 교예들이 있었는데 이런것을 많이 발굴해서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시면서 교예는 주로 사람의 높은 재주를 형상수단으로 하여 사상과 생활감정을 표현하는 직관적인 무대예술이라고 하시면서 교예가운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체력교예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말타기는 고구려시기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사랑을 받아온 재주로서 사람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여러가지 예술적형상을 보여줄수 있는 교예종목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교예는 음악, 무용 등과 결합된 형태이거나 체육적요소와 결합된 형태로 오랜 옛날부터 발전해왔다. 고구려때에는 큰 공우에서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호전무》와 말타기 같은것을 하였고 그후 금빛갈이 나는 공을 다루는 《금환》놀이이며 노래와 대사, 행동이 결합된 풍자놀이인 《월전》과 같은것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민속놀이들인 그네, 널뛰기, 살모재주 같은것도 교예적인 요소를 가진 놀이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예에 대한 봉건통치배의 천시와 특히는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교예가 여지없이 짓밟혀온데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교예가 어떤 교예로 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

였다.

《민족적인 교예종목을 많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족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교예예술을 다양하게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교예예술을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비위에 맞게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교예는 일제식민지통치때에 왜놈들이 가지고 다니던 《사까스》나 조선사람들이 하던 곡마단 같은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시면서 우리 시대에 사는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예술의 한 형식으로 발전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곧 공연의 제2부가 시작되였다.

막이 열리자 1인조형 종목이 무대에 올랐다.

애젊은 처녀배우가 출연하는 1인조형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이 종목이 배우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는 교예극장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교예는 배우들의 체력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교예를 흥미본위적인것이나 렵기적인것으로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교양적가치가 없는 교예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렇게 육체적고통을 심하게 주면서 사람의 신체발육에 지장을 주고 기형이나 불구로 만들수 있는것은 사람들을 교양하는데서나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가치도 없으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교예는 사람들에게 대담성과 용감성과 패기를 보여주며 인간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재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혁명과 건설에 잘 이바지하여야 하며 선전자, 교양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사실 탁상우에 꽂힌 꽃을 입에 문채 몸을 뒤로 젖히고 원형의 자세로 만드는 1인조형은 심한 육체적장애를 극복해야만 되는 어려운 동작이기때문에 민간에서는 이 종목을 두고 배우에게 식초를 먹인다, 소금과 간장을 먹이지 않는다는 말까지 돌았고 또 그만큼 배우의 신체발육면에서도 불균형성을 면할수 없는 종목이였다.

이때까지 이 종목을 맡아 지도해온 일군은 물론 교예단의 모든 사람들은 유연성을 기본으로 하는 이 작품이 어려운 종목이고 세계적으로도 널리 출연하는 교예종목이므로 교예무대에서 빼놓을수 없는것으로만 알았을뿐 누구도 이 종목이 출연자의 건강에 미치는 후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랬던것만큼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이 일군들에게 준 충격은 컸으며 배우들의 건강에 대하여 돌보지 못한 자책으로 하여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무대에서는 종목이 바뀌여 공중비행종목이 시작되였다.

까마득히 높은곳에서 흔들리는 그네의 힘을 리용하여 공중을 날으는 배우들의 능숙한 동작을 하나하나 눈여겨 살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밑에 친 안전그물이 든든한가고 물으시고 저 동무들이 마음놓고 교예를 할수 있도록 안전줄도 매주고 모든 조건을 다 빈틈없이 갖추어주라고 당부하시였다.

이때에도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대답도 올리지 못하고 그저 머뭇거리고만 있었다.

한것은 그때까지만 하여도 교예부문에서는 안전줄을 매면 그 기교와 예술성이 손상되고 지어는 교예가 아닌듯이 여기고있었기때문이다. 이것은 렵기적이며 모험적인것으로 관중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어제날의 《곡예》나 《사까스》의 낡은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데서 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이런 낡은 생각을 제때에 통찰하시고 우리의 교예는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종목에서 안전줄을 리용하며 배우들의 신변안전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여기에는 오직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교예배우들을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은정이 담겨져있으며 우리의 교예를 인민들에 대한 사상문화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구현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이 끝난 다음에도 휴계실에 나오시여 오래도록 더무르시면서 교예극장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담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우리 나라 교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처럼 순수 취미본위로 되여서는 안되며 교예를 통하여 사람들의 육체적발전과 문화적교양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제도하에서의 교예예술의 성격과 사명, 그 인식교양적의의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우리의 주체교예가 체육적인것과 문화적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교예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낡은 착취제도가 교예분야에 뿌려놓은 온갖 기형적이고 부패타락한 독소들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사람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새롭고 건전한 교예로, 민족적인것을 기본으로 하는 교예로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문제였다.

인류사회의 력사에는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속에 존재한 각이한 명칭으로 블리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곡예》에 대하여 기록되여있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착취계급의 저속한 취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순수 흥미본위주의적이며 기형화된 놀음거리와 눈속임에 블과하였다.

우리의 교예는 물론 새로운 궤도에서 옳게 출발은 하였지만 아직도 1인조형과 같은 종목을 비롯하여 막간극 같은데서는 일부러 기형적으로 분장하고 출연하는 교조주의적이며 사대주의적인 작품들이 더러 무대에 오르고있었던것이다.

그날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설펀 천막 휴계실에서 오래동안 앉으시여 우리 민족교예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그러시고도 무엇인가 미진한것이라도 없는가 여러모로 깊이 료해하시면서 담화를 하시였다.

어느덧 밤도 깊어 극장을 떠나셔야 할 시간도 지났으나 그이께서는 자리를 뜨지 못하시고 전쟁때 받아들인 배우들을 잘 키우고 돌봐주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면서 아예 나왔던김에 극장건설문제까지 의논해보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예극장을 하나 현대적으로 짓자면 돈이 얼마나 드는가를 료해하시고 그만한 예비는 강선제강소에서만도 충분히 나올수 있다고 기뻐하시며 마음먹고 교예극장을 하나 큼직하게 짓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공소동》과 《북진》소동이 발광적으로 벌어지고있고 거기에 발을 맞추어 당안에서는 종파놈들이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리용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던 1957년,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며

힘겨운 투쟁을 벌려가고있던 그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대적인 교예극장을 건설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지금 보통강유원지를 옆에 끼고 자리잡은 우리의 현대적인 주체교예의 전당은 바로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교예배우들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건설된것이며 수령님의 뜻을 꽃피워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향도의 손길아래 웅장화려한 세계적인 교예극장으로 그 위용을 떨치게 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가 있었기에 우리 나라 교예는 이 분야에 남아있던 사대주의, 교조주의, 복고주의 경향들을 일소하고 렵기적이며 흥미본위주의적인 놀음거리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주체적인 교예예술로 발전할수 있었다.

《조선화가 기본입니다》

조선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민족의 심리적특성과 민족적감정에 맞게 발생발전하여온 조선의 고유한 회화형식으로서 그 우수성으로 하여 일찌기 동방에 널리 명성을 떨치였다.

그러나 일제의 조선강점과 놈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조선화는 응당한 자기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였다.

조선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광복하시고 주체적인 민족문화건설로선을 밝히시여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미술을 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비로소 그 명맥을 끗끗이 이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오늘과 같은 일

대 개화기를 맞이할수 있게 된것이다.

한때 우리 당안에 기여들었던 반당종파분자들은 조선화를 천대하고 서양화 특히 유화만을 일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조선화화가들을 복고주의분자라는 터무니없는 딱지를 붙여 박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 와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조선화화가들이 하나씩둘씩 붓을 놓고 직업을 바꾸는 참을수 없는 결과까지 빚어내게 하였다. 우리 문화선전성에서도 대책을 세우느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한 외국수반에게 선물로 보낼 공예품과 조선식병풍을 준비해야 할 과업이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나를 부르시여 그 병풍에는 예로부터 이름을 떨쳐오는 조선화의 기법으로 우리 나라의 명산인 금강산을 그리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나는 이름있는 조선화화가들을 망라시켜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화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조선화를 높이 평가해주신다고 감격해하면서 기쁨에 넘쳐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얼마후에는 공예품과 함께 병풍을 완성하였다.

나는 이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였다.

1953년 12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준비한것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친히 그것들이 전시되여있는 내각소회의실에 나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미술가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고나서 전시품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였다.

금강산을 그린 열폭의 병풍앞에 이르시여 그것을 이모저모로 유심히 살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병풍이 금강산을 그린것인가, 금강산을 그렸다면 어디를 그린것인가, 그림은 누가 그렸는가를 구체적으로 물으시였다.

미술가동맹의 책임일군이 금강산을 그린것인데 화가들이 집체적으로 그린것이라고 대답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수묵화로 그린 금강산을 다시 살펴보시더니 금강산은 세계에 이름난 아름다운 산인데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가들을 바라보시며 병풍의 《금강산》은 먹색도 좋지 않고 또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나타나도록 그리지 못하였다, 금강산을 이렇게 침침하게 그려가지고서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다, 조선화를 창작함에 있어서는 조선화의 선명하고 간결한 전통적인 화법을 잘 연구하고 옳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새기며 우리들은 조선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그이의 높은 뜻을 잘 받들지 못한 자책으로 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사실 이때까지 조선화화가들은 낡은 수묵화의 경지에서 방황하면서 조선화의 전통적인 화법과 필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조차 못가지고있었던것이다.

그날 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를 부르시여 낮에 돌아보신 미술작품과 관련하여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준 의도를 미술가들이 옳게 리해하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미술부문을 지도하는 일군들부터 조선화에 대한 옳은

견해를 가지고있지 못합니다.

먹색으로 거무칙칙하게 그리는것이 조선화의 전통적인 기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미술창작방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 미술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미학원칙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선화방식으로 금강산을 그리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수묵화가 조선화의 전통으로 되는것처럼 보는것은 그릇된 견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조선화의 고유한 특색을 찾아보지 못하고 낡은 기법을 고집하면 복고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실무적문제인것이 아니라 미학사상과 관련되는 문제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화의 선명하고 아름답고 간결한 전통적인 화법을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에서는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미술분야를 발전시켜나가자는것입니다. 조선화가 기본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옛날 우리 나라의 유명한 화가 솔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솔거는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집안의 출신이였다. 그러나 그는 그림을 잘 그린것으로 하여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였다.

특히 유명한 그림은 황룡사의 벽에 그린 늙은 소나무였다.

솔거는 이 소나무를 그리면서 굵은 줄기의 나무껍질이 열기설기 터갈라진 모양과 휘여서 내리처진 가지들과 무성한 솔잎의 모양을 훌륭한 기법과 생신한 색갈로 실감있게 묘사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솔거의 그림이 어찌나 진실감이 났던지 새들이 산 소나무로 알고 앉으려고 날아들었다가 벽에 부딪쳐 떨어지군하였다고 하시면서 그후 오랜 시일이 흐른 뒤에 그림의 색갈이 흐려져서 황룡사의 다른 중이 다시 덧그렸는데 그때부터는 새들이 전혀 날아들지 않았다고 전해오고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솔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우리가 솔거의 그림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가운데서 좋고 훌륭한것은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락후하고 부패한것은 반대하고 버리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문화유산은 어디까지나 오늘 나라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사상과 감정에 맞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더욱 아름답고 고상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조선화는 채색화를 기본으로 하여 발전시켜야 합니다. 채색화를 기본으로 하여 조선화를 발전시키면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뿐아니라 전후복구건설로 들끓고있는 우리의 장엄한 현실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습니다.

이날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조선화에 대한 옳은 견해와 립장을 세우고 그를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8.15해방 9돐을 기념하여 열린 평양미술대학 전람회를 친히 보아주시였다.

이날 전람회에는 조선화 《금강산》이 전시되여있었다. 이

작품은 채색화로 그려진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그림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지난해에 본 먹으로 그린 《금강산》보다 훨씬 낫다고 하시면서 이 그림과 같이 아름답게 조선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조선화는 언제나 조선사람의 감정에 맞는다고 하시면서 조선화를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1954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를 부르시여 한 조선화화가로부터 받으신 편지를 내보이시면서 그 편지를 보낸 화가는 조선화를 천대하고 서양화만 내세우는자들의 소행에 대하여 격분을 참지 못해서 우리에게 편지까지 보내여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선화를 내세우고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이 화가의 의견은 전적으로 옳은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제기한 문제들, 그가 아파하는 문제들을 잘 알아보고 풀어주라고 당부하시였다.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화는 바로 우리 민족의것이며 일찌기 세상에 이름을 떨친 우수하고 귀중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이런 우수한 문화전통을 계승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조선사람의 미감에도 맞지 않는 서양화만 숭상하는것은 다름아닌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표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박해로 하여

붓을 놓고 직업을 바꾼 조선화화가들을 다시 불러들여 자기의 소원대로 조선화를 마음껏 그릴수 있게 해주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미술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해주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조선화발전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들은 그해 11월에 조선화화가협의회를 소집하여 그 관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 협의회에는 미술가대렬에서 일시 물러섰던 화가들은 물론 위대한 수령님께 편지를 올렸던 화가도 참가하였다.

화가들은 조선화발전방향에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자기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너무도 고마와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며 그이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이때로부터 사회주의민족미술의 토대로 되는 조선화의 화원은 아름답게 꽃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55년에 열린 전국미술전람회는 채색화로 창작한 수많은 우수한 조선화작품들로 장식하게 되였다.

조선화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때에도 친히 미술전람회에 나와주시였다.

미술작품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전통적인 채색화로 된 조선화 《5월의 농촌》을 비롯한 일련의 조선화작품들을 아주 잘 그렸다고 치하하시면서 조선화화가들을 고무해주시였다.

진렬된 작품들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화화가들은 앞으로 풍경화뿐아니라 사상성이 높은 작품,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을 더 많이 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화가들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벅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동한 생활을 직접 보고 체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에 주신 교시는 유구한 세월을 두고 조선화에 존속되여온 근본결함을 극복할수 있게 한 강령적지침이였다.

이때까지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있던 조선화화가들은 산수풍경의 두터운 장벽속에 파묻혀 조선화의 기법을 가지고서는 사회주의건설모습을 반영한 사상성이 높은 현대물주제의 작품은 그릴수 없는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러기에 채색화로 된 우수한 조선화작품이 많이 출품된 이해의 미술전람회만 보아도 거의나 풍경화나 화조, 정물화였다.

전후복구건설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힘찬 로동의 맥박이 울려나오는것은 많지 못하였다.

그러기에 이날에 주신 현실주제의 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조선화화가들에게 새로운 경지를 발견하게 해주었으며 그들을 한없는 기쁨과 흥분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때로부터 조선화화가들은 모두다 들끓는 현실생활속에 뛰여들어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면서 작품의 종자를 탐구하고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갔으며 사상성이 높은 현실주제의 조선화작품을 많이 내놓게 되였다.

오늘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우리 나라의 혁명투쟁과 약동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선화들의 빛나는 화폭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의 그 어려웠던 나날에 조선화발전을 위하여 이렇듯 창작가들과 일군들을 손잡아이끌어주신 탁월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현대적인 민족악기로 개량되기까지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민족문화건설로선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많은 민족악기들이 새로 발굴되였을뿐아니라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문화정서적감정에 맞게 개조되여 그 아름다운 소리와 독특한 형태를 온 세상에 자랑하고있다.

우리의 민족악기는 순하고 부드러우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풍부하게 하여주는 아름다운 소리색갈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잘 맞는것이다.

그러나 나라가 갓 해방되였을 때까지만 하여도 내놓을만한 민족악기란 별로 없었다.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에게 아름다운 조국강산과 함께 우리의 찬란한 민족문화까지도 모조리 빼앗기고 유린당하였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악기가 그대로 보존될리가 만무하였다.

우리의 민족악기는 흉악한 침략자들에게 짓밟힐대로 짓밟혔다.

그리하여 조선악기에 뜻을 두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게 양악기를 다루는데로 돌아섰으며 날이 감에 따라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점차 민족악기를 허술히 여기고 양악기를 내세우는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적경향이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 인민들과 음악가들에게 조선민족은 세계적으로 악기를 맨먼저 발전시

킨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일깨워주시면서 선조들이 창조한 훌륭한 민족악기를 적극 찾아내여 그것을 주체적립장에서 발전시켜나가도록 몸소 이끌어주시였다.

1946년 봄 함남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이곳 예술인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신 일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이 끝나자 예술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료해하시다가 손풍금을 하는 동무에게 우리 민족악기는 다루어본 일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없다고 대답을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나라에도 가야금을 비롯하여 훌륭한 민족악기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민족음악을 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을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 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7년 봄 어느날 우리들에게 조선고전악연구소를 새로 내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사실 온 나라가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던 이 시기에 고전악을 연구하는 기관을 새로 내온다는것은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할수 없는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연구소는 고전악을 연구할뿐아니라 연주활동도 겸해서 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그 활동방향까지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의 고전악, 민족악기를 깊이 연구하면 계승할만한것이 많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가야금만 놓고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가야금은 먼 옛날에 가야국사람인 우륵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이였다. 이로부터 그 이름을 가야금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그것은 이딸리아사람들의 악기력사이전시기의 일이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부터 민족문화유산계승발전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그해 6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전악연구소가 태여나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우리의 민족악기유산을 조사발굴하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이 과학적토대우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고전악연구소를 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가야금과 해금을 비롯한 민족악기들을 보내주시여 그를 마음껏 연구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하여주시였다.

준엄하였던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악기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에 끊임없는 관심을 돌리시였다.

1952년 가을에 열렸던 화선악기전람회때에 있은 일이였다.

내각소회의실에서 열린 화선악기전람회장에는 전선에서 싸우는 조선인민군 용사들이 불타다 남은 나무토막과 격추한 적비행기에서 얻어온 락하산줄이며 끊어진 통신선을 리용하여 전투의 여가에 만든 가야금, 해금을 비롯한 민족악기들과 만돌린, 바이올린, 기타 등 양악기들이 수십종이나 진렬되여있었다.

이런 화선악기들은 우리의 영웅적인 인민군군인들이 하루에도 십여차례씩 가렬한 전투를 벌려야 하는 그 불비

쏟아지는 고지에서 필승의 신념을 안고 얼마나 락천적으로 살며 싸워나가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멸적의 노래를 안고 조국의 고지를 지켜선 영웅전사들의 불굴의 기상이 깃든 화선악기들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친히 전람회장에 나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선악기들을 하나하나 만져까지 보시며 매우 만족하신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참 잘 만들었습니다. 전문악기공장에서 만든것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들을 돌아보시며 웃음어린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선전상은 이런 민족악기를 만든게 있습니까? 이것 보시오. 화선에서도 전사들은 훌륭한 민족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였지만 나는 그 말씀을 새기며 우리들에게 난관을 뚫고나가는 불굴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부족하다는것을 깊이 뉘우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문화선전성에서는 고전악연구소도 악기제작소도 가지고있었으나 전쟁을 한다는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만을 내세우며 민족악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화선악기전람회장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음악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민족악기개량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민족악기는 각이한 민족들의 로동과 생활 과정에서 창조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것이라

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악기는 인민들의 사랑받는 음악기재로 되고있지만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고치지 않으면 안될 일련의 결함들을 가지고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악기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개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부 동무들이 민족악기를 개량하는것을 반대한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그대로의 조선악기를 가지고서는 민족음악을 현대화할수 없으며 우리 시대 인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표현할수 없습니다.

민족악기개량사업은 민족악기들의 형태와 소리를 시대와 인민들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조하고 발전완성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의 민족음악을 현대화하기 위하여서는 악기를 더욱 완성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귀중한 교시를 깊이 명심하고 우리들은 고전악연구소와 악기제작소 일군들을 무산과 갑산, 해주와 원산 등지에 보내여 민족악기를 발굴하게 하는 한편 민족악기개량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러나 민족악기를 개량하고 완성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부 악기들의 소리색갈이 맑지 못하고 쐑소리가 나는것이라든가 음량이 빈약하고 음역이 좁으며 악기형태도 아름답지 못한것 등을 고쳐야 하였다.

1952년 가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우리 민족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있다는것을 료해하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며 우리가 민족음악을 잘 발전시키고 민족악기를 개량하기만 한다면 합창반주는 물론 관현악도 민족악기를 가지고 능

히 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민족악기의 음계가 다섯가지밖에 없는것은 하나의 부족점입니다. 현대음악의 모든 선률이 7음계로 되여있는데 우리 민족악기는 5음계로 되여있습니다. 게다가 12평균률로 이루어진 반음체계가 서있지 않습니다.

음역이 제한되여있기때문에 연주할 때에 두대를 가지고 바꾸어하거나 연주도중에 조음하는 등의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악기를 개량함에 있어서 소극적방법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악기를 대담하게 현대적으로 개량해야 음역과 음량이 확대된 우리 민족악기로 민족관현악도 연주할수 있고 어떠한 곡도 자유롭게 연주할수 있으며 혁명하는 시대의 거대한 화폭들과 생활정서적내용을 보다 풍부하고 적극적으로 형상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에서 우리는 민족악기개량의 명확한 방법과 방도를 찾고 이 사업을 더욱 확신성있게 밀고나갔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렵던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 민족악기의 개량완성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악기는 전쟁을 겪는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더욱 발전하였으며 전후 승리한 조국땅에 울려퍼진 민족대관현악의 튼튼한 터전도 이때에 닦아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민족악기를 민족적 정서와 감정,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량완성시키도록 간곡하게 가르쳐주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악기를 개량하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이렇듯 크나큰 심혈과 로고에 의하여 우리 민족악기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현대화된 훌륭한 악기로 발전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악기들은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친 탁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였으며 음량과 음역이 전반적으로 커졌을뿐아니라 과학적인 음향원리에 기초하여 5음계로부터 12음계로 전환됨으로써 그 어떤 복잡한 곡도 자유자재로 훌륭히 연주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우리의 민족악기는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예술소조들에서도, 어린이들도 그 누구나 다 다룰수 있는 완전히 대중화된 악기로 되였다.

오늘 온 나라의 근로자들과 학생들, 어린이들과 로인들은 일터와 배움터, 집집마다에서 누구나 민족악기를 다루며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이 생활로 꽃펴나는 우리 조국은 민족악기를 어떻게 고수하고 개량완성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참다운 본보기를 보여준 모범의 나라로 되였다.

3

중앙무대에 오른 로동자 예술소조공연

1948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각청사로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얼마전 한 기계공장에 나가시였다가 그곳 로동자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신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이 보여준 예술공연의 종목은 아직 다양하지 못하고 기량상으로도 미숙한 점이 적지 않았지만 연기가 소박하고 로동을 통하여 창조된 실감있는 생활을 반영한것이 매우 좋았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였다.

과거에는 착취와 억압, 생활고에 시달린 그들이 오늘은 로동을 하면서도 기를 펴고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며 연극도 하는것을 보니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로동생활과정에 창작한 노래와 춤들을 내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다시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로동자들의 공연을 재미나게 보고나서 그들에게

공장안에 음악, 연극, 무용 등 여러가지 예술소조를 조직하라고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예술소조를 조직하겠다고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도와주면 그들이 예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게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을 받아안으며 나는 예술소조사업을 소홀히 해온 지난날의 자신의 사업을 놓고 크게 뉘우치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전문예술단체들에 대하여서만 관심을 돌려왔지 공장과 농촌들에 조직되여있는 예술소조에 대하여서는 크게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던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문화선전부문 사업을 맡아보는 우리들자신이 군중문화예술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예술소조사업을 지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군중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전문적인 작가, 작곡가, 연출가, 배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적극 도와주는것입니다. 지금 군중문화예술을 발전시키려는 대중의 열의는 높지만 아직 잘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군중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전문예술단흉내부터 내려 하고있는데 그러지 말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군중문화예술을 발전시키자는것은 그들을 전문예술단체로 만들자고 해서 내세운 방침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대중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키자는것입니다. 로동생활에서 유리되지 않고 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향

유하도록 하자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화선전성이 많은 창작가, 예술가들을 가지고있으니만큼 그들을 로동계급속에 들여보내여 로동자들의 예술활동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이 지금은 수준이 어리나 그들을 좀 도와주고 가르쳐주면 훌륭한 문화예술의 골간대오가 될것이다, 또 이렇게 되면 생산도 올라가고 그들에게 당정책을 침투시키는데도 큰 힘으로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서 군중문화예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명확한 방도를 받아안게 된 나는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격동된 심정을 누를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나는 당장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을 각지의 로동계급속에 파견할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중요한 공장, 기업소들에 시나 소설을 쓰는 작가들, 기악을 하는 사람들, 가수들을 3~4명씩 조를 무어 파견해서 그들이 문학예술소조를 조직도 하고 지도도 하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그 구체적인 방도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처음에는 한 1개월씩 나가서 로동자들과 침식도 같이하고 생산활동에도 함께 참가하면서 저녁에는 악기다루는 법, 악보보는 법, 짤막한 시와 소설을 쓰는 법도 배워주고 노래와 춤, 연극에 대하여서도 가르쳐주면 로동계급속에서 많은 예술후비가 쏟아져나올것이라고 힘주어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군중문화예술을 획기적으로 발

전시키는데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이렇듯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을뿐아니라 자신께서 나가시였던 그 기계공장에 수많은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선물로 보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후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예술소조를 지도하는 성원들을 그이께서 나가보신 그 기계공장을 비롯한 30여개의 큰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이 획기적인 조치에 의하여 군중문화예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이듬해인 1949년 2월에 또다시 그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로동자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였다.

전문예술인들의 도움을 받아 모든 종목들이 그 전해에 비해 사상예술성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이곳 로동자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이제야 제값에 들어섰다고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연종목이 바뀔 때마다 누구보다도 먼저 박수를 보내주시면서 로동계급은 생산활동에서만이 아니라 예술활동에서도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예술소조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1953년 2월 어느날 지하갱도안에서 전시생산을 다그치고있던 이 공장 로동계급을 또다시 찾아주시고 그들이 준비한 소박한 예술소조공연을 세번째로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과 함께 허물없이 널판자를 깔고 앉으시였다. 일군들이 너무나도 송구스러워 낯을 붉

히고있는것을 아시고 전시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생활하는것이니 근심할것 없다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며 공연을 마지막까지 보아주시였다.

공연이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며 승리의 신심에 넘쳐 생활하는 로동계급의 모습을 보니 자못 힘이 생긴다고 하시며 크게 치하까지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공장을 다녀오신지 며칠이 지난뒤 친히 보내신 5대의 자동차로 그곳 예술소조원들을 평양에 데려오시여 수도의 근로자들앞에서 공연하게 하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모란봉지하극장에서 한 그들의 공연은 실로 평양시내 근로자들에게 미제와 맞서싸우는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주건설시기나 전쟁시기 그 어느때나 할것없이 로동계급이 있는곳마다에서는 건설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높이 울리였으며 군중문화예술은 더욱 힘있게 발전하였다.

군중문화예술사업의 거점을 마련하시여

군중문화예술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업의 거점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돌리시였다.

물론 간고한 항일의 나날에는 오늘과 같이 훌륭한 구락

부나 민주선전실 같은 기지들이 없이도 무성한 수림속에 통나무무대를 만들어놓고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공연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을 교양각성시켰을뿐아니라 노래보급, 오락회, 연예대활동 등 다채로운 군중문화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주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고 마음만 먹으면 군중문화예술사업의 거점들을 얼마든지 꾸릴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조국땅에서 간고하던 항일의 그때처럼 이 사업을 진행할수는 없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이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국가계획에 물려 근로자들에게 공장구락부와 문화회관 그리고 농촌민주선전실 등을 지어주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던것이다.

그러던 1954년 이른봄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뜻하지 않은 물으심을 받고 어지간히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중문화예술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일이 생겨 불렀다고 하시면서 전쟁전에 공장, 기업소에서 가지고있던 문화회관가운데서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것이 몇개나 되고 복구해야 할것이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문화선전사업을 맡아보는 일군으로서 응당 알고있어야 할 문제였으나 나는 인차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이미 전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문화선전기지를 튼튼히 꾸려 근로자들속에서 문화정서교양사업을 활발히 진행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이 제시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람들이 주택이 없어 토굴집에서 나오지 못

하고있는 형편에서 문화회관건설문제 같은것은 바쁘지 않다는 제나름의 생각으로 사실상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았던것이다.

나의 태도에서 이 사업이 잘못되고있다는것을 포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탓할 대신에 자신께서 얼마전에 흥남비료공장에 가보았는데 로동자문화회관이 다 파괴되여서 그것을 복구하느니보다 차라리 큼직하게 하나 새로 짓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오시였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나는 그때까지 인민들의 의식주문제가 아직 풀리지 못하고 공장을 복구하는 문제도 시작에 불과한 지금의 조건에서 문화회관건설문제를 상정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잘못 생각해온데 대하여 솔직히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대답을 들으시고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부드러우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장을 복구건설하면서 문화회관도 함께 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로동계급에게 일만 하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로동과 문화생활은 뗄수 없는것입니다. 크게 마음먹고 복구건설계획에 포함시켜 문화회관도 지어주고 다른 여러가지 군중문화시설도 꾸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나는 그이께서 흥남비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수행하였던 일군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 문화회관은 그 형체가 겨우 남아있었을뿐이였다. 지붕은 무너져내리고 허물어지다 남은 벽체가 앙상하게 서있었다. 의자는 물론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이 공장 로동자들과 담화하시였던것이다.

공장의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자리 하나 변변한곳이 없어 몹시 송구스러워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회관무대가까이에 이르시였다.

가마니를 깔고 앉았던 로동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북받치는 격정에 눈물을 흘리며 만세의 환호를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손을 드시여 그들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파괴된 회관을 둘러보시였다.

비록 이때는 하늘이 환하게 올려다보이고 창문 하나, 걸상 한개 성한것이 없는 회관이였지만 해방직후 이 공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자들의 소박한 예술공연을 친히 보아주신 사연깊은 회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의 한 일군이 불에 끄슬린 긴 걸상을 들고 들어와 차마 내놓을수가 없어 망설이고있는것을 보고 웃으시며 거기에 놓으라고, 지금 형편에서 그만하면 꽤 쓸만한 걸상이라고 하시면서 스스럼없이 앉으시였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회관을 이윽토록 둘러보시더니 일군들을 향하여 단호한 어조로 앞으로 공장도 복구하고 회관도 하나 본래것보다 더 크게 본때있게 지어야 하겠다고 힘주어말씀하시였다.

로동계급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돌려주시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공장을 현지지도하고 돌아오신 이후 공장을 복구건설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재를 보내주시면서 이 공장 로동계급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회관건

설에 요구되는 제대군인로력과 거액의 자금까지 따로 돌려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하여 그동안 흥남비료공장 로동자문화회관 건설은 빨리 진척되였다.

흥남비료공장 로동자문화회관은 비료공장과 함께 키돋움하며 일떠섰다.

이런 일을 회고하던 나는 우리 로동계급을 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끼였다.

공장을 복구건설하면서 로동자문화회관도 같이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은 나는 곧 관계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가지고 교시관철대책을 진지하게 의논했다. 건설적인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마침내 공장, 기업소 문화회관들가운데 복구할 대상과 새로 지을 건설대상안을 만들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이 만들어올린 안을 일일이 검토하시고 선후차를 정하여 국가계획에 물려주시였을뿐아니라 푼전이 귀하던 그 어려운 시기에 문화교양시설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금과 자재를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페허를 헤치고 공장, 기업소들이 솟아오를 때에 로동자문화회관들도 일떠섰으며 공장들이 조업할 때에 문화회관들도 개관하였던것이다.

그로부터 몇해가 지난 1957년 3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흥남비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점심시간의 짧은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몸소 발기하시고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이 공장 로동자문화회관을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웅장하게 일떠선 로동자문화회관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며 잘 지었다고, 공장에서 정치사업을 하려면 이런 문화회관을 가지고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관람실에 들어서시여서는 걸상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친히 팔걸이의 높이도 헤아려보시고 관람석과 무대와의 거리도 가늠해보시였으며 무대에 오르시여서는 그 넓이를 헤아려보시고 큰 합창단도 오를수 있게 무대를 더 넓히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200석을 가진 관람실을 비롯하여 각종 련습실, 눈부신 대리석기둥으로 장식한 중앙현관을 돌아보시고 회관을 아주 잘 꾸렸다고 치하해주시면서 이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각종 예술소조활동도 활발히 벌리게 하고 공연도 다양하게 조직하여 로동자들의 문화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의 군중문화예술사업의 거점인 문화회관을 꾸려주시면서 농민들의 문화정서교양사업을 념려하시여 일찌기 농촌의 마을마다에 민주선전실을 꾸려주시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1946년 11월 력사적인 민주선거가 끝난 직후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여 이번 선거를 통하여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꾸려진 선거선전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나는 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본 일이 없었으므로 선거선전사업에 대한 총화가 끝나면 그것을 없애려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은 생각없이 올리는 우리의 대답

을 들으시고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힘을 들여 꾸린 선거선전실을 없앨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선거선전실은 이번 선거에서 아주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근로자들을 부강조국건설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사상문화교양의 거점이 필요합니다. 그 명칭은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민주선전실》이라고 고치는것이 좋겠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는 로동자구락부가 있는것만큼 《민주선전실》은 농촌을 위주로 하여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을 새기며 나는 실로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선거선전실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막대한 물자와 자금, 수많은 품을 들여 선거장마다에 꾸렸던것이다. 선거선전실은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선거를 준비하는 나날 이곳은 인민들에게 일상적으로 친숙해진 배움의 마당으로, 문화생활의 터전으로 되였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을 때 이 선거선전실을 그대로 농민들을 교양하는 기지로, 거점으로 리용할데 대하여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초기혁명활동시기 몸소 오가자와 쟈쟈툰 등 수많은 농촌마을에 나가시여 남의 집 웃간을 깨끗이 꾸려놓고 농민혁명화의 거점으로 리용하시던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여 해방된 우리 나라 농촌마을에도 농민들을 교양하기 위한 거점들을 꾸려야겠다고 이미부터 생각해오시였으며 첫 선거를 계기로 모처럼 꾸려놓은 선거선전실을 농민교양의 기지로, 거점으로 전환시킬것을 발기하시고 친히 그 이름까지 《민주선전실》이라 달아주시였던것

이다.

나는 저도 모르게 기쁨과 감탄의 환성을 올릴번하였다. 참으로 현명한 조치였다.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전환할데 대한 현명한 조치를 강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연부락단위로 《민주선전실》을 꾸리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그 운영에 대해서도 귀중한 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에서는 대중을 사상문화적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거점들이 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꾸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45년에는 한개의 구락부도 없었고 도서실은 불과 7개밖에 없었던것이 1947년에는 구락부와 민주선전실만 하여도 8,985개로 늘어났던것이다. 그리고 1956년말에는 엄혹한 조국해방전쟁을 겪고난 뒤였지만 민주선전실이 4,300개로, 그의 분실이 1만여개로 늘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4년 11월에 리, 읍(구) 민주선전실들에 전임민주선전실장을 배치하도록 배려해주시는 한편 그들이 우리 당의 농업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과 농업협동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국민주선전실장대회까지 마련해주시고 그들이 수행해야 할 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을 현지지도하실 때에 친히 민주선전실에도 들리시여 그 사업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군중문화교양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로동자, 농민들의 교양과 문화정서생활을 념려하시여 공장, 기업소에는 로동자문화회관을, 농촌에는 민주선전실을 꾸

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많은 돈과 로력과 자재를 들여 꾸려놓은 이 시설들이 명실공히 대중교양의 거점이 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1954년 9월하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내각청사로 급한 마음을 안고 달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문화예술부문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민주선전실에 건 그림을 례들어 말씀하시였다.

《민주선전실에 다른 나라 그림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무슨 교양을 주는것이 있습니까. 우리의것이 80%, 다른 나라의것이 20%라면 또 모르겠는데 현재는 99%가 다른 나라것입니다.》

문화선전사업을 당앞에 책임진 일군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적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무책임한 사업태도에 대하여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당시 나는 문화회관이나 민주선전실의 수자를 늘이는데만 급급하면서 그것을 손색없는 대중교양의 거점으로 꾸리는데는 별로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었다.

민주선전실에 붙일 선전화며 3개년인민경제계획에 대한 도표 같은것 하나 제대로 내려보내주지 못했다.

덩실하게 빈집만 세워놓아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는노릇이였다.

그러다나니 다른 사회주의나라에서 들어온 인쇄된 직관물만 아래단위에 내려보내여 결국 우리의것을 선전하는데 큰 후과를 빚어내게 하였던것이였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자책감으로 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있는 나를 이윽토록

지켜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이상 더 나무라지 않으시고 민주선전실을 농민들을 위한 사상문화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릴데 대하여 하나하나 깨우쳐주시면서 지금 종이가 긴장하여 정기간행물을 많이 찍어내지 못하는 실정에서 민주선전실에 신문, 잡지 철을 비치해놓고 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다른 나라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도표와 선전화를 많이 출판하여 민주선전실에 내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민주선전실이나 문화회관을 통하여 청년들은 문학의 밤, 시랑송의 밤, 소설감상회, 선진기술보급토론회 같은것도 조직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민주선전실이나 문화회관에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다양하게 사업들을 조직하여 대중교양의 강력한 거점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그 관철을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이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중문화시설을 꾸리고 운영하는데서 걸린 문제들이 없는지 알아보시고 손수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사업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농촌민주선전실은 농민교양의 위력한 기지로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장, 기업소의 문화회관도 벌써 건물내외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민주선전실과 문화회관을 리용하는 근로자들의 수는 날로 늘어났다.

이무렵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로동자회관에서 로동자들이 준비한 예술써클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공장로동자회관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는데 대하여 못내 만족을 표시하신 그이께서는 오늘 본 시극 같은것은 책 한권 보는것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이런것을 많이 만들어 공연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이 끝나자 회관도 잘 꾸리고 공연도 잘했다고 거듭 치하하시면서 앞으로 독주회, 독창회도 하고 각종 소조활동도 벌리며 공장호상간 교환공연도 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회관을 운영하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런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군중문화사업의 거점들이 전국각지에 훌륭히 꾸려졌으며 그것은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게 되였던것이다.

농민들에게 노래와 춤을 주시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속에서도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이 사업을 몸소 가르쳐주시며 이끌어주시였다.

땅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의 흥겹고 보람찬 생활이 펼쳐지는 전야는 그대로 농민들의 춤이 나오고 노래가 울리는 즐거운 일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을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농사형편과 함께 예술소조운영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군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로 온 나라가 기쁨과 감격으로 흥성거리던 1957년 8월 27일에 있은 일이다.

이날 대동군 금천리 농민들도 모두가 선거장에 떨쳐나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돋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 남포쪽으로 나가시다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이곳 선거장을 찾아주시였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급히 달려온 일군들의 인사를 받으시고 선거정형을 알아보시고는 대견하신 눈길로 흥성거리는 선거장을 바라보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들의 선거장에 찾아오신것을 알게 된 농민들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일제히 그이께로 달려왔다.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농민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선거장마당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흥성거리던 분위기가 즘즘해진것을 보시고 어서들 춤을 추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농장의 예술소조원처녀들이 다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뒤를 따라 많은 군중이 그에 어울려 춤판은 더욱 커지고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마을의 농사형편과 함께 농촌예술소조운영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까지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잊지 않으시고 이 마을의 예술소조원들에게 수십점의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금천리의 예술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예술소조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그후에 있은 전국농촌예술소조경연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나라에서 전국적인 예술축전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하여 1947년부터 시작되였다.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장엄한 로력투쟁이 벌어지고있던 그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15해방 두돐을 성대히 맞기 위한 준비사업의 하나로서 전국적인 예술축전을 조직할데 대한 과업을 우리에게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큰 사업을 치러본 경험이 없다는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 축전을 전문예술단체위주로 조직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예술축전에는 전문예술단체들만 참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지난날 고역속에 시달려온 로동자, 농민들이 많이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술축전은 제1부류와 제2부류로 나누어 하되 제1부류에는 전문예술인들과 문학가들이 참가하게 하며 제2부류에는 로동자, 농민, 청년들이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땅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을 광범히 참가시키는것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현대문명을 등지고 어느 하루도 변한 날이 없이 지주의 채찍밑에서 노예살이만을 강요당해온 우리 농민들이 오늘 땅의 주인이 되고 기를 펴고 살게 된 그 기쁨, 그 행복을 자기들의 노래와 춤에 담아 무대에 올리도록 잘 지도해주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받아안는 나에게는 불현듯 한해전 봄에 있은 일이 떠올랐다.

그것은 해방된 조국에서 진행된 첫 사회경제변혁인 력사적인 토지개혁이 다 끝난 3월말에 있은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을 돌아보고 오시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가 한 농촌마을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는 땅을 받은 농민들이 춤을 추고있었습니다. 새납을 불고 꽹과리와 놋양푼을 두드리면서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고있었습니다.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의 희망찬 래일을 그려보았습니다.

농민들의 말대로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난날 지주놈들의 세상에서 언제 한번 흥겹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본 일이 있었습니까. 춤은 고사하고 눈물과 고역에 시달려 죽지 못해 살아온 그들이 아니였습니까.

그들의 지난 처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농민들을 다시는 그렇게 살게 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때에는 우리 농민들이 마소와 같은 생활을 해야 했고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지만 해방된 오늘에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날 고생속에 살아온 우리 나라의 모든 농민들이 이제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문명하게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농민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며 마음에 입었던 상처를 가시고 기쁨과 희망에 넘쳐 행복을 노래하며 살도록 농촌군중문화예술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르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자면 농촌에서 예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리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모든 농민들**

은 다 예술소조원으로 될수 있습니다.

악보를 보고 악기를 다루며 무대에 출연하는것과 같은 일이 농민들의 생활에서 평범하고 보편적인 일로 되게 만들며 생활이 그대로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춤으로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이 로동생활속에서 예술을 창조하고 그것을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1년나마 지난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예술소조활동의 발전을 대견하게 여기시여 많은 종목이 예술축전무대에 꼭 오르도록 해주시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보살피심속에 축전무대에 오른 농촌예술소조들의 작품은 8.15해방 2주년기념전국예술축전에서 사람들의 특별한 이목을 끌었다.

그가운데서도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낸것은 강원도와 평북도에서 출연한 농악, 황해도에서 들고나온 《봉산탈춤》이였는데 이것들은 모두가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이해부터 예술축전은 국가적인 명절과 기념일을 계기로 진행되여왔다.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축전준비사업으로부터 그 심사에 이르기까지 친히 보살펴주시였으며 농촌예술소조들이 축전에 많이 참가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1955년 봄 어느날 나는 8.15해방 10주년기념예술축전계획서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뵙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때에도 축전을 전문예술단체본위로 하지 말고 로동자, 농민들을 널리 참가시키되 농민들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직사업을 잘해주라고 이르시였다. 그리하여 이해에는 로동자예술소조원들과 함께 농민예술소조원들이 전에없이 많이 참가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예술축

전은 대성황을 이루었었다.

7월하순부터 종합공연이 진행된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그것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친히 극장에 나오시였다.

이날 공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것은 함남도에서 내놓은 퉁소합주 《신아우》였다. 퉁소합주에 참가한 성원들은 나이먹은 농민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퉁소합주를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며 함남도에서 내놓은 고전기악합주 《신아우》가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인차 내려보내지 말고 새로 자라나는 예술인들에게 다 배워주고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우리는 그 퉁소합주를 신인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조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퉁소를 분 그 늙은이들에게 거액의 상금과 함께 고급양복천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은정을 받아안은 그 로인들은 너무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왜놈시대에는 불고싶어도 불수가 없었던 퉁소인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것을 그리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분에 넘치는 선물까지 안겨주시니 이 영광을 대대손손 길이 전하겠다고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민들의 예술소조활동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보살펴주신것은 단순히 그들의 생활을 흥겹게 해주시기 위한데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바로 여기에는 빈궁과 무권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우리의 농민대중을 예술의 창조자, 향유자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우리의 예술을 주체의 요구대로 발전시켜나가며 군중문화예술을 농민들을 새 조국 건설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위

력한 수단으로 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의하여 그후부터는 전국농촌예술소조축전이 따로 진행되였다. 전국농촌예술소조축전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큰걸음으로 발전하였으며 온 나라 인민들이 기대하는 성대한 예술경연행사의 하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은 주체예술이 꽃펴나는 락원으로, 노래도 절로, 춤도 절로 나오는 흥겨운 문화농촌으로 전변되였으며 지난날 문화예술의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당하였던 우리 농민들이 참다운 민족문화예술의 주인으로, 그 창조자, 향유자로 되였다.

민주건국의 나날에

편집 량동수 한경환

낸 곳 조선로동당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6년 10월 1일 발행 1986년 10월 9일

ㄱ—65368 값 2원 40전